



2021

제 30호

# 학생생활연구보

2022. 2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 학생상담센터

# 학생생활연구보

## 제 30 권

### 목 차

▣ 2021학년도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연구-----	1
▣ 2021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36
▣ 2021학년도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연구 -----	95
▣ 202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	135
▣ 202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	148

# 2021학년도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 목 차

I. 서론 .....	5
II. 연구방법 .....	6
1. 조사대상 및 기간 .....	6
2. 조사도구 .....	6
3. 조사내용 .....	6
III. 조사 결과 .....	7
1. 일반사항 .....	7
1) 소속 단과대학 .....	7
2) 성별 .....	9
3) 학년 .....	10
2.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 .....	11
가. 일반 대학적응 .....	11
1)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	11
2)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	13
3)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	15
4)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17
5)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	19
6)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	21
7)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	23
8)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	25
나. 울산대 및 코로나 .....	27

1)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	27
2)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29
<b>IV. 종합 .....</b>	<b>31</b>
<b>1. 일반사항 .....</b>	<b>31</b>
<b>2.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 .....</b>	<b>32</b>
<b>V. 2021학년도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위기사례관리 결과 요약 .....</b>	<b>35</b>

## 표 목 차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8
<표 2>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	12
<표 3>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	14
<표 4>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	16
<표 5>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18
<표 6>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	20
<표 7>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	22
<표 8>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	24
<표 9>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26
<표 10>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	28
<표 11>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30
<표 12> 2021학년도 재학생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실태조사 결과 .....	35
<표 13> 2021학년도 재학생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위기학생 사후관리 결과 .....	35

## 그림목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7
<그림 2> 성별 현황 .....	9
<그림 3> 학년 현황 .....	10
<그림 4>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	11
<그림 5>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	13
<그림 6>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	15
<그림 7>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17
<그림 8>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	19
<그림 9>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	21
<그림 10>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	23
<그림 11>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	25
<그림 12>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	27
<그림 13>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29



# 2021학년도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 연구

## I. 서론

2020년 1월 국내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는 현재까지 장기화 되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증가하며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의 일부를 차지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원격수업, 대학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캠퍼스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다. 온라인 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강의방식 변화로 대학생들은 혼란을 겪어 왔으며, 현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그들의 대학 생활의 전반적인 큰 이변은 앞으로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 되면서 각 대학의 교육 활동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험, 실습, 실기 수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교육이 주가 되었으며, 밀집과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한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등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수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사관리 등에서도 변화가 야기되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학 생활의 중요한 공간인 학교와 다양한 교내 활동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등 학교라는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업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 생활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들의 「with 코로나」 대학 생활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대학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이들의 효율적인 대학 생활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대상은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17,123명이다(2021년 4월 1일 기준). 조사는 2021년 4월 28일~ 5월 19일 21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185명으로 참여율은 6.9%이며 총 1,185명의 데이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College Questionnaire; SACQ) 중 발췌 및 수정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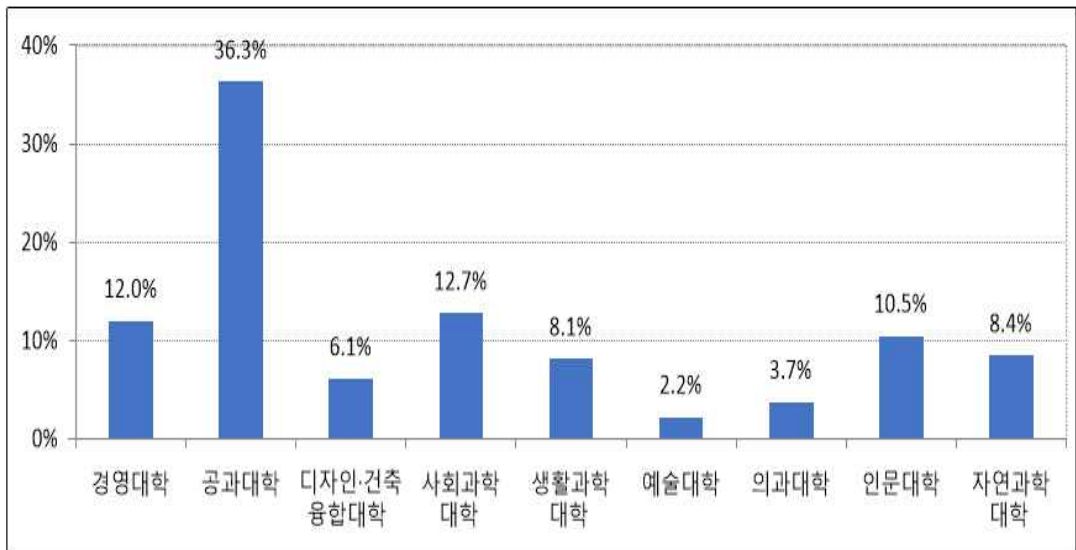
구성영역	구성내용	세부분항
일반사항	인적사항	소속 단과대학
		성별
		학년
「with 코로나」 대학생활 적응	일반 대학적응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울산대 및 코로나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문항수		10문항

### III. 조사 결과

#### 1. 일반사항

##### 1) 소속 단과대학

2021년 울산대학교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실태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185명이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 분포는 <표 1>과 같다. ‘공과대학’이 430명(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151명(12.7%), ‘경영대학’ 142명(12.0%), ‘인문대학’ 124명(10.5%), ‘자연과학대학’ 100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과학대학’은 96명(8.1%),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72명(6.1%), ‘의과대학’은 44명(3.7%)이었으며, ‘예술대학’은 26명(2.2%)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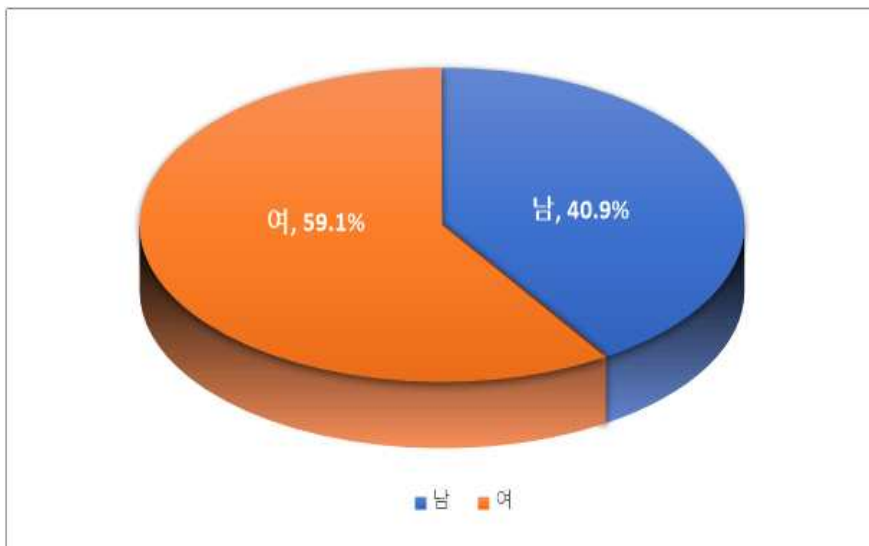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구분		단과대학									전체
		경영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성별	남	52 (10.7)	283 (58.4)	19 (3.9)	42 (8.7)	10 (2.1)	2 (0.4)	7 (1.4)	34 (7.0)	36 (7.4)	485 (40.9)
	여	90 (12.9)	147 (21.0)	53 (7.6)	109 (15.6)	86 (12.3)	24 (3.4)	37 (5.3)	90 (12.9)	64 (9.1)	700 (59.1)
학년	1학년	31 (13.8)	71 (31.6)	14 (6.2)	28 (12.4)	23 (10.2)	4 (1.8)	11 (4.9)	27 (12.0)	16 (7.1)	225 (19.0)
	2학년	20 (7.1)	102 (36.3)	24 (8.5)	39 (13.9)	22 (7.8)	7 (2.5)	16 (5.7)	31 (11.0)	20 (7.1)	281 (23.7)
	3학년	31 (10.1)	126 (40.9)	11 (3.6)	30 (9.7)	25 (8.1)	10 (3.2)	7 (2.3)	35 (11.4)	33 (10.7)	308 (26.0)
	4학년	60 (16.5)	131 (36.0)	16 (4.4)	54 (14.8)	26 (7.1)	5 (1.4)	10 (2.7)	31 (8.5)	31 (8.5)	364 (30.7)
	5학년	0 (0.0)	0 (0.0)	7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0.6)
전체		<b>142</b> <b>(12.0)</b>	<b>430</b> <b>(36.3)</b>	<b>72</b> <b>(6.1)</b>	<b>151</b> <b>(12.7)</b>	<b>96</b> <b>(8.1)</b>	<b>26</b> <b>(2.2)</b>	<b>44</b> <b>(3.7)</b>	<b>124</b> <b>(10.5)</b>	<b>100</b> <b>(8.4)</b>	<b>1,185</b> <b>(100.0)</b>

## 2) 성별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485명(40.9%), 여학생이 700명(59.1%)으로, 여학생이 18.2%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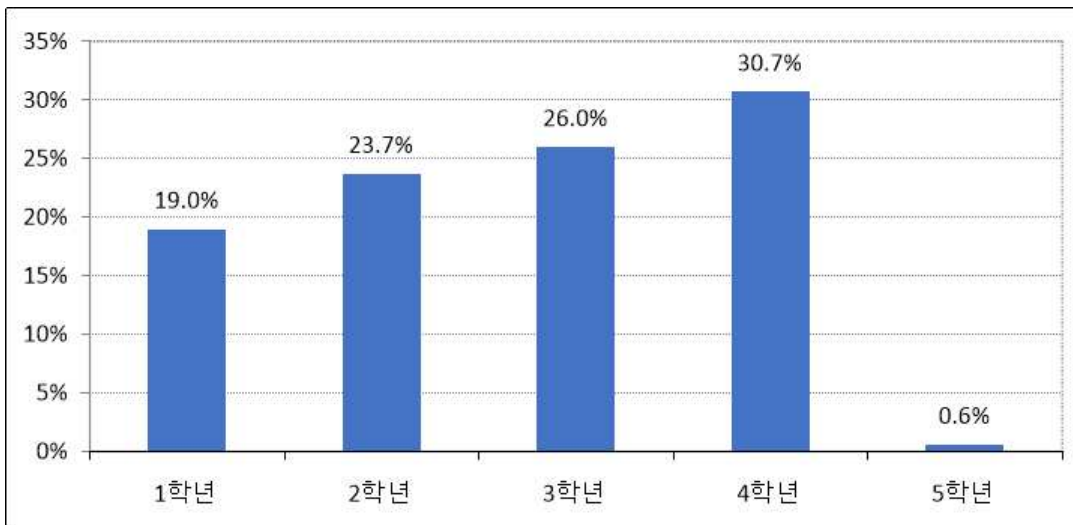
앞의 <표 1>을 참고하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8.4%인 283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0.7%, '사회과학대학' 8.7%, '자연과학대학' 7.4%, '인문대학' 7.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공과대학'이 147명 21.0%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대학' 15.6%, '경영대학', '인문대학' 12.9%, '자연과학대학' 9.1%, '디자인·건축융합대학'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현황

### 3) 학년

재학생의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5학년은 모두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소속으로 소수의 인원이 분포하고 있다. ‘4학년’ 364명(30.7%), ‘3학년’ 308명(26.0%), ‘2학년’이 281명(23.7%), ‘1학년’ 225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의 7명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 학년 현황

## 2. 「With 코로나」 대학생 생활 적응

### 가. 일반 대학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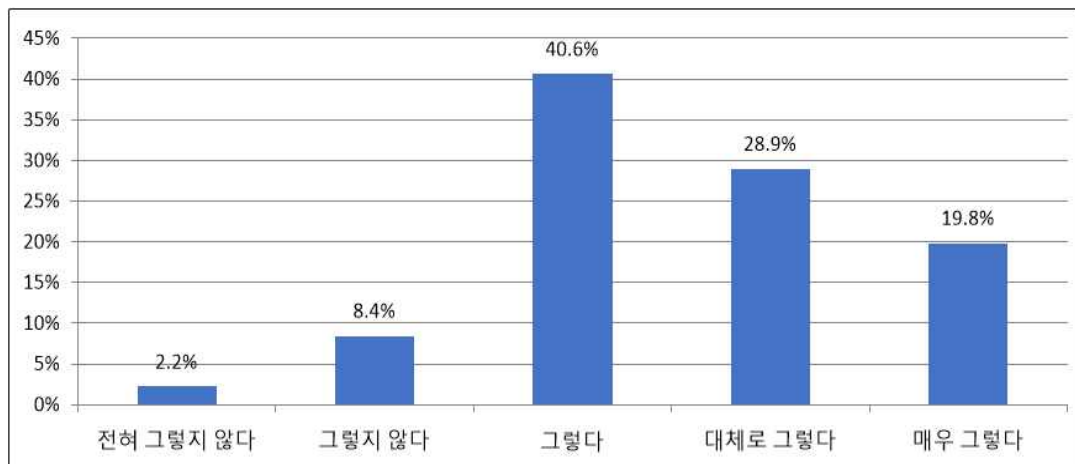
#### 1)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 481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그렇다’ 343명(28.9%), ‘매우 그렇다’ 235명(19.8%), ‘그렇지 않다’ 100명(8.4%), ‘전혀 그렇지 않다’ 26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드(with)코로나로 바뀐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다’가 각각 40.6%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에서는 남학생이 21.0%로 여학생의 19.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그렇다’가 가장 높았고, 2학년, 4학년이 각각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또한 ‘매우 그렇다’에서도 타 학년에 비해 2학년의 비율이 2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작년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 19를 함께 맞이한 2020년도 입학생이었던 2학년은 코로나 2년차인 올해도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새내기들인 1학년도 비교적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 서 사회과학대학이 45.7%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4>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표 2>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8 (3.7)	53 (10.9)	197 (40.6)	115 (23.7)	102 (21.0)	485 (100)
	여	8 (1.1)	47 (6.7)	284 (40.6)	228 (32.6)	133 (19.0)	700 (100)
학년	1학년	5 (2.2)	27 (12.0)	86 (38.2)	69 (30.7)	38 (16.9)	225 (100)
	2학년	6 (2.1)	22 (7.8)	119 (42.3)	73 (26.0)	61 (21.7)	281 (100)
	3학년	5 (1.6)	30 (9.7)	118 (38.3)	95 (30.8)	60 (19.5)	308 (100)
	4학년	10 (2.7)	20 (5.5)	154 (42.3)	105 (28.8)	75 (20.6)	364 (100)
	5학년	0 (0.0)	1 (14.3)	4 (57.1)	1 (14.3)	1 (14.3)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5 (3.5)	11 (7.7)	52 (36.6)	51 (35.9)	23 (16.2)	142 (100)
	공과대학	11 (2.6)	35 (8.1)	178 (41.4)	123 (28.6)	83 (19.3)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 (2.8)	7 (9.7)	30 (41.7)	19 (26.4)	14 (19.4)	72 (100)
	사회과학대학	2 (1.3)	13 (8.6)	69 (45.7)	37 (24.5)	30 (19.9)	151 (100)
	생활과학대학	1 (1.0)	7 (7.3)	34 (35.4)	33 (34.4)	21 (21.9)	96 (100)
	예술대학	1 (3.8)	1 (3.8)	11 (42.3)	7 (26.9)	6 (23.1)	26 (100)
	의과대학	0 (0.0)	1 (2.3)	19 (43.2)	14 (31.8)	10 (22.7)	44 (100)
	인문대학	2 (1.6)	18 (14.5)	46 (37.1)	29 (23.4)	29 (23.4)	124 (100)
	자연과학대학	2 (2.0)	7 (7.0)	42 (42.0)	30 (30.0)	19 (19.0)	100 (100)
<b>전체</b>		<b>26</b> <b>(2.2)</b>	<b>100</b> <b>(8.4)</b>	<b>481</b> <b>(40.6)</b>	<b>343</b> <b>(28.9)</b>	<b>235</b> <b>(19.8)</b>	<b>1,185</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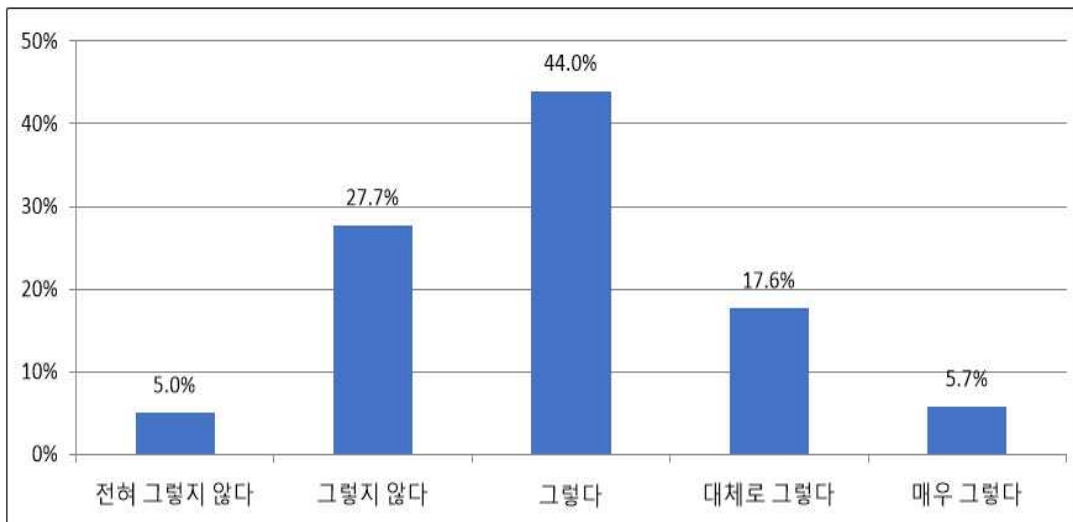
## 2)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가 521명(44.0%), ‘그렇지 않다’ 328명(27.7%), ‘대체로 그렇다’ 209명(17.6%), ‘매우 그렇다’ 68명(5.7%), ‘전혀 그렇지 않다’ 5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45.0%로 남학생의 42.5%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남학생,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그렇다’가 가장 높았으며, 1학년의 비율이 46.2%로 타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학교수업에서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1학년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대학 50.0%, 자연과학대학이 49.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의과대학 15.9%로 나타나 타 단과대학에 비해 대학 공부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표 3>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29 (6.0)	133 (27.4)	206 (42.5)	79 (16.3)	38 (7.8)	485 (100)
	여	30 (4.3)	195 (27.9)	315 (45.0)	130 (18.6)	30 (4.3)	700 (100)
학년	1학년	11 (4.9)	53 (23.6)	104 (46.2)	44 (19.6)	13 (5.8)	225 (100)
	2학년	13 (4.6)	73 (26.0)	124 (44.1)	58 (20.6)	13 (4.6)	281 (100)
	3학년	15 (4.9)	75 (24.4)	135 (43.8)	60 (19.5)	23 (7.5)	308 (100)
	4학년	20 (5.5)	126 (34.6)	154 (42.3)	46 (12.6)	18 (4.9)	364 (100)
	5학년	0 (0.0)	1 (14.3)	4 (57.1)	1 (14.3)	1 (14.3)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3 (9.2)	39 (27.5)	58 (40.8)	28 (19.7)	4 (2.8)	142 (100)
	공과대학	15 (3.5)	112 (26.0)	179 (41.6)	86 (20.0)	38 (8.8)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 (1.4)	23 (31.9)	35 (48.6)	8 (11.1)	5 (6.9)	72 (100)
	사회과학대학	7 (4.6)	48 (31.8)	66 (43.7)	24 (15.9)	6 (4.0)	151 (100)
	생활과학대학	3 (3.1)	27 (28.1)	46 (47.9)	17 (17.7)	3 (3.1)	96 (100)
	예술대학	1 (3.8)	8 (30.8)	13 (50.0)	3 (11.5)	1 (3.8)	26 (100)
	의과대학	0 (0.0)	8 (18.2)	21 (47.7)	8 (18.2)	7 (15.9)	44 (100)
	인문대학	15 (12.1)	35 (28.2)	54 (43.5)	18 (14.5)	2 (1.6)	124 (100)
	자연과학대학	4 (4.0)	28 (28.0)	49 (49.0)	17 (17.0)	2 (2.0)	100 (100)
<b>전체</b>		<b>59</b> <b>(5.0)</b>	<b>328</b> <b>(27.7)</b>	<b>521</b> <b>(44.0)</b>	<b>209</b> <b>(17.6)</b>	<b>68</b> <b>(5.7)</b>	<b>1,185</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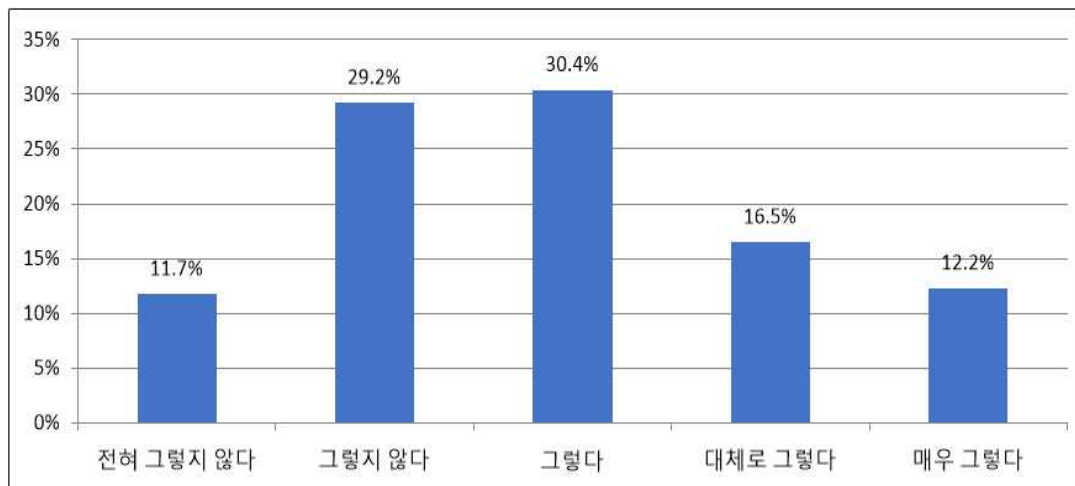
### 3)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1,185명 중 360명(30.4%)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346명(29.2%), ‘대체로 그렇다’ 195명(16.5%), ‘매우 그렇다’ 145명(12.2%), ‘전혀 그렇지 않다’ 139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28.0%로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에서는 남학생이 15.1%로 여학생의 10.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 4학년은 ‘그렇다’가 각각 31.2%, 36.0%로 가장 높았으나, 1학년과 2학년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6.9%, 33.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작년과 이어 올해도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 입학한 새내기 1학년들이 학교에서 새내기의 여러 대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없어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2학년 또한 작년과 같이 올해도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많은 단과대학에서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의과대학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예술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공과대학은 ‘그렇다’의 응답이 각각 50.0%, 37.0%, 30.6%,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두 항목에서 각각 31.8%,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표 4>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63 (13.0)	136 (28.0)	133 (27.4)	80 (16.5)	73 (15.1)	485 (100)
	여	76 (10.9)	210 (30.0)	227 (32.4)	115 (16.4)	72 (10.3)	700 (100)
학년	1학년	53 (23.6)	83 (36.9)	50 (22.2)	30 (13.3)	9 (4.0)	225 (100)
	2학년	32 (11.4)	93 (33.1)	82 (29.2)	43 (15.3)	31 (11.0)	281 (100)
	3학년	33 (10.7)	86 (27.9)	96 (31.2)	53 (17.2)	40 (13.0)	308 (100)
	4학년	21 (5.8)	82 (22.5)	131 (36.0)	67 (18.4)	63 (17.3)	364 (100)
	5학년	0 (0.0)	2 (28.6)	1 (14.3)	2 (28.6)	2 (28.6)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4 (16.9)	41 (28.9)	37 (26.1)	23 (16.2)	17 (12.0)	142 (100)
	공과대학	42 (9.8)	124 (28.8)	129 (30.0)	75 (17.4)	60 (14.0)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6 (8.3)	14 (19.4)	22 (30.6)	21 (29.2)	9 (12.5)	72 (100)
	사회과학대학	23 (15.2)	48 (31.8)	48 (31.8)	21 (13.9)	11 (7.3)	151 (100)
	생활과학대학	11 (11.5)	30 (31.3)	30 (31.3)	13 (13.5)	12 (12.5)	96 (100)
	예술대학	0 (0.0)	6 (23.1)	13 (50.0)	5 (19.2)	2 (7.7)	26 (100)
	의과대학	2 (4.5)	19 (43.2)	14 (31.8)	5 (11.4)	4 (9.1)	44 (100)
	인문대학	20 (16.1)	39 (31.5)	30 (24.2)	16 (12.9)	19 (15.3)	124 (100)
	자연과학대학	11 (11.0)	25 (25.0)	37 (37.0)	16 (16.0)	11 (11.0)	100 (100)
<b>전체</b>		<b>139</b> <b>(11.7)</b>	<b>346</b> <b>(29.2)</b>	<b>360</b> <b>(30.4)</b>	<b>195</b> <b>(16.5)</b>	<b>145</b> <b>(12.2)</b>	<b>1,185</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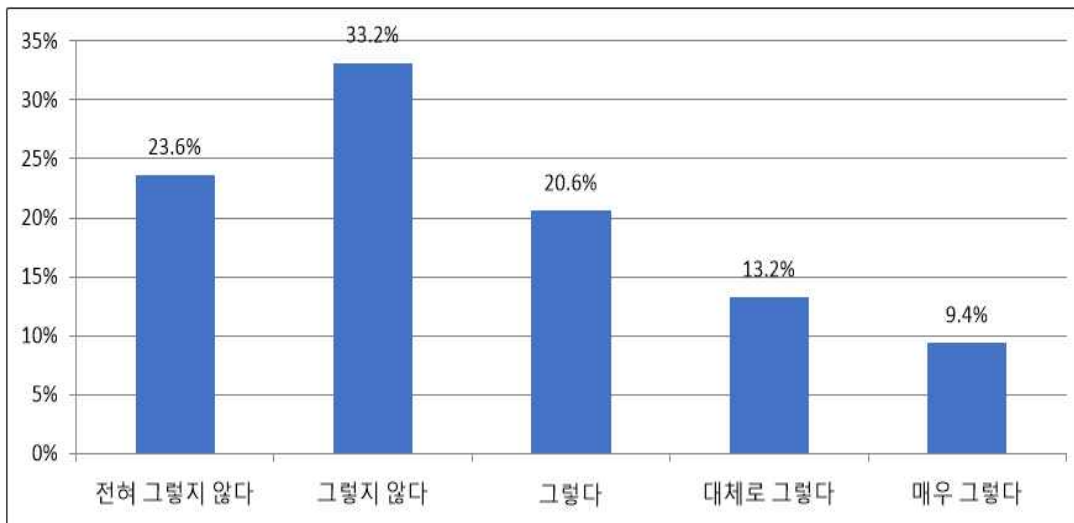
#### 4)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가 393명(33.2%), ‘전혀 그렇지 않다’ 280명(23.6%), ‘그렇다’ 244명(20.6%), ‘대체로 그렇다’ 157명(13.2%), ‘매우 그렇다’ 111명(9.4%)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본교 재학생들이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의 집단 활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35.3%로 남학생 30.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학년에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이 37.4%로 타 학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는 1학년이 28.4%로 타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대학이 42.3%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5>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25 (25.8)	146 (30.1)	102 (21.0)	54 (11.1)	58 (12.0)	485 (100)
	여	155 (22.1)	247 (35.3)	142 (20.3)	103 (14.7)	53 (7.6)	700 (100)
학년	1학년	64 (28.4)	71 (31.6)	39 (17.3)	35 (15.6)	16 (7.1)	225 (100)
	2학년	73 (26.0)	105 (37.4)	50 (17.8)	31 (11.0)	22 (7.8)	281 (100)
	3학년	70 (22.7)	98 (31.8)	61 (19.8)	44 (14.3)	35 (11.4)	308 (100)
	4학년	72 (19.8)	115 (31.6)	93 (25.5)	46 (12.6)	38 (10.4)	364 (100)
	5학년	1 (14.3)	4 (57.1)	1 (14.3)	1 (14.3)	0 (0.0)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44 (31.0)	47 (33.1)	23 (16.2)	19 (13.4)	9 (6.3)	142 (100)
	공과대학	99 (23.0)	136 (31.6)	100 (23.3)	47 (10.9)	48 (11.2)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0 (13.9)	27 (37.5)	12 (16.7)	16 (22.2)	7 (9.7)	72 (100)
	사회과학대학	36 (23.8)	54 (35.8)	28 (18.5)	27 (17.9)	6 (4.0)	151 (100)
	생활과학대학	24 (25.0)	31 (32.3)	14 (14.6)	17 (17.7)	10 (10.4)	96 (100)
	예술대학	4 (15.4)	11 (42.3)	9 (34.6)	1 (3.8)	1 (3.8)	26 (100)
	의과대학	7 (15.9)	18 (40.9)	9 (20.5)	5 (11.4)	5 (11.4)	44 (100)
	인문대학	33 (26.6)	37 (29.8)	24 (19.4)	11 (8.9)	19 (15.3)	124 (100)
	자연과학대학	23 (23.0)	32 (32.0)	25 (25.0)	14 (14.0)	6 (6.0)	100 (100)
<b>전체</b>		<b>280 (23.6)</b>	<b>393 (33.2)</b>	<b>244 (20.6)</b>	<b>157 (13.2)</b>	<b>111 (9.4)</b>	<b>1,185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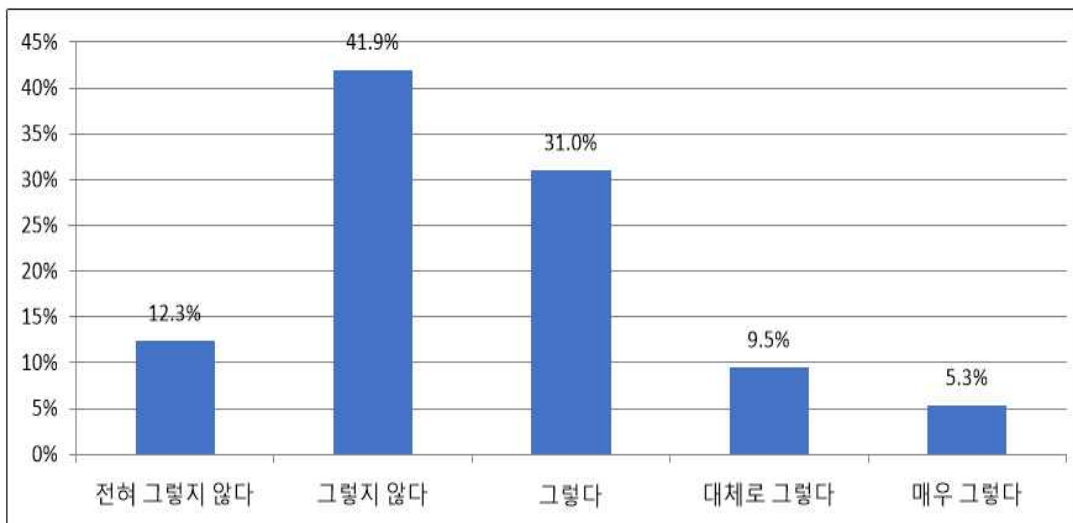
### 5)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가 497명(41.9%), ‘그렇다’ 367명(31.0%), ‘전혀 그렇지 않다’ 146명(12.3%), ‘대체로 그렇다’ 112명(9.5%), ‘매우 그렇다’ 63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 2년 차인 올해에도 코로나 19 이전 대학 생활과 다른 현재 대학 생활에 다소 적응이 되어 재학생들은 비교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의 비율은 남학생이 13.0%로 여학생의 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타 학년에 비해 3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예술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그렇다’ 응답에서 각각 46.2%,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의과대학이 11.4%로 나타나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의 실기와 실습의 비중이 높은 학과들에서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8>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표 6>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63 (13.0)	191 (39.4)	156 (32.2)	53 (10.9)	22 (4.5)	485 (100)
	여	83 (11.9)	306 (43.7)	211 (30.1)	59 (8.4)	41 (5.9)	700 (100)
학년	1학년	28 (12.4)	91 (40.4)	67 (29.8)	27 (12.0)	12 (5.3)	225 (100)
	2학년	37 (13.2)	118 (42.0)	81 (28.8)	32 (11.4)	13 (4.6)	281 (100)
	3학년	25 (8.1)	119 (38.6)	112 (36.4)	33 (10.7)	19 (6.2)	308 (100)
	4학년	56 (15.4)	168 (46.2)	102 (28.0)	20 (5.5)	18 (4.9)	364 (100)
	5학년	0 (0.0)	1 (14.3)	5 (71.4)	0 (0.0)	1 (14.3)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4 (16.9)	59 (41.5)	40 (28.2)	14 (9.9)	5 (3.5)	142 (100)
	공과대학	56 (13.0)	185 (43.0)	123 (28.6)	45 (10.5)	21 (4.9)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 (4.2)	24 (33.3)	31 (43.1)	7 (9.7)	7 (9.7)	72 (100)
	사회과학대학	16 (10.6)	77 (51.0)	42 (27.8)	10 (6.6)	6 (4.0)	151 (100)
	생활과학대학	10 (10.4)	38 (39.6)	35 (36.5)	9 (9.4)	4 (4.2)	96 (100)
	예술대학	1 (3.8)	10 (38.5)	12 (46.2)	2 (7.7)	1 (3.8)	26 (100)
	의과대학	4 (9.1)	16 (36.4)	14 (31.8)	5 (11.4)	5 (11.4)	44 (100)
	인문대학	18 (14.5)	43 (34.7)	39 (31.5)	14 (11.3)	10 (8.1)	124 (100)
	자연과학대학	14 (14.0)	45 (45.0)	31 (31.0)	6 (6.0)	4 (4.0)	100 (100)
<b>전체</b>		<b>146 (12.3)</b>	<b>497 (41.9)</b>	<b>367 (31.0)</b>	<b>112 (9.5)</b>	<b>63 (5.3)</b>	<b>1,185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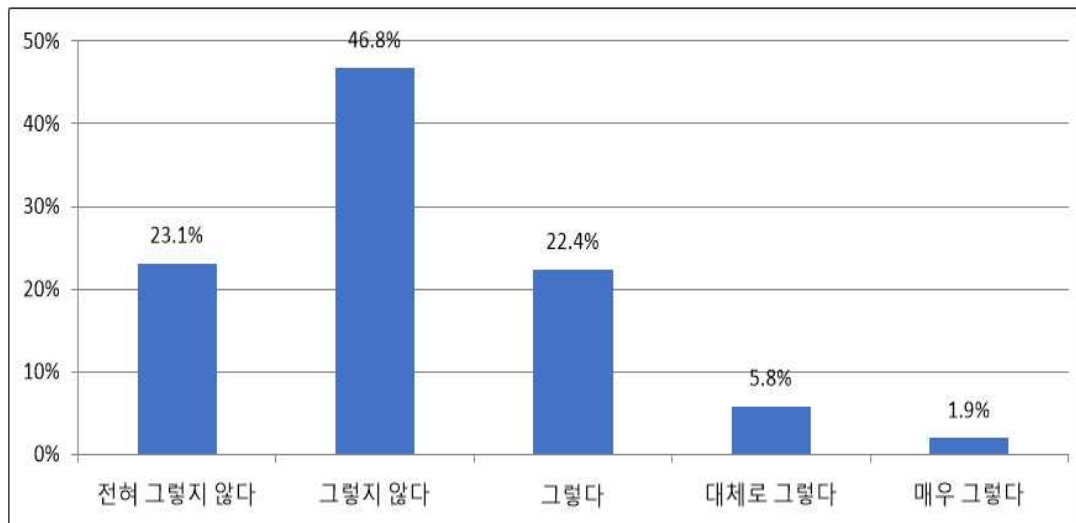
## 6)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 554명(46.8%)이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274명(23.1%), ‘그렇다’ 265명(22.4%), ‘대체로 그렇다’ 69명(5.8%), ‘매우 그렇다’ 2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는 남학생이 27.8%로 여학생의 19.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이 52.6%로 타 학년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학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타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우 그렇다’에서도 타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1학년이 위드(with) 코로나 상황에서 짜증을 내는 일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의과대학이 59.1%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경영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각각 28.2%, 27.8%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표 7>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35 (27.8)	225 (46.4)	95 (19.6)	24 (4.9)	6 (1.2)	485 (100)
	여	139 (19.9)	329 (47.0)	170 (24.3)	45 (6.4)	17 (2.4)	700 (100)
학년	1학년	71 (31.6)	98 (43.6)	45 (20.0)	11 (4.9)	0 (0.0)	225 (100)
	2학년	80 (28.5)	115 (40.9)	59 (21.0)	21 (7.5)	6 (2.1)	281 (100)
	3학년	58 (18.8)	162 (52.6)	63 (20.5)	23 (7.5)	2 (0.6)	308 (100)
	4학년	64 (17.6)	178 (48.9)	94 (25.8)	14 (3.8)	14 (3.8)	364 (100)
	5학년	1 (14.3)	1 (14.3)	4 (57.1)	0 (0.0)	1 (14.3)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38 (26.8)	54 (38.0)	40 (28.2)	8 (5.6)	2 (1.4)	142 (100)
	공과대학	109 (25.3)	209 (48.6)	84 (19.5)	23 (5.3)	5 (1.2)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1 (15.3)	36 (50.0)	20 (27.8)	2 (2.8)	3 (4.2)	72 (100)
	사회과학대학	33 (21.9)	73 (48.3)	34 (22.5)	9 (6.0)	2 (1.3)	151 (100)
	생활과학대학	19 (19.8)	43 (44.8)	26 (27.1)	6 (6.3)	2 (2.1)	96 (100)
	예술대학	2 (7.7)	14 (53.8)	7 (26.9)	2 (7.7)	1 (3.8)	26 (100)
	의과대학	4 (9.1)	26 (59.1)	8 (18.2)	4 (9.1)	2 (4.5)	44 (100)
	인문대학	33 (26.6)	44 (35.5)	31 (25.0)	11 (8.9)	5 (4.0)	124 (100)
	자연과학대학	25 (25.0)	55 (55.0)	15 (15.0)	4 (4.0)	1 (1.0)	100 (100)
<b>전체</b>		<b>274 (23.1)</b>	<b>554 (46.8)</b>	<b>265 (22.4)</b>	<b>69 (5.8)</b>	<b>23 (1.9)</b>	<b>1,185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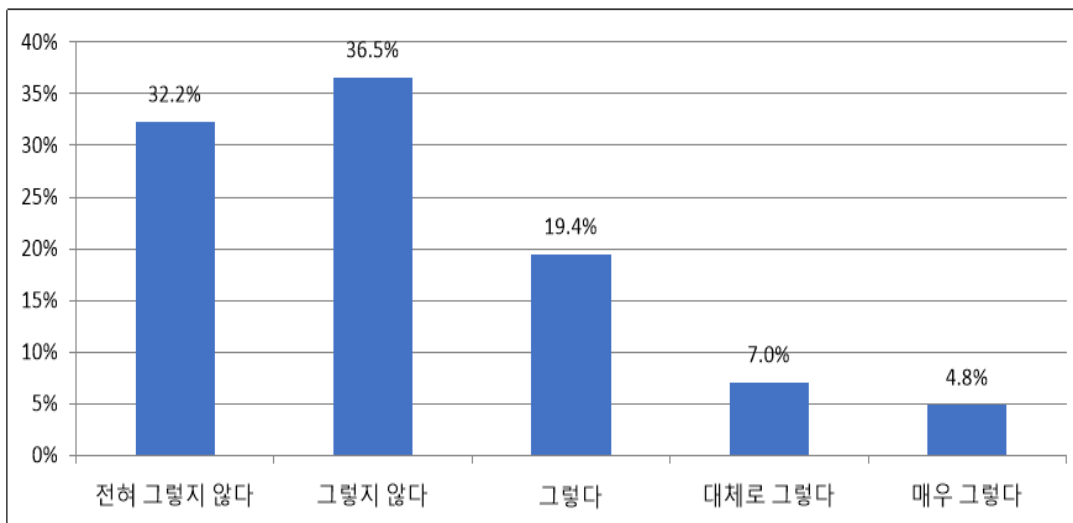
### 7)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1,185명 중 433명(36.5%)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82명(32.2%), ‘그렇다’ 230명(19.4%), ‘대체로 그렇다’ 83명(7.0%), ‘매우 그렇다’ 57명(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보면, 남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3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20.6%로 여학생의 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3, 4학년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4학년이 21.4%로 타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과학대학과 인문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각각 19.4%, 9.7%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 타 단과대학보다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 단과대학보다 과제량도 많고 실습 위주의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숙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0>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표 8>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66 (34.2)	160 (33.0)	100 (20.6)	37 (7.6)	22 (4.5)	485 (100)
	여	216 (30.9)	273 (39.0)	130 (18.6)	46 (6.6)	35 (5.0)	700 (100)
학년	1학년	69 (30.7)	83 (36.9)	47 (20.9)	17 (7.6)	9 (4.0)	225 (100)
	2학년	111 (39.5)	89 (31.7)	54 (19.2)	15 (5.3)	12 (4.3)	281 (100)
	3학년	94 (30.5)	123 (39.9)	51 (16.6)	22 (7.1)	18 (5.8)	308 (100)
	4학년	108 (29.7)	136 (37.4)	78 (21.4)	27 (7.4)	15 (4.1)	364 (100)
	5학년	0 (0.0)	2 (28.6)	0 (0.0)	2 (28.6)	3 (42.9)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46 (32.4)	47 (33.1)	39 (27.5)	7 (4.9)	3 (2.1)	142 (100)
	공과대학	150 (34.9)	163 (37.9)	75 (17.4)	27 (6.3)	15 (3.5)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4 (19.4)	26 (36.1)	11 (15.3)	14 (19.4)	7 (9.7)	72 (100)
	사회과학대학	42 (27.8)	63 (41.7)	24 (15.9)	14 (9.3)	8 (5.3)	151 (100)
	생활과학대학	35 (36.5)	32 (33.3)	20 (20.8)	3 (3.1)	6 (6.3)	96 (100)
	예술대학	3 (11.5)	13 (50.0)	8 (30.8)	0 (0.0)	2 (7.7)	26 (100)
	의과대학	14 (31.8)	14 (31.8)	11 (25.0)	2 (4.5)	3 (6.8)	44 (100)
	인문대학	44 (35.5)	40 (32.3)	24 (19.4)	11 (8.9)	5 (4.0)	124 (100)
	자연과학대학	34 (34.0)	35 (35.0)	18 (18.0)	5 (5.0)	8 (8.0)	100 (100)
<b>전체</b>		<b>382</b> <b>(32.2)</b>	<b>433</b> <b>(36.5)</b>	<b>230</b> <b>(19.4)</b>	<b>83</b> <b>(7.0)</b>	<b>57</b> <b>(4.8)</b>	<b>1,185</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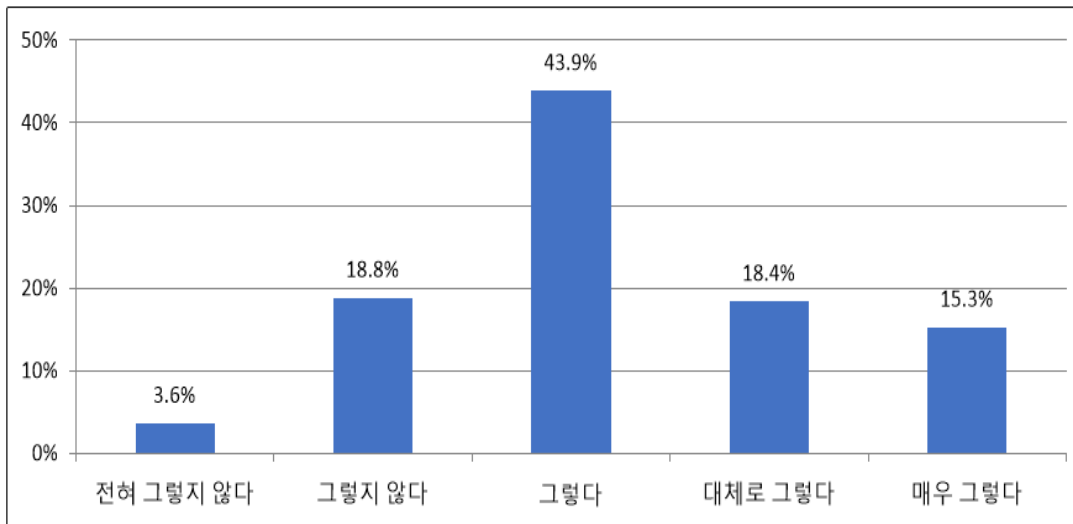
## 8)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나는 최근 식욕이 좋다’의 설문 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가 520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 223명(18.8%), ‘대체로 그렇다’ 218명(18.4%), ‘매우 그렇다’ 181명(15.3%), ‘전혀 그렇지 않다’ 43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중 4학년이 49.2%로 가장 높았고, 3학년이 4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예술대학이 57.7%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34.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렇지 않다’의 응답에서는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표 9>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9 (3.9)	99 (20.4)	200 (41.2)	87 (17.9)	80 (16.5)	485 (100)
	여	24 (3.4)	124 (17.7)	320 (45.7)	131 (18.7)	101 (14.4)	700 (100)
학년	1학년	7 (3.1)	49 (21.8)	94 (41.8)	45 (20.0)	30 (13.3)	225 (100)
	2학년	12 (4.3)	54 (19.2)	120 (42.7)	46 (16.4)	49 (17.4)	281 (100)
	3학년	11 (3.6)	54 (17.5)	125 (40.6)	63 (20.5)	55 (17.9)	308 (100)
	4학년	11 (3.0)	64 (17.6)	179 (49.2)	63 (17.3)	47 (12.9)	364 (100)
	5학년	2 (28.6)	2 (28.6)	2 (28.6)	1 (14.3)	0 (0.0)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0 (0.0)	29 (20.4)	65 (45.8)	25 (17.6)	23 (16.2)	142 (100)
	공과대학	17 (4.0)	89 (20.7)	176 (40.9)	86 (20.0)	62 (14.4)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 (6.9)	16 (22.2)	25 (34.7)	14 (19.4)	12 (16.7)	72 (100)
	사회과학대학	7 (4.6)	25 (16.6)	76 (50.3)	22 (14.6)	21 (13.9)	151 (100)
	생활과학대학	3 (3.1)	16 (16.7)	45 (46.9)	14 (14.6)	18 (18.8)	96 (100)
	예술대학	0 (0.0)	5 (19.2)	15 (57.7)	3 (11.5)	3 (11.5)	26 (100)
	의과대학	2 (4.5)	4 (9.1)	20 (45.5)	9 (20.5)	9 (20.5)	44 (100)
	인문대학	6 (4.8)	23 (18.5)	52 (41.9)	25 (20.2)	18 (14.5)	124 (100)
	자연과학대학	3 (3.0)	16 (16.0)	46 (46.0)	20 (20.0)	15 (15.0)	100 (100)
<b>전체</b>		<b>43</b> <b>(3.6)</b>	<b>223</b> <b>(18.8)</b>	<b>520</b> <b>(43.9)</b>	<b>218</b> <b>(18.4)</b>	<b>181</b> <b>(15.3)</b>	<b>1,185</b> <b>(100)</b>

## 나. 울산대 및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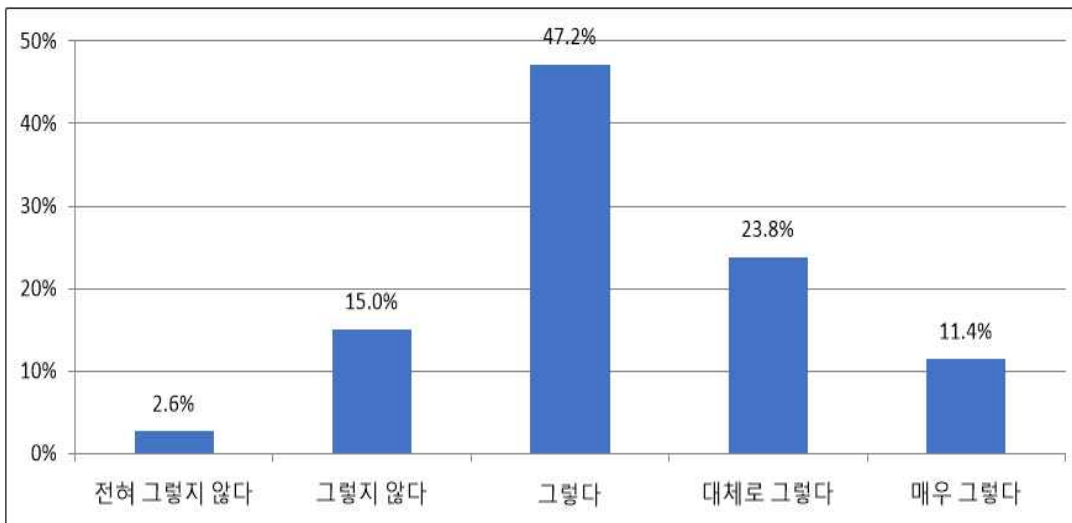
### 1)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의 설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 559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그렇다’ 282명(23.8%), ‘그렇지 않다’ 178명(15.0%), ‘매우 그렇다’ 135명(11.4%), ‘전혀 그렇지 않다’ 31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8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 하는 학생들은 17.6%로 나타나 재학생들의 본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12.4%로 여학생의 10.7%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으로는, 모든 학년이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학년의 경우 본교 선택 만족도가 85.7%로 타 학년보다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의 경우 만족도가 7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이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교 선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예술대학 92.3%이며,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생활과학대학 75.0%로 나타났다.



<그림 12>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표 10>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23 (4.7)	62 (12.8)	216 (44.5)	124 (25.6)	60 (12.4)	485 (100)
	여	8 (1.1)	116 (16.6)	343 (49.0)	158 (22.6)	75 (10.7)	700 (100)
학년	1학년	8 (3.6)	24 (10.7)	93 (41.3)	68 (30.2)	32 (14.2)	225 (100)
	2학년	5 (1.8)	36 (12.8)	139 (49.5)	67 (23.8)	34 (12.1)	281 (100)
	3학년	6 (1.9)	45 (14.6)	156 (50.6)	63 (20.5)	38 (12.3)	308 (100)
	4학년	12 (3.3)	71 (19.5)	167 (45.9)	83 (22.8)	31 (8.5)	364 (100)
	5학년	0 (0.0)	2 (28.6)	4 (57.1)	1 (14.3)	0 (0.0)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 (1.4)	29 (20.4)	62 (43.7)	31 (21.8)	18 (12.7)	142 (100)
	공과대학	17 (4.0)	61 (14.2)	216 (50.2)	98 (22.8)	38 (8.8)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 (1.4)	11 (15.3)	32 (44.4)	22 (30.6)	6 (8.3)	72 (100)
	사회과학대학	2 (1.3)	18 (11.9)	72 (47.7)	40 (26.5)	19 (12.6)	151 (100)
	생활과학대학	0 (0.0)	24 (25.0)	41 (42.7)	18 (18.8)	13 (13.5)	96 (100)
	예술대학	0 (0.0)	2 (7.7)	15 (57.7)	3 (11.5)	6 (23.1)	26 (100)
	의과대학	1 (2.3)	5 (11.4)	16 (36.4)	14 (31.8)	8 (18.2)	44 (100)
	인문대학	5 (4.0)	21 (16.9)	52 (41.9)	28 (22.6)	18 (14.5)	124 (100)
	자연과학대학	3 (3.0)	7 (7.0)	53 (53.0)	28 (28.0)	9 (9.0)	100 (100)
<b>전체</b>		<b>31</b> <b>(2.6)</b>	<b>178</b> <b>(15.0)</b>	<b>559</b> <b>(47.2)</b>	<b>282</b> <b>(23.8)</b>	<b>135</b> <b>(11.4)</b>	<b>1,185</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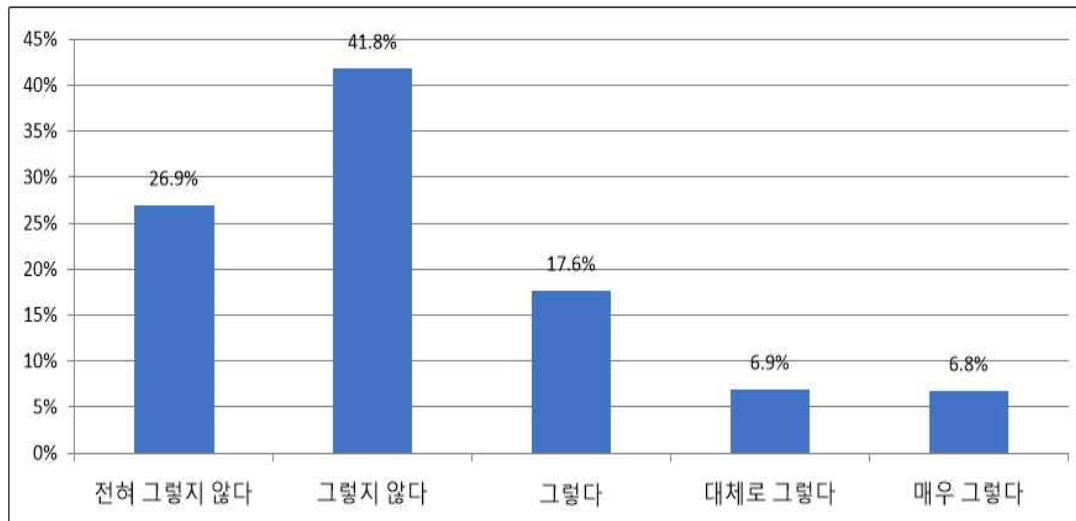
## 2)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의 설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가 495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319명(26.9%), ‘그렇다’ 209명(17.6%), ‘대체로 그렇다’ 82명(6.9%), ‘매우 그렇다’ 80명(6.8%)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인 68.7%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69.7% 여학생의 68.0%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휴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 4학년은 휴학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의 응답의 비율이 각각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의 응답에서는 3학년이 33.8%로 타 학년에 비해 휴학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휴학 의사가 ‘있다’의 평균치가 31.3%임에 반해, 인문대학은 38.8%, 예술대학은 38.4%로 타 단과대학보다 휴학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3>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표 11>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38 (28.5)	200 (41.2)	82 (16.9)	30 (6.2)	35 (7.2)	485 (100)
	여	181 (25.9)	295 (42.1)	127 (18.1)	52 (7.4)	45 (6.4)	700 (100)
학년	1학년	69 (30.7)	89 (39.6)	33 (14.7)	18 (8.0)	16 (7.1)	225 (100)
	2학년	77 (27.4)	117 (41.6)	51 (18.1)	20 (7.1)	16 (5.7)	281 (100)
	3학년	78 (25.3)	126 (40.9)	55 (17.9)	27 (8.8)	22 (7.1)	308 (100)
	4학년	95 (26.1)	161 (44.2)	66 (18.1)	17 (4.7)	25 (6.9)	364 (100)
	5학년	0 (0.0)	2 (28.6)	4 (57.1)	0 (0.0)	1 (14.3)	7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44 (31.0)	51 (35.9)	23 (16.2)	16 (11.3)	8 (5.6)	142 (100)
	공과대학	114 (26.5)	190 (44.2)	75 (17.4)	29 (6.7)	22 (5.1)	430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2 (16.7)	33 (45.8)	15 (20.8)	4 (5.6)	8 (11.1)	72 (100)
	사회과학대학	40 (26.5)	59 (39.1)	26 (17.2)	13 (8.6)	13 (8.6)	151 (100)
	생활과학대학	26 (27.1)	43 (44.8)	17 (17.7)	4 (4.2)	6 (6.3)	96 (100)
	예술대학	4 (15.4)	12 (46.2)	9 (34.6)	0 (0.0)	1 (3.8)	26 (100)
	의과대학	16 (36.4)	20 (45.5)	5 (11.4)	1 (2.3)	2 (4.5)	44 (100)
	인문대학	34 (27.4)	42 (33.9)	25 (20.2)	8 (6.5)	15 (12.1)	124 (100)
	자연과학대학	29 (29.0)	45 (45.0)	14 (14.0)	7 (7.0)	5 (5.0)	100 (100)
<b>전체</b>		<b>319</b> <b>(26.9)</b>	<b>495</b> <b>(41.8)</b>	<b>209</b> <b>(17.6)</b>	<b>82</b> <b>(6.9)</b>	<b>80</b> <b>(6.8)</b>	<b>1,185</b> <b>(100)</b>

## IV. 종합

본 조사는 2021학년도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College Questionnaire; SACQ) 중 발췌 및 수정한 10개 문항인, 「With 코로나」 대학생활 적응검사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4월 28일~ 5월 19일까지 총 21일간이었으며, 울산대학교 학생포털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지율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1,185명으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사항

#### ■ 소속 단과대학, 성별, 학년

‘공과대학’이 430명(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151명(12.7%), ‘경영대학’ 142명(12.0%), ‘인문대학’ 124명(10.5%), ‘자연과학대학’ 100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과학대학’은 96명(8.1%),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72명(6.1%), ‘의과대학’은 44명(3.7%)이었으며, ‘예술대학’은 26명(2.2%)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485명(40.9%), 여학생이 700명(59.1%)으로, 여학생이 18.2%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8.4%인 283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0.7%, ‘사회과학대학’ 8.7%, ‘자연과학대학’ 7.4%, ‘인문대학’ 7.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공과대학’이 147명 21.0%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대학’ 15.6%, ‘경영대학’, ‘인문대학’ 12.9%, ‘자연과학대학’ 9.1%, ‘디자인·건축융합대학’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5학년은 모두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소속으로 소수의 인원이 분포하고 있다. ‘4학년’ 364명(30.7%), ‘3학년’ 308명(26.0%), ‘2학년’이 281명(23.7%), ‘1학년’ 225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의 7명으로 전체의 0.6%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2. 「with 코로나」 대학 생활 적응

### 가. 일반 대학적응

#### ■ 나는 지금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 481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그렇다’ 343명(28.9%), ‘매우 그렇다’ 235명(19.8%), ‘그렇지 않다’ 100명(8.4%), ‘전혀 그렇지 않다’ 26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드(with)코로나로 바뀐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다’가 각각 40.6%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에서는 남학생이 21.0%로 여학생의 19.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 나는 대학 공부가 어렵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가 521명(44.0%), ‘그렇지 않다’ 328명(27.7%), ‘대체로 그렇다’ 209명(17.6%), ‘매우 그렇다’ 68명(5.7%), ‘전혀 그렇지 않다’ 5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45.0%로 남학생의 42.5%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남학생,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나는 대학에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전체 1,185명 중 360명(30.4%)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346명(29.2%), ‘대체로 그렇다’ 195명(16.5%), ‘매우 그렇다’ 145명(12.2%), ‘전혀 그렇지 않다’ 139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28.0%로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에서는 남학생이 15.1%로 여학생의 10.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 나는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가 393명(33.2%), ‘전혀 그렇지 않다’ 280명(23.6%), ‘그렇다’ 244명(20.6%), ‘대체로 그렇다’ 157명(13.2%), ‘매우 그렇다’ 111명(9.4%)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본교 재학생들이 과 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의 집단 활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35.3%로 남학생 30.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 나는 요즘 대학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가 497명(41.9%), ‘그렇다’ 367명(31.0%), ‘전혀 그렇지 않다’ 146명(12.3%), ‘대체로 그렇다’ 112명(9.5%), ‘매우 그렇다’ 63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 2년차인 올해에도 코로나 19 이전 대학 생활과 다른 대학 생활에 다소 적응이 되어 재학생들은 비교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의 비율은 남학생이 13.0%로 여학생의 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 ■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 554명(46.8%)가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274명(23.1%), ‘그렇다’ 265명(22.4%), ‘대체로 그렇다’ 69명(5.8%), ‘매우 그렇다’ 2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는 남학생이 27.8%로 여학생의 19.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전체 1,185명 중 433명(36.5%)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82명(32.2%), ‘그렇다’ 230명(19.4%), ‘대체로 그렇다’ 83명(7.0%), ‘매우 그렇다’ 57명(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보면, 남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

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3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20.6%로 여학생의 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 ■ 나는 최근에 식욕이 없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가 520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 223명(18.8%), ‘대체로 그렇다’ 218명(18.4%), ‘매우 그렇다’ 181명(15.3%), ‘전혀 그렇지 않다’ 43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나. 울산대 및 코로나

### ■ 나는 내가 울산대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전체 1,185명 중 ‘그렇다’ 559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그렇다’ 282명(23.8%), ‘그렇지 않다’ 178명(15.0%), ‘매우 그렇다’ 135명(11.4%), ‘전혀 그렇지 않다’ 31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82.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 하는 학생들은 17.6%로 나타나 재학생들의 본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12.4%로 여학생의 10.7%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 나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전체 1,185명 중 ‘그렇지 않다’가 495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319명(26.9%), ‘그렇다’ 209명(17.6%), ‘대체로 그렇다’ 82명(6.9%), ‘매우 그렇다’ 80명(6.8%)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인 68.7%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69.7% 여학생의 68.0%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학 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휴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V. 2021학년도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위기사례관리 결과 요약

2021학년도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 검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185명 이었고, 본 조사에 사용된 대학생활적응 척도 10개 문항에서 1~8번(일반대학적응)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 결과의 평균 점수에 따라 위기사례로 분류 하였다. ‘조금 위험’ 279명(23.5%), ‘많이 위험’ 32명(2.7%)으로 위기사례 사후관리 대상자는 311명 이었으며, 전체의 26.2% 비율이다.

(※ 1-8번 문항 평균 2.5점 미만-‘조금 위험’, 1-8번 문항 2.0점 미만-‘많이 위험’)

<표 12> 2021학년도 재학생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실태조사 결과

구분	경영 대학	공과 대학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사회 과학 대학	생활 과학 대학	예술 대학	의과 대학	인문 대학	자연 과학 대학	계
총 인원	142	430	72	151	96	26	44	124	100	1,185
위 기사례	조금 위험 (30.3)	103 (23.9)	9 (12.5)	42 (27.8)	17 (17.7)	3 (11.5)	4 (9.1)	35 (28.2)	23 (23.0)	279 (23.5)
	많이 위험 (2.1)	14 (3.3)	0 (0.0)	4 (2.6)	2 (2.1)	0 (0.0)	0 (0.0)	5 (4.0)	4 (4.0)	32 (2.7)

<표 13> 2021학년도 재학생 「with 코로나」 대학생활적응검사 위기 학생 사후관리 결과

구분	조금 위험 (평균 점수 2.5점 미만)	많이 위험 (평균 점수 2.0점 미만)		
인원	279명 (23.5%)	32명 (2.7%)		
위기사례 관리	메일 발송	전화 상담		
		29명 통화불응 3명		
< 고위험군(많이 위험) 사후관리 현황 >				
전화상담 29명	심리검사		개인상담	
	신청	27명(68건)	신청	21명
	검사실시	27명(68건)	PAI검사	18명(18건)
	해석상담	22명(58건)/ 5명 불참	접수면접/상담연계	15명/15명





# 2021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 목 차

I. 서론 .....	40
II. 연구방법 .....	41
1. 조사대상 및 기간 .....	41
2. 조사도구 .....	41
3. 조사내용 .....	41
III. 조사 결과 .....	43
1. 일반사항 .....	43
1) 소속 단과대학 .....	43
2) 성별 .....	44
3) 편입 전 학력 배경 .....	45
4) 편입 후 거주형태 .....	47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	49
6) 가정 경제 수준 .....	51
2. 대학 생활 전반 .....	53
1) 본교 편입학 만족도 .....	53
2)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	55
3)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	57
4)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	59
5)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	61
6)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	63
3. 정신건강 .....	65

1)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	65
2)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	67
3)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	69
4)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	71
5)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	73
<b>4. 진로심리상담센터 서비스 .....</b>	<b>75</b>
1)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	75
2)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	77
3)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	79
4)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	81
5)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	83
6)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	85
<b>IV. 종합 .....</b>	<b>87</b>
1. 일반사항 .....	87
2. 대학 생활 전반 .....	89
3. 정신건강 .....	91
4. 진로심리상담센터 서비스 .....	92

## 표 목 차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43
<표 2> 편입 전 학력 배경 .....	46
<표 3> 편입 후 거주형태 .....	48
<표 4> 출신 고등학교 유형 .....	50
<표 5> 가정 경제 수준 .....	52
<표 6> 본교 편입학 만족도 .....	54
<표 7>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	56
<표 8>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	58
<표 9>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	60
<표 10>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	62
<표 11>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	64
<표 12>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	66
<표 13>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	68
<표 14>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	70
<표 15>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	72
<표 16>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	74
<표 17>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	76
<표 18>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	78
<표 19>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	80
<표 20>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	82
<표 21>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	84
<표 22>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	86

## 그림목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43
<그림 2> 성별 현황 .....	44
<그림 3> 편입 전 학력 배경 .....	45
<그림 4> 편입 후 거주형태 .....	47
<그림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	49
<그림 6> 가정 경제 수준 .....	51
<그림 7> 본교 편입학 만족도 .....	53
<그림 8>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	55
<그림 9>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	57
<그림 10>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	59
<그림 11>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	61
<그림 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	63
<그림 13>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	65
<그림 14>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	67
<그림 15>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	69
<그림 16>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	71
<그림 17>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	73
<그림 18>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	75
<그림 19>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	77
<그림 20>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	79
<그림 21>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	81
<그림 22>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	83
<그림 23>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	85

# 2021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 I. 서론

대학진학 이후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대학 내로 옮겨가는 전과와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는 편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편입은 진로 변경의 한 분야로서 상위대학이나 다른 대학으로 가는 선택지로 활용된다. 편입이란 재수나 반수 없이 학업을 이어가다 다른 대학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으로, 대학생의 대학 간 이동을 뜻한다(오영재, 2005). 학생 차원에서 편입은 새로운 전공 또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장해가는 적극적 과정을 의미한다(박병영, 김미숙, 김수연, 2008).

최근 5년간 편입생 수는 2015년 33,928명에서 2019년 38,843명으로 4,915명 증가하였다. 전체 재적생에서 편입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1.63%에서 2019년 1.95%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적변동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살펴보면,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2012)은 상당수의 대학생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부재하거나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한다고 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매사를 실천하고 책임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처한 개인적·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허문희, 홍용희, 2002).

이에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편입 생활에 대한 효과적인 대학 차원의 지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1학년도 편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앞으로 울산대학교에 편입하는 재학생들에게 전공, 적성, 진로 선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학업 부적응 요인들을 파악하여 편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대상은 2021년 울산대학교 편입생 251명(2020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6월 16일~ 7월 9일 21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편입생은 총 123명으로 참여율은 49.0%이며 총 123명의 데이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도구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입생 실태조사’의 문항들을 편입생들에 맞춰 수정·보완한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영역	구성내용	세부문항
일반사항	인적사항	소속 단과대학
		성별
		편입 전 학력 배경
		편입 후 거주형태
		출신 고등학교 유형
		가정 경제 수준
대학생활 전반	일반 대학적응	본교 편입학 만족도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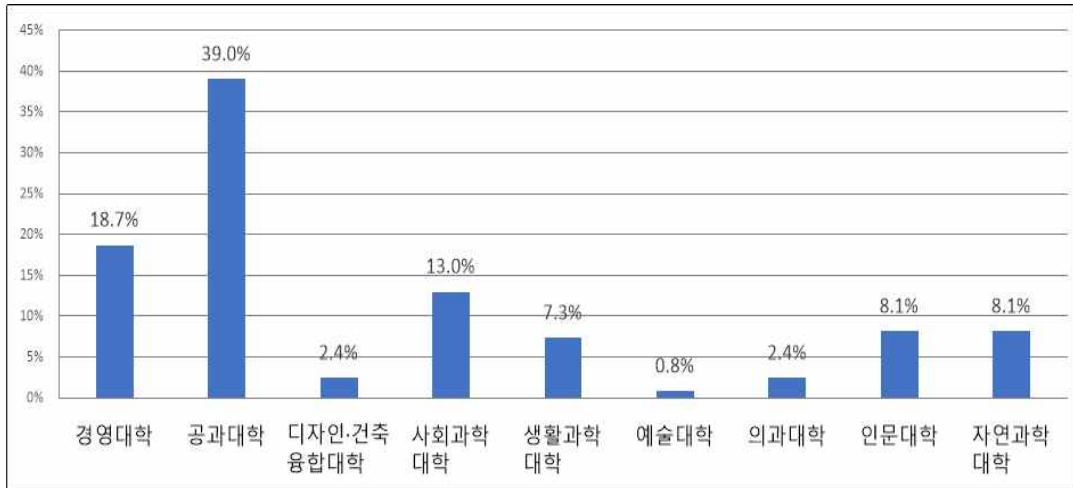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정신건강	정신건강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최근 3개월간 분노에 경험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진로심리 상담센터	진로심리 상담센터 서비스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b>문항수</b>		23문항

### III. 조사 결과

#### 1. 일반사항

##### 1) 소속 단과대학

2021년 울산대학교 편입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23명이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공과대학’이 48명(3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영대학’ 23명(18.7%), ‘사회과학대학’ 16명(13.0%),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각각 10명(8.1%), ‘생활과학대학’ 9명(7.3%),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의과대학’은 각각 3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1명(0.8%)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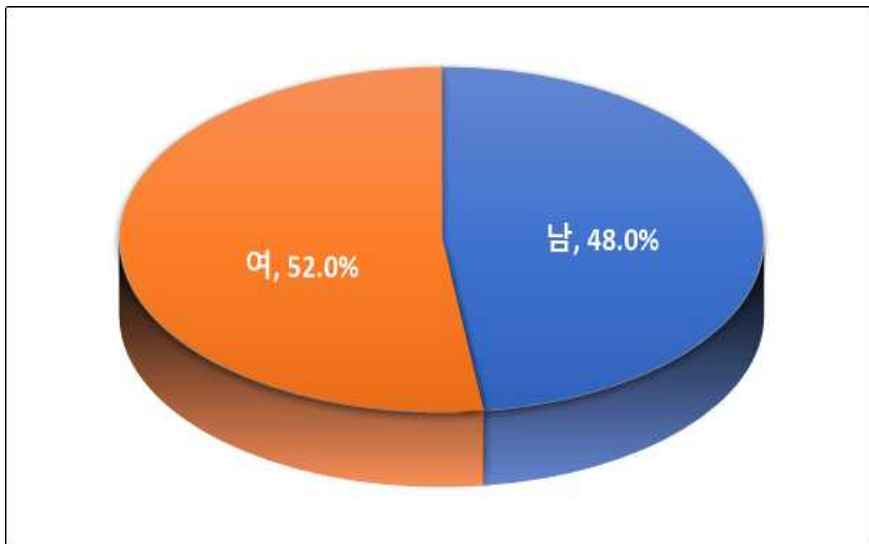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구분	단과대학										전체
	경영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성별	남	6 (10.2)	39 (66.1)	1 (1.7)	4 (6.8)	1 (1.7)	0 (0.0)	0 (0.0)	3 (5.1)	5 (8.5)	59 (100.0)
	여	17 (26.6)	9 (14.1)	2 (3.1)	12 (18.8)	8 (12.5)	1 (1.6)	3 (4.7)	7 (10.9)	5 (7.8)	64 (100.0)
전체	23 (18.7)	48 (39.0)	3 (2.4)	16 (13.0)	9 (7.3)	1 (0.8)	3 (2.4)	10 (8.1)	10 (8.1)	123 (100)	

## 2) 성별

조사에 참여한 편입생 123명의 성별은 남학생이 59명(48.0%), 여학생이 64명(52.0%)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명이 많아 4.0% 차이를 보였다.

앞의 <표 1>을 참고하면 남학생 중 39명(66.1%)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단과대학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6명(10.2%), '자연과학대학' 5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분포된 단과대학은 '경영대학' 소속으로 17명(26.6%),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이 12명(18.8%), 공과대학이 9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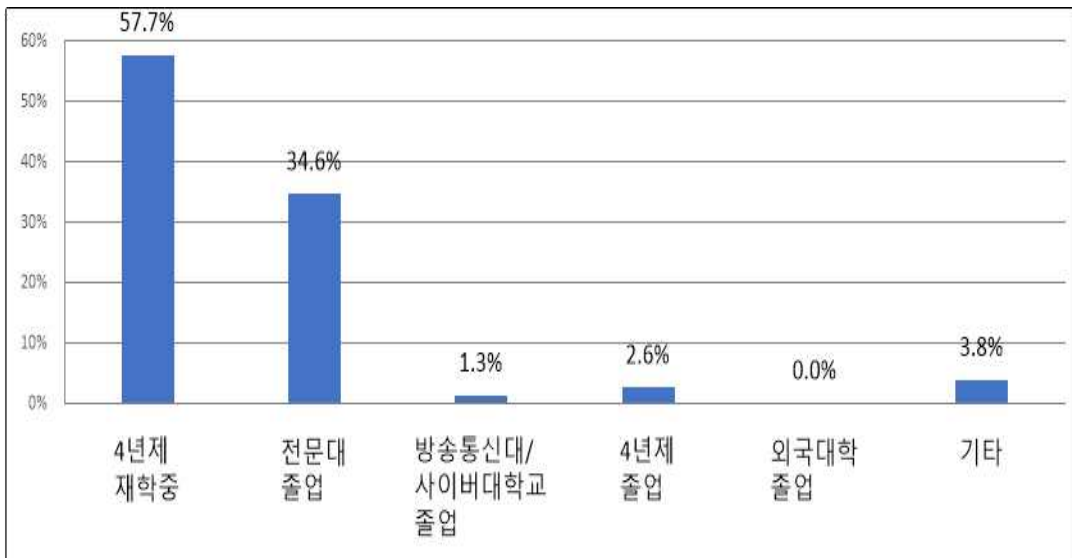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현황

### 3) 편입 전 학력 배경

편입생들의 편입 전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편입생들은 편입 전에 ‘전문대 졸업’이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61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4년제 재학 중’이 53명(43.1%)으로 나타났다. ‘4년제 졸업’은 4명(3.3%),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졸업’과 ‘기타’는 각각 2명(1.6%), ‘외국대학’은 1명(0.8%)으로 나타났다.

편입 전 학력 배경의 남녀 비율은 차이가 났다. 남학생은 ‘4년제 재학 중’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전문대 졸업 후’가 가장 높았다.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의 편입생들은 ‘전문대 졸업’ 후에 편입을 한 비율이 높았으나 공과대학, 인문대학의 경우는 ‘4년제 재학’ 중에 편입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편입 전 학력 배경

<표 2> 편입 전 학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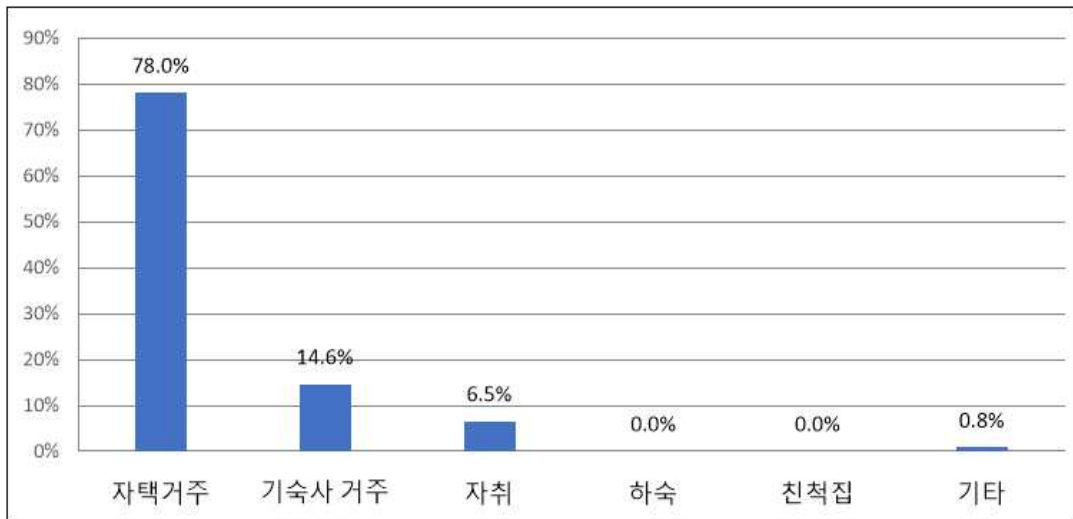
구분		4년제 재학	전문대 졸업	방송통신대 / 사이버 대학 졸업	4년제 졸업	외국대학 졸업	기타	전체
성별	남	30 (50.8)	24 (40.7)	2 (3.4)	1 (1.7)	1 (1.7)	1 (1.7)	59 (100.0)
	여	23 (35.9)	37 (57.8)	0 (0.0)	3 (4.7)	0 (0.0)	1 (1.6)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3 (13.0)	17 (73.9)	1 (4.3)	1 (4.3)	0 (0.0)	1 (4.3)	23 (100.0)
	공과대학	27 (56.3)	20 (41.7)	0 (0.0)	0 (0.0)	1 (2.1)	0 (0.0)	48 (10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7 (43.8)	9 (56.3)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1 (11.1)	8 (88.9)	0 (0.0)	0 (0.0)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의과대학	1 (33.3)	0 (0.0)	0 (0.0)	2 (66.7)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8 (80.0)	1 (10.0)	1 (10.0)	0 (0.0)	0 (0.0)	0 (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5 (50.0)	5 (5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b>전체</b>		<b>53 (43.1)</b>	<b>61 (49.6)</b>	<b>2 (1.6)</b>	<b>4 (3.3)</b>	<b>1 (0.8)</b>	<b>2 (1.6)</b>	<b>123 (100.0)</b>

#### 4) 편입 후 거주형태

편입생의 입학 후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택 거주’가 96명(7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거주’ 18명(14.6%), ‘자취’ 8명(6.5%), ‘기타’ 1명(0.8%), 하숙, 친척집은 각각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택 거주’가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이 79.7%로 남학생의 76.3%보다 조금 높았다. ‘기숙사 거주’는 남학생 18.6%, 여학생 10.9%로 남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자취’는 여학생 9.4%, 남학생 3.4%로 여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자택 거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공과대학은 64.6%로 타 단과대학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의과대학은 ‘기숙사 거주’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편입 후 거주형태

<표 3> 편입 후 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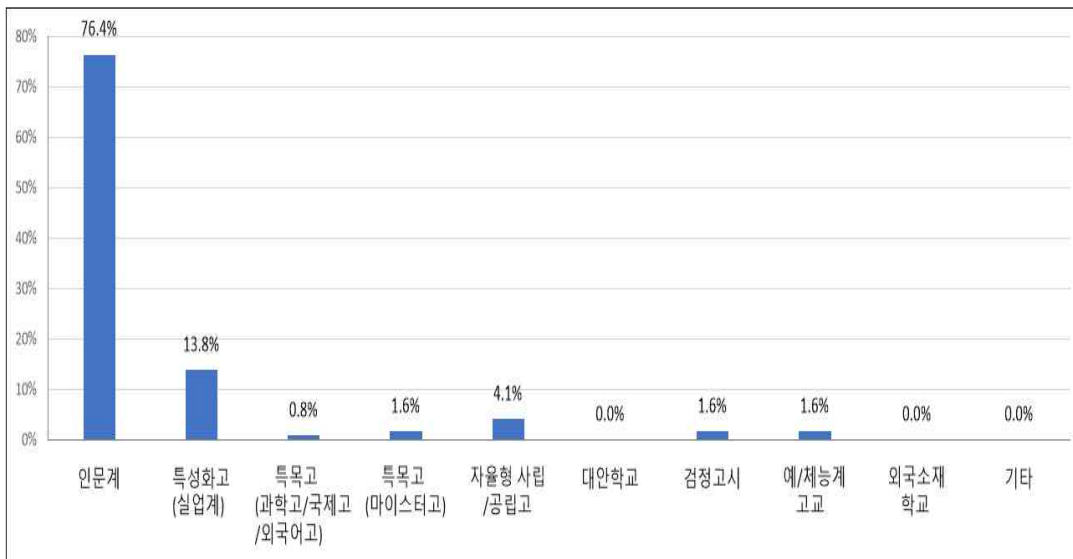
구분		자택 거주	기숙사 거주	자취	하숙	친척집	기타	전체
성별	남	45 (76.3)	11 (18.6)	2 (3.4)	0 (0.0)	0 (0.0)	1 (1.7)	59 (100.0)
	여	51 (79.7)	7 (10.9)	6 (9.4)	0 (0.0)	0 (0.0)	0 (0.0)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0 (87.0)	0 (0.0)	3 (13.0)	0 (0.0)	0 (0.0)	0 (0.0)	23 (100.0)
	공과대학	31 (64.6)	13 (27.1)	3 (6.3)	0 (0.0)	0 (0.0)	1 (2.1)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15 (93.8)	0 (0.0)	1 (6.3)	0 (0.0)	0 (0.0)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8 (88.9)	1 (11.1)	0 (0.0)	0 (0.0)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9 (9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8 (80.0)	1 (10.0)	1 (10.0)	0 (0.0)	0 (0.0)	0 (0.0)	10 (100.0)
<b>전체</b>	<b>96 (78.0)</b>	<b>18 (14.6)</b>	<b>8 (6.5)</b>	<b>0 (0.0)</b>	<b>0 (0.0)</b>	<b>1 (0.8)</b>	<b>123 (100.0)</b>	

##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편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94명(7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실업계)가 17명(1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율형 사립/공립고는 5명(4.1%)으로 나타났다며, 특목고(마이스터고), 검정고시, 예/체능계 고교는 각각 2명(2.6%), 특목고(과학고/국제고, 외국어고) 1명(0.8%), 대안학교와 외국 소재 학교, 기타는 각각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인문계’ 81.4%, ‘특성화고(실업계)’ 10.2%, 자율형 사립/공립고 6.8%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인문계’ 71.9%, ‘특성화고(실업계)’ 17.2%., ‘검정고시’, ‘예/체능계 고교’ 각각 3.1%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인문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과학대학이 90.0%로 가장 높았고, 경영대학이 6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성화고(실업계)’ 항목에서는 생활과학대학이 33.3%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5> 출신 고등학교 유형



<표 4> 출신 고등학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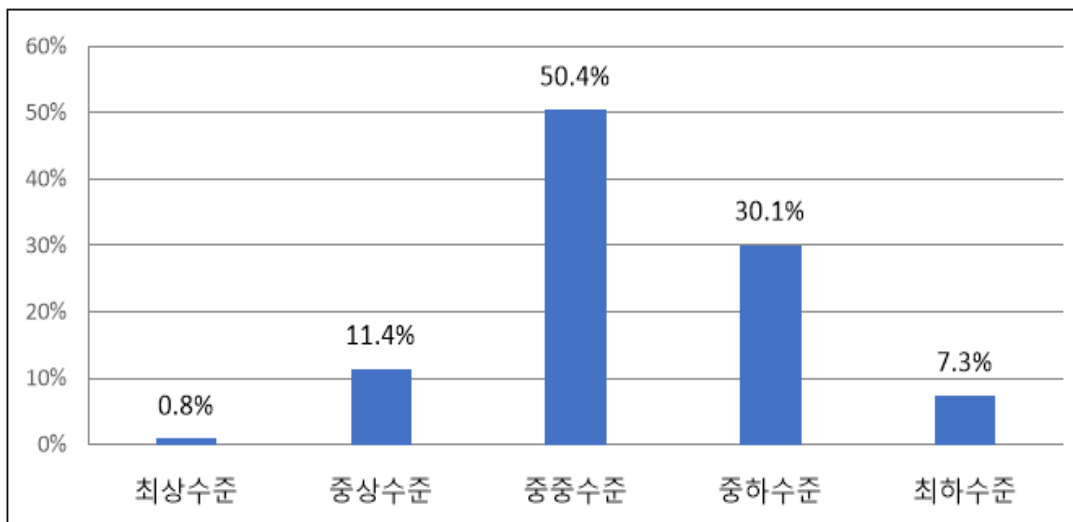
구분		인문계	특성화고 (실업계)	특목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특목고 (마이스 터고)	자율형 사립/ 공립고	대안 학교	검정 고시	예체능 계 고교	외국소재 학교	기타	전체
성별	남	48 (81.4)	6 (10.2)	0 (0.0)	1 (1.7)	4 (6.8)	0 (0.0)	0 (0.0)	0 (0.0)	0 (0.0)	0 (0.0)	59 (100.0)
	여	46 (71.9)	11 (17.2)	1 (1.6)	1 (1.6)	1 (1.6)	0 (0.0)	2 (3.1)	2 (3.1)	0 (0.0)	0 (0.0)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5 (65.2)	5 (21.7)	0 (0.0)	1 (4.3)	0 (0.0)	0 (0.0)	1 (4.3)	1 (4.3)	0 (0.0)	0 (0.0)	23 (100.0)
	공과대학	40 (83.3)	4 (8.3)	0 (0.0)	1 (2.1)	3 (6.3)	0 (0.0)	0 (0.0)	0 (0.0)	0 (0.0)	0 (0.0)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 대학	13 (81.3)	3 (18.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생활과학 대학	6 (66.7)	3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7 (70.0)	2 (2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자연과학 대학	9 (9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b>전체</b>	<b>94 (76.4)</b>	<b>17 (13.8)</b>	<b>1 (0.8)</b>	<b>2 (1.6)</b>	<b>5 (4.1)</b>	<b>0 (0.0)</b>	<b>2 (1.6)</b>	<b>2 (1.6)</b>	<b>0 (0.0)</b>	<b>0 (0.0)</b>	<b>123 (100.0)</b>	

## 6) 가정 경제 수준

편입생들의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중수준’이 62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수준’이 37명(30.1%), ‘중상수준’이 14명(11.4%), ‘최하수준’이 9명(7.3%), ‘최상수준’이 1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중중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 55.9%, 여학생이 45.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6%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하수준’, ‘최하수준’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중중수준’이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대학의 경우는 ‘중상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가정 경제 수준

<표 5> 가정 경제 수준

구분		최상수준	중상수준	중중수준	중하수준	최하수준	전체
성별	남	1 (1.7)	6 (10.2)	33 (55.9)	16 (27.1)	3 (5.1)	59 (100.0)
	여	0 (0.0)	8 (12.5)	29 (45.3)	21 (32.8)	6 (9.4)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0 (0.0)	6 (37.5)	8 (50.0)	2 (12.5)	0 (0.0)	16 (100.0)
	공과대학	0 (0.0)	7 (31.8)	13 (59.1)	2 (9.1)	0 (0.0)	22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 (10.0)	3 (30.0)	4 (40.0)	2 (20.0)	0 (0.0)	10 (100.0)
	사회과학대학	1 (14.3)	3 (42.9)	2 (28.6)	0 (0.0)	1 (14.3)	7 (100.0)
	생활과학대학	0 (0.0)	0 (0.0)	2 (66.7)	1 (33.3)	0 (0.0)	3 (100.0)
	예술대학	0 (0.0)	1 (20.0)	2 (40.0)	2 (40.0)	0 (0.0)	5 (100.0)
	의과대학	0 (0.0)	1 (16.7)	5 (83.3)	0 (0.0)	0 (0.0)	6 (100.0)
	인문대학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100.0)
	자연과학대학	0 (0.0)	0 (0.0)	2 (66.7)	1 (33.3)	0 (0.0)	3 (100.0)
<b>전체</b>		<b>1 (0.8)</b>	<b>14 (11.4)</b>	<b>62 (50.4)</b>	<b>37 (30.1)</b>	<b>9 (7.3)</b>	<b>123 (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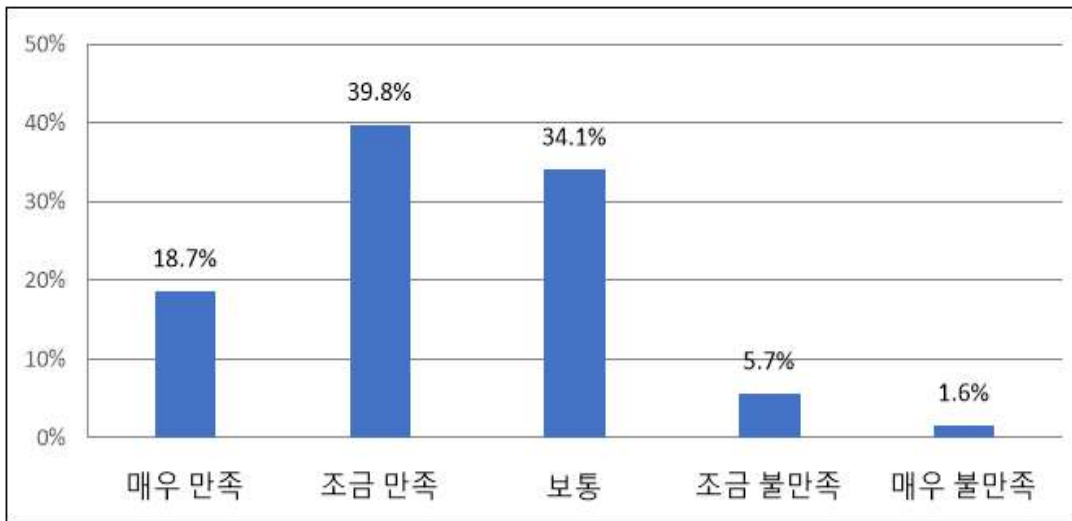
## 2. 대학 생활 전반

### 1) 본교 편입학 만족도

편입생을 대상으로 본교 입학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물어본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금 만족’ 한다는 응답이 4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보통’ 42명(34.1%), ‘매우 만족’ 23명(18.7%), ‘조금 불만족’ 7명(5.7%), ‘매우 불만족’ 2명(1.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편입생 중 72명(58.5%)은 본교 입학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본교 편입에 대해 여학생은 61.0%, 남학생은 55.9%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만족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예술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의 경우 ‘조금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은 ‘조금 만족’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44.4%, 43.8%, 41.7%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본교 편입학 만족도

<표 6> 본교 편입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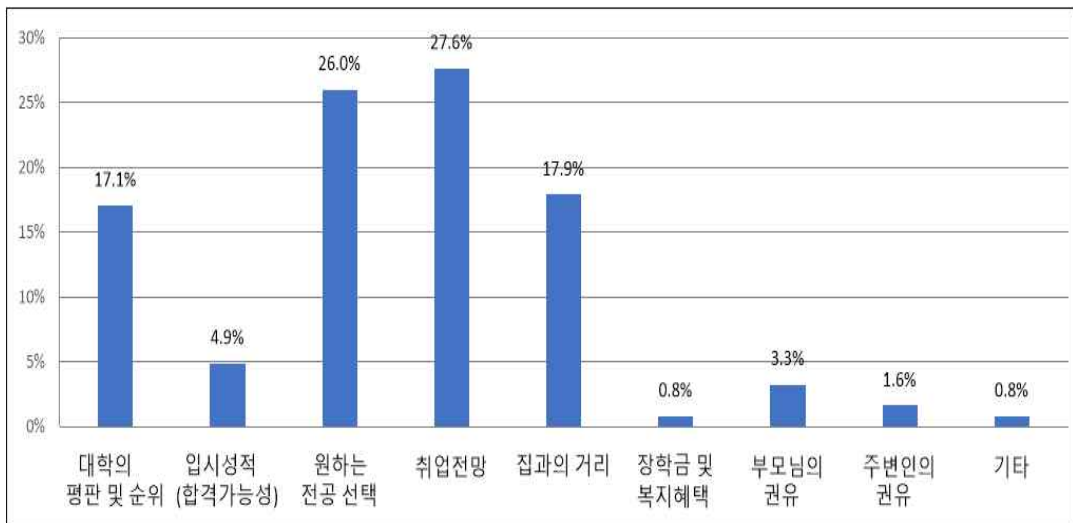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11 (18.6)	22 (37.3)	22 (37.3)	2 (3.4)	2 (3.4)	59 (100.0)
	여	12 (18.8)	27 (42.2)	20 (31.3)	5 (7.8)	0 (0.0)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5 (21.7)	9 (39.1)	8 (34.8)	1 (4.3)	0 (0.0)	23 (100.0)
	공과대학	9 (18.8)	20 (41.7)	17 (35.4)	2 (4.2)	0 (0.0)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 (33.3)	1 (33.3)	1 (33.3)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1 (6.3)	7 (43.8)	6 (37.5)	1 (6.3)	1 (6.3)	16 (100.0)
	생활과학대학	1 (11.1)	4 (44.4)	3 (33.3)	1 (11.1)	0 (0.0)	9 (100.0)
	예술대학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1 (33.3)	1 (33.3)	1 (33.3)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2 (20.0)	3 (30.0)	2 (20.0)	2 (20.0)	1 (1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2 (20.0)	4 (40.0)	4 (40.0)	0 (0.0)	0 (0.0)	10 (100.0)
<b>전체</b>		<b>23 (18.7)</b>	<b>49 (39.8)</b>	<b>42 (34.1)</b>	<b>7 (5.7)</b>	<b>2 (1.6)</b>	<b>123 (100.0)</b>

## 2)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편입생을 대상으로 울산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취업전망’이 34명(2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원하는 전공 선택’ 32명(26.0%), ‘집과의 거리’ 22명(17.9%), ‘대학의 평판 및 순위’ 21명(17.1%), ‘입시성적(합격가능성)’ 6명(4.9%), ‘부모님의 권유’ 4명(3.3%), ‘주변인의 권유’ 2명(1.6%), ‘장학금 및 복지혜택’과 ‘기타’ 이유로 지원한 편입생은 각각 1명(0.8%)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취업전망’ 30.5%, ‘원하는 전공 선택’ 27.1%, ‘대학의 평판 및 순위’ 22.0%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취업전망’, ‘원하는 전공 선택’이 각각 25.0%, ‘집과의 거리’ 20.3%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은 ‘취업전망’에 따라 지원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사회과학대학은 ‘집과의 거리’, 예술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각각 ‘입시성적’, 의과대학은 ‘원하는 전공 선택’, 인문대학은 ‘대학의 평판 및 순위’와 ‘원하는 전공 선택’, 자연과학대학은 ‘원하는 전공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표 7>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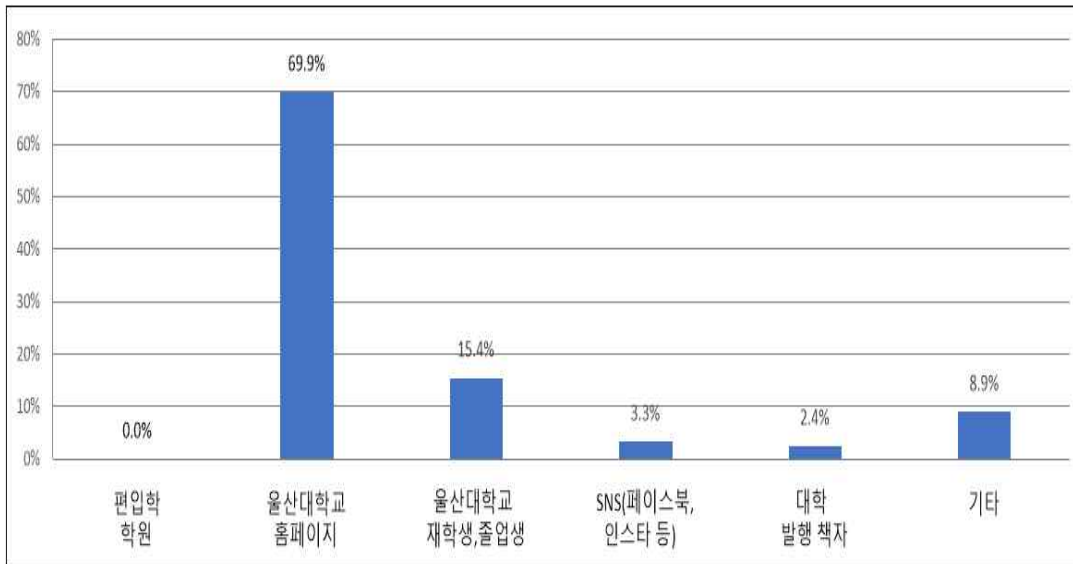
구분		대학의 평판 및 순위	입사성적 (합격 가능성)	원 하 는 전공선택	취업 전망	집과의 거리	장학금 및 복지혜택	부모님 의 권유	주변인 의 권유	기타	전체
성별	남	13 (22.0)	0 (0.0)	16 (27.1)	18 (30.5)	9 (15.3)	0 (0.0)	1 (1.7)	1 (1.7)	1 (1.7)	59 (100.0)
	여	8 (12.5)	6 (9.4)	16 (25.0)	16 (25.0)	13 (20.3)	1 (1.6)	3 (4.7)	1 (1.6)	0 (0.0)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5 (21.7)	1 (4.3)	2 (8.7)	9 (39.1)	4 (17.4)	1 (4.3)	1 (4.3)	0 (0.0)	0 (0.0)	23 (100.0)
	공과대학	8 (16.7)	1 (2.1)	12 (25.0)	17 (35.4)	8 (16.7)	0 (0.0)	1 (2.1)	1 (2.1)	0 (0.0)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0 (0.0)	0 (0.0)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 대학	1 (6.3)	2 (12.5)	3 (18.8)	2 (12.5)	6 (37.5)	0 (0.0)	1 (6.3)	0 (0.0)	1 (6.3)	16 (100.0)
	생활과학 대학	1 (11.1)	1 (11.1)	2 (22.2)	3 (33.3)	2 (22.2)	0 (0.0)	0 (0.0)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0 (0.0)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4 (40.0)	0 (0.0)	4 (40.0)	0 (0.0)	0 (0.0)	0 (0.0)	1 (10.0)	1 (10.0)	0 (0.0)	10 (100.0)
	자연과학 대학	2 (20.0)	0 (0.0)	4 (40.0)	2 (20.0)	2 (2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전체		<b>21</b> <b>(17.1)</b>	<b>6</b> <b>(4.9)</b>	<b>32</b> <b>(26.0)</b>	<b>34</b> <b>(27.6)</b>	<b>22</b> <b>(17.9)</b>	<b>1</b> <b>(0.8)</b>	<b>4</b> <b>(3.3)</b>	<b>2</b> <b>(1.6)</b>	<b>1</b> <b>(0.8)</b>	<b>123</b> <b>(100.0)</b>

### 3)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편입생들이 입학에 위한 정보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편입생의 절반이 넘는 86명(69.9%)의 학생이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 학생은 19명(15.4%), ‘기타’ 방법은 11명(8.9%),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는 4명(3.3%), ‘대학 발행 책자’는 3명(2.4%)으로 나타났으며 ‘편입학 학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수집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이 75.0%로 남학생의 64.4%보다 조금 높았다. ‘울산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에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20.3%로 여학생의 1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의과대학은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표 8>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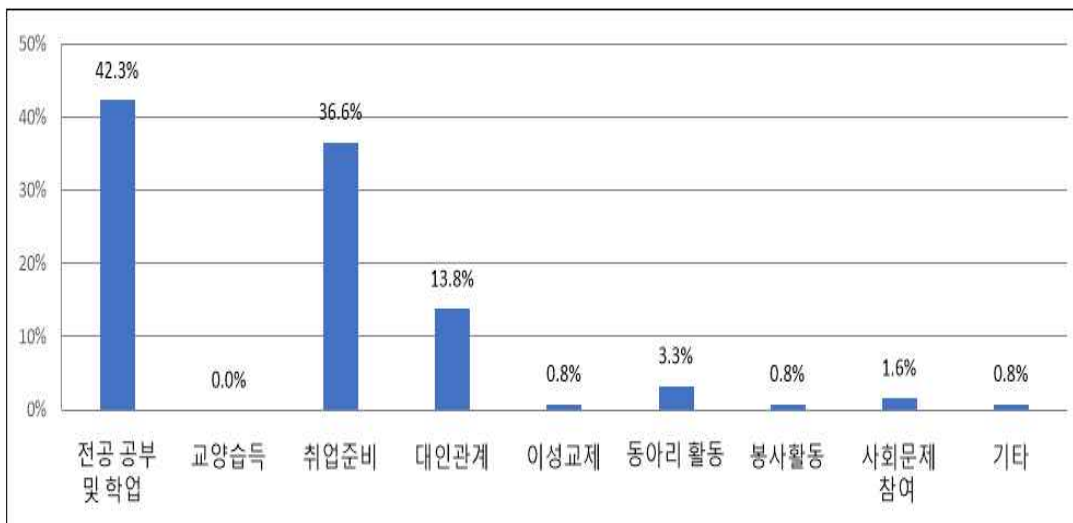
구분		편입학 학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울산대학교 재학생졸업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대학 발행책자	기타	전체
성별	남	0 (0.0)	38 (64.4)	12 (20.3)	2 (3.4)	0 (0.0)	7 (11.9)	59 (100.0)
	여	0 (0.0)	48 (75.0)	7 (10.9)	2 (3.1)	3 (4.7)	4 (6.3)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0 (0.0)	17 (73.9)	3 (13.0)	0 (0.0)	0 (0.0)	3 (13.0)	23 (100.0)
	공과대학	0 (0.0)	33 (68.8)	11 (22.9)	0 (0.0)	0 (0.0)	4 (8.3)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0 (0.0)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0 (0.0)	11 (68.8)	1 (6.3)	0 (0.0)	3 (18.8)	1 (6.3)	16 (100.0)
	생활과학대학	0 (0.0)	8 (88.9)	0 (0.0)	1 (11.1)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1 (33.3)	0 (0.0)	2 (66.7)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0 (0.0)	6 (60.0)	1 (10.0)	1 (10.0)	0 (0.0)	2 (2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0 (0.0)	7 (70.0)	2 (20.0)	0 (0.0)	0 (0.0)	1 (10.0)	10 (100.0)
<b>전체</b>		<b>0 (0.0)</b>	<b>86 (69.9)</b>	<b>19 (15.4)</b>	<b>4 (3.3)</b>	<b>3 (2.4)</b>	<b>11 (8.9)</b>	<b>123 (100.0)</b>

#### 4)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는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공부 및 학업’이 5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 45명(36.6%), ‘대인관계’ 17명(13.8%), ‘동아리 활동’ 4명(3.3%), ‘이성 교제’와 ‘봉사 활동’, ‘기타’가 각각 1명(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습득’은 응답한 학생이 없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취업 준비’가 42.4%로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은 ‘전공공부 및 학업’이 48.4%로 가장 많았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전공공부 및 학업’이라고 응답하였고, 경영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취업 준비’를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표 9>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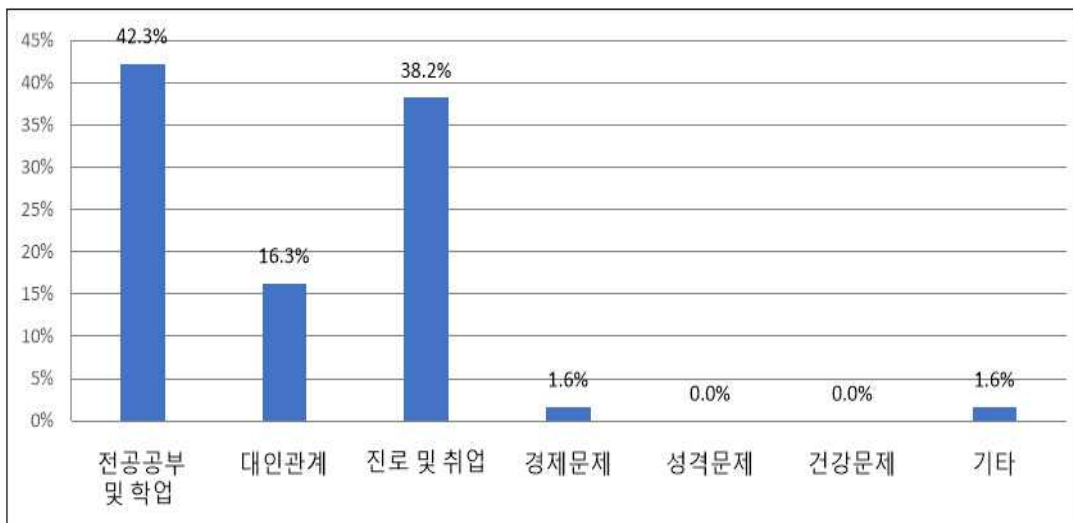
구분		전공공부 및 학업	교양 습득	취업 준비	대인 관계	이성 교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사회문제 참여	기타	전체
성별	남	21 (35.6)	0 (0.0)	25 (42.4)	10 (16.9)	1 (1.7)	0 (0.0)	0 (0.0)	2 (3.4)	0 (0.0)	59 (100.0)
	여	31 (48.4)	0 (0.0)	20 (31.3)	7 (10.9)	0 (0.0)	4 (6.3)	1 (1.6)	0 (0.0)	1 (1.6)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8 (34.8)	0 (0.0)	10 (43.5)	3 (13.0)	0 (0.0)	2 (8.7)	0 (0.0)	0 (0.0)	0 (0.0)	23 (100.0)
	공과대학	19 (39.6)	0 (0.0)	18 (37.5)	9 (18.8)	0 (0.0)	1 (2.1)	0 (0.0)	0 (0.0)	1 (2.1)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 대학	10 (62.5)	0 (0.0)	3 (18.8)	3 (18.8)	0 (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생활과학 대학	5 (55.6)	0 (0.0)	3 (33.3)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1 (33.3)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4 (40.0)	0 (0.0)	3 (30.0)	1 (10.0)	1 (10.0)	0 (0.0)	0 (0.0)	1 (10.0)	0 (0.0)	10 (100.0)
	자연과학 대학	1 (10.0)	0 (0.0)	6 (60.0)	1 (10.0)	0 (0.0)	0 (0.0)	1 (10.0)	1 (10.0)	0 (0.0)	10 (100.0)
<b>전체</b>	<b>52 (42.3)</b>	<b>0 (0.0)</b>	<b>45 (36.6)</b>	<b>17 (13.8)</b>	<b>1 (0.8)</b>	<b>4 (3.3)</b>	<b>1 (0.8)</b>	<b>2 (1.6)</b>	<b>1 (0.8)</b>	<b>123 (100.0)</b>	

## 5)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편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편입생들의 42.3%인 52명은 ‘전공공부 및 학업’이 가장 고민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 47명(38.2%), ‘대인관계’ 20명(16.3%), ‘기타’와 ‘경제문제’는 각각 2명(1.6%), ‘성격 문제’와 ‘건강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전공공부 및 학업’이 47.5%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진로와 취업’이 40.6%로 가장 높았다. 모두 ‘전공공부 및 학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전공공부 및 학업’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이 각각 60.9%, 50.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은 ‘진로 및 취업’을, 생활과학대학은 ‘대인관계’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표 10>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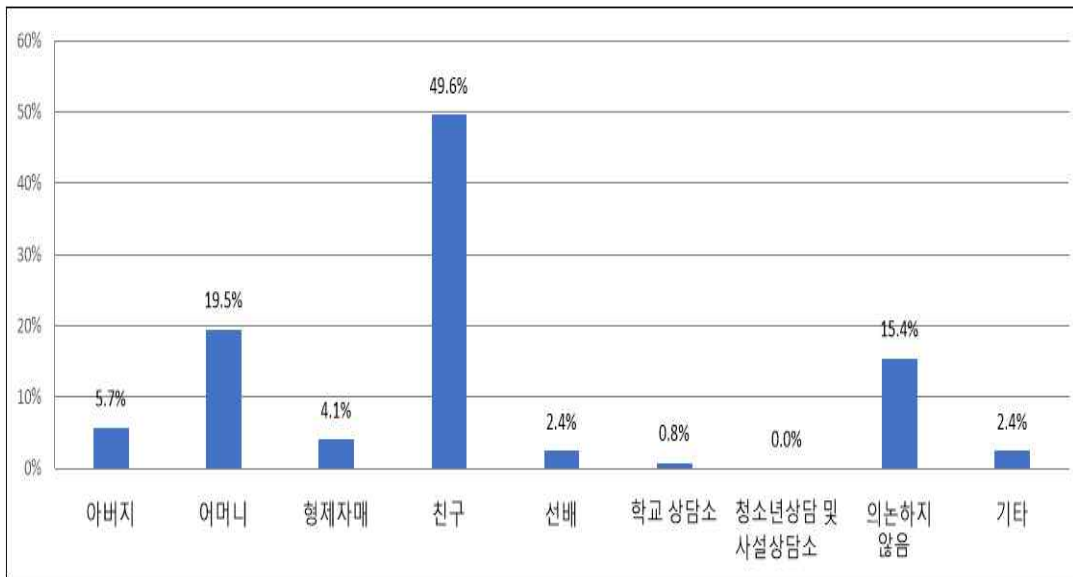
구분		전공공부 및 학업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성격문제	건강문제	기타	전체
성별	남	28 (47.5)	7 (11.9)	21 (35.6)	1 (1.7)	0 (0.0)	0 (0.0)	2 (3.4)	59 (100.0)
	여	24 (37.5)	13 (20.3)	26 (40.6)	1 (1.6)	0 (0.0)	0 (0.0)	0 (0.0)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4 (60.9)	2 (8.7)	6 (26.1)	0 (0.0)	0 (0.0)	0 (0.0)	1 (4.3)	23 (100.0)
	공과대학	24 (50.0)	3 (6.3)	19 (39.6)	2 (4.2)	0 (0.0)	0 (0.0)	0 (0.0)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 (33.3)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5 (31.3)	3 (18.8)	8 (50.0)	0 (0.0)	0 (0.0)	0 (0.0)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1 (11.1)	6 (66.7)	2 (22.2)	0 (0.0)	0 (0.0)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1 (33.3)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2 (20.0)	3 (30.0)	4 (40.0)	0 (0.0)	0 (0.0)	0 (0.0)	1 (1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3 (30.0)	1 (10.0)	6 (6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b>전체</b>	<b>52</b> <b>(42.3)</b>	<b>20</b> <b>(16.3)</b>	<b>47</b> <b>(38.2)</b>	<b>2</b> <b>(1.6)</b>	<b>0</b> <b>(0.0)</b>	<b>0</b> <b>(0.0)</b>	<b>2</b> <b>(1.6)</b>	<b>123</b> <b>(100.0)</b>	

## 6)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편입생들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편입생 중 61명(49.6%)은 주로 ‘친구’와 문제를 의논한다고 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어머니’ 24명(19.5%), ‘의논하지 않음’ 19명(15.4%), ‘아버지’ 7명(5.7%), ‘형제·자매’ 5명(4.1%), ‘선배’와 ‘기타’는 각각 3명(2.4%), ‘학교 상담소’ 1명(0.8%)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 및 사설상담소’는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어머니’, ‘의논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랑 의논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10.2%로 여학생의 1.6%보다 월등히 높았고, ‘형제·자매’랑 의논한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6.3%로 남학생의 1.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친구’와 의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인문대학은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표 11>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선배	학교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및 시설 상담소	의논하지 않음	기타	전체
성별	남	6 (10.2)	11 (18.6)	1 (1.7)	29 (49.2)	1 (1.7)	0 (0.0)	0 (0.0)	9 (15.3)	2 (3.4)	59 (100.0)
	여	1 (1.6)	13 (20.3)	4 (6.3)	32 (50.0)	2 (3.1)	1 (1.6)	0 (0.0)	10 (15.6)	1 (1.6)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 (4.3)	2 (8.7)	0 (0.0)	13 (56.5)	1 (4.3)	1 (4.3)	0 (0.0)	3 (13.0)	2 (8.7)	23 (100.0)
	공과대학	5 (10.4)	9 (18.8)	3 (6.3)	22 (45.8)	2 (4.2)	0 (0.0)	0 (0.0)	6 (12.5)	1 (2.1)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1 (33.3)	0 (0.0)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 대학	0 (0.0)	4 (25.0)	0 (0.0)	8 (50.0)	0 (0.0)	0 (0.0)	0 (0.0)	4 (25.0)	0 (0.0)	16 (100.0)
	생활과학 대학	0 (0.0)	1 (11.1)	0 (0.0)	4 (44.4)	0 (0.0)	0 (0.0)	0 (0.0)	4 (44.4)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0 (0.0)	0 (0.0)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3 (100.0)
	인문대학	0 (0.0)	6 (60.0)	1 (10.0)	3 (3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자연과학 대학	0 (0.0)	1 (10.0)	0 (0.0)	8 (80.0)	0 (0.0)	0 (0.0)	0 (0.0)	1 (10.0)	0 (0.0)	10 (100.0)
<b>전체</b>	<b>7 (5.7)</b>	<b>24 (19.5)</b>	<b>5 (4.1)</b>	<b>61 (49.6)</b>	<b>3 (2.4)</b>	<b>1 (0.8)</b>	<b>0 (0.0)</b>	<b>19 (15.4)</b>	<b>3 (2.4)</b>	<b>123 (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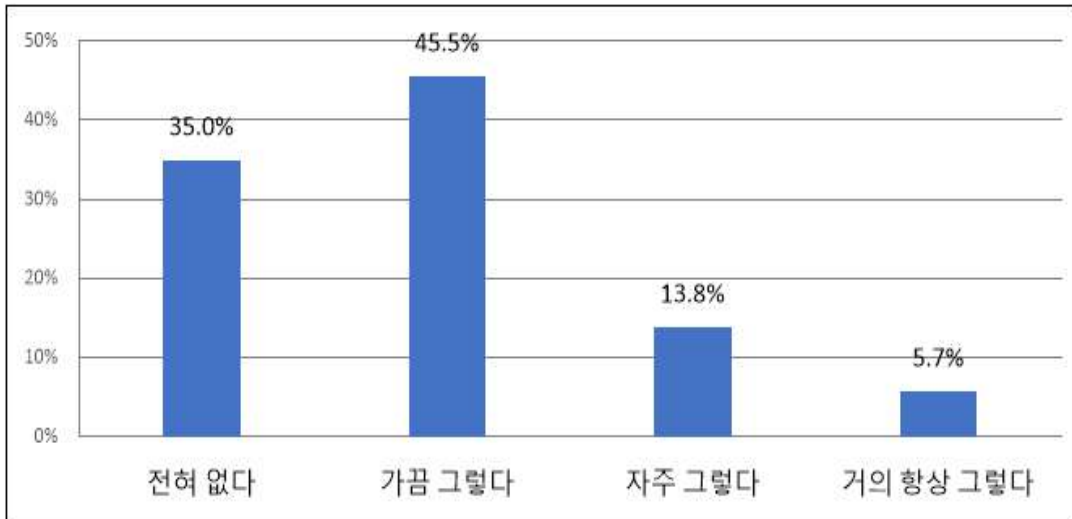
### 3. 정신건강

#### 1)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편입생들이 최근 3개월간 외로움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편입생 중 56명(45.5%)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로움에 대한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명(35.0%)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자주 그렇다'도 17명(13.8%), '거의 항상 그렇다'도 7명(5.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입생 중 19.5%가 자주 또는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외로움 경험이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로움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17.0%인데 비해 여학생은 21.9%로 차이가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가끔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경영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의 경우는 '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림 13>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표 12>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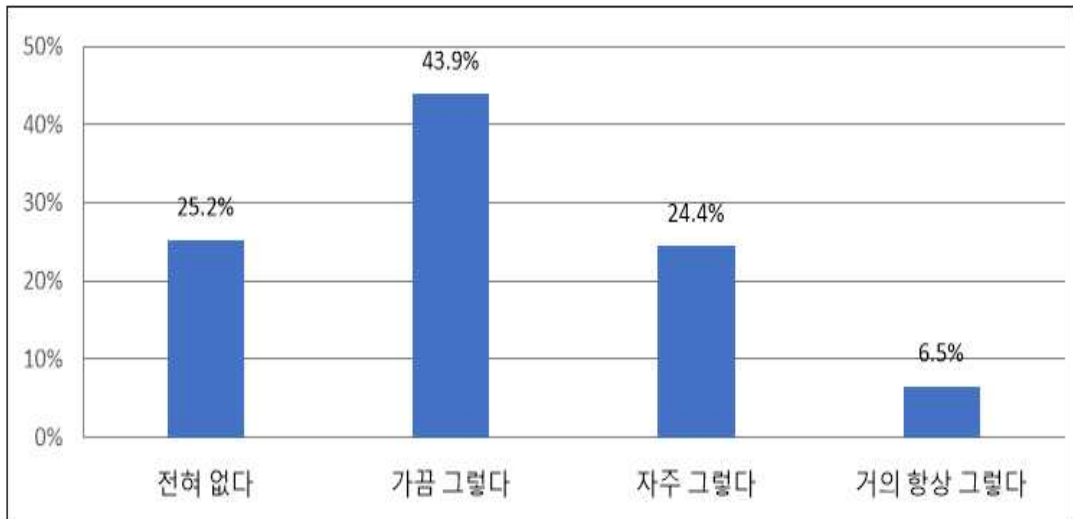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성별	남	20 (33.9)	29 (49.2)	7 (11.9)	3 (5.1)	59 (100.0)
	여	23 (35.9)	27 (42.2)	10 (15.6)	4 (6.3)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9 (39.1)	7 (30.4)	5 (21.7)	2 (8.7)	23 (100.0)
	공과대학	14 (29.2)	26 (54.2)	7 (14.6)	1 (2.1)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6 (37.5)	7 (43.8)	1 (6.3)	2 (12.5)	16 (100.0)
	생활과학대학	5 (55.6)	3 (33.3)	1 (11.1)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1 (33.3)	2 (66.7)	0 (0.0)	3 (100.0)
	인문대학	2 (20.0)	7 (70.0)	0 (0.0)	1 (1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5 (50.0)	4 (40.0)	0 (0.0)	1 (10.0)	10 (100.0)
<b>전체</b>		<b>43 (35.0)</b>	<b>56 (45.5)</b>	<b>17 (13.8)</b>	<b>7 (5.7)</b>	<b>123 (100.0)</b>

## 2)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편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학생들 중 54명(43.9%)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명(25.2%)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자주 그렇다'와 '거의 항상 그렇다' 응답도 각각 30명(24.4%), 8명(6.5%)으로 나타났다. 편입생 중 30.9%가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남학생 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남학생 30.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불안을 비교적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가끔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공과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의 경우는 '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림 14>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표 14>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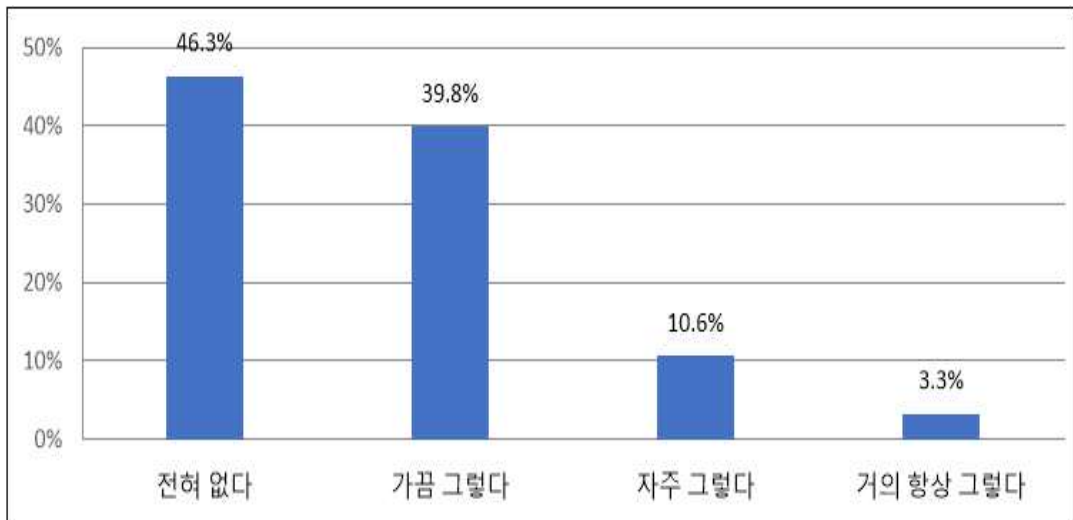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8 (30.5)	25 (42.4)	14 (23.7)	2 (3.4)	59 (100.0)
	여	13 (20.3)	29 (45.3)	16 (25.0)	6 (9.4)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3 (13.0)	10 (43.5)	6 (26.1)	4 (17.4)	23 (100.0)
	공과대학	18 (37.5)	15 (31.3)	15 (31.3)	0 (0.0)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3 (18.8)	8 (50.0)	3 (18.8)	2 (12.5)	16 (100.0)
	생활과학대학	4 (44.4)	3 (33.3)	2 (22.2)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0 (0.0)	2 (66.7)	1 (33.3)	3 (100.0)
	인문대학	0 (0.0)	9 (90.0)	1 (10.0)	0 (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0 (0.0)	8 (80.0)	1 (10.0)	1 (10.0)	10 (100.0)
<b>전체</b>		<b>31</b> <b>(25.2)</b>	<b>54</b> <b>(43.9)</b>	<b>30</b> <b>(24.4)</b>	<b>8</b> <b>(6.5)</b>	<b>123</b> <b>(100.0)</b>

### 3)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편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분노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응답한 편입생 중 57명(46.3%)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9명(39.8%)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분노에 대한 경험에 대해 ‘자주 그렇다’ 13명(10.6%), ‘거의 항상 그렇다’ 4명(3.3%)의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분노를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느끼는 학생이 전체 편입생 중 13.9%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학생의 분노 경험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분노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17.2%로 남학생의 10.2%에 비해 많았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전혀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사회과학대학과 인문대학의 경우는 ‘가끔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표 14>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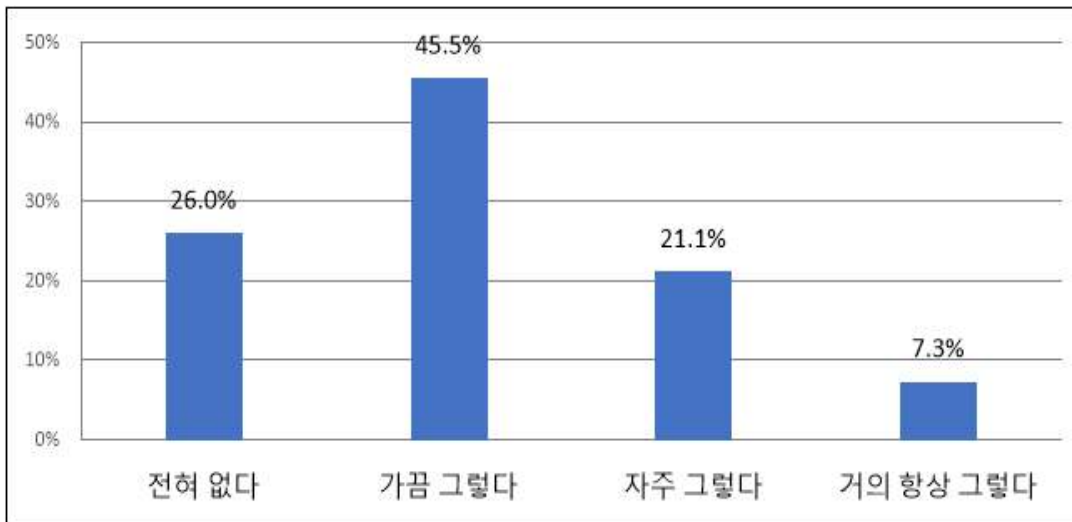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성별	남	28 (47.5)	25 (42.4)	5 (8.5)	1 (1.7)	59 (100.0)
	여	29 (45.3)	24 (37.5)	8 (12.5)	3 (4.7)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1 (47.8)	9 (39.1)	2 (8.7)	1 (4.3)	23 (100.0)
	공과대학	24 (50.0)	18 (37.5)	4 (8.3)	2 (4.2)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6 (37.5)	7 (43.8)	3 (18.8)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5 (55.6)	3 (33.3)	1 (11.1)	0 (0.0)	9 (100.0)
	예술대학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2 (20.0)	6 (60.0)	1 (10.0)	1 (1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4 (40.0)	4 (40.0)	2 (20.0)	0 (0.0)	10 (100.0)
<b>전체</b>		<b>57</b> <b>(46.3)</b>	<b>49</b> <b>(39.8)</b>	<b>13</b> <b>(10.6)</b>	<b>4</b> <b>(3.3)</b>	<b>123</b> <b>(100.0)</b>

#### 4)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편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5>와 같다. ‘가끔 그렇다’는 응답이 56명(45.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2명(26.0%)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주 그렇다’의 응답은 26명(21.1%), ‘거의 항상 그렇다’는 응답도 9명(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편입생 중 73.9%는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우울 및 무기력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우울 및 무기력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이며 남학생의 해당 응답 23.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가끔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예술대학은 ‘전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표 15>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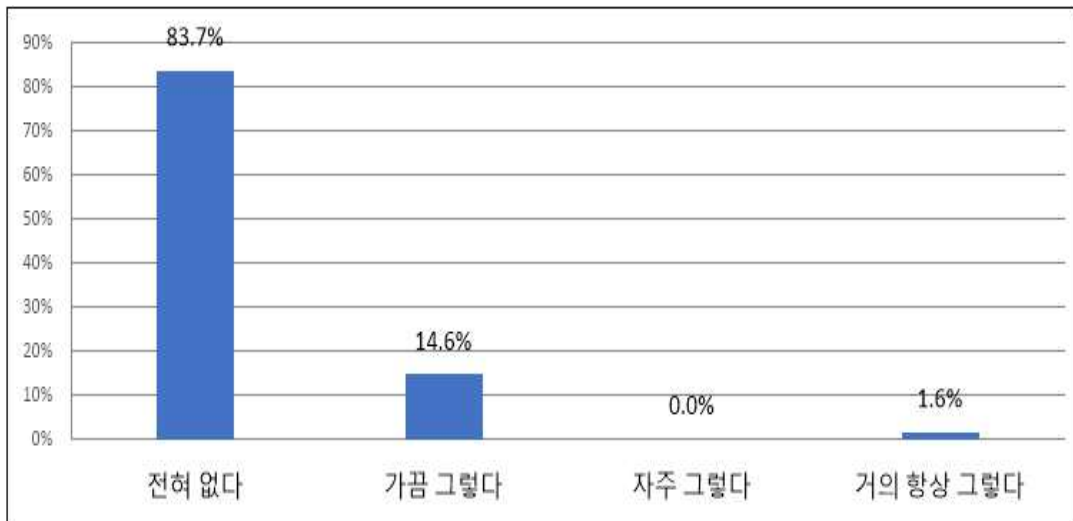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성별	남	16 (27.1)	29 (49.2)	12 (20.3)	2 (3.4)	59 (100.0)
	여	16 (25.0)	27 (42.2)	14 (21.9)	7 (10.9)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3 (13.0)	11 (47.8)	7 (30.4)	2 (8.7)	23 (100.0)
	공과대학	15 (31.3)	21 (43.8)	10 (20.8)	2 (4.2)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4 (25.0)	6 (37.5)	5 (31.3)	1 (6.3)	16 (100.0)
	생활과학대학	3 (33.3)	5 (55.6)	1 (11.1)	0 (0.0)	9 (100.0)
	예술대학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2 (66.7)	0 (0.0)	1 (33.3)	3 (100.0)
	인문대학	2 (20.0)	5 (50.0)	1 (10.0)	2 (2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2 (20.0)	5 (50.0)	2 (20.0)	1 (10.0)	10 (100.0)
<b>전체</b>		<b>32</b> <b>(26.0)</b>	<b>56</b> <b>(45.5)</b>	<b>26</b> <b>(21.1)</b>	<b>9</b> <b>(7.3)</b>	<b>123</b> <b>(100.0)</b>

## 5)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편입생들이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표 16>에서 응답 결과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응답 중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103명(83.7%)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가끔 그렇다’ 18명(14.6%), ‘거의 항상 그렇다’ 2명(1.6%)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주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따라서 지난 3개월간 자살 충동을 느껴본 학생은 편입생 중 16.2%로 파악되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자살 충동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충동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이며 남학생의 해당 응답 10.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전혀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17>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표 16>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구분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성별	남	53 (89.8)	5 (8.5)	0 (0.0)	1 (1.7)	59 (100.0)
	여	50 (78.1)	13 (20.3)	0 (0.0)	1 (1.6)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7 (73.9)	5 (21.7)	0 (0.0)	1 (4.3)	23 (100.0)
	공과대학	43 (89.6)	4 (8.3)	0 (0.0)	1 (2.1)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12 (75.0)	4 (25.0)	0 (0.0)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8 (88.9)	1 (11.1)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8 (80.0)	2 (20.0)	0 (0.0)	0 (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9 (90.0)	1 (10.0)	0 (0.0)	0 (0.0)	10 (100.0)
<b>전체</b>		<b>103</b> <b>(83.7)</b>	<b>18</b> <b>(14.6)</b>	<b>0</b> <b>(0.0)</b>	<b>2</b> <b>(1.6)</b>	<b>123</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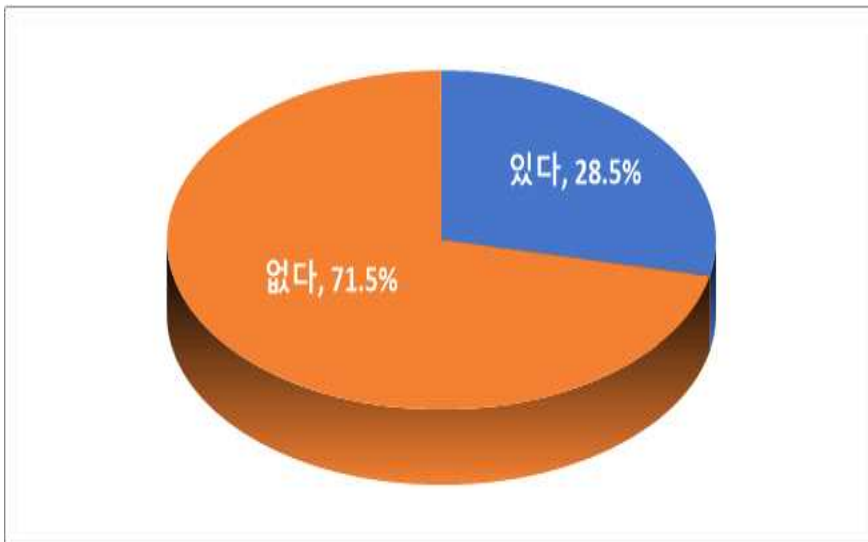
#### 4. 진로심리상담센터 서비스

##### 1)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물어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7>에 정리하였다.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의 응답은 35명으로 전체 편입생의 28.5%에 해당하였으며, 반대로 현재 심리적 어려움이 '없다'의 응답은 88명으로 71.5%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은 35.9%, 남학생은 20.3%로 편입생의 경우 여학생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18>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표 17>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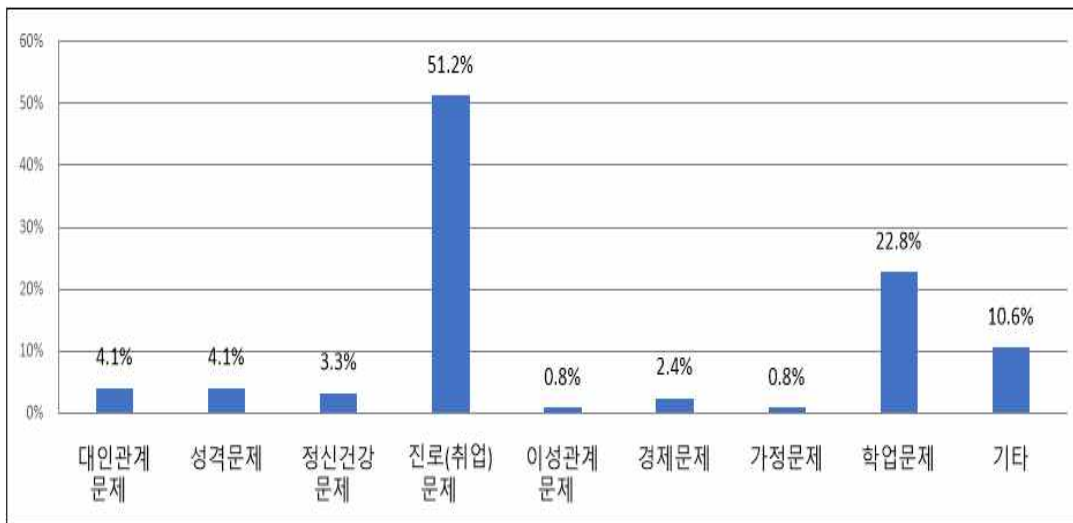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	12 (20.3)	47 (79.7)	59 (100.0)
	여	23 (35.9)	41 (64.1)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7 (30.4)	16 (69.6)	23 (100.0)
	공과대학	13 (27.1)	35 (72.9)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0 (0.0)	3 (100.0)	3 (100.0)
	사회과학대학	5 (31.3)	11 (68.8)	16 (100.0)
	생활과학대학	3 (33.3)	6 (66.7)	9 (100.0)
	예술대학	0 (0.0)	1 (100.0)	1 (100.0)
	의과대학	2 (66.7)	1 (33.3)	3 (100.0)
	인문대학	2 (20.0)	8 (8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3 (30.0)	7 (70.0)	10 (100.0)
<b>전체</b>		<b>35</b> <b>(28.5)</b>	<b>88</b> <b>(71.5)</b>	<b>123</b> <b>(100.0)</b>

## 2)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현재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진로(취업) 문제’가 63명(5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업 문제’가 28명(22.8%), ‘기타’ 13명(10.6%), ‘대인관계 문제’와 ‘성격 문제’가 각각 5명(4.1%), ‘정신건강 문제’ 4명(3.3%), ‘경제문제’ 3명(2.4%), ‘이성 관계 문제’와 ‘가정 문제’가 각각 1명(0.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이 ‘진로(취업)문제’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업문제’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편입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진로(취업)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의과대학은 ‘학업문제’와 ‘정신건강 문제’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림 19>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표 18>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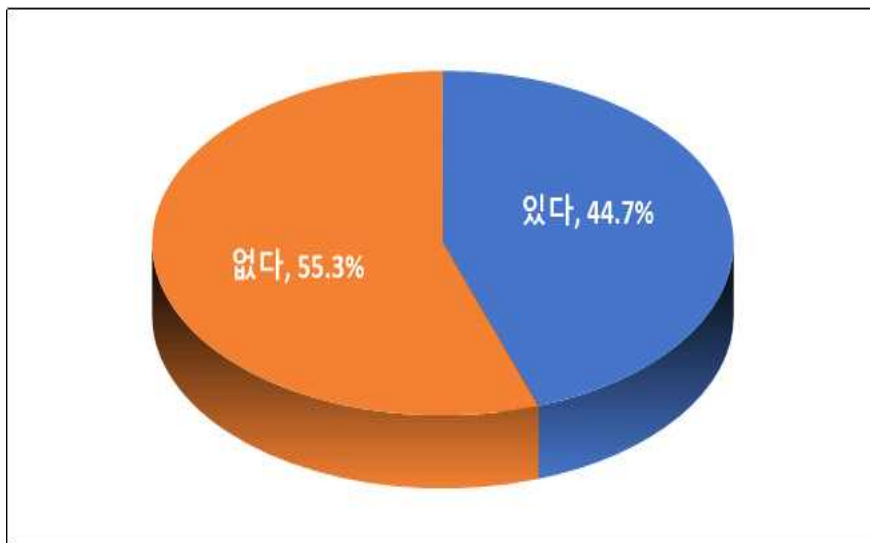
구분		대인 관계 문제	성격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진로 (취업) 문제	이성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학업 문제	기타	전체
성별	남	3 (5.1)	2 (3.4)	1 (1.7)	31 (52.5)	0 (0.0)	2 (3.4)	1 (1.7)	12 (20.3)	7 (11.9)	59 (100.0)
	여	2 (3.1)	3 (4.7)	3 (4.7)	32 (50.0)	1 (1.6)	1 (1.6)	0 (0.0)	16 (25.0)	6 (9.4)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0 (0.0)	1 (4.3)	1 (4.3)	15 (65.2)	0 (0.0)	0 (0.0)	0 (0.0)	5 (21.7)	1 (4.3)	23 (100.0)
	공과대학	2 (4.2)	1 (2.1)	1 (2.1)	23 (47.9)	0 (0.0)	2 (4.2)	1 (2.1)	13 (27.1)	5 (10.4)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0 (0.0)	1 (33.3)	0 (0.0)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 대학	1 (6.3)	1 (6.3)	0 (0.0)	8 (50.0)	0 (0.0)	1 (6.3)	0 (0.0)	3 (18.8)	2 (12.5)	16 (100.0)
	생활과학 대학	1 (11.1)	0 (0.0)	0 (0.0)	7 (77.8)	0 (0.0)	0 (0.0)	0 (0.0)	1 (11.1)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0 (0.0)	1 (33.3)	1 (33.3)	0 (0.0)	0 (0.0)	0 (0.0)	1 (33.3)	0 (0.0)	3 (100.0)
	인문대학	1 (10.0)	0 (0.0)	1 (10.0)	3 (30.0)	1 (10.0)	0 (0.0)	0 (0.0)	1 (10.0)	3 (30.0)	10 (100.0)
	자연과학 대학	0 (0.0)	1 (10.0)	0 (0.0)	3 (30.0)	0 (0.0)	0 (0.0)	0 (0.0)	4 (40.0)	2 (20.0)	10 (100.0)
<b>전체</b>	<b>5 (4.1)</b>	<b>5 (4.1)</b>	<b>4 (3.3)</b>	<b>63 (51.2)</b>	<b>1 (0.8)</b>	<b>3 (2.4)</b>	<b>1 (0.8)</b>	<b>28 (22.8)</b>	<b>13 (10.6)</b>	<b>123 (100.0)</b>	

### 3)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볼 의향에 대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55명(44.7%)이 상담을 받아볼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68명(55.3%)의 학생들은 상담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상담 받을 의향이 '없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59.3%, 여학생은 51.6%로 남학생이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담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인문대학의 경우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표 19>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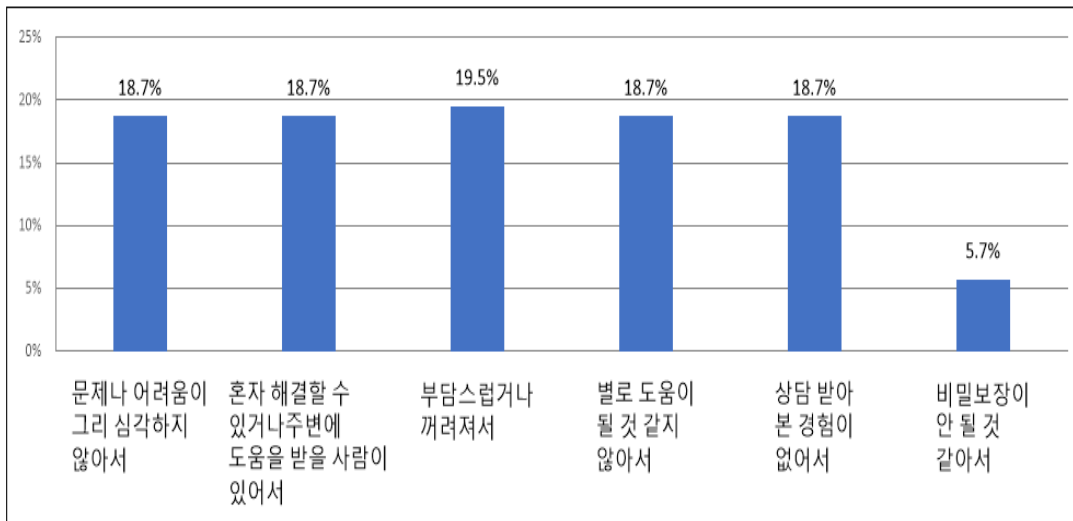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	24 (40.7)	35 (59.3)	59 (100.0)
	여	31 (48.4)	33 (51.6)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9 (39.1)	14 (60.9)	23 (100.0)
	공과대학	21 (43.8)	27 (56.3)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 (66.7)	1 (33.3)	3 (100.0)
	사회과학대학	8 (50.0)	8 (5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4 (44.4)	5 (55.6)	9 (100.0)
	예술대학	0 (0.0)	1 (100.0)	1 (100.0)
	의과대학	1 (33.3)	2 (66.7)	3 (100.0)
	인문대학	6 (60.0)	4 (4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4 (40.0)	6 (60.0)	10 (100.0)
<b>전체</b>		<b>55</b> <b>(44.7)</b>	<b>68</b> <b>(55.3)</b>	<b>123</b> <b>(100.0)</b>

#### 4)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0>과 같다. 가장 많은 24명(19.5%)이 ‘부담스럽거나 꺼려져서’라고 응답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혼자 해결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담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의 응답이 각각 23명(18.7%)으로 나타났다.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의 응답도 7명(5.7%)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부담스럽거나 꺼려져서’ 22.0%, ‘혼자 해결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의 응답이 각각 20.3%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상담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20.3%,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경영대학은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생활과학대학과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상담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의과대학은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술대학은 ‘부담스럽거나 꺼려져서’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림 21>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표 2>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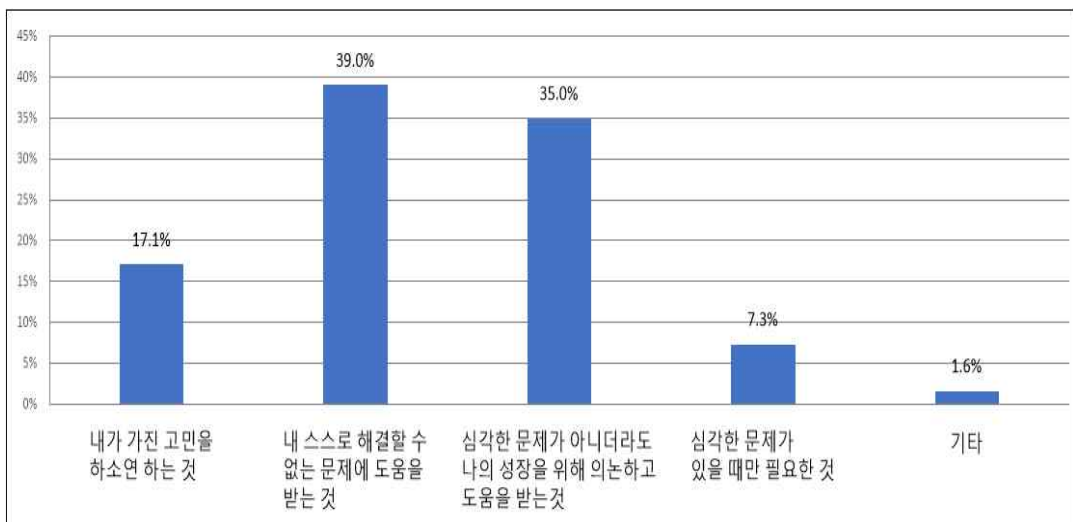
구분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혼자 해결 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있어서	부담 스럽거나 꺼려져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담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비밀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전체
성별	남	11 (18.6)	12 (20.3)	13 (22.0)	12 (20.3)	10 (16.9)	1 (1.7)	59 (100.0)
	여	12 (18.8)	11 (17.2)	11 (17.2)	11 (17.2)	13 (20.3)	6 (9.4)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7 (30.4)	5 (21.7)	6 (26.1)	1 (4.3)	2 (8.7)	2 (8.7)	23 (100.0)
	공과대학	8 (16.7)	9 (18.8)	10 (20.8)	11 (22.9)	9 (18.8)	1 (2.1)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0 (0.0)	1 (33.3)	0 (0.0)	2 (66.7)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3 (18.8)	4 (25.0)	2 (12.5)	5 (31.3)	2 (12.5)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2 (22.2)	0 (0.0)	2 (22.2)	1 (11.1)	4 (44.4)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0 (0.0)	0 (0.0)	1 (33.3)	0 (0.0)	2 (66.7)	3 (100.0)
	인문대학	1 (10.0)	2 (20.0)	2 (20.0)	1 (10.0)	3 (30.0)	1 (1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2 (20.0)	2 (20.0)	1 (10.0)	1 (10.0)	3 (30.0)	1 (10.0)	10 (100.0)
<b>전체</b>	<b>23 (18.7)</b>	<b>23 (18.7)</b>	<b>24 (19.5)</b>	<b>23 (18.7)</b>	<b>23 (18.7)</b>	<b>7 (5.7)</b>	<b>123 (100.0)</b>	

## 5)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편입생들이 심리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 21>과 같다. 심리상담에 대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8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 것’ 43명(35.0%), ‘내가 가진 고민을 해소연하는 것’ 21명(17.1%),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9명(7.3%), ‘기타’ 2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영대학과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생활과학대학은 ‘내가 가진 고민을 해소연하는 것’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과학대학은 ‘내가 가진 고민을 해소연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림 22>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표 21>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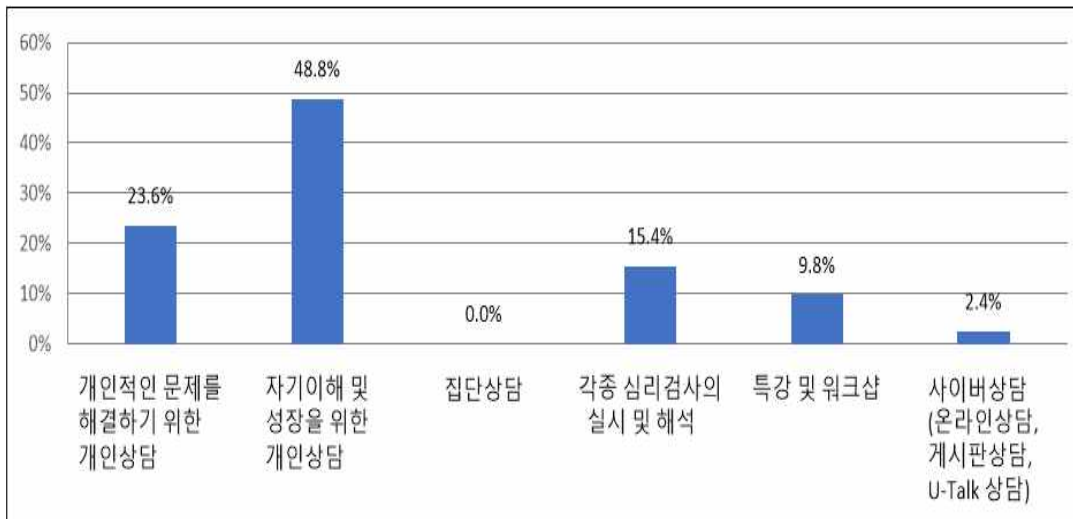
구분		내가 가진 고민을 해소연 하는 것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만 필요한 것	기타	전체
성별	남	11 (18.6)	23 (39.0)	17 (28.8)	6 (10.2)	2 (3.4)	59 (100.0)
	여	10 (15.6)	25 (39.1)	26 (40.6)	3 (4.7)	0 (0.0)	64 (10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4 (17.4)	7 (30.4)	9 (39.1)	3 (13.0)	0 (0.0)	23 (100.0)
	공과대학	8 (16.7)	17 (35.4)	16 (33.3)	5 (10.4)	2 (4.2)	48 (10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0 (0.0)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0 (0.0)	9 (56.3)	6 (37.5)	1 (6.3)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4 (44.4)	4 (44.4)	1 (11.1)	0 (0.0)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1 (10.0)	4 (40.0)	5 (50.0)	0 (0.0)	0 (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4 (40.0)	2 (20.0)	4 (40.0)	0 (0.0)	0 (0.0)	10 (100.0)
<b>전체</b>		<b>21</b> <b>(17.1)</b>	<b>48</b> <b>(39.0)</b>	<b>43</b> <b>(35.0)</b>	<b>9</b> <b>(7.3)</b>	<b>2</b> <b>(1.6)</b>	<b>123</b> <b>(100.0)</b>

## 6)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편입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에 응답 결과는 <표 22>와 같다.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이 60명(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29명(23.6%),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19명(15.4%), ‘특강 및 워크샵’ 12명(9.8%), ‘사이버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 상담, U-Talk 상담)’ 3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없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적으로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을 이용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이 55.9%로 여학생의 42.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이 23.4%로 남학생의 6.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을 가장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23>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표 22>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구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상담	자기이해 및 성장을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특강 및 워크샵	사이버 상담 (온라인상담, 게시판상담, U-Talk 상담)	전체
성별	남	11 (18.6)	33 (55.9)	0 (0.0)	4 (6.8)	8 (13.6)	3 (5.1)	59 (100.0)
	여	18 (28.1)	27 (42.2)	0 (0.0)	15 (23.4)	4 (6.3)	0 (0.0)	64 (100.0)
단과대학	경영대학	7 (30.4)	11 (47.8)	0 (0.0)	5 (21.7)	0 (0.0)	0 (0.0)	23 (100.0)
	공과대학	10 (20.8)	27 (56.3)	0 (0.0)	3 (6.3)	6 (12.5)	2 (4.2)	48 (10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3 (100.0)
	사회과학대학	5 (31.3)	5 (31.3)	0 (0.0)	4 (25.0)	2 (12.5)	0 (0.0)	16 (100.0)
	생활과학대학	1 (11.1)	5 (55.6)	0 (0.0)	2 (22.2)	1 (11.1)	0 (0.0)	9 (100.0)
	예술대학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의과대학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3 (100.0)
	인문대학	2 (20.0)	5 (50.0)	0 (0.0)	1 (10.0)	1 (10.0)	1 (10.0)	10 (100.0)
	자연과학대학	2 (20.0)	3 (30.0)	0 (0.0)	3 (30.0)	2 (20.0)	0 (0.0)	10 (100.0)
<b>전체</b>		<b>29</b> <b>(23.6)</b>	<b>60</b> <b>(48.8)</b>	<b>0</b> <b>(0.0)</b>	<b>19</b> <b>(15.4)</b>	<b>12</b> <b>(9.8)</b>	<b>3</b> <b>(2.4)</b>	<b>123</b> <b>(100.0)</b>

## IV. 종합

본 조사는 울산대학교 편입생을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입생 실태조사’의 문항들을 편입생들에 맞춰 수정·보완한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 도구를 사용해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6월 16일~ 7월 9일 21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편입생은 총 123명으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사항

#### ■ 소속 단과대학

‘공과대학’이 48명(3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23명(18.7%), ‘사회과학대학’ 16명(13.0%),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각각 10명(8.1%), ‘생활과학대학’ 9명(7.3%),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의과대학’은 각각 3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1명(0.8%)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 성별

성별은 남학생이 59명(48.0%), 여학생이 64명(52.0%)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명이 많아 4.0%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 중 39명(66.1%)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단과대학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6명(10.2%), ‘자연과학대학’ 5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분포된 단과대학은 ‘경영대학’ 소속으로 17명(26.6%),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이 12명(18.8%), 공과대학이 9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 ■ 편입 전 학력 배경

편입 전에 ‘전문대 졸업’이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61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4년제 재학 중’이 53명(43.1%)으로 나타났다. ‘4년제 졸업’은 4명(3.3%),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졸업’과 ‘기타’는 각각 2명(1.6%), ‘외국대학’은 1명(0.8%)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4년제 재학 중'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전문대 졸업 후'가 가장 높았다.

## ■ 편입 후 거주형태

'자택 거주'가 96명(7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 거주' 18명(14.6%), '자취' 8명(6.5%), '기타' 1명(0.8%), 하숙, 친척집은 각각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택 거주'가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이 79.7%로 남학생의 76.3%보다 조금 높았다. '기숙사 거주'는 남학생 18.6%, 여학생 10.9%로 남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자취'는 여학생 9.4%, 남학생 3.4%로 여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 출신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94명(7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실업계)가 17명(1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율형 사립/공립고는 5명(4.1%)으로 나타났으며, 특목고(마이스터고), 검정고시, 예/체능계 고교는 각각 2명(2.6%), 특목고(과학고/국제고, 외국어고) 1명(0.8%), 대안학교와 외국 소재 학교, 기타는 각각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인문계' 81.4%, '특성화고(실업계)' 10.2%, 자율형 사립/공립고 6.8%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인문계' 71.9%, '특성화고(실업계)' 17.2%, '검정고시', '예/체능계 고교' 각각 3.1% 순으로 나타났다.

## ■ 가정 경제 수준

'중중수준'이 62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수준'이 37명(30.1%), '중상수준'이 14명(11.4%), '최하수준'이 9명(7.3%), '최상수준'이 1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중중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 55.9%, 여학생이 45.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6%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하수준', '최하수준'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2. 대학 생활 전반

### ■ 본교 편입학 만족도

‘조금 만족’ 한다는 응답이 4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보통’ 42명(34.1%), ‘매우 만족’ 23명(18.7%), ‘조금 불만족’ 7명(5.7%), ‘매우 불만족’ 2명(1.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편입생 중 72명(58.5%)은 본교 입학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본교 편입에 대해 여학생은 61.0%, 남학생은 55.9%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만족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

### ■ 울산대학교 편입지원 이유

‘취업전망’이 34명(2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원하는 전공 선택’ 32명(26.0%), ‘집과의 거리’ 22명(17.9%), ‘대학의 평판 및 순위’ 21명(17.1%), ‘입시성적(합격가능성)’ 6명(4.9%), ‘부모님의 권유’ 4명(3.3%), ‘주변인의 권유’ 2명(1.6%), ‘장학금 및 복지혜택’과 ‘기타’ 이유로 지원한 편입생은 각각 1명(0.8%)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취업전망’ 30.5%, ‘원하는 전공 선택’ 27.1%, ‘대학의 평판 및 순위’ 22.0%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취업전망’, ‘원하는 전공 선택’이 각각 25.0%, ‘집과의 거리’ 20.3% 순으로 나타났다.

### ■ 편입학 정보수집 방법

편입생의 절반이 넘는 86명(69.9%)의 학생이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 학생은 19명(15.4%), ‘기타’ 방법은 11명(8.9%),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는 4명(3.3%), ‘대학 발행 책자’는 3명(2.4%)으로 나타났으며 ‘편입학 학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수집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이 75.0%로 남학생의 64.4%보다 조금 높았다. ‘울산대학교 재학생, 졸



업생'에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에서는 남학생이 20.3%로 여학생의 10.9%보다 높게 나타났다.

## ■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전공공부 및 학업'이 5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 45명(36.6%), '대인관계' 17명(13.8%), '동아리 활동' 4명(3.3%), '이성 교제'와 '봉사 활동', '기타'가 각각 1명(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습득'은 응답한 학생이 없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취업 준비'가 42.4%로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은 '전공공부 및 학업'이 48.4%로 가장 많았다.

## ■ 편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

편입생들의 42.3%인 52명은 '전공공부 및 학업'이 가장 고민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 47명(38.2%), '대인관계' 20명(16.3%), '기타'와 '경제문제'는 각각 2명(1.6%), '성격 문제'와 '건강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전공공부 및 학업'이 47.5%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진로 및 취업'이 40.6%로 가장 높았다. 모두 '전공공부 및 학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

편입생 중 61명(49.6%)은 주로 '친구'와 문제를 의논한다고 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어머니' 24명(19.5%), '의논하지 않음' 19명(15.4%), '아버지' 7명(5.7%), '형제·자매' 5명(4.1%), '선배'와 '기타'는 각각 3명(2.4%), '학교 상담소' 1명(0.8%)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 및 사설상담소'는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어머니', '의논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랑 의논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10.2%로 여학생의 1.6%보다 월등히 높았고, '형제·자매'랑 의논한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6.3%로 남학생의 1.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3. 정신건강

#### ■ 최근 3개월간 외로움에 대한 경험

편입생 중 56명(45.5%)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로움에 대한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명(35.0%)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자주 그렇다’도 17명(13.8%), ‘거의 항상 그렇다’도 7명(5.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입생 중 19.5%가 자주 또는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외로움 경험이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로움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17.0%인데 비해 여학생은 21.9%로 차이가 보였다.

#### ■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학생들 중 54명(43.9%)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명(25.2%)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자주 그렇다’와 ‘거의 항상 그렇다’ 응답도 각각 30명(24.4%), 8명(6.5%)으로 나타났다. 편입생 중 30.9%가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남학생 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남학생 30.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불안을 비교적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최근 3개월간 분노에 대한 경험

57명(46.3%)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9명(39.8%)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분노에 대한 경험에 대해 ‘자주 그렇다’ 13명(10.6%), ‘거의 항상 그렇다’ 4명(3.3%)의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분노를 자주 또는 거의 항상 느끼는 학생이 전체 편입생 중 13.9%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학생의 분노 경험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분노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2%로 남학생의 10.2%에 비해 많았다.

### ■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가끔 그렇다’는 응답이 56명(45.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2명(26.0%)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주 그렇다’의 응답은 26명(21.1%), ‘거의 항상 그렇다’는 응답도 9명(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편입생 중 73.9%는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우울 및 무기력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우울 및 무기력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이며 남학생의 해당 응답 23.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 최근 3개월간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학생들의 응답 중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103명(83.7%)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가끔 그렇다’ 18명(14.6%), ‘거의 항상 그렇다’ 2명(1.6%)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주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따라서 지난 3개월간 자살 충동을 느껴본 학생은 편입생 중 16.2%로 파악되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자살 충동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충동 경험이 ‘자주 그렇다’ 또는 ‘거의 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이며 남학생의 해당 응답 10.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4. 진로심리상담센터 서비스

### ■ 현재 심리적 어려움 경험

현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의 응답은 35명으로 전체 편입생의 28.5%에 해당하였으며, 반대로 현재 심리적 어려움이 ‘없다’의 응답은 88명으로 71.5%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은 35.9%,

남학생은 20.3%로 편입생의 경우 여학생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

‘진로(취업) 문제’가 63명(5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업 문제’가 28명(22.8%), ‘기타’ 13명(10.6%), ‘대인관계 문제’와 ‘성격 문제’가 각각 5명(4.1%), ‘정신건강 문제’ 4명(3.3%), ‘경제문제’ 3명(2.4%), ‘이성 관계 문제’와 ‘가정 문제’가 각각 1명(0.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이 ‘진로(취업)문제’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업문제’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편입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의 영역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 ■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받을 의향

55명(44.7%)이 상담을 받아볼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68명(55.3%)의 학생들은 상담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상담 받을 의향이 ‘없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59.3%, 여학생은 51.6%로 남학생이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담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 ■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가장 많은 24명(19.5%)이 ‘부담스럽거나 꺼려져서’라고 응답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혼자 해결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담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의 응답이 각각 23명(18.7%)으로 나타났다.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의 응답도 7명(5.7%)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부담스럽거나 꺼려져서’ 22.0%, ‘혼자 해결할 수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의 응답이 각각

20.3%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상담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20.3%, ‘문제나 어려움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

## ■ 심리상담에 대한 생각

심리상담에 대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8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 것’ 43명(35.0%), ‘내가 가진 고민을 해소연하는 것’ 21명(17.1%),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 9명(7.3%), ‘기타’ 2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것’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성장을 위해 의논하고 도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이 60명(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29명(23.6%),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19명(15.4%), ‘특강 및 워크숍’ 12명(9.8%), ‘사이버 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 상담, U-Talk 상담)’ 3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없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적으로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개인 상담’을 이용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이 55.9%로 여학생의 42.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이 23.4%로 남학생의 6.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21학년도**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 목 차

I. 서론 .....	99
II. 연구방법 .....	100
1. 조사대상 및 기간 .....	100
2. 조사도구 .....	100
3. 조사내용 .....	100
III. 조사 결과 .....	102
1. 일반사항 .....	102
1) 소속 단과대학 .....	102
2) 성별 .....	103
2. 진로 및 취업 .....	104
1)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	104
2)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	106
3) 직업 선택 기준 .....	108
4)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	110
5)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	112
6)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4
7)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	116
8) 취업 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	118
9) 진로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	121
10)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재학 기간 전체) ..	123
11)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	125
12)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	127

**IV. 종합 ..... 129**

**1. 일반사항 ..... 129**

**2. 진로 및 취업 ..... 129**

## 표 목 차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102
<표 2>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	105
<표 3>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	107
<표 4> 직업 선택 기준 .....	109
<표 5>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	111
<표 6>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	113
<표 7>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5
<표 8>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	117
<표 9>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	120
<표 10>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	122
<표 11>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재학 기간 전체) .....	124
<표 12>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	126
<표 13>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	128

## 그림목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102
<그림 2> 성별 현황 .....	103
<그림 3>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	104
<그림 4>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	106
<그림 5> 직업 선택 기준 .....	108
<그림 6>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	110
<그림 7>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	112
<그림 8>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4
<그림 9>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	116
<그림 10>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	119
<그림 11>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	121
<그림 12>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해 본 횟수(재학 기간 전체) ..	123
<그림 13>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	125
<그림 14>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	127

# 2021학년도 4학년 진로심리 실태조사

## I. 서론

대학생 시기에는 직업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입직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생애 진로발달 중 탐색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실행하는 진로발달 과정에 있으며, 진로 결정 및 실행에 있어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결여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진로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향후 대학 졸업 직전 및 직후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나타내게 되고 학교생활이나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대졸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대학에서의 진로·취업교육은 사회·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대학생들은 취업 경쟁 속에서 대학 생활 초기부터 스펙쌓기(SPEC), 구직 및 경력준비 등에 몰두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4학년만이 아닌 신입생 시기부터 취업이라는 스트레스를 중·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지속되는 경제적 불안과 청년실업률의 증가,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과 또한 이러한 코로나 19 상황은 비대면 상황에 따른 채용시스템의 변혁까지 가져옴으로 대학 4학년들의 진로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시사해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4학년 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의 이와같은 불안정한 사회 환경은 그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자기 진로를 구성해가는 것을 어렵게 한기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갈 교육의 환경과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더불어 새롭게 재정향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취업을 앞둔 4학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는데 의미있게 활용이 될 것이며, 4학년 학생들의 진로 실태 조사를 통해 진로에 대한 개인의 의식 정도와 진로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4학녀년들을 위한 진로·취업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4학년 재학생 전체 3,016명이다(2021년 9월 1일 기준). 조사는 2021년 9월 15일~ 10월 07일 22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4학년 재학생은 총 489명으로 참여율은 16.2%이며 총 489명의 데이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 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본 센터에서 매년 사용해 온 설문지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설문지에서 진로·취업 관련 문항을 발췌 및 수정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영역	구성내용	세부문항
일반사항	인적사항	소속 단과대학
		성별
		학년
진로 및 취업	진로와 취업	대학 내 진로·취업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진로·취업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직업 선택 기준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진로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진로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항목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진로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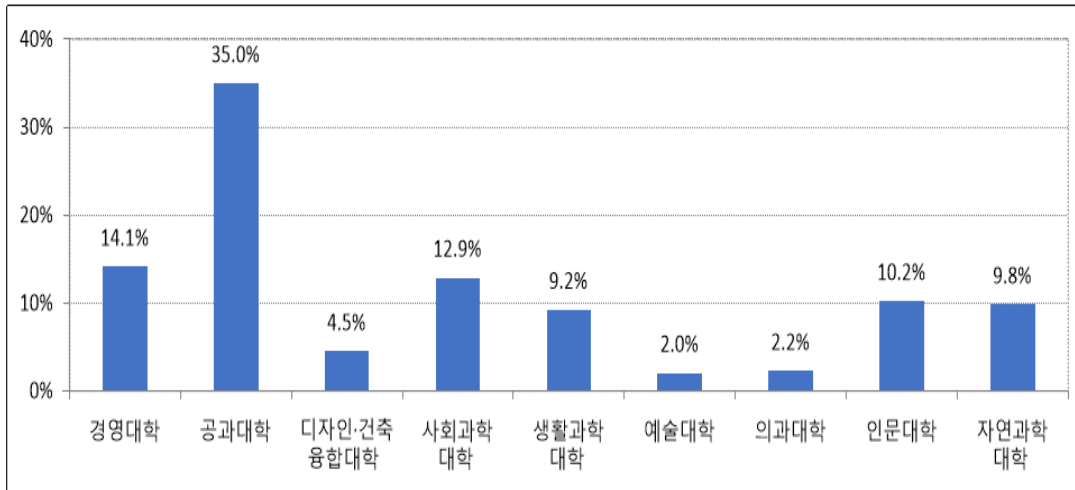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재학기간 전체)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b>문항수</b>	15문항

### III. 조사 결과

#### 1. 일반사항

##### 1) 소속 단과대학

2021년 울산대학교 2학기 4학년 재학생 진로심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4학년 재학생은 총 489명이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 분포는 <표 1>과 같다. ‘공과대학’이 171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69명(14.1%), ‘사회과학대학’ 63명(12.9%), ‘인문대학’ 50명(10.2%), ‘자연과학대학’ 48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과학대학’은 45명(9.2%),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22명(4.5%)이었으며, ‘의과대학’은 11명(2.2%)으로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10명(2.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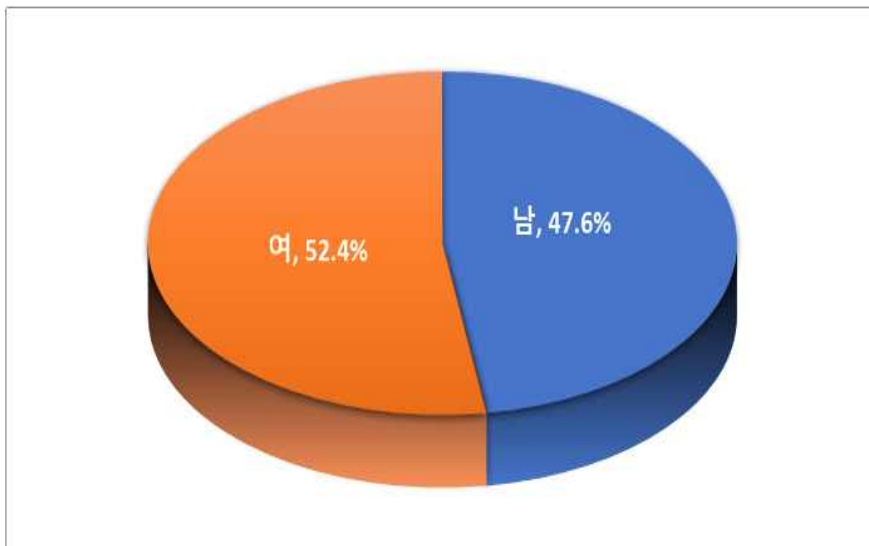
구분	단과대학									전체	
	경영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성별	남	29 (12.4)	130 (55.8)	11 (4.7)	20 (8.6)	8 (3.4)	2 (0.9)	1 (0.4)	11 (4.7)	21 (9.0)	233 (47.6)
	여	40 (15.6)	41 (16.0)	11 (4.3)	43 (16.8)	37 (14.5)	8 (3.1)	10 (3.9)	39 (15.2)	27 (10.5)	256 (52.4)
전체	<b>69</b> <b>(14.1)</b>	<b>171</b> <b>(35.0)</b>	<b>22</b> <b>(4.5)</b>	<b>63</b> <b>(12.9)</b>	<b>45</b> <b>(9.2)</b>	<b>10</b> <b>(2.0)</b>	<b>11</b> <b>(2.2)</b>	<b>50</b> <b>(10.2)</b>	<b>48</b> <b>(9.8)</b>	<b>489</b> <b>(100.0)</b>	



## 2) 성별

4학년 재학생 진로심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233명 (47.6%), 여학생이 256명(52.4%)으로, 여학생이 4.8%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앞의 <표 1>을 참고하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5.8%인 130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2.4%, '자연과학대학' 9.0%, '사회과학대학' 8.6%, '인문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각각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사회과학대학'이 43명 16.8%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학' 16.0%, '경영대학', 15.6%, '인문대학' 15.2%, '생활과학대학' 14.5%, '자연과학대학'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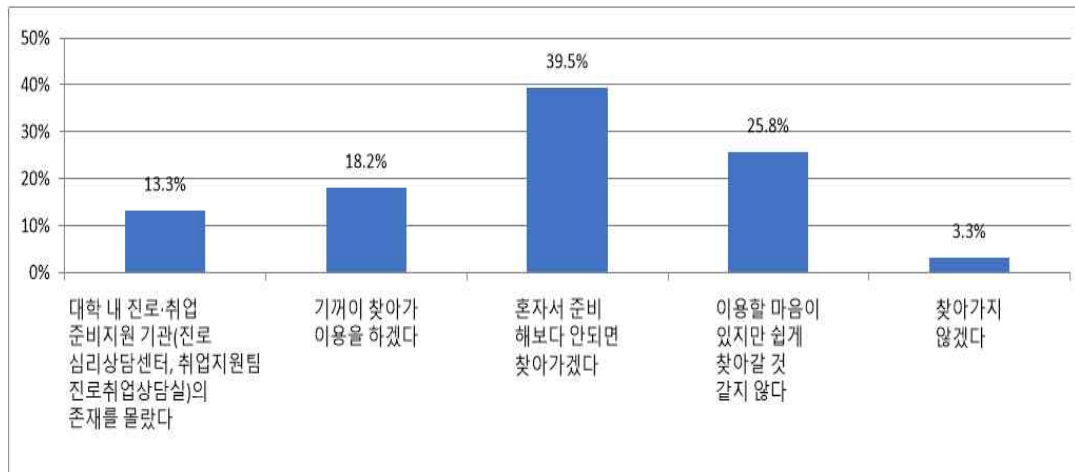
## 2. 진로 및 취업

### 1)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4학년 재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혼자서 준비해 보다 안되면 찾아가겠다’가 193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가갈 것 같지 않다’가 126명(25.8%)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89명(18.2%)의 학생이 ‘기꺼이 찾아가 이용을 하겠다’라고 응답하였고, 65명(13.3%)은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진로취업상담실)의 존재를 몰랐다’, 16명(3.3%)은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기관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기관 이용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68.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혼자서 준비해 보다 안되면 찾아가겠다’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43.0%로 남학생의 3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가갈 것 같지 않다’의 응답에서도 29.3%로 남학생의 21.3%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의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 이용이 남학생보다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에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혼자서 준비해 보다 안되면 찾아가겠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예술대학은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가갈 것 같지 않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단과대학에서 기관 이용 의사가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 이용 의향

<표 2>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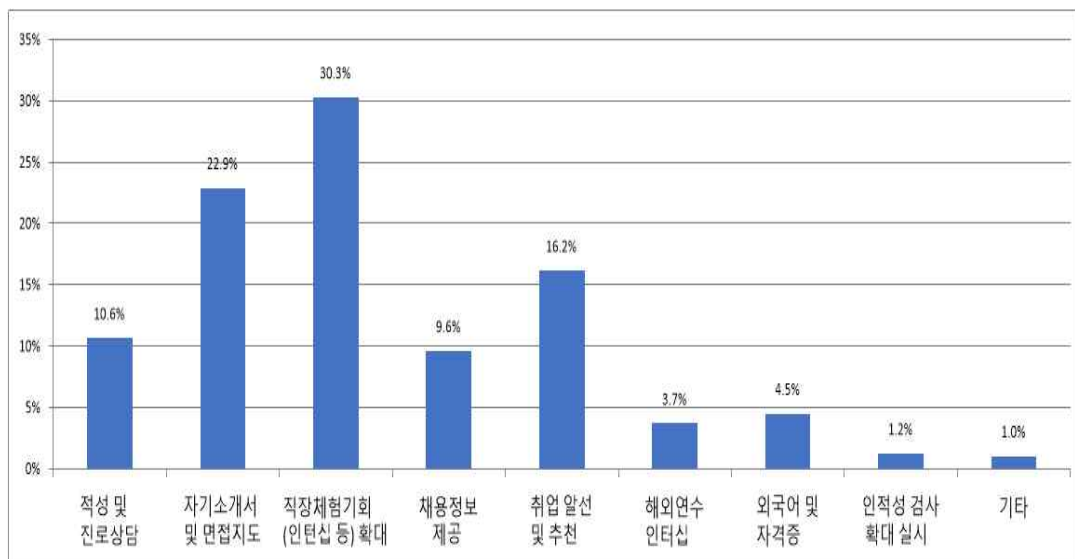
구분		대학 내 진로취업준비 지원기관 (진로심리상담 센터, 취업지원팀, 진로취업상담실) 의 존재를 물랐다	기꺼이 찾아가 이용을 하겠다	혼자서 준비 해보다 안되면 찾아가겠다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	찾아가지 않겠다	전체
성별	남	40 (17.2)	50 (21.5)	83 (35.6)	51 (21.9)	9 (3.9)	233 (100)
	여	25 (9.8)	39 (15.2)	110 (43.0)	75 (29.3)	7 (2.7)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9 (13.0)	13 (18.8)	29 (42.0)	17 (24.6)	1 (1.4)	69 (100)
	공과대학	24 (14.0)	45 (26.3)	58 (33.9)	36 (21.1)	8 (4.7)	171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8.2)	0 (0.0)	10 (45.5)	7 (31.8)	1 (4.5)	22 (100)
	사회과학 대학	5 (7.9)	10 (15.9)	27 (42.9)	19 (30.2)	2 (3.2)	63 (100)
	생활과학 대학	6 (13.3)	6 (13.3)	18 (40.0)	14 (31.1)	1 (2.2)	45 (100)
	예술대학	2 (20.0)	1 (10.0)	3 (30.0)	4 (40.0)	0 (0.0)	10 (100)
	의과대학	2 (18.2)	1 (9.1)	4 (36.4)	4 (36.4)	0 (0.0)	11 (100)
	인문대학	6 (12.0)	9 (18.0)	21 (42.0)	13 (26.0)	1 (2.0)	50 (100)
	자연과학 대학	7 (14.6)	4 (8.3)	23 (47.9)	12 (25.0)	2 (4.2)	48 (100)
전체		<b>65</b> <b>(13.3)</b>	<b>89</b> <b>(18.2)</b>	<b>193</b> <b>(39.5)</b>	<b>126</b> <b>(25.8)</b>	<b>16</b> <b>(3.3)</b>	<b>489</b> <b>(100)</b>

## 2)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진로 및 취업을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가 148명(30.3%)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가 112명(22.9%), ‘취업 알선 및 추천’ 79명(16.2%), ‘적성 및 진로상담’이 52명(10.6%), ‘채용정보 제공’ 47명(9.6%), ‘외국어 및 자격증’ 22명(4.5%), ‘해외연수·인턴십’ 18명(3.7%), ‘인·적성 검사 확대 실시’ 6명(1.2%), ‘기타’ 5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들은 취업연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의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였고, 사회과학대학이 42.9%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경영대학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다.



<그림 4>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표 3>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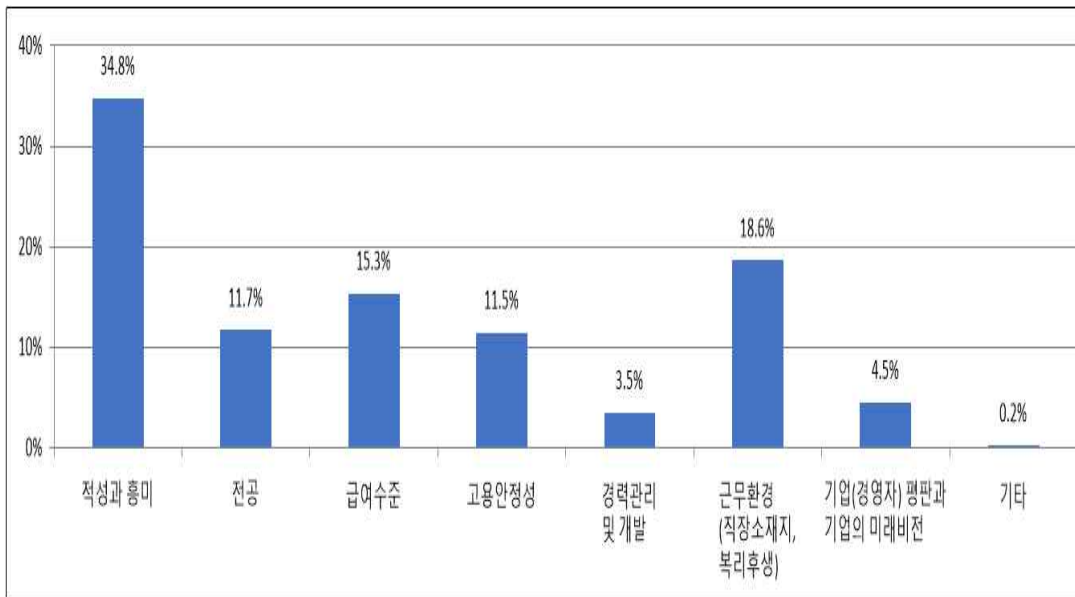
구분		작성 및 진로상담	자기 소개서 및 면접지도	직장체험 기회 (인턴십 등) 확대	채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및 추천	해외연수 인턴십	외국어 및 자격증	인적성 검사확대 실시	기타	전체
성별	남	30 (12.9)	55 (23.6)	73 (31.3)	23 (9.9)	35 (15.0)	7 (3.0)	7 (3.0)	1 (0.4)	2 (0.9)	233 (100)
	여	22 (8.6)	57 (22.3)	75 (29.3)	24 (9.4)	44 (17.2)	11 (4.3)	15 (5.9)	5 (2.0)	3 (1.2)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9 (13.0)	16 (23.2)	14 (20.3)	4 (5.8)	14 (20.3)	3 (4.3)	6 (8.7)	2 (2.9)	1 (1.4)	69 (100)
	공과대학	16 (9.4)	56 (32.7)	48 (28.1)	19 (11.1)	19 (11.1)	7 (4.1)	4 (2.3)	0 (0.0)	2 (1.2)	171 (100)
	디자인·건 축융합대학	2 (9.1)	0 (0.0)	9 (40.9)	4 (18.2)	4 (18.2)	2 (9.1)	0 (0.0)	1 (4.5)	0 (0.0)	22 (100)
	사회과학 대학	6 (9.5)	8 (12.7)	27 (42.9)	4 (6.3)	13 (20.6)	0 (0.0)	5 (7.9)	0 (0.0)	0 (0.0)	63 (100)
	생활과학 대학	5 (11.1)	9 (20.0)	17 (37.8)	5 (11.1)	6 (13.3)	1 (2.2)	2 (4.4)	0 (0.0)	0 (0.0)	45 (100)
	예술대학	3 (30.0)	0 (0.0)	3 (30.0)	2 (2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10 (100)
	의과대학	1 (9.1)	6 (54.5)	0 (0.0)	0 (0.0)	0 (0.0)	1 (9.1)	1 (9.1)	2 (18.2)	0 (0.0)	11 (100)
	인문대학	4 (8.0)	11 (22.0)	16 (32.0)	3 (6.0)	12 (24.0)	2 (4.0)	1 (2.0)	1 (2.0)	0 (0.0)	50 (100)
	자연과학 대학	6 (12.5)	6 (12.5)	14 (29.2)	6 (12.5)	11 (22.9)	1 (2.1)	3 (6.3)	0 (0.0)	1 (2.1)	48 (100)
전체		<b>52</b> <b>(10.6)</b>	<b>112</b> <b>(22.9)</b>	<b>148</b> <b>(30.3)</b>	<b>47</b> <b>(9.6)</b>	<b>79</b> <b>(16.2)</b>	<b>18</b> <b>(3.7)</b>	<b>22</b> <b>(4.5)</b>	<b>6</b> <b>(1.2)</b>	<b>5</b> <b>(1.0)</b>	<b>489</b> <b>(100)</b>

### 3) 직업 선택 기준

직업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4>와 같다. ‘적성과 흥미’가 170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환경(직장 소재지, 복리후생)’ 91명(18.6%), ‘급여 수준’ 75명(15.3%), ‘전공’ 57명(11.7%), ‘고용 안정성’ 56명(11.5%), ‘기업(경영자) 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 22명(4.5%), ‘경력관리 및 개발’ 17명(3.5%), ‘기타’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업 선택 시 기준으로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은 ‘근무 환경(직장 소재지, 복리후생) 19.7%, ‘급여 수준’ 18.0%, ‘기업(경영자) 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 16.4%, ‘경력관리 및 개발’ 4.3%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적성과 흥미’ 37.1%, ‘고용의 안정성’ 14.8%, ‘전공’ 12.1%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의과대학은 ‘전공’,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근무환경(직장 소재지, 복리후생)’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5> 직업 선택 기준

<표 4> 직업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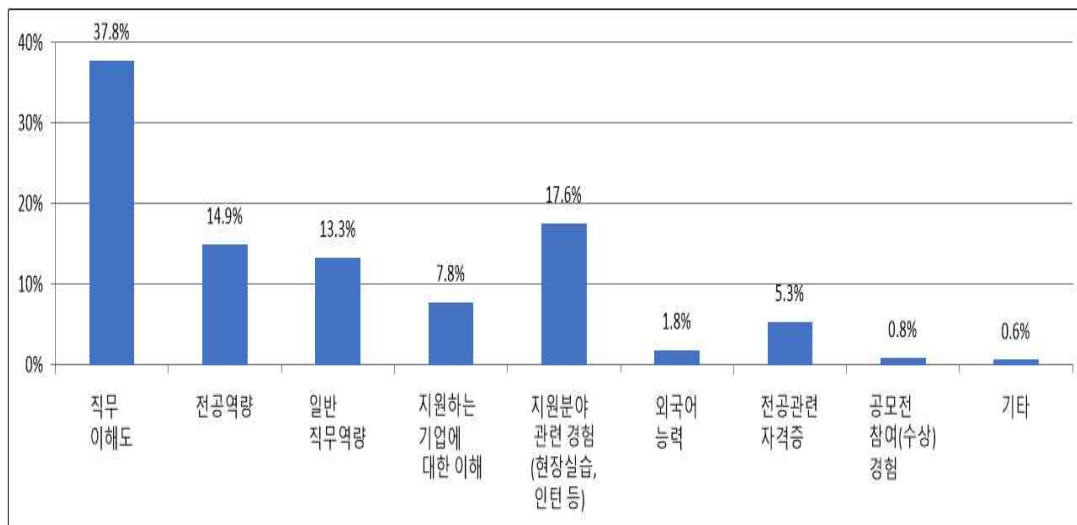
구분		적성과 흥미	전공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	경력관리 및 개발	근무환경 (직장 소재지, 복리후생)	기업자 (경영자 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	기타	전체
성별	남	75 (32.2)	26 (11.2)	42 (18.0)	18 (7.7)	10 (4.3)	46 (19.7)	15 (6.4)	1 (0.4)	233 (100)
	여	95 (37.1)	31 (12.1)	33 (12.9)	38 (14.8)	7 (2.7)	45 (17.6)	7 (2.7)	0 (0.0)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9 (27.5)	8 (11.6)	11 (15.9)	9 (13.0)	3 (4.3)	14 (20.3)	5 (7.2)	0 (0.0)	69 (100)
	공과대학	38 (22.2)	29 (17.0)	33 (19.3)	20 (11.7)	5 (2.9)	35 (20.5)	11 (6.4)	0 (0.0)	171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 (31.8)	1 (4.5)	1 (4.5)	0 (0.0)	1 (4.5)	11 (50.0)	1 (4.5)	0 (0.0)	22 (100)
	사회과학 대학	25 (39.7)	1 (1.6)	10 (15.9)	12 (19.0)	2 (3.2)	11 (17.5)	2 (3.2)	0 (0.0)	63 (100)
	생활과학 대학	22 (48.9)	3 (6.7)	5 (11.1)	6 (13.3)	2 (4.4)	6 (13.3)	1 (2.2)	0 (0.0)	45 (100)
	예술대학	6 (60.0)	2 (20.0)	1 (1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0 (100)
	의과대학	2 (18.2)	4 (36.4)	3 (27.3)	1 (9.1)	0 (0.0)	1 (9.1)	0 (0.0)	0 (0.0)	11 (100)
	인문대학	29 (58.0)	4 (8.0)	4 (8.0)	5 (10.0)	2 (4.0)	5 (10.0)	1 (2.0)	0 (0.0)	50 (100)
	자연과학 대학	22 (45.8)	5 (10.4)	7 (14.6)	3 (6.3)	2 (4.2)	7 (14.6)	1 (2.1)	1 (2.1)	48 (100)
<b>전체</b>	<b>170</b> <b>(34.8)</b>	<b>57</b> <b>(11.7)</b>	<b>75</b> <b>(15.3)</b>	<b>56</b> <b>(11.5)</b>	<b>17</b> <b>(3.5)</b>	<b>91</b> <b>(18.6)</b>	<b>22</b> <b>(4.5)</b>	<b>1</b> <b>(0.2)</b>	<b>489</b> <b>(100)</b>	

#### 4)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직무 이해도’가 185명(37.8%)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 86명(17.6%), ‘전공역량’이 73명(14.9%), ‘일반 직무역량’ 65명(13.3%),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38명(7.8%), ‘전공 관련 자격증’ 26명(5.3%), ‘외국어 능력’ 9명(1.8%),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4명(0.8%), ‘기타’ 3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무 이해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이 39.1%, 여학생이 36.7%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에서는 여학생 18.4%, 남학생이 16.7%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채용에 있어서 ‘직무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술대학이 60.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과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전공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일반 직무역량’에 대해 타 단과대학보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영대학은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단과대학보다 높았다.



<그림 6>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표 5>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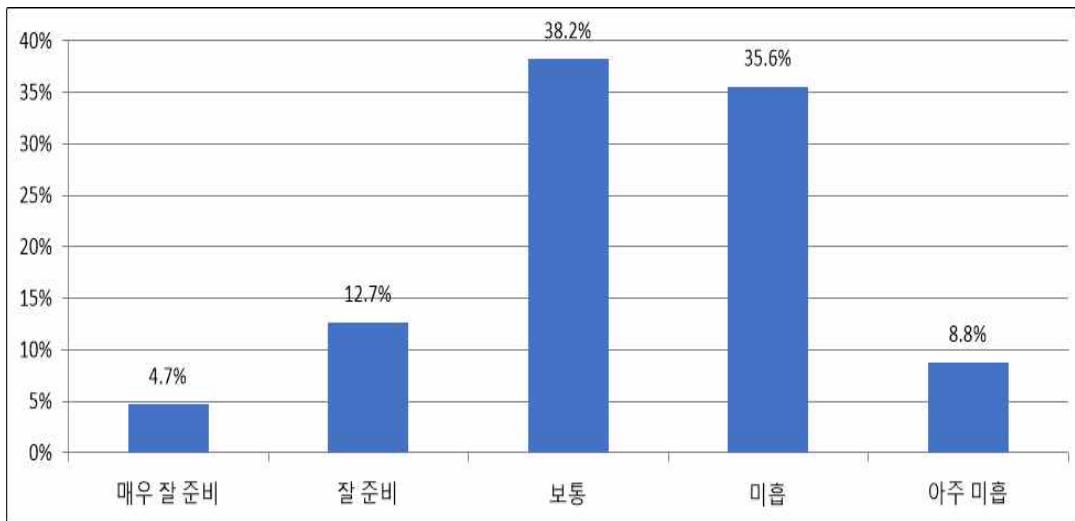
구분		직무 이해도	전공 역량	일반 직무 역량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지원분야 관련경험 (현장실 습, 인턴 등)	외국어 능력	전공관련 자격증	공모전 참여 (수상) 경험	기타	전체
성별	남	91 (39.1)	32 (13.7)	23 (9.9)	26 (11.2)	39 (16.7)	3 (1.3)	13 (5.6)	4 (1.7)	2 (0.9)	233 (100)
	여	94 (36.7)	41 (16.0)	42 (16.4)	12 (4.7)	47 (18.4)	6 (2.3)	13 (5.1)	0 (0.0)	1 (0.4)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6 (37.7)	9 (13.0)	7 (10.1)	4 (5.8)	13 (18.8)	1 (1.4)	8 (11.6)	0 (0.0)	1 (1.4)	69 (100)
	공과대학	68 (39.8)	27 (15.8)	14 (8.2)	16 (9.4)	31 (18.1)	3 (1.8)	8 (4.7)	2 (1.2)	2 (1.2)	171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8.2)	5 (22.7)	4 (18.2)	3 (13.6)	3 (13.6)	1 (4.5)	1 (4.5)	1 (4.5)	0 (0.0)	22 (100)
	사회과학 대학	22 (34.9)	5 (7.9)	13 (20.6)	5 (7.9)	12 (19.0)	1 (1.6)	5 (7.9)	0 (0.0)	0 (0.0)	63 (100)
	생활과학 대학	18 (40.0)	7 (15.6)	10 (22.2)	0 (0.0)	9 (20.0)	0 (0.0)	1 (2.2)	0 (0.0)	0 (0.0)	45 (100)
	예술대학	6 (60.0)	1 (10.0)	1 (10.0)	0 (0.0)	2 (20.0)	0 (0.0)	0 (0.0)	0 (0.0)	0 (0.0)	10 (100)
	의과대학	1 (9.1)	5 (45.5)	2 (18.2)	3 (27.3)	0 (0.0)	0 (0.0)	0 (0.0)	0 (0.0)	0 (0.0)	11 (100)
	인문대학	21 (42.0)	4 (8.0)	8 (16.0)	5 (10.0)	9 (18.0)	2 (4.0)	1 (2.0)	0 (0.0)	0 (0.0)	50 (100)
	자연과학 대학	19 (39.6)	10 (20.8)	6 (12.5)	2 (4.2)	7 (14.6)	1 (2.1)	2 (4.2)	1 (2.1)	0 (0.0)	48 (100)
전체		<b>185</b> <b>(37.8)</b>	<b>73</b> <b>(14.9)</b>	<b>65</b> <b>(13.3)</b>	<b>38</b> <b>(7.8)</b>	<b>86</b> <b>(17.6)</b>	<b>9</b> <b>(1.8)</b>	<b>26</b> <b>(5.3)</b>	<b>4</b> <b>(0.8)</b>	<b>3</b> <b>(0.6)</b>	<b>489</b> <b>(100)</b>

## 5)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진로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보통' 187명(38.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미흡'이 174명(35.6%), '잘 준비' 62명(12.7%), '아주 미흡' 43명(8.8%), '매우 잘 준비' 23명(4.7%)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17.4%만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해 재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22.3%가 진로성숙도가 잘 준비되어 있거나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12.9%로 응답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조금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의 36.4%가 진로성숙도가 잘 준비되어 있거나 매우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타 단과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생활과학대학 13.3%, 인문대학은 6.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7>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표 6>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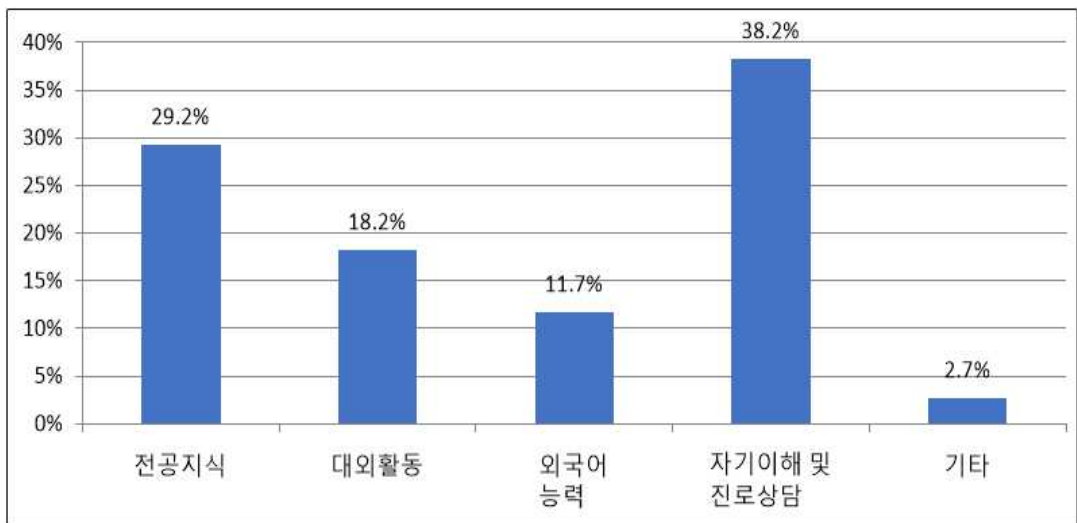
구분		매우 잘 준비	잘 준비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전체
성별	남	15 (6.4)	37 (15.9)	93 (39.9)	67 (28.8)	21 (9.0)	233 (100)
	여	8 (3.1)	25 (9.8)	94 (36.7)	107 (41.8)	22 (8.6)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3 (4.3)	11 (15.9)	25 (36.2)	25 (36.2)	5 (7.2)	69 (100)
	공과대학	5 (2.9)	28 (16.4)	73 (42.7)	51 (29.8)	14 (8.2)	171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 (4.5)	3 (13.6)	5 (22.7)	11 (50.0)	2 (9.1)	22 (100)
	사회과학대학	2 (3.2)	7 (11.1)	19 (30.2)	26 (41.3)	9 (14.3)	63 (100)
	생활과학대학	2 (4.4)	4 (8.9)	14 (31.1)	22 (48.9)	3 (6.7)	45 (100)
	예술대학	1 (10.0)	2 (20.0)	2 (20.0)	5 (50.0)	0 (0.0)	10 (100)
	의과대학	2 (18.2)	2 (18.2)	4 (36.4)	2 (18.2)	1 (9.1)	11 (100)
	인문대학	0 (0.0)	3 (6.0)	23 (46.0)	21 (42.0)	3 (6.0)	50 (100)
	자연과학대학	7 (14.6)	2 (4.2)	22 (45.8)	11 (22.9)	6 (12.5)	48 (100)
<b>전체</b>		<b>23</b> <b>(4.7)</b>	<b>62</b> <b>(12.7)</b>	<b>187</b> <b>(38.2)</b>	<b>174</b> <b>(35.6)</b>	<b>43</b> <b>(8.8)</b>	<b>489</b> <b>(100)</b>

## 6) 진로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기 이해 및 진로상담’이 187명(38.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전공지식’ 143명(29.2%), ‘대외활동’ 89명(18.2%), ‘외국어 능력’ 57명(11.7%), ‘기타’ 13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이해 및 진로상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36.5%, 여학생 39.8%로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전공지식’도 33.9%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자기 이해 및 진로상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공과대학과 의과대학은 ‘전공지식’,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대외활동’이 가장 높았다.



<그림 8>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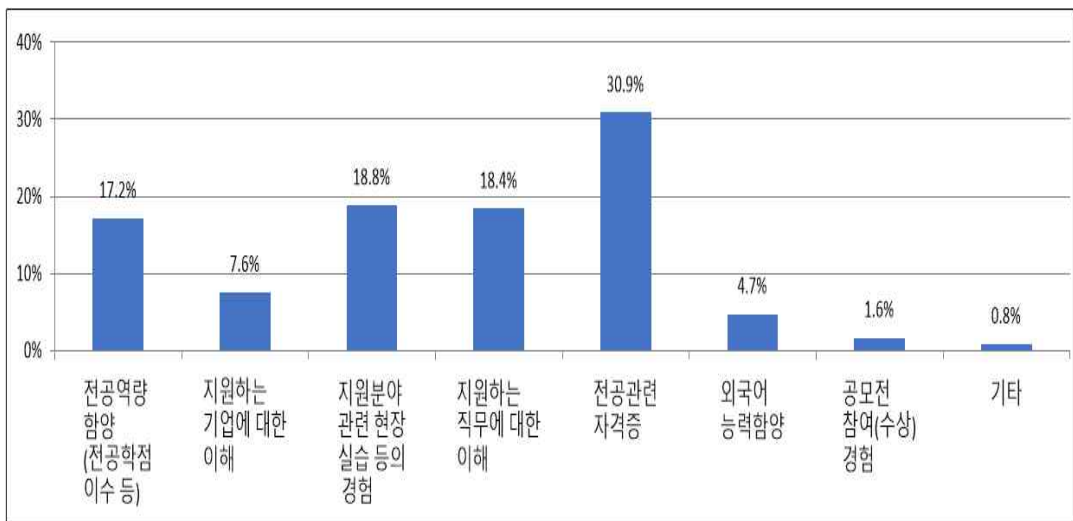
구분		전공지식	대외활동	외국어능력	자기이해 및 진로상담	기타	전체
성별	남	79 (33.9)	46 (19.7)	18 (7.7)	85 (36.5)	5 (2.1)	233 (100)
	여	64 (25.0)	43 (16.8)	39 (15.2)	102 (39.8)	8 (3.1)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7 (24.6)	13 (18.8)	7 (10.1)	28 (40.6)	4 (5.8)	69 (100)
	공과대학	66 (38.6)	33 (19.3)	18 (10.5)	51 (29.8)	3 (1.8)	171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 (22.7)	9 (40.9)	1 (4.5)	6 (27.3)	1 (4.5)	22 (100)
	사회과학대학	13 (20.6)	10 (15.9)	7 (11.1)	32 (50.8)	1 (1.6)	63 (100)
	생활과학대학	12 (26.7)	8 (17.8)	4 (8.9)	19 (42.2)	2 (4.4)	45 (100)
	예술대학	2 (20.0)	3 (30.0)	0 (0.0)	5 (50.0)	0 (0.0)	10 (100)
	의과대학	7 (63.6)	0 (0.0)	1 (9.1)	3 (27.3)	0 (0.0)	11 (100)
	인문대학	4 (8.0)	7 (14.0)	11 (22.0)	26 (52.0)	2 (4.0)	50 (100)
	자연과학대학	17 (35.4)	6 (12.5)	8 (16.7)	17 (35.4)	0 (0.0)	48 (100)
전체		<b>143</b> <b>(29.2)</b>	<b>89</b> <b>(18.2)</b>	<b>57</b> <b>(11.7)</b>	<b>187</b> <b>(38.2)</b>	<b>13</b> <b>(2.7)</b>	<b>489</b> <b>(100)</b>

## 7)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공 관련 자격증’이 151명(30.9%)으로 4학년 재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92명(18.8%),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90명(18.4%),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84명(17.2%),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37명(7.6%), ‘외국어 능력 함양’ 23명(4.7%),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8명(1.6%), ‘기타’ 4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은 ‘전공 관련 자격증’,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전공 관련 자격증’,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전공 관련 자격증’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은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인문대학은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그림 9>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표 8>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구분		전공역량 (전공학점 이수 등)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지원분야 관련 현장 실습 경험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전공 관련 자격증	외국어 능력 함양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기타	전체
성별	남	32 (13.7)	20 (8.6)	39 (16.7)	56 (24.0)	69 (29.6)	10 (4.3)	6 (2.6)	1 (0.4)	233 (100)
	여	52 (20.3)	17 (6.6)	53 (20.7)	34 (13.3)	82 (32.0)	13 (5.1)	2 (0.8)	3 (1.2)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6 (8.7)	4 (5.8)	15 (21.7)	11 (15.9)	29 (42.0)	3 (4.3)	1 (1.4)	0 (0.0)	69 (100)
	공과대학	25 (14.6)	12 (7.0)	30 (17.5)	34 (19.9)	59 (34.5)	8 (4.7)	2 (1.2)	1 (0.6)	171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4 (18.2)	1 (4.5)	5 (22.7)	7 (31.8)	3 (13.6)	0 (0.0)	2 (9.1)	0 (0.0)	22 (100)
	사회과학 대학	3 (4.8)	4 (6.3)	16 (25.4)	12 (19.0)	24 (38.1)	3 (4.8)	0 (0.0)	1 (1.6)	63 (100)
	생활과학 대학	14 (31.1)	1 (2.2)	9 (20.0)	8 (17.8)	11 (24.4)	0 (0.0)	2 (4.4)	0 (0.0)	45 (100)
	예술대학	4 (40.0)	0 (0.0)	2 (20.0)	3 (30.0)	1 (10.0)	0 (0.0)	0 (0.0)	0 (0.0)	10 (100)
	의과대학	7 (63.6)	2 (18.2)	1 (9.1)	0 (0.0)	0 (0.0)	1 (9.1)	0 (0.0)	0 (0.0)	11 (100)
	인문대학	10 (20.0)	10 (20.0)	5 (10.0)	8 (16.0)	9 (18.0)	7 (14.0)	0 (0.0)	1 (2.0)	50 (100)
	자연과학 대학	11 (22.9)	3 (6.3)	9 (18.8)	7 (14.6)	15 (31.3)	1 (2.1)	1 (2.1)	1 (2.1)	48 (100)
<b>전체</b>	<b>84 (17.2)</b>	<b>37 (7.6)</b>	<b>92 (18.8)</b>	<b>90 (18.4)</b>	<b>151 (30.9)</b>	<b>23 (4.7)</b>	<b>8 (1.6)</b>	<b>4 (0.8)</b>	<b>489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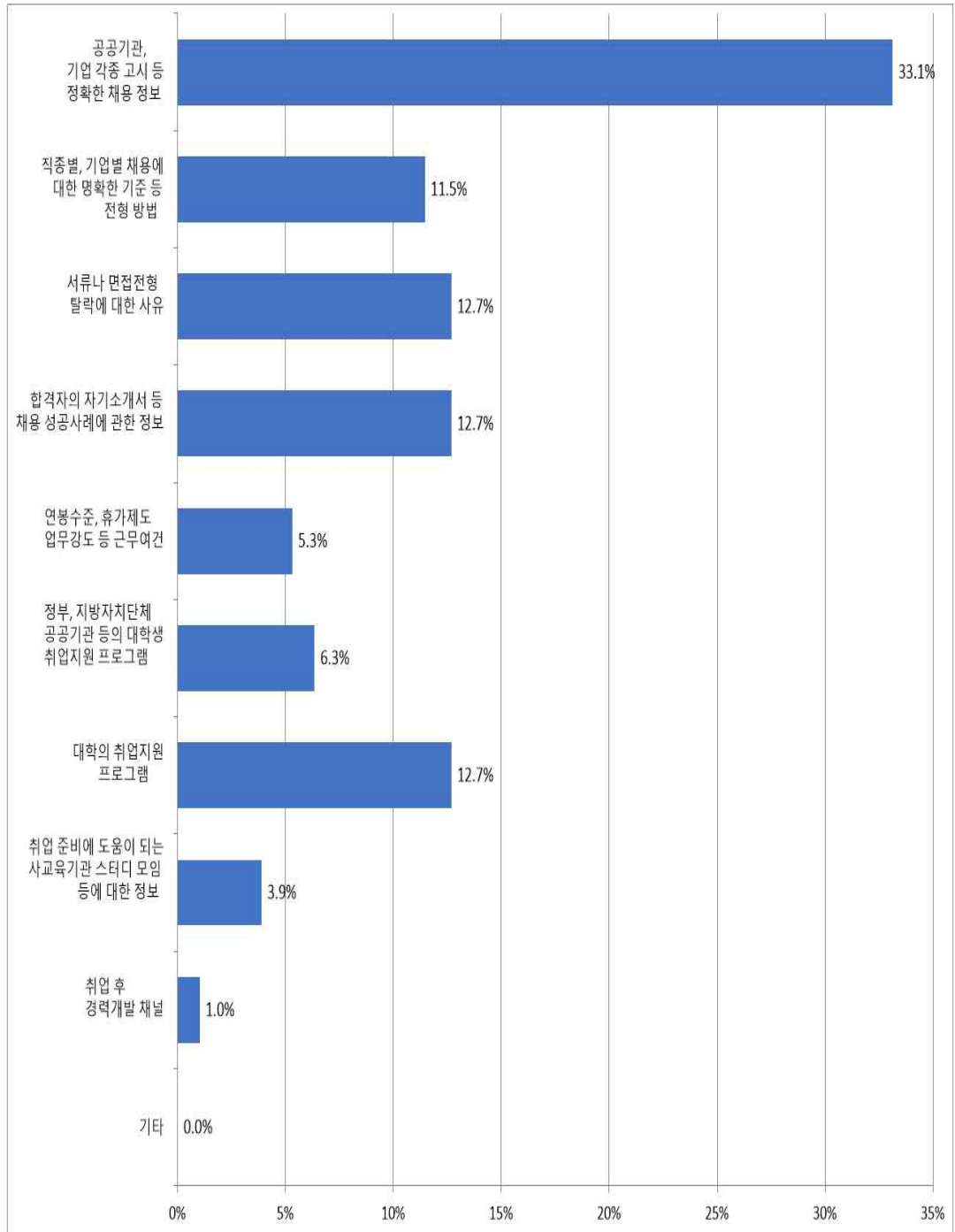
## 8)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정보’가 162명(33.1%)으로 학교로부터 가장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62명(12.7%)이었고, ‘직종별, 기업별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전형방법’ 56명(11.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31명(6.3%), ‘연봉 수준, 휴가제도, 업무 강도 등 근무여건’ 26명(5.3%),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기관,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19명(3.9%), ‘취업 후 경력개발 채널’ 5명(1.0%) ‘기타’ 4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은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 정보’, ‘직종별, 기업별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전형방법’,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정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정보’를 가장 제공 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과학대학과 예술대학은 각각 41.3%, 40.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의과대학은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가장 제공 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표 9>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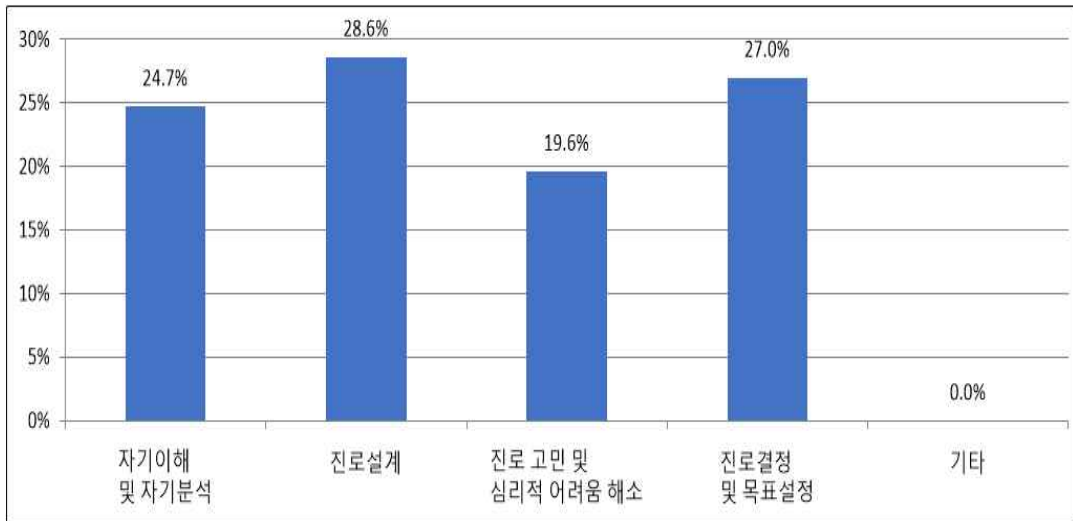
구분	성별		단과대학									전체
	남	여	경영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정보	76 (32.6)	86 (33.6)	19 (27.5)	53 (31.0)	6 (27.3)	26 (41.3)	16 (35.6)	4 (40.0)	2 (18.2)	16 (32.0)	20 (41.7)	<b>162</b> <b>(33.1)</b>
직종, 기업별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전형방법	32 (13.7)	24 (9.4)	11 (15.9)	28 (16.4)	2 (9.1)	1 (1.6)	6 (13.3)	1 (10.0)	2 (18.2)	4 (8.0)	1 (2.1)	<b>56</b> <b>(11.5)</b>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32 (13.7)	30 (11.7)	10 (14.5)	20 (11.7)	2 (9.1)	6 (9.5)	2 (4.4)	1 (10.0)	6 (54.5)	9 (18.0)	6 (12.5)	<b>62</b> <b>(12.7)</b>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성공 사례에 관한 정보	26 (11.2)	36 (14.1)	7 (10.1)	20 (11.7)	2 (9.1)	13 (20.6)	7 (15.6)	1 (10.0)	1 (9.1)	3 (6.0)	8 (16.7)	<b>62</b> <b>(12.7)</b>
연봉수준, 휴가제도, 업무강도 등 근무여건	14 (6.0)	12 (4.7)	3 (4.3)	11 (6.4)	5 (22.7)	1 (1.6)	1 (2.2)	1 (10.0)	0 (0.0)	2 (4.0)	2 (4.2)	<b>26</b> <b>(5.3)</b>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7 (3.0)	24 (9.4)	2 (2.9)	8 (4.7)	2 (9.1)	8 (12.7)	3 (6.7)	0 (0.0)	0 (0.0)	5 (10.0)	3 (6.3)	<b>31</b> <b>(6.3)</b>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32 (13.7)	30 (11.7)	13 (18.8)	19 (11.1)	1 (4.5)	4 (6.3)	7 (15.6)	1 (10.0)	0 (0.0)	10 (20.0)	7 (14.6)	<b>62</b> <b>(12.7)</b>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기관,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8 (3.4)	11 (4.3)	3 (4.3)	8 (4.7)	1 (4.5)	3 (4.8)	2 (4.4)	0 (0.0)	0 (0.0)	1 (2.0)	1 (2.1)	<b>19</b> <b>(3.9)</b>
취업 후 경력 개발 채널	4 (1.7)	1 (0.4)	1 (1.4)	2 (1.2)	0 (0.0)	1 (1.6)	0 (0.0)	1 (10.0)	0 (0.0)	1 (2.0)	0 (0.0)	<b>5</b> <b>(1.0)</b>
기타	2 (0.9)	2 (0.8)	0 (0.0)	2 (1.2)	0 (0.0)	0 (0.0)	1 (2.2)	0 (0.0)	0 (0.0)	1 (2.0)	0 (0.0)	<b>4</b> <b>(0.8)</b>
<b>전체</b>	<b>233</b> <b>(100)</b>	<b>256</b> <b>(100)</b>	<b>69</b> <b>(100)</b>	<b>171</b> <b>(100)</b>	<b>22</b> <b>(100)</b>	<b>63</b> <b>(100)</b>	<b>45</b> <b>(100)</b>	<b>10</b> <b>(100)</b>	<b>11</b> <b>(100)</b>	<b>50</b> <b>(100)</b>	<b>48</b> <b>(100)</b>	<b>489</b> <b>(100)</b>

### 9)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진로설계’가 140명(28.6%)으로 학교로부터 가장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진로결정 및 목표설정’ 132명(27.0%), ‘자기 이해 및 자기분석’ 121명(24.7%), ‘진로 고민 및 어려움 해소’ 96명(19.6%), ‘기타’ 0명(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은 ‘자기 이해 및 자기분석’, ‘진로설계’가 진로 결정 시 가장 제공 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진로설계’, ‘진로 결정 및 목표설정’가 가장 제공 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영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은 ‘진로설계’,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은 ‘진로 결정 및 목표설정’에 대해 가장 제공 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자연과학대학은 ‘진로설계’, ‘진로 결정 및 목표설정’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림 11>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표 10>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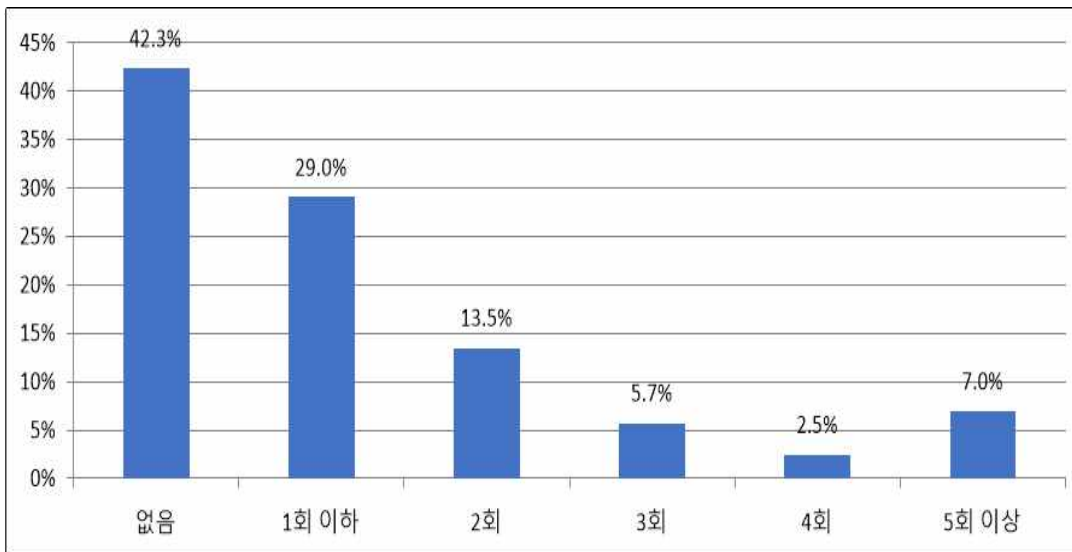
구분		자기이해 및 자기분석	진로설계	진로고민 및 심리적어려움 해소	진로결정 및 목표설정	기타	전체
성별	남	71 (30.5)	60 (25.8)	44 (18.9)	58 (24.9)	0 (0.0)	233 (100)
	여	50 (19.5)	80 (31.3)	52 (20.3)	74 (28.9)	0 (0.0)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6 (23.2)	24 (34.8)	13 (18.8)	16 (23.2)	0 (0.0)	69 (100)
	공과대학	41 (24.0)	46 (26.9)	35 (20.5)	49 (28.7)	0 (0.0)	171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6 (27.3)	8 (36.4)	4 (18.2)	4 (18.2)	0 (0.0)	22 (100)
	사회과학대학	16 (25.4)	16 (25.4)	12 (19.0)	19 (30.2)	0 (0.0)	63 (100)
	생활과학대학	13 (28.9)	15 (33.3)	8 (17.8)	9 (20.0)	0 (0.0)	45 (100)
	예술대학	3 (30.0)	4 (40.0)	0 (0.0)	3 (30.0)	0 (0.0)	10 (100)
	의과대학	5 (45.5)	2 (18.2)	2 (18.2)	2 (18.2)	0 (0.0)	11 (100)
	인문대학	8 (16.0)	11 (22.0)	15 (30.0)	16 (32.0)	0 (0.0)	50 (100)
	자연과학대학	13 (27.1)	14 (29.2)	7 (14.6)	14 (29.2)	0 (0.0)	48 (100)
<b>전체</b>		<b>121</b> <b>(24.7)</b>	<b>140</b> <b>(28.6)</b>	<b>96</b> <b>(19.6)</b>	<b>132</b> <b>(27.0)</b>	<b>0</b> <b>(0.0)</b>	<b>489</b> <b>(100)</b>

## 10)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재학 기간 전체)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참여해 본 횟수가 ‘없음’이 207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미만’ 142명(29.0%), ‘2회’ 66명(13.5%), ‘5회 이상’ 34명(7.0%), ‘3회’ 28명(5.7%), ‘4회’ 12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저조할 수 있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40.3%, 여학생 44.1%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음’에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단과대학에 비해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이 각각 70.0%, 63.6%, 52.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회 이상 참가한 비율이 높은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으로 각각 18.1%, 14.5%, 13.3%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2>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재학 기간 전체)

<표 11> 교내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재학 기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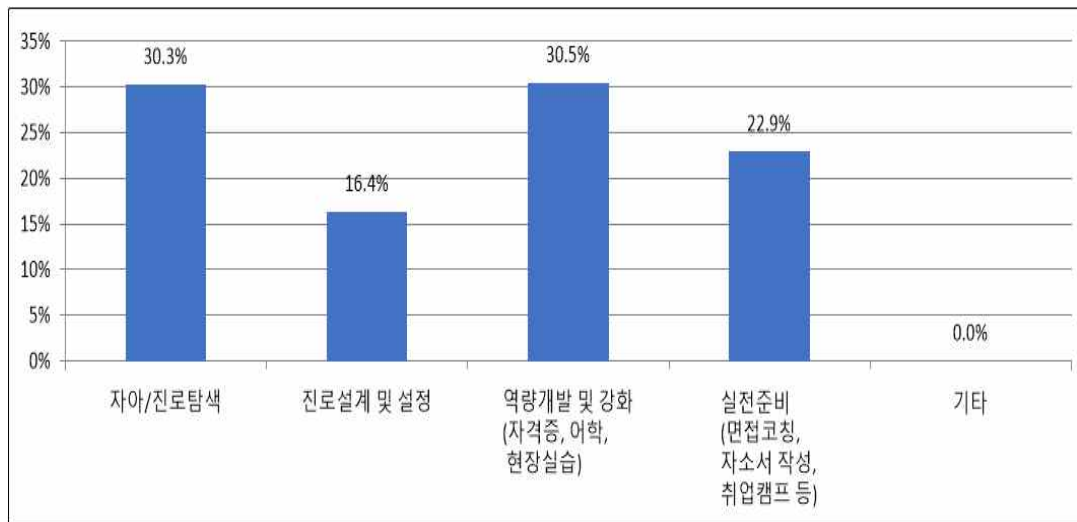
구분		없음	1회미만	2회	3회	4회	5회이상	전체
성별	남	94 (40.3)	73 (31.3)	32 (13.7)	14 (6.0)	8 (3.4)	12 (5.2)	233 (100)
	여	113 (44.1)	69 (27.0)	34 (13.3)	14 (5.5)	4 (1.6)	22 (8.6)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5 (36.2)	20 (29.0)	10 (14.5)	7 (10.1)	0 (0.0)	7 (10.1)	69 (100)
	공과대학	61 (35.7)	52 (30.4)	31 (18.1)	7 (4.1)	7 (4.1)	13 (7.6)	171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0 (45.5)	9 (40.9)	1 (4.5)	2 (9.1)	0 (0.0)	0 (0.0)	22 (100)
	사회과학대학	30 (47.6)	13 (20.6)	8 (12.7)	4 (6.3)	1 (1.6)	7 (11.1)	63 (100)
	생활과학대학	20 (44.4)	14 (31.1)	6 (13.3)	4 (8.9)	0 (0.0)	1 (2.2)	45 (100)
	예술대학	7 (70.0)	3 (30.0)	0 (0.0)	0 (0.0)	0 (0.0)	0 (0.0)	10 (100)
	의과대학	7 (63.6)	2 (18.2)	1 (9.1)	1 (9.1)	0 (0.0)	0 (0.0)	11 (100)
	인문대학	26 (52.0)	12 (24.0)	6 (12.0)	1 (2.0)	0 (0.0)	5 (10.0)	50 (100.0)
	자연과학대학	21 (43.8)	17 (35.4)	3 (6.3)	2 (4.2)	4 (8.3)	1 (2.1)	48 (100)
<b>전체</b>		<b>207</b> <b>(42.3)</b>	<b>142</b> <b>(29.0)</b>	<b>66</b> <b>(13.5)</b>	<b>28</b> <b>(5.7)</b>	<b>12</b> <b>(2.5)</b>	<b>34</b> <b>(7.0)</b>	<b>489</b> <b>(100.0)</b>

### 11)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149명(30.5%)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자아/진로 탐색’이 148명(30.3%),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112명(22.9%), ‘진로설계 및 설정’ 80명(16.4%), ‘기타’ 0명(0.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는 ‘자아/진로 탐색’,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자아/진로 탐색’,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자아/진로 탐색’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진로설계 및 설정’, 의과대학은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경영대학은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3> 참여한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표 12> 참여한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구분		자아/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설정	역량개발 및 강화 (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실전준비 (면접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기타	전체
성별	남	73 (31.3)	43 (18.5)	68 (29.2)	49 (21.0)	0 (0.0)	233 (100)
	여	75 (29.3)	37 (14.5)	81 (31.6)	63 (24.6)	0 (0.0)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8 (26.1)	7 (10.1)	22 (31.9)	22 (31.9)	0 (0.0)	69 (100)
	공과대학	42 (24.6)	28 (16.4)	57 (33.3)	44 (25.7)	0 (0.0)	171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 (22.7)	8 (36.4)	7 (31.8)	2 (9.1)	0 (0.0)	22 (100)
	사회과학대학	23 (36.5)	11 (17.5)	18 (28.6)	11 (17.5)	0 (0.0)	63 (100)
	생활과학대학	18 (40.0)	6 (13.3)	10 (22.2)	11 (24.4)	0 (0.0)	45 (100)
	예술대학	4 (40.0)	3 (30.0)	3 (30.0)	0 (0.0)	0 (0.0)	10 (100)
	의과대학	3 (27.3)	2 (18.2)	1 (9.1)	5 (45.5)	0 (0.0)	11 (100)
	인문대학	16 (32.0)	5 (10.0)	16 (32.0)	13 (26.0)	0 (0.0)	50 (100)
	자연과학대학	19 (39.6)	10 (20.8)	15 (31.3)	4 (8.3)	0 (0.0)	48 (100)
<b>전체</b>		<b>148</b> <b>(30.3)</b>	<b>80</b> <b>(16.4)</b>	<b>149</b> <b>(30.5)</b>	<b>112</b> <b>(22.9)</b>	<b>0</b> <b>(0.0)</b>	<b>489</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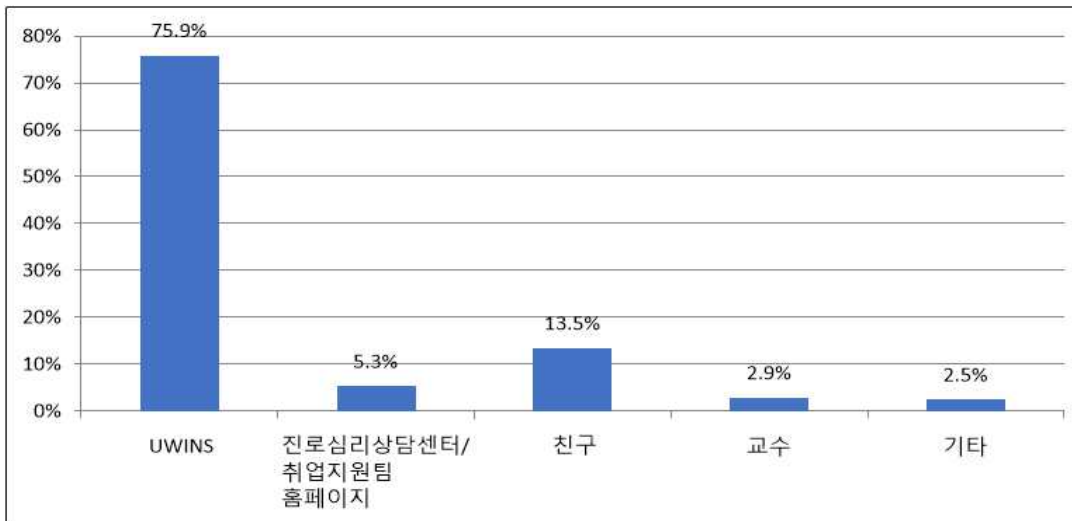


## 12)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정보를 'UWINS'에서 획득하는 경우가 371명(75.9%)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66명(13.5%), '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26명(5.3%), '교수' 14명(2.9%), '기타' 12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친구'의 응답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교수'의 응답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에서는, 모든 단과대학이 'UWINS'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의과대학은 45.5%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수'에게서 얻는다는 응답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에서는 의과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14>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표 13>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구분		UWINS	진로심리 상담센터,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친구	교수	기타	전체
성별	남	175 (75.1)	14 (6.0)	36 (15.5)	4 (1.7)	4 (1.7)	233 (100)
	여	196 (76.6)	12 (4.7)	30 (11.7)	10 (3.9)	8 (3.1)	25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62 (89.9)	3 (4.3)	4 (5.8)	0 (0.0)	0 (0.0)	69 (100)
	공과대학	121 (70.8)	10 (5.8)	34 (19.9)	3 (1.8)	3 (1.8)	171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2 (54.5)	0 (0.0)	5 (22.7)	4 (18.2)	1 (4.5)	22 (100)
	사회과학대학	51 (81.0)	1 (1.6)	8 (12.7)	3 (4.8)	0 (0.0)	63 (100)
	생활과학대학	38 (84.4)	2 (4.4)	3 (6.7)	1 (2.2)	1 (2.2)	45 (100)
	예술대학	5 (50.0)	2 (20.0)	1 (10.0)	1 (10.0)	1 (10.0)	10 (100)
	의과대학	5 (45.5)	2 (18.2)	4 (36.4)	0 (0.0)	0 (0.0)	11 (100)
	인문대학	40 (80.0)	3 (6.0)	3 (6.0)	0 (0.0)	4 (8.0)	50 (100)
	자연과학대학	37 (77.1)	3 (6.3)	4 (8.3)	2 (4.2)	2 (4.2)	48 (100)
<b>전체</b>		<b>371</b> <b>(75.9)</b>	<b>26</b> <b>(5.3)</b>	<b>66</b> <b>(13.5)</b>	<b>14</b> <b>(2.9)</b>	<b>12</b> <b>(2.5)</b>	<b>489</b> <b>(100)</b>

## IV. 종합

본 조사는 2021학년도 울산대학교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매년 사용해 온 설문지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설문지에서 진로·취업관련 문항을 발췌 및 수정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15일~ 10월 07일 까지 총 22일간이었으며, 울산대학교 학생 포털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지율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4학년 재학생은 489명으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사항

#### ■ 소속 단과대학, 성별

‘공과대학’이 171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69명(14.1%), ‘사회과학대학’ 63명(12.9%), ‘인문대학’ 50명(10.2%), ‘자연과학대학’ 48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과학대학’은 45명(9.2%),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22명(4.5%)이었으며 ‘의과대학’은 11명(2.2%)으로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10명(2.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학생이 233명(47.6%), 여학생이 256명(52.4%)으로, 여학생이 4.8%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5.8%인 130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2.4%, ‘자연과학대학’ 9.0%, ‘사회과학대학’ 8.6%, ‘인문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이 각각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사회과학대학’이 43명 16.8%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학’ 16.0%, ‘경영대학’, 15.6%, ‘인문대학’ 15.2%, ‘생활과학대학’ 14.5%, ‘자연과학대학’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진로 및 취업

#### ■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 이용 의향

‘혼자서 준비해 보다 안되면 찾아가겠다’가 193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이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가 126명(25.8%)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 이용 의향이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89명(18.2%)의 학생이 '기꺼이 찾아가 이용을 하겠다'라고 응답하였고, 65명(13.3%)은 '대학 내 진로·취업 준비 지원기관(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진로취업상담실)의 존재를 몰랐다', 16명(3.3%)은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기관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기관 이용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68.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혼자서 준비해 보다 안되면 찾아가겠다'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43.0%로 남학생의 3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이용할 마음이 있지만 쉽게 찾아갈 것 같지 않다'의 응답에서도 29.3%로 남학생의 21.9%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의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기관 이용이 남학생보다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 ■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가 148명(30.3%)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가 112명(22.9%), '취업알선 및 추천' 79명(16.2%), '적성 및 진로상담'이 52명(10.6%), '채용정보 제공' 47명(9.6%), '외국어 및 자격증' 22명(4.5%), '해외연수·인턴십' 18명(3.7%), '인·적성 검사 확대 실시' 6명(1.2%), '기타' 5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은 취업연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장체험 기회(인턴십 등) 확대',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의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직업 선택 기준

'적성과 흥미'가 170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환경(직장 소재지, 복리후생)' 91명(18.6%), '급여 수준' 75명(15.3%), '전공' 57명(11.7%), '고용 안정성' 56명(11.5%), '기업(경영자) 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 22명(4.5%), '경력관리 및 개발' 17명(3.5%), '기타'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업 선택 시 기준으로 '적성과 흥미'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은 ‘근무 환경(직장 소재지, 복리후생) 19.7%, ‘급여 수준’ 18.0%, ‘기업(경영자) 평판과 기업의 미래비전’ 6.4%, ‘경력관리 및 개발’ 4.3%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적성과 흥미’ 37.1%, ‘전공’ 12.1%, ‘고용의 안정성’ 14.8%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직무 이해도’가 185명(37.8%)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 86명(17.6%), ‘전공역량’이 73명(14.9%), ‘일반 직무역량’ 65명(13.3%),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38명(7.8%), ‘전공 관련 자격증’ 26명(5.3%), ‘외국어 능력’ 9명(1.8%),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4명(0.8%), ‘기타’ 3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무 이해도’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이 39.1%, 여학생이 36.7%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원 분야 관련 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에서는 여학생이 18.4%, 남학생이 16.7%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 진로 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의 수준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보통’ 187명(38.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미흡’이 174명(35.6%), ‘잘 준비’ 62명(12.7%), ‘아주 미흡’ 43명(8.8%), ‘매우 잘 준비’ 23명(4.7%)의 순으로 나타났다. 4학년 재학생들의 17.4%만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해 재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22.3%가 진로성숙도가 잘 준비되어 있거나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12.9%로 응답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조금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진로성숙도(진로 설정 및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 이해 및 진로상담’이 187명(38.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전공지식’

143명(29.2%), ‘대외활동’ 89명(18.2%), ‘외국어 능력’ 57명(11.7%), ‘기타’ 13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이해 및 진로상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36.5%, 여학생 39.8%로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전공지식’도 33.9%로 응답하였다.

## ■ 취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전공 관련 자격증’이 151명(30.9%)으로 4학년 재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92명(18.8%),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90명(18.4%), ‘전공역량 함양(전공 학점 이수 등)’ 84명(17.2%),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 37명(7.6%), ‘외국어 능력 함양’ 23명(4.7%), ‘공모전 참여(수상) 경험’ 8명(1.6%), ‘기타’ 4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은 ‘전공 관련 자격증’,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전공 관련 자격증’, ‘지원 분야 관련 현장실습 등의 경험’, ‘전공역량 함양(전공학점 이수 등)’ 순으로 나타났다.

## ■ 취업준비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 정보’가 162명(33.1%)으로 학교로부터 가장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62명(12.7%)이었고, ‘직종별, 기업별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전형방법’ 56명(11.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31명(6.3%), ‘연봉수준, 휴가제도, 업무강도 등 근무여건’ 26명(5.3%),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 기관, 스터디 모임 등에 대한 정보’ 19명(3.9%), ‘취업 후 경력개발 채널’ 5명(1.0%) ‘기타’ 4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은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 정

보’, ‘직종별, 기업별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 전형방법’,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공공기관, 기업, 각종 고시 등 정확한 채용 정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채용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 ‘서류나 면접 전형 탈락에 대한 사유’,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 ■ 진로 결정 시 학교로부터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

‘진로설계’가 140명(28.6%)으로 학교로부터 가장 제공 받기를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진로 결정 및 목표설정’ 132명(27.0%), ‘자기 이해 및 자기분석’ 121명(24.7%), ‘진로 고민 및 어려움 해소’ 96명(19.6%), ‘기타’ 0명(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은 ‘자기 이해 및 자기분석’, ‘진로설계’가 진로 결정 시 가장 제공 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진로설계’, ‘진로 결정 및 목표설정’가 가장 제공 받기 원하는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 ■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재학 기간 전체)

참여해 본 횟수가 ‘없음’이 207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미만’ 142명(29.0%), ‘2회’ 66명(13.5%), ‘5회 이상’ 34명(7.0%), ‘3회’ 28명(5.7%), ‘4회’ 12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취업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저조할 수 있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40.3%, 여학생 44.1%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음’에 응답하였다.

## ■ 참여한 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149명(30.5%)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자아/진로 탐색’이 148명(30.3%),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112명(22.9%), ‘진로설계 및 설정’ 80명(16.4%), ‘기타’ 0명(0.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만족도가 높았던 분야는 ‘자아/진로 탐색’,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역량개발 및 강화(자격증, 어학, 현장실습)’, ‘자아/진로 탐색’, ‘실전준비(면접 코칭, 자소서 작성, 취업캠프 등)’ 순으로 나타났다.

## ■ 채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정보를 ‘UWINS’에서 획득하는 경우가 371명(75.9%)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66명(13.5%), ‘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26명(5.3%), ‘교수’ 14명(2.9%), ‘기타’ 12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진로심리상담센터,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친구’의 응답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교수’의 응답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202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 목 차

<b>I. 서론</b> .....	<b>137</b>
<b>II. 연구방법</b> .....	<b>138</b>
1. 조사대상 .....	138
2. 조사도구 .....	138
<b>III. 조사결과</b> .....	<b>141</b>
1. 신입생의 대학 적응력 현황 .....	141
2. 신입생의 학생특성 .....	143
3. 신입생의 대학특성 .....	144
4. 신입생의 학업 여건 안정성 .....	145
<b>IV. 종합</b> .....	<b>146</b>

## 표 목 차

<표 1> 대학적응력검사(CAT)의 하위척도 소개 .....	139
<표 2> 대학적응력의 수준과 결과해석 .....	140
<표 3> 신입생의 대학적응력 현황 .....	142
<표 4> 신입생의 학생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	143
<표 5> 신입생의 대학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	144
<표 6> 신입생의 학업여건 안정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	145

# 202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 I. 서론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자아정체감 확립, 성인 생활의 준비, 진로준비 등의 다양한 발달과업에 집중되는 시기이다. 동시에, 급변한 교육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생활은 대학입시 위주의 획일적·수동적이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대학교에서의 학업 생활은 자율적·능동적이기에 다수의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생이 되면서 ‘대학생활적응’이라는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처럼 대학 1학년은 변화가 많아지는 시기이며 이때의 경험은 4년간의 대학 생활의 적응과 학업유지를 결정 짓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이후 성인기에서 적절한 역할수행과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와 맞설고 다양한 과업을 맞이하게 되는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다른 학년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청년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자아존중감도 1학년 동안은 낮아지다가 2학년이 되면서 다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전보라, 윤소정, 2017; Loeb & Magee, 1992),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신입생의 적응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고, 국내외 모두 1학년 때 진과, 휴학, 자퇴를 가장 많이 고려하며, 자퇴생의 50% 이상이 1학년 때 자퇴를 한다(김수연, 이재열, 박해미, 시기자, 2006). 이에 따라 신입생들의 적응도를 조기 예측하여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와 구체적 현황을 알아보고,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요인, 대학기관적 요인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이를 통해 신입생들의 초기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본교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효율적인 대학 생활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2021년도 울산대학교 전체 신입생 2,523명(2021년 11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1월 1일~12월 1일 총 30일간 신입생 문자메시지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검사를 실시 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신입생은 총 57명으로 참여율은 2.3%이며 총 57명의 데이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 도구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대학적응력검사(College student Adaptability Test, CAT)이다.

이 도구는 대학생의 대학적응력, 학업지속경향성과 중도탈락경향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총 158개 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결과는 종합지수인 대학적응력 지수를 비롯한 학생특성, 대학특성, 학업여건 안정성검사의 항목으로 나뉘어지며 각 하위척도에 대한 소개는 <표 1>과 같다. T점수를 기준으로 각 특성별의 3수준을 <표 2>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표 1> 대학적응력검사(CAT)의 하위척도 소개

특성	하위척도	척도설명
학생특성	학문적 통합성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 학습습관 형성 정도 등을 측정 지적 관심, 읽기를 즐기는 정도 및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는 정도를 측정 기초학습능력에 대해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
	사회적 통합성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인 정도를 측정 타인과의 의사소통 정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정도 및 선·후배와의 관계를 측정
	정서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주의집중력, 충동성 장애의 정도를 측정
	진로정체성	진로 목적의 명확성,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과 진로 정체성의 정도를 측정
대학특성	대학교육 만족도	대학의 교육지원체제, 대학 이미지 및 대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생활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기대 정도를 측정
	교육서비스만족도	교육과정, 수업, 대학 생활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교수와의 관계	교수의 이미지, 보살핌 정도,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
학업여건 안정성	가정의 경제성 안정성	대학에 다닐 동안 유용 가능한 금전적 여유(등록금 및 생활비용 등 직간접 비용)에 만족하는 정도, 재정적 비용 자원의 안정성을 측정
	가정의 정서적 지원	가정의 정서적 지원 및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측정
	학업지속안정성	학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하여 학업 지속 안정성의 정도를 측정

<표 2> 대학적응력의 수준과 결과해석

	T점수 범위	대학적응력 수준	결과해석
특성 척도	45이하 (하30%)	고위험군	각 특성의 영향으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음
	46~54 (31~69%)	잠재위험군	각 특성의 영향으로 잠재적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음
	55이상 (상30%)	성공역량군	각 특성의 영향으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낮음



### III. 조사 결과

#### 1. 신입생의 대학적응력 현황

울산대학교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 실태조사에서 대학적응력검사(College student Adaptability Test, CAT)의 158개 문항에 응답한 학생은 총 57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이 21명(36.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경영대학 10명(17.5%), 사회과학대학 6명(10.5%), 인문대학 5명(8.8%),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각각 4명(7.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력 평균은 52.4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생활적응력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여건 안정성 점수가 5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학생특성 점수, 대학특성 점수는 각각 49.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 신입생의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여건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반면, 학생 개인의 학업수행, 진로 정체성, 사회성 및 정서 등의 측면과 대학교육, 서비스, 교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적응력의 특성요인별로,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19명(33.3%),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19명(33.3%),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19명(33.3%)으로 나타났다.

대학적응력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학생특성' 19명(33.3%)과 '대학특성' 19명(33.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들의 학업수행과 관련된 역량 수준, 새로운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 적응, 대학교육의 불만족은 학업중도탈락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도탈락 위험 학생은 19명으로 전체 인원의 33.3%에 해당하는 비율로, 휴학 19명(33.3%), 자퇴 1명(1.8%)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큰 기대와 함께 대학에 진학하지만, 진학 후 대학 생활에서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접하게 될 수 있고, 대학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변화된 환경과 주어진 역할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적응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위험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잠재위험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3> 신입생의 대학적응력 현황

	평균 (점수)	신입생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대학적응력	49.9	19명 (33.3%)	19명 (33.3%)	19명 (33.3%)	57명 (100%)					
학생특성	49.4	19명 (33.3%)	20명 (35.1%)	18명 (31.6%)	57명 (100%)					
대학특성	49.4	19명 (33.3%)	20명 (35.1%)	18명 (31.6%)	57명 (100%)					
학업여건안정성	57.0	8명 (14.1%)	15명 (26.3%)	34명 (59.6%)	57명 (100%)					
< 중도탈락위험 학생분포 현황 >										
중도탈락 위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휴학</td> <td>자퇴</td> <td>중복인원</td> </tr> <tr> <td>19명 (33.3%)</td> <td>1명 (1.8%)</td> <td>1명 (1.8%)</td> </tr> </table>			휴학	자퇴	중복인원	19명 (33.3%)	1명 (1.8%)	1명 (1.8%)	19명 (33%)
	휴학	자퇴	중복인원							
19명 (33.3%)	1명 (1.8%)	1명 (1.8%)								

※ 휴학 또는 자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중복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

## 2. 신입생의 학생특성

신입생들의 학업 수행, 진로 정체성, 사회성 및 정서 등 측면에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학생특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생특성 평균은 52.4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특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성과 학문적 통합성 점수가 5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적 통합성과 진로정체성이 44.7점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인의 특성요인별로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18명(31.6%),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20명(35.1%),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19명(33.3%)으로 나타났다.

학생특성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사회적 통합성’ 32명(56.1%)과 ‘진로 정체성’ 33명(57.8%)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원만한 동료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태도와 역량에 대한 어려움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인지 부족은 대학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업중도탈락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신입생의 학생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평균 (점수)	신입생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b>학생특성</b>	<b>49.4</b>	<b>19명 (33.3%)</b>	<b>20명 (35.1%)</b>	<b>18명 (31.6%)</b>	<b>57명 (100%)</b>
학문적통합성	52.0	11명 (19.3%)	20명 (35.1%)	26명 (45.6%)	57명 (100%)
사회적 통합성	44.7	32명 (56.1%)	16명 (28.1%)	9명 (15.8%)	57명 (100%)
정서적 안정성	52.0	13명 (22.8%)	23명 (40.4%)	21명 (36.8%)	57명 (100%)
진로 정체성	44.7	33명 (57.8%)	12명 (21.1%)	12명 (21.1%)	57명 (100%)

### 3. 신입생의 대학특성

신입생들의 대학교육만족도, 교육서비스만족도 및 전공 교수와의 관계 등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대학특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특성 평균은 49.4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특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교육만족도 점수가 5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교육서비스만족도 50.8점, 교수와의 관계가 4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의 경우 학교의 교육내용과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등에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교수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대학 특성요인에 따라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15명(26.3%),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20명(35.1%),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22명(38.6%)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교수와의 관계’ 38명(66.7%)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지도교수들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성공역량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대학교육만족도’ 30명(52.6%)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입생의 대학특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평균 (점수)	신입생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대학특성	49.4	22명 (38.6%)	20명 (35.1%)	15명 (26.3%)	57명 (100%)
교수와의 관계	42.6	38명 (66.7%)	14명 (24.5%)	5명 (8.8%)	57명 (100%)
교육서비스만족도	50.8	15명 (56.1%)	22명 (28.1%)	20명 (35.1%)	57명 (100%)
대학교육만족도	52.6	11명 (19.3%)	16명 (28.1%)	30명 (52.6%)	57명 (100%)

#### 4. 신입생의 학업여건 안정성

신입생들의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 정서적 지지, 학업 지속 안정성 등에서 학업을 지속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도를 평가하는 ‘학업여건 안정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업여건 안정성 평균은 57.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여건 안정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경제적 안정성 점수가 5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학업지속 가능성 54.9점, 가정의 정서적지지 52.5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여건 안정성의 세부요인 T점수 평균은 모두 50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몰입하기 위한 경제적, 정서적, 시간적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여건 안정성 요인에 따라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34명(59.6%),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15명(26.3%),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8명(14.1%)으로 나타났다.

학업여건 안정성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가정의 정서적 지지’ 12명(21.1%)으로 나타났다. 성공역량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 39명(68.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결과의 바탕으로 경제적인 안정성과 가정의 정서적 지지는 대학생들의 적응과 중도탈락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6> 신입생의 학업여건 안정성과 하위요인별 현황

	평균 (점수)	신입생			전체
		고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성공역량집단	
<b>학업여건안정성</b>	<b>57.0</b>	<b>8명 (14.1%)</b>	<b>15명 (26.3%)</b>	<b>34명 (59.6%)</b>	<b>57명 (100%)</b>
경제적 안정성	59.3	7명 (12.3%)	11명 (19.3%)	39명 (68.4%)	57명 (100%)
가정의 정서적 지지	52.5	12명 (21.1%)	24명 (42.1%)	21명 (36.8%)	57명 (100%)
학업지속가능성	54.9	7명 (12.3%)	19명 (33.3%)	31명 (54.4%)	57명 (100%)

## IV. 종합

본 조사는 대학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학업적, 심리적 위기로 인하여 학업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 상황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대학 생활의 적응력을 고취 시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신입생 57명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울산대학교 신입생 대학 생활 적응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7명으로 나타났으며,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이 21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경영대학 10명(17.5%), 사회과학대학 6명(10.5%), 인문대학 5명(8.8%),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각각 4명(7.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력 평균은 52.4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생활적응력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여건 안정성 점수가 5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학생특성 점수, 대학특성 점수는 각각 49.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적응력의 특성요인별로,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19명(33.3%),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19명(33.3%),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19명(33.3%)으로 나타났다.

대학적응력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학생특성’ 19명(33.3%)과 ‘대학특성’ 19명(33.3%)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위험 학생은 19명으로 전체 인원의 33.3%에 해당하는 비율로, 휴학 19명(33.3%), 자퇴 1명(1.8%)으로 나타났다.

학생특성 평균은 52.4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특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성과 학문적 통합성 점수가 각각 5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회적 통합성과 진로 정체성이 44.7점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인의 특성요인별로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18명(31.6%),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20명(35.1%),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19명(33.3%)으로 나타났다.

학생특성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사회적 통합성’ 32명(56.1%)과 ‘진로 정체성’ 33명(57.8%)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 평균은 49.4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특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교육만족도 점수가 5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교육서비스만족도 50.8점, 교수와의 관계가 42.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특성요인에 따라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15명(26.3%),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20명(35.1%),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22명(38.6%)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교수와의 관계’ 38명(66.7%)으로 나타났고, 성공역량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대학교육만족도’ 30명(52.6%)으로 나타났다.

학업여건 안정성 평균은 57.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여건 안정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경제적 안정성 점수가 5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학업지속 가능성 54.9점, 가정의 정서적지지 52.5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여건 안정성 요인에 따라 대학적응력이 높아 대학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역량집단이 34명(59.6%), 대학적응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집단이 15명(26.3%), 대학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이 8명(14.1%)으로 나타났다.

학업여건 안정성의 하위척도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위험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가정의 정서적 지지’ 12명(21.1%)으로 나타났고, 성공역량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 39명(68.4%)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대학 생활 적응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가능성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집단의 특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신입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겠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업 중도탈락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202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 목 차

I. 서론 .....	154
II. 연구방법 .....	155
1. 조사대상 및 기간 .....	155
2. 조사도구 .....	155
3. 조사내용 .....	155
III. 조사 결과 .....	157
1. 일반사항 .....	157
1) 소속 단과대학 .....	157
2) 성별 .....	159
3) 학년 .....	160
2. 대학 생활 및 학업 .....	161
1)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	161
2)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	163
3) 대학 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	165
4) 전공 만족도 .....	167
5)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	169
6)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	171
7)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73
8) 휴학 의사 .....	175
9) 휴학하고 싶은 이유 .....	177
10) 편입 고려 여부 .....	179
11) 편입 고려 이유 .....	181
12) 자퇴 고려 여부 .....	183

13) 자퇴 고려 이유 .....	185
14)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	187
15)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	189
16)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	191
<b>3. 진로 및 취업 .....</b>	<b>193</b>
1)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	193
2)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	195
3)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	197
4)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	199
5)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	202
6) 취업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	204
7)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	206
<b>4. 정신건강 .....</b>	<b>209</b>
1)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	209
2)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	211
3)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	213
4) 자살 시도 경험 .....	215
5) 자해 경험 .....	217
<b>5. 진로심리상담센터 .....</b>	<b>219</b>
1)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	219
2)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	219
<b>IV. 종합 .....</b>	<b>224</b>
1. 일반사항 .....	224
2. 대학 생활 및 학업 .....	225
3. 진로 및 취업 .....	230
4. 정신건강 .....	233
5. 진로심리상담센터 .....	235

## 표 목 차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158
<표 2>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	162
<표 3>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	164
<표 4> 대학 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부분 .....	166
<표 5> 전공 만족도 .....	168
<표 6> 전공이 불만족한 이유 .....	170
<표 7>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	172
<표 8>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74
<표 9> 휴학 의사 .....	176
<표 10> 휴학하고 싶은 이유 .....	178
<표 11> 편입 고려 여부 .....	180
<표 12> 편입 고려 이유 .....	182
<표 13> 자퇴 고려 여부 .....	184
<표 14> 자퇴 고려 이유 .....	186
<표 15>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	188
<표 16>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	190
<표 17>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	192
<표 18>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	194
<표 19>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	196
<표 20>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	198
<표 21>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	201
<표 22> 취업 후 희망하는 지역 .....	203
<표 23>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	205
<표 24>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성별, 학년) .....	208
<표 25>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	210
<표 26>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	212
<표 27>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	214

<표 28> 자살 시도 경험 .....	216
<표 29> 자해 경험 .....	218
<표 30>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이용 의사 .....	220
<표 31>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	223

## 그림목차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	157
<그림 2> 성별 .....	159
<그림 3> 학년 .....	159
<그림 4>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	161
<그림 5>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	163
<그림 6> 대학 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부분 .....	165
<그림 7> 전공 만족도 .....	167
<그림 8> 전공이 불만족한 이유 .....	169
<그림 9>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	171
<그림 10>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73
<그림 11> 휴학 의사 .....	175
<그림 12> 휴학하고 싶은 이유 .....	177
<그림 13> 편입 고려 여부 .....	179
<그림 14> 편입 고려 이유 .....	181
<그림 15> 자퇴 고려 여부 .....	183
<그림 16> 자퇴 고려 이유 .....	185
<그림 17>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	187
<그림 18>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	189
<그림 19>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	191
<그림 20>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	193
<그림 21>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	195
<그림 22>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	197
<그림 23>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	200
<그림 24> 취업 후 희망하는 지역 .....	202
<그림 25>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	204
<그림 26>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성별, 학년) ....	207
<그림 27>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	209
<그림 28>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	211
<그림 29>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	213

<그림 30> 자살 시도 경험 .....	215
<그림 31> 자해 경험 .....	217
<그림 32>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이용 의사 .....	219
<그림 33>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	222



# 202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 I. 서론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청년기를 시작한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갖고 활동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성인의 생활양식과 유사해진다는 점에서 성인기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 생활 기간은 취업을 위한 준비와 자아실현의 시기로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 시 경험하게 되는 환경 변화에는 입시 위주의 타율적 교육환경에서 자율적인 교육환경으로의 변화, 동아리 활동과 학과활동 등 사회경험을 통한 인간관계의 확대, 성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율적 의사결정권과 그에 따른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 과정에서 정서문제, 학업문제, 취업문제, 진로문제, 인간관계 등 환경의 변화를 다양하게 겪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과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지 못한 학생들은 친구와 교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학업성취 등 학업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전공 만족도, 진로미결정, 직업준비행동 등 진로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취업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습부진, 학업중단, 대학 중도이탈, 졸업유예, 학교 이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중도탈락 학생은 매년 탈락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재학생 수가 감소하여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대학에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에게도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심리적인 부담과 학업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진리심리상담센터는 본교 재학생들의 대학적응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재학생들의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도모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주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의 대상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10,870명이다(2021년 12월 기준). 조사는 2021년 12월 30일~ 2022년 1월 3일 4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실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0,271명으로 참여율은 94.5%이며 총 10,271명의 데이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 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본 센터에서 작성하여 매년 사용해 온 설문지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학생들을 위해 수정·보완된 실태조사 설문지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의 영역별 구성내용과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영역	구성내용	세부문항
일반사항	인적사항	소속 단과대학
		성별
		학년
대학 생활 및 학업	대학 생활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대학 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대학전공 관련	전공 만족도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휴학 의사
		휴학하고 싶은 이유
		편입 고려 여부
		자퇴 고려 여부
		자퇴 고려 이유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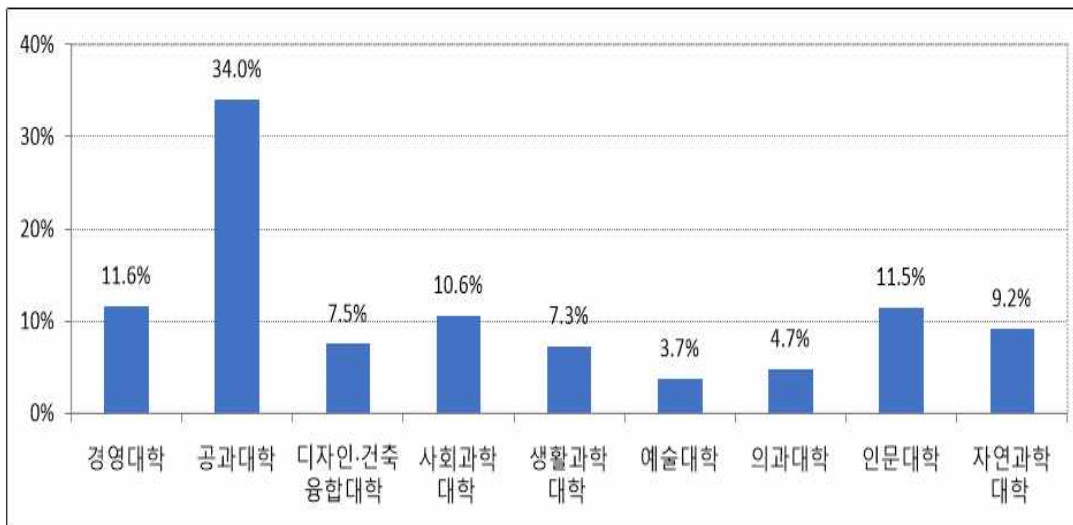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진로 및 취업	진로와 취업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정신건강	정신건강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자살 시도 경험
		자해 경험
진로심리 상담센터	진로심리 상담센터 서비스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b>문항수</b>		30문항

### III. 조사 결과

#### 1. 일반사항

##### 1) 소속 단과대학

2021년 울산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총 10,271명이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 분포는 <표 1>과 같다. ‘공과대학’이 3,494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1,189명(11.6%), ‘인문대학’ 1,179명(11.5%), ‘사회과학대학’ 1,087명(10.6%), ‘자연과학대학’ 94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은 770명(7.5%), ‘생활과학대학’은 746명(7.3%), ‘의과대학’은 487명(4.7%)이었으며, ‘예술대학’은 379명(3.7%)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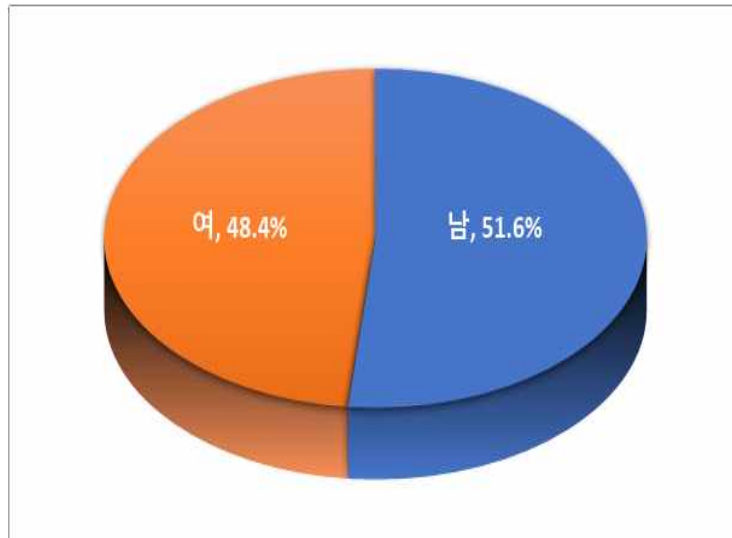
<표 1> 소속 단과대학 현황

구분		단과대학									전체
		경영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성별	남	570 (10.7)	2,757 (52.0)	321 (6.1)	438 (8.3)	137 (2.6)	86 (1.6)	122 (2.3)	376 (7.1)	497 (9.4)	5,304 (51.6)
	여	619 (12.5)	737 (14.8)	449 (9.0)	649 (13.1)	609 (12.3)	293 (5.9)	365 (7.3)	803 (16.2)	443 (8.9)	4,967 (48.4)
학년	1학년	238 (10.3)	748 (32.4)	180 (7.8)	246 (10.7)	172 (7.5)	91 (3.9)	141 (6.1)	273 (11.8)	217 (9.4)	2,306 (22.5)
	2학년	247 (9.9)	895 (35.7)	184 (7.3)	271 (10.8)	186 (7.4)	86 (3.4)	127 (5.1)	281 (11.2)	227 (9.1)	2,504 (24.4)
	3학년	315 (12.0)	918 (34.8)	174 (6.6)	272 (10.3)	197 (7.5)	93 (3.5)	110 (4.2)	316 (12.0)	240 (9.1)	2,635 (25.7)
	4학년	389 (14.0)	933 (33.6)	186 (6.7)	298 (10.7)	191 (6.9)	109 (3.9)	109 (3.9)	309 (11.1)	256 (9.2)	2,780 (27.1)
	5학년	0 (0.0)	0 (0.0)	4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6 (0.4)
전체		<b>1,189</b> <b>(11.6)</b>	<b>3,494</b> <b>(34.0)</b>	<b>770</b> <b>(7.5)</b>	<b>1,087</b> <b>(10.6)</b>	<b>746</b> <b>(7.3)</b>	<b>379</b> <b>(3.7)</b>	<b>487</b> <b>(4.7)</b>	<b>1,179</b> <b>(11.5)</b>	<b>940</b> <b>(9.2)</b>	<b>10,271</b> <b>(100.0)</b>

## 2) 성별

실태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5,304명(51.6%), 여학생이 4,967명(48.4%)으로, 남학생이 3.2%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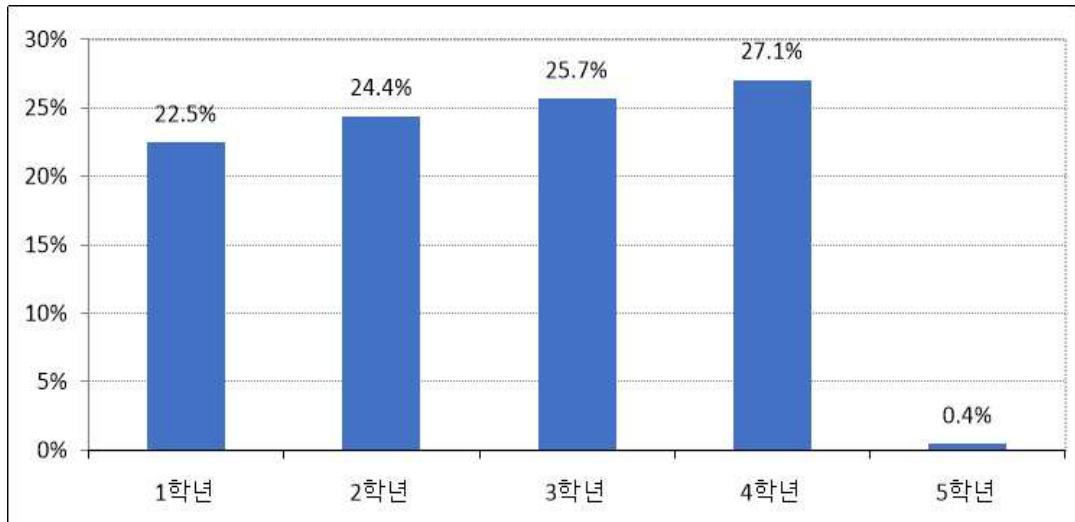
앞의 <표 1>을 참고하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2.0%인 2,757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0.7%, '자연과학대학' 9.4%, '사회과학대학' 8.3%, '인문대학' 7.1%,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인문대학'이 803명 16.2%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학' 14.8%, '사회과학대학' 13.1%, '경영대학' 12.5%, '생활과학대학' 12.3%, '디자인·건축융합대학'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현황

### 3) 학년

재학생의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5학년은 모두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소속으로 소수의 인원이 분포하고 있다. ‘4학년’ 2,780명(27.1%), ‘3학년’ 2,635명(25.7%), ‘2학년’ 2,504명(24.4%), ‘1학년’ 2,306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디자인·건축 융합대학의 46명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 학년 현황

## 2. 대학 생활 및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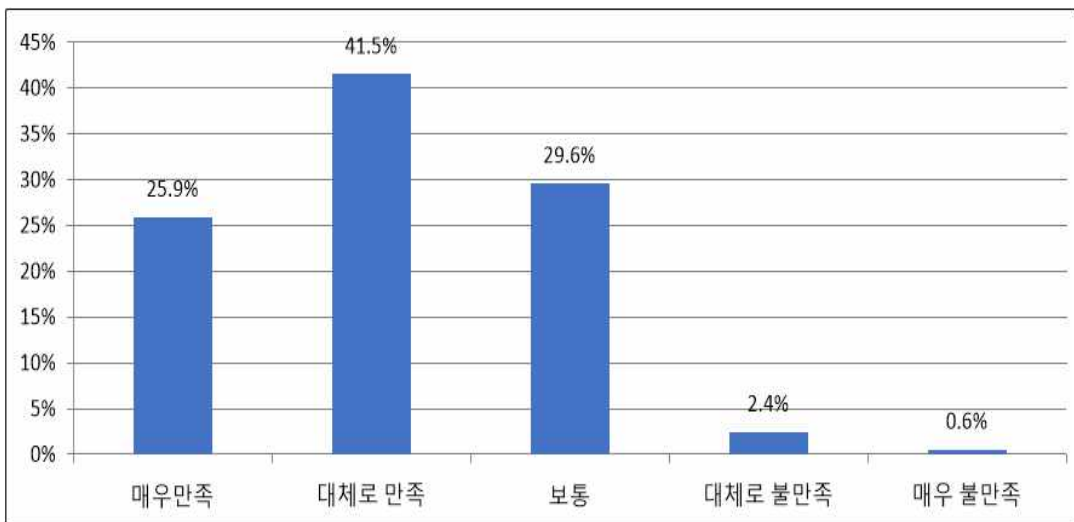
### 1)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울산대학교 재학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울산대학교 재학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만족' 4,265명(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3,039명(29.6%), '매우 만족' 2,660명(25.9%), '대체로 불만족' 250명(2.4%), '매우 불만족' 57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은 본교 재학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67.6%, 여학생의 67.2%가 울산대학교 재학에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매우 만족'이 29.6%로 여학생의 21.9%에 비해 7.7%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만족'이 45.3%로 남학생의 38.0%보다 7.3% 높았다.

학년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1학년은 72.7%, 2학년 70.7%, 3학년 66.4%, 4학년 61.2%가 울산대학교 재학에 만족한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에 대한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의 경우 울산대학교 재학에 대한 만족도가 79.6%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공과대학 68.9%,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7.7%로 만족도가 높았다. 인문대학은 62.4%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표 2>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1,572 (29.6)	2,013 (38.0)	1,548 (29.2)	130 (2.5)	41 (0.8)	5,304 (100)
	여	1,088 (21.9)	2,252 (45.3)	1,491 (30.0)	120 (2.4)	16 (0.3)	4,967 (100)
학년	1학년	657 (28.5)	1,020 (44.2)	574 (24.9)	45 (2.0)	10 (0.4)	2,306 (100)
	2학년	704 (28.1)	1,067 (42.6)	660 (26.4)	60 (2.4)	13 (0.5)	2,504 (100)
	3학년	651 (24.7)	1,098 (41.7)	810 (30.7)	64 (2.4)	12 (0.5)	2,635 (100)
	4학년	641 (23.1)	1,060 (38.1)	978 (35.2)	80 (2.9)	21 (0.8)	2,780 (100)
	5학년	7 (15.2)	20 (43.5)	17 (37.0)	1 (2.2)	1 (2.2)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300 (25.2)	485 (40.8)	357 (30.0)	35 (2.9)	12 (1.0)	1,189 (100)
	공과대학	1,013 (29.0)	1,394 (39.9)	1,000 (28.6)	66 (1.9)	21 (0.6)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94 (25.2)	327 (42.5)	232 (30.1)	11 (1.4)	6 (0.8)	770 (100)
	사회과학대학	252 (23.2)	466 (42.9)	341 (31.4)	24 (2.2)	4 (0.4)	1,087 (100)
	생활과학대학	179 (24.0)	324 (43.4)	216 (29.0)	25 (3.4)	2 (0.3)	746 (100)
	예술대학	95 (25.1)	143 (37.7)	125 (33.0)	16 (4.2)	0 (0.0)	379 (100)
	의과대학	136 (27.9)	252 (51.7)	89 (18.3)	8 (1.6)	2 (0.4)	487 (100)
	인문대학	276 (23.4)	460 (39.0)	399 (33.8)	37 (3.1)	7 (0.6)	1,179 (100)
	자연과학대학	215 (22.9)	414 (44.0)	280 (29.8)	28 (3.0)	3 (0.3)	940 (100)
<b>전체</b>		<b>2,660 (25.9)</b>	<b>4,265 (41.5)</b>	<b>3,039 (29.6)</b>	<b>250 (2.4)</b>	<b>57 (0.6)</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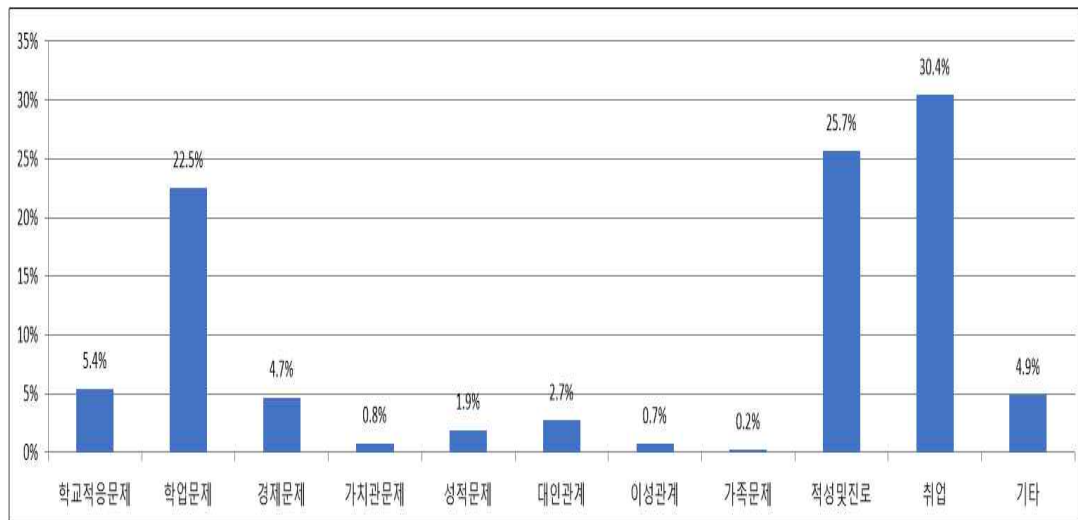
## 2)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10,271명 중 3,123명(30.4%)이 ‘취업’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적성 및 진로’ 2,635명(25.7%), ‘학업 문제’ 2,313명(22.5%), ‘학교적응문제’ 557명(5.4%), ‘기타’ 504명(4.9%), ‘경제 문제’ 483명(4.7%), ‘대인관계’ 278명(2.7%), ‘성적 문제’ 198명(1.9%), ‘가치관 문제’ 81명(0.8%), ‘이성관계’ 76명(0.7%), ‘가족 문제’ 2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취업’, ‘적성 및 진로’, ‘학업 문제’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남학생,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학업 문제’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2학년은 ‘적성 및 진로’, 3학년, 4학년은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학년때는 학업 수행과 구체적인 진로 설정에 대해, 고학년때는 취업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많은 단과대학에서 ‘취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과학대학이 34.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예술대학과 인문대학은 ‘적성 및 진로’가 가장 고민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과대학은 ‘학업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면서 그 비율 또한 47.0%로 타 단과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5>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표 3>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구분		학교 적응문제	학업문제	경제문제	가치관문제	성적문제	대인관계	이성관계	가족문제	적성 및 진로	취업	기타	전체
성별	남	344 (6.5)	1,138 (21.5)	268 (5.1)	49 (0.9)	113 (2.1)	157 (3.0)	66 (1.2)	17 (0.3)	1,189 (22.4)	1,609 (30.3)	354 (6.7)	5,304 (100)
	여	213 (4.3)	1,175 (23.7)	215 (4.3)	32 (0.6)	85 (1.7)	121 (2.4)	10 (0.2)	6 (0.1)	1,446 (29.1)	1,514 (30.5)	150 (3.0)	4,967 (100)
학년	1학년	206 (8.9)	745 (32.3)	92 (4.0)	23 (1.0)	62 (2.7)	86 (3.7)	19 (0.8)	2 (0.1)	606 (26.3)	353 (15.3)	112 (4.9)	2,306 (100)
	2학년	134 (5.4)	673 (26.9)	105 (4.2)	10 (0.4)	62 (2.5)	85 (3.4)	15 (0.6)	3 (0.1)	731 (29.2)	595 (23.8)	91 (3.6)	2,504 (100)
	3학년	93 (3.5)	511 (19.4)	123 (4.7)	20 (0.8)	37 (1.4)	46 (1.7)	16 (0.6)	5 (0.2)	674 (25.6)	993 (37.7)	117 (4.4)	2,635 (100)
	4학년	122 (4.4)	376 (13.5)	158 (5.7)	27 (1.0)	37 (1.3)	61 (2.2)	25 (0.9)	12 (0.4)	608 (21.9)	1,173 (42.2)	181 (6.5)	2,780 (100)
	5학년	2 (4.3)	8 (17.4)	5 (10.9)	1 (2.2)	0 (0.0)	0 (0.0)	1 (2.2)	1 (2.2)	16 (34.8)	9 (19.6)	3 (6.5)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84 (7.1)	231 (19.4)	54 (4.5)	8 (0.7)	18 (1.5)	34 (2.9)	7 (0.6)	5 (0.4)	278 (23.4)	371 (31.2)	99 (8.3)	1,189 (100)
	공과대학	197 (5.6)	825 (23.6)	132 (3.8)	24 (0.7)	79 (2.3)	89 (2.5)	29 (0.8)	6 (0.2)	823 (23.6)	1,135 (32.5)	155 (4.4)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9 (3.8)	183 (23.8)	45 (5.8)	8 (1.0)	8 (1.0)	25 (3.2)	9 (1.2)	1 (0.1)	200 (26.0)	226 (29.4)	36 (4.7)	770 (100)
	사회과학대학	62 (5.7)	190 (17.5)	52 (4.8)	9 (0.8)	17 (1.6)	27 (2.5)	6 (0.6)	3 (0.3)	316 (29.1)	370 (34.0)	35 (3.2)	1,087 (100)
	생활과학대학	36 (4.8)	151 (20.2)	37 (5.0)	5 (0.7)	14 (1.9)	18 (2.4)	1 (0.1)	2 (0.3)	223 (29.9)	231 (31.0)	28 (3.8)	746 (100)
	예술대학	19 (5.0)	64 (16.9)	45 (11.9)	3 (0.8)	9 (2.4)	16 (4.2)	1 (0.3)	1 (0.3)	109 (28.8)	93 (24.5)	19 (5.0)	379 (100)
	의과대학	21 (4.3)	229 (47.0)	27 (5.5)	7 (1.4)	14 (2.9)	19 (3.9)	9 (1.8)	1 (0.2)	55 (11.3)	77 (15.8)	28 (5.7)	487 (100)
	인문대학	74 (6.3)	222 (18.8)	59 (5.0)	9 (0.8)	22 (1.9)	28 (2.4)	5 (0.4)	4 (0.3)	365 (31.0)	341 (28.9)	50 (4.2)	1,179 (100)
자연과학대학	35 (3.7)	218 (23.2)	32 (3.4)	8 (0.9)	17 (1.8)	22 (2.3)	9 (1.0)	0 (0.0)	266 (28.3)	279 (29.7)	54 (5.7)	940 (100)	
<b>전체</b>		<b>557 (5.4)</b>	<b>2,313 (22.5)</b>	<b>483 (4.7)</b>	<b>81 (0.8)</b>	<b>198 (1.9)</b>	<b>278 (2.7)</b>	<b>76 (0.7)</b>	<b>23 (0.2)</b>	<b>2,635 (25.7)</b>	<b>3,123 (30.4)</b>	<b>504 (4.9)</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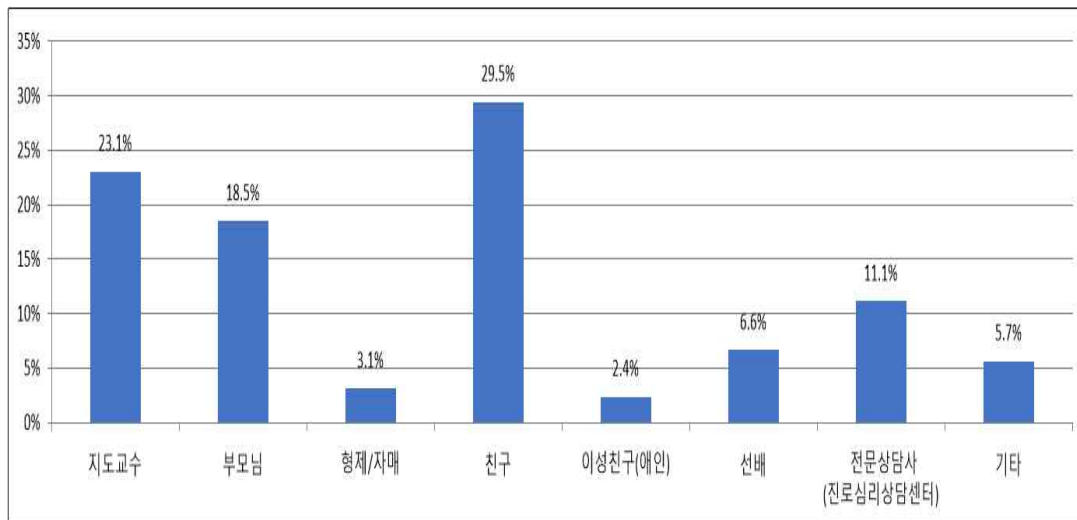
### 3) 대학 생활 어려움 시,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10,271명 중 3,027명(29.5%)이 ‘친구’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지도교수’ 2,368명(23.1%), ‘부모님’ 1,902명(18.5%), ‘전문상담사(진로심리상담센터)’ 1,143명(11.1%), ‘선배’ 681명(6.6%), ‘기타’ 581명(5.7%), ‘형제/자매’ 323명(3.1%), ‘이성친구(애인)’ 246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지도교수’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친구’에서는 남학생이 30.5%로 여학생의 28.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지도교수’에서는 여학생이 23.3%로 남학생의 22.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친구’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이 31.7%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지도교수’의 응답에서는 타 학년에 비해 2학년의 비율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친구’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중 사회과학대학이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예술대학은 타 단과대학과는 달리 ‘지도교수’의 응답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술대학은 단과대학 특성상 지도교수를 멘토로 삼아 취업과 진로상담부터 대학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나누며 도움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6> 대학 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표 4> 대학 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구분		지도교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성친구 (애인)	선배	전문상담사 (진로심리 상담센터)	기타	전체
성별	남	1,210 (22.8)	1,028 (19.4)	166 (3.1)	1,620 (30.5)	162 (3.1)	323 (6.1)	431 (8.1)	364 (6.9)	5,304 (100)
	여	1,158 (23.3)	874 (17.6)	157 (3.2)	1,407 (28.3)	84 (1.7)	358 (7.2)	712 (14.3)	217 (4.4)	4,967 (100)
학년	1학년	502 (21.8)	464 (20.1)	86 (3.7)	730 (31.7)	54 (2.3)	191 (8.3)	176 (7.6)	103 (4.5)	2,306 (100)
	2학년	626 (25.0)	469 (18.7)	68 (2.7)	721 (28.8)	58 (2.3)	178 (7.1)	267 (10.7)	117 (4.7)	2,504 (100)
	3학년	616 (23.4)	478 (18.1)	69 (2.6)	752 (28.5)	54 (2.0)	160 (6.1)	336 (12.8)	170 (6.5)	2,635 (100)
	4학년	611 (22.0)	482 (17.3)	100 (3.6)	811 (29.2)	78 (2.8)	147 (5.3)	363 (13.1)	188 (6.8)	2,780 (100)
	5학년	13 (28.3)	9 (19.6)	0 (0.0)	13 (28.3)	2 (4.3)	5 (10.9)	1 (2.2)	3 (6.5)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45 (20.6)	205 (17.2)	48 (4.0)	336 (28.3)	32 (2.7)	69 (5.8)	171 (14.4)	83 (7.0)	1,189 (100)
	공과대학	826 (23.6)	625 (17.9)	106 (3.0)	1,045 (29.9)	87 (2.5)	289 (8.3)	326 (9.3)	190 (5.4)	3,49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05 (26.6)	138 (17.9)	16 (2.1)	241 (31.3)	20 (2.6)	60 (7.8)	49 (6.4)	41 (5.3)	770 (100)
	사회과학 대학	196 (18.0)	193 (17.8)	39 (3.6)	356 (32.8)	22 (2.0)	58 (5.3)	165 (15.2)	58 (5.3)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199 (26.7)	118 (15.8)	24 (3.2)	214 (28.7)	8 (1.1)	51 (6.8)	100 (13.4)	32 (4.3)	746 (100)
	예술대학	105 (27.7)	75 (19.8)	6 (1.6)	104 (27.4)	11 (2.9)	20 (5.3)	34 (9.0)	24 (6.3)	379 (100)
	의과대학	124 (25.5)	131 (26.9)	21 (4.3)	132 (27.1)	13 (2.7)	16 (3.3)	37 (7.6)	13 (2.7)	487 (100)
	인문대학	255 (21.6)	233 (19.8)	32 (2.7)	324 (27.5)	30 (2.5)	59 (5.0)	175 (14.8)	71 (6.0)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213 (22.7)	184 (19.6)	31 (3.3)	275 (29.3)	23 (2.4)	59 (6.3)	86 (9.1)	69 (7.3)	940 (100)
<b>전체</b>	<b>2,368 (23.1)</b>	<b>1,902 (18.5)</b>	<b>323 (3.1)</b>	<b>3,027 (29.5)</b>	<b>246 (2.4)</b>	<b>681 (6.6)</b>	<b>1,143 (11.1)</b>	<b>581 (5.7)</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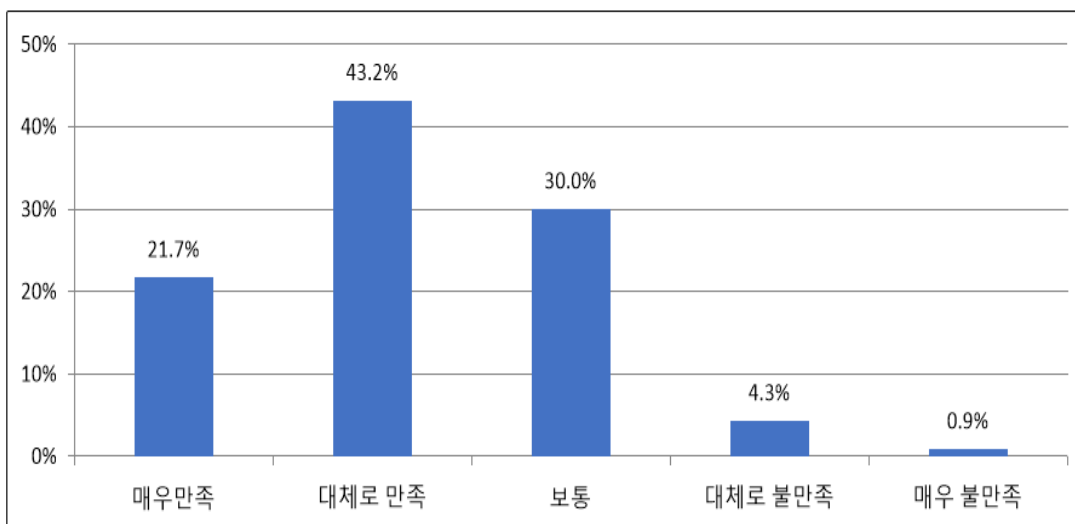
#### 4) 전공 만족도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체로 만족’이 4,434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3,080명(30.0%), ‘매우 만족’ 2,226명(21.7%), ‘대체로 불만족’ 443명(4.3%), ‘매우 불만족’ 88명(0.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의 64.9%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매우 만족’이 25.1%로 여학생 18.0%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여학생은 ‘대체로 만족’이 46.5%로 남학생의 40.0%에 비해 약간 높았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대체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이 46.3%로 타 학년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은 39.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대체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의과대학이 49.7%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의과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 각각 82.6%, 71.1%가 전공 선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인문대학의 경우 57.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7> 전공 만족도

<표 5> 전공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1,333 (25.1)	2,123 (40.0)	1,563 (29.5)	225 (4.2)	60 (1.1)	5,304 (100)
	여	893 (18.0)	2,311 (46.5)	1,517 (30.5)	218 (4.4)	28 (0.6)	4,967 (100)
학년	1학년	507 (22.0)	1,068 (46.3)	647 (28.1)	68 (2.9)	16 (0.7)	2,306 (100)
	2학년	585 (23.4)	1,086 (43.4)	710 (28.4)	108 (4.3)	15 (0.6)	2,504 (100)
	3학년	535 (20.3)	1,158 (43.9)	799 (30.3)	112 (4.3)	31 (1.2)	2,635 (100)
	4학년	589 (21.2)	1,099 (39.5)	915 (32.9)	152 (5.5)	25 (0.9)	2,780 (100)
	5학년	10 (21.7)	23 (50.0)	9 (19.6)	3 (6.5)	1 (2.2)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236 (19.8)	510 (42.9)	374 (31.5)	60 (5.0)	9 (0.8)	1,189 (100)
	공과대학	792 (22.7)	1,499 (42.9)	1,027 (29.4)	147 (4.2)	29 (0.8)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87 (24.3)	360 (46.8)	192 (24.9)	28 (3.6)	3 (0.4)	770 (100)
	사회과학대학	208 (19.1)	445 (40.9)	374 (34.4)	49 (4.5)	11 (1.0)	1,087 (100)
	생활과학대학	145 (19.4)	351 (47.1)	218 (29.2)	27 (3.6)	5 (0.7)	746 (100)
	예술대학	112 (29.6)	143 (37.7)	108 (28.5)	11 (2.9)	5 (1.3)	379 (100)
	의과대학	160 (32.9)	242 (49.7)	76 (15.6)	8 (1.6)	1 (0.2)	487 (100)
	인문대학	211 (17.9)	465 (39.4)	406 (34.4)	77 (6.5)	20 (1.7)	1,179 (100)
	자연과학대학	175 (18.6)	419 (44.6)	305 (32.4)	36 (3.8)	5 (0.5)	940 (100)
전체		<b>2,226</b> <b>(21.7)</b>	<b>4,434</b> <b>(43.2)</b>	<b>3,080</b> <b>(30.0)</b>	<b>443</b> <b>(4.3)</b>	<b>88</b> <b>(0.9)</b>	<b>10,271</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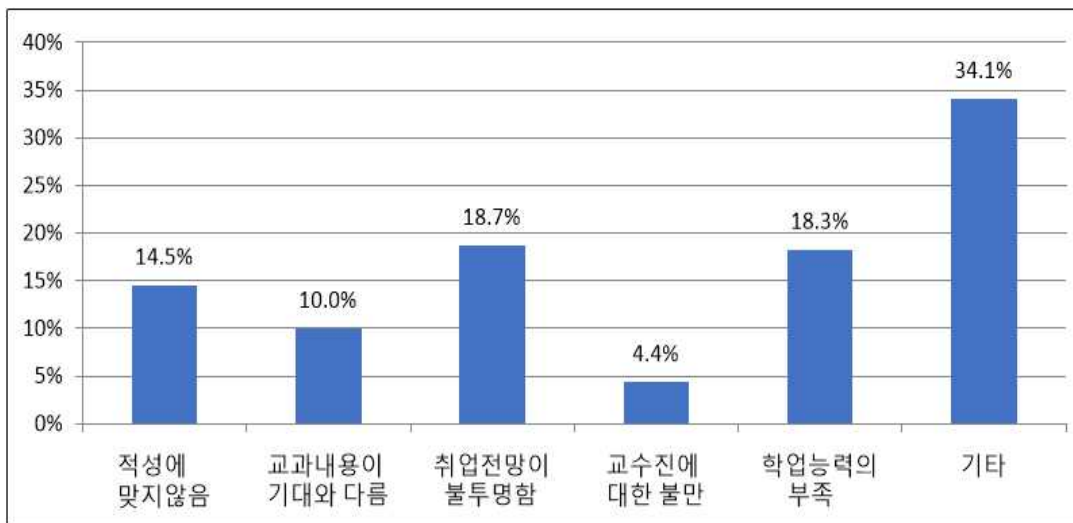
## 5)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재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 물어본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공이 불만족한 이유로는 ‘기타’ 3,502명(34.1%)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 전망이 불투명함’ 1,920명(18.7%), ‘학업능력의 부족’ 1,877명(18.3%), ‘적성에 맞지 않음’ 1,494명(14.5%), ‘교과 내용이 기대와 다름’ 1,029명(10.0%), ‘교수진에 대한 불만’ 449명(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기타’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의 높은 응답으로는 남학생은 ‘학업능력의 부족’ 17.6%, 여학생은 ‘취업 전망이 불투명함’ 21.4%를 전공이 불만족한 이유로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기타’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의 높은 응답으로는 1, 2학년은 ‘학업능력의 부족’을 각각 22.8%, 21.2%로 응답하였고, 3, 4학년에서는 ‘취업 전망이 불투명함’을 각각 19.5%, 22.5%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기타’의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인문대학은 ‘취업 전망이 불투명함’을 38.7%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인문계열 재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적인 요인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 능력의 부족’에서는 의과대학이 28.3%,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4.3%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적성에 맞지 않음’의 항목에서는 공과대학이 17.7%, 경영대학이 16.4%로 타 단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8>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표 6>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구분		적성에 맞지 않음	교과 내용이 기대와 다름	취업 전망이 불투명함	교수진에 대한 불만	학업 능력의 부족	기타	전체
성별	남	764 (14.4)	577 (10.9)	859 (16.2)	263 (5.0)	934 (17.6)	1,907 (36.0)	5,304 (100)
	여	730 (14.7)	452 (9.1)	1,061 (21.4)	186 (3.7)	943 (19.0)	1,595 (32.1)	4,967 (100)
학년	1학년	292 (12.7)	263 (11.4)	339 (14.7)	81 (3.5)	526 (22.8)	805 (34.9)	2,306 (100.0)
	2학년	393 (15.7)	235 (9.4)	437 (17.5)	79 (3.2)	532 (21.2)	828 (33.1)	2,504 (100.0)
	3학년	385 (14.6)	233 (8.8)	515 (19.5)	125 (4.7)	462 (17.5)	915 (34.7)	2,635 (100)
	4학년	416 (15.0)	297 (10.7)	625 (22.5)	161 (5.8)	345 (12.4)	936 (33.7)	2,780 (100)
	5학년	8 (17.4)	1 (2.2)	4 (8.7)	3 (6.5)	12 (26.1)	18 (39.1)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195 (16.4)	134 (11.3)	224 (18.8)	51 (4.3)	182 (15.3)	403 (33.9)	1,189 (100)
	공과대학	617 (17.7)	366 (10.5)	365 (10.4)	172 (4.9)	800 (22.9)	1,174 (33.6)	3,49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79 (10.3)	89 (11.6)	65 (8.4)	59 (7.7)	187 (24.3)	291 (37.8)	770 (100)
	사회과학 대학	163 (15.0)	113 (10.4)	268 (24.7)	25 (2.3)	128 (11.8)	390 (35.9)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99 (13.3)	82 (11.0)	158 (21.2)	38 (5.1)	108 (14.5)	261 (35.0)	746 (100)
	예술대학	27 (7.1)	17 (4.5)	118 (31.1)	16 (4.2)	46 (12.1)	155 (40.9)	379 (100)
	의과대학	62 (12.7)	38 (7.8)	11 (2.3)	13 (2.7)	138 (28.3)	225 (46.2)	487 (100)
	인문대학	145 (12.3)	110 (9.3)	456 (38.7)	48 (4.1)	113 (9.6)	307 (26.0)	1,179 (100.0)
자연과학 대학	107 (11.4)	80 (8.5)	255 (27.1)	27 (2.9)	175 (18.6)	296 (31.5)	940 (100)	
<b>전체</b>		<b>1,494 (14.5)</b>	<b>1,029 (10.0)</b>	<b>1,920 (18.7)</b>	<b>449 (4.4)</b>	<b>1,877 (18.3)</b>	<b>3,502 (34.1)</b>	<b>10,271 (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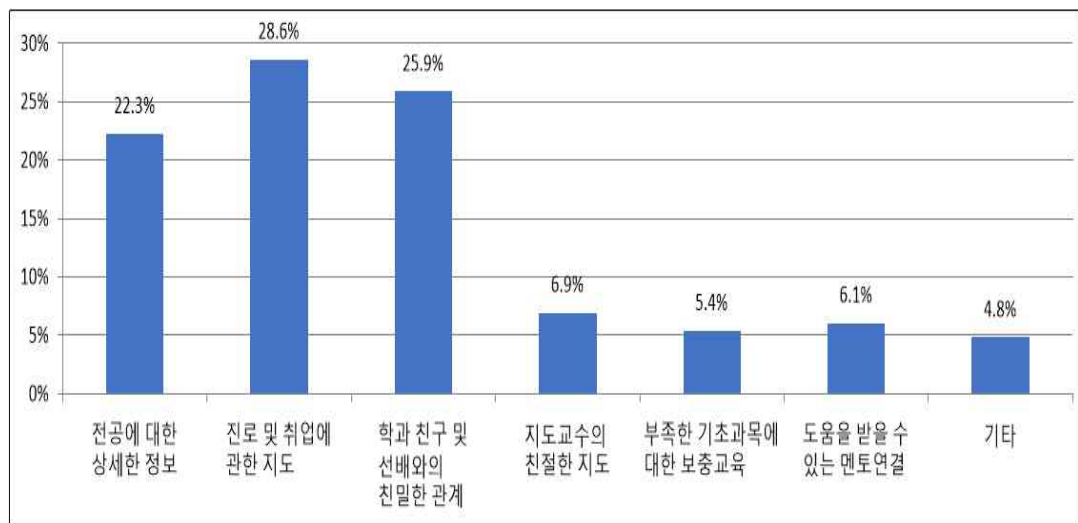
## 6)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학과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가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942명(28.6%)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 2,658명(25.9%),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 2,288명(22.3%), ‘지도교수의 친절한 지도’ 713명(6.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연결’ 622명(6.1%), ‘부족한 기초 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 554명(5.4%), ‘기타’ 494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8%, 26.4%로 두 항목 간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6%, 25.4%로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여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취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경우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높았으나 2, 3, 4학년은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의 경우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경영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그림 9>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표 7>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구분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	진로 및 취업에 관한지도	학내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	지도교수의 친절한지도	부족한 기초 과목에 대한 보충교육	도움을 받을수 있는 멘토연결	기타	전체
성별	남	1,271 (24.0)	1,423 (26.8)	1,398 (26.4)	329 (6.2)	290 (5.5)	255 (4.8)	338 (6.4)	5,304 (100)
	여	1,017 (20.5)	1,519 (30.6)	1,260 (25.4)	384 (7.7)	264 (5.3)	367 (7.4)	156 (3.1)	4,967 (100)
학년	1학년	569 (24.7)	485 (21.0)	699 (30.3)	181 (7.8)	145 (6.3)	126 (5.5)	101 (4.4)	2,306 (100)
	2학년	571 (22.8)	729 (29.1)	585 (23.4)	181 (7.2)	167 (6.7)	172 (6.9)	99 (4.0)	2,504 (100)
	3학년	577 (21.9)	858 (32.6)	626 (23.8)	172 (6.5)	119 (4.5)	153 (5.8)	130 (4.9)	2,635 (100)
	4학년	559 (20.1)	859 (30.9)	739 (26.6)	175 (6.3)	123 (4.4)	164 (5.9)	161 (5.8)	2,780 (100)
	5학년	12 (26.1)	11 (23.9)	9 (19.6)	4 (8.7)	0 (0.0)	7 (15.2)	3 (6.5)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55 (21.4)	357 (30.0)	299 (25.1)	67 (5.6)	64 (5.4)	78 (6.6)	69 (5.8)	1,189 (100)
	공과대학	862 (24.7)	993 (28.4)	867 (24.8)	207 (5.9)	206 (5.9)	184 (5.3)	175 (5.0)	3,49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78 (23.1)	152 (19.7)	215 (27.9)	70 (9.1)	57 (7.4)	66 (8.6)	32 (4.2)	770 (100)
	사회과학 대학	213 (19.6)	360 (33.1)	293 (27.0)	62 (5.7)	45 (4.1)	67 (6.2)	47 (4.3)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163 (21.8)	244 (32.7)	167 (22.4)	60 (8.0)	23 (3.1)	57 (7.6)	32 (4.3)	746 (100)
	예술대학	67 (17.7)	80 (21.1)	115 (30.3)	61 (16.1)	14 (3.7)	26 (6.9)	16 (4.2)	379 (100)
	의과대학	140 (28.7)	103 (21.1)	152 (31.2)	24 (4.9)	18 (3.7)	38 (7.8)	12 (2.5)	487 (100)
	인문대학	210 (17.8)	373 (31.6)	284 (24.1)	107 (9.1)	82 (7.0)	64 (5.4)	59 (5.0)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200 (21.3)	280 (29.8)	266 (28.3)	55 (5.9)	45 (4.8)	42 (4.5)	52 (5.5)	940 (100)
<b>전체</b>		<b>2,288 (22.3)</b>	<b>2,942 (28.6)</b>	<b>2,658 (25.9)</b>	<b>713 (6.9)</b>	<b>554 (5.4)</b>	<b>622 (6.1)</b>	<b>494 (4.8)</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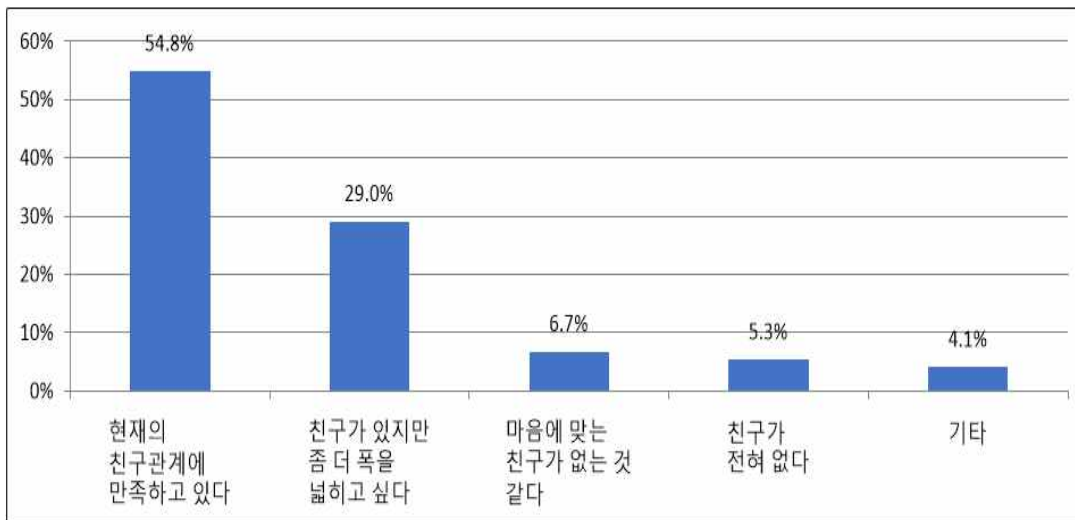
## 7) 대학에서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재학생들의 대학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현재의 친구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의 응답이 5,632명(54.8%)으로 과반수가 넘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가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의 응답은 2,982명(29.0%),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 692명(6.7%), ‘친구가 전혀 없다’ 547명(5.3%), ‘기타’ 418명(4.1%)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는 대인 관계 접점이 넓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은 대학 친구들과 원활한 교류와 소통으로 관계 형성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현재의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 56.7%, ‘친구가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 30.0%의 응답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과 욕구가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재의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가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의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현재의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에 대해 의과대학 66.5%, 예술대학 66.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5.1%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친구가 전혀 없다’의 응답에서는 경영대학이 10.8%, 인문대학 8.3%, 사회과학대학 7.5%로 이 항목의 평균치 5.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 만족도

<표 8> 대학에서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구분		현재의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친구가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	친구가 전혀 없다	기타	전체
성별	남	2,815 (53.1)	1,491 (28.1)	406 (7.7)	320 (6.0)	272 (5.1)	5,304 (100)
	여	2,817 (56.7)	1,491 (30.0)	286 (5.8)	227 (4.6)	146 (2.9)	4,967 (100)
학년	1학년	1,021 (44.3)	849 (36.8)	172 (7.5)	174 (7.5)	90 (3.9)	2,306 (100)
	2학년	1,351 (54.0)	791 (31.6)	157 (6.3)	128 (5.1)	77 (3.1)	2,504 (100)
	3학년	1,565 (59.4)	672 (25.5)	162 (6.1)	117 (4.4)	119 (4.5)	2,635 (100)
	4학년	1,663 (59.8)	663 (23.8)	196 (7.1)	128 (4.6)	130 (4.7)	2,780 (100)
	5학년	32 (69.6)	7 (15.2)	5 (10.9)	0 (0.0)	2 (4.3)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521 (43.8)	377 (31.7)	99 (8.3)	128 (10.8)	64 (5.4)	1,189 (100)
	공과대학	1,912 (54.7)	1,032 (29.5)	243 (7.0)	155 (4.4)	152 (4.4)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501 (65.1)	200 (26.0)	40 (5.2)	7 (0.9)	22 (2.9)	770 (100)
	사회과학대학	552 (50.8)	326 (30.0)	79 (7.3)	81 (7.5)	49 (4.5)	1,087 (100)
	생활과학대학	398 (53.4)	230 (30.8)	60 (8.0)	33 (4.4)	25 (3.4)	746 (100)
	예술대학	250 (66.0)	89 (23.5)	20 (5.3)	8 (2.1)	12 (3.2)	379 (100)
	의과대학	324 (66.5)	134 (27.5)	16 (3.3)	7 (1.4)	6 (1.2)	487 (100)
	인문대학	610 (51.7)	331 (28.1)	87 (7.4)	98 (8.3)	53 (4.5)	1,179 (100)
	자연과학대학	564 (60.0)	263 (28.0)	48 (5.1)	30 (3.2)	35 (3.7)	940 (100)
<b>전체</b>		<b>5,632 (54.8)</b>	<b>2,982 (29.0)</b>	<b>692 (6.7)</b>	<b>547 (5.3)</b>	<b>418 (4.1)</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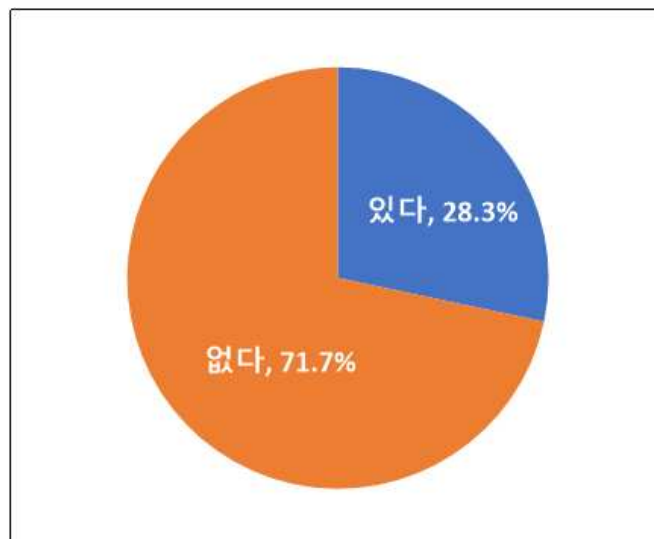
## 8) 휴학 의사

재학생 중 앞으로 휴학할 의사가 있는지(군 휴학 제외) 묻는 문항에는 <표 9>와 같다. 휴학할 의사가 '없다' 7,362명(71.7%)으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휴학할 의사가 '있다'가 2,909명(28.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 10명 중 7명은 휴학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휴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34.2%로 남학생의 22.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학에 대한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에서 휴학할 의사가 '있다'의 응답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은 10.7%로 이전 학년의 33.5%보다 다소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휴학 의사가 '있다'의 평균치가 28.3%임에 반해, 사회과학대학은 39.1%, 인문대학은 34.0%로 타 단과대학보다 휴학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1> 휴학 의사

<표 9> 휴학 의사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	1,211 (22.8)	4,093 (77.2)	5,304 (100)
	여	1,698 (34.2)	3,269 (65.8)	4,967 (100)
학년	1학년	750 (32.5)	1,556 (67.5)	2,306 (100)
	2학년	973 (38.9)	1,531 (61.1)	2,504 (100)
	3학년	883 (33.5)	1,752 (66.5)	2,635 (100)
	4학년	298 (10.7)	2,482 (89.3)	2,780 (100)
	5학년	5 (10.9)	41 (89.1)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361 (30.4)	828 (69.6)	1,189 (100)
	공과대학	891 (25.5)	2,603 (74.5)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51 (32.6)	519 (67.4)	770 (100)
	사회과학대학	425 (39.1)	662 (60.9)	1,087 (100)
	생활과학대학	225 (30.2)	521 (69.8)	746 (100)
	예술대학	78 (20.6)	301 (79.4)	379 (100)
	의과대학	45 (9.2)	442 (90.8)	487 (100)
	인문대학	401 (34.0)	778 (66.0)	1,179 (100)
	자연과학대학	232 (24.7)	708 (75.3)	940 (100)
<b>전체</b>		<b>2,909 (28.3)</b>	<b>7,362 (71.7)</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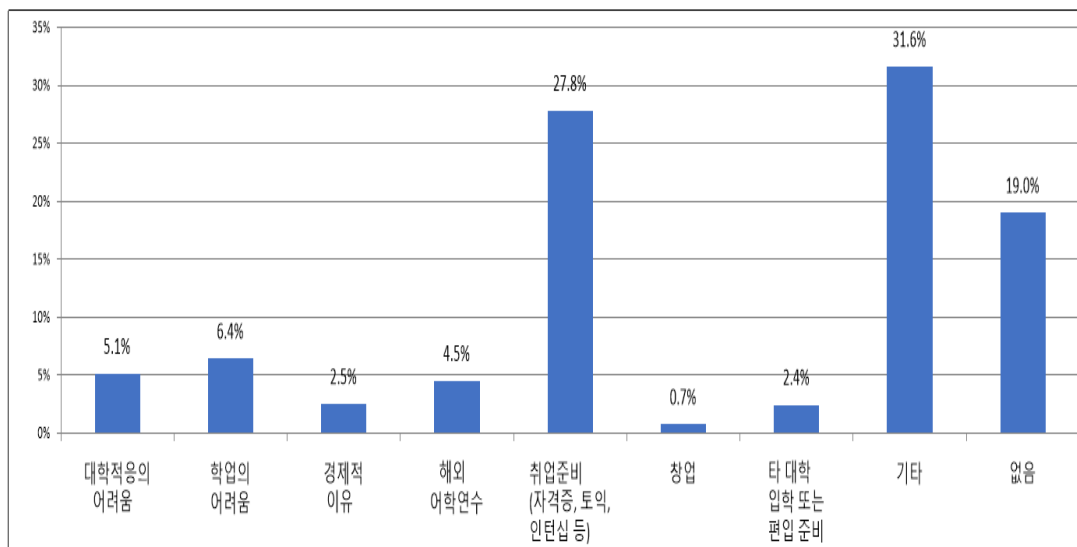
### 9) 휴학하고 싶은 이유

휴학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이 3,245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 2,855명(27.8%), ‘없음’ 1,951명(19.0%), ‘학업의 어려움’ 657명(6.4%), ‘대학적응의 어려움’ 525명(5.1%), ‘해외 어학연수’ 460명(4.5%), ‘경제적 이유’ 255명(2.5%),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 준비’ 249명(2.4%), ‘창업’ 7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기타’, 여학생은 ‘취업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는 여학생이 31.5%로 남학생의 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 3학년에서는 휴학의 이유로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3학년은 ‘취업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의 응답이 3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비율 또한 타 학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기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취업 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과학대학은 43.1%로 타 단과대학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이들 단과대학 재학생들이 취업 준비 이유로 휴학을 고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휴학하고 싶은 이유



<표 10> 휴학하고 싶은 이유

구분		대학 적응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경제적 이유	해외 여학연수	취업준비 (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	창업	타대학 또는 편입준비	기타	전체
성별	남	287 (5.4)	319 (6.0)	129 (2.4)	201 (3.8)	1,289 (24.3)	56 (1.1)	146 (2.8)	1,766 (33.3)	1,111 (20.9)
	여	238 (4.8)	338 (6.8)	126 (2.5)	259 (5.2)	1,566 (31.5)	18 (0.4)	103 (2.1)	1,479 (29.8)	840 (16.9)
학년	1학년	141 (6.1)	170 (7.4)	58 (2.5)	143 (6.2)	439 (19.0)	18 (0.8)	98 (4.2)	765 (33.2)	474 (20.6)
	2학년	141 (5.6)	227 (9.1)	64 (2.6)	117 (4.7)	738 (29.5)	21 (0.8)	69 (2.8)	801 (32.0)	326 (13.0)
	3학년	111 (4.2)	147 (5.6)	53 (2.0)	106 (4.0)	948 (36.0)	19 (0.7)	29 (1.1)	794 (30.1)	428 (16.2)
	4학년	129 (4.6)	108 (3.9)	77 (2.8)	91 (3.3)	721 (25.9)	15 (0.5)	53 (1.9)	875 (31.5)	711 (25.6)
	5학년	3 (6.5)	5 (10.9)	3 (6.5)	3 (6.5)	9 (19.6)	1 (2.2)	0 (0.0)	10 (21.7)	12 (26.1)
단과대학	경영대학	69 (5.8)	55 (4.6)	32 (2.7)	56 (4.7)	347 (29.2)	16 (1.3)	20 (1.7)	374 (31.5)	220 (18.5)
	공과대학	195 (5.6)	255 (7.3)	65 (1.9)	125 (3.6)	995 (28.5)	17 (0.5)	93 (2.7)	1,130 (32.3)	619 (17.7)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51 (6.6)	75 (9.7)	26 (3.4)	38 (4.9)	176 (22.9)	11 (1.4)	13 (1.7)	230 (29.9)	150 (19.5)
	사회과학 대학	33 (3.0)	40 (3.7)	25 (2.3)	31 (2.9)	469 (43.1)	4 (0.4)	15 (1.4)	291 (26.8)	179 (16.5)
	생활과학 대학	31 (4.2)	33 (4.4)	13 (1.7)	35 (4.7)	246 (33.0)	5 (0.7)	24 (3.2)	227 (30.4)	132 (17.7)
	예술대학	13 (3.4)	31 (8.2)	32 (8.4)	11 (2.9)	43 (11.3)	5 (1.3)	12 (3.2)	134 (35.4)	98 (25.9)
	의과대학	30 (6.2)	66 (13.6)	11 (2.3)	19 (3.9)	44 (9.0)	0 (0.0)	7 (1.4)	197 (40.5)	113 (23.2)
	인문대학	62 (5.3)	50 (4.2)	28 (2.4)	107 (9.1)	313 (26.5)	9 (0.8)	29 (2.5)	342 (29.0)	239 (20.3)
	자연과학 대학	41 (4.4)	52 (5.5)	23 (2.4)	38 (4.0)	222 (23.6)	7 (0.7)	36 (3.8)	320 (34.0)	201 (21.4)
<b>전체</b>	<b>525 (5.1)</b>	<b>657 (6.4)</b>	<b>255 (2.5)</b>	<b>460 (4.5)</b>	<b>2,855 (27.8)</b>	<b>74 (0.7)</b>	<b>249 (2.4)</b>	<b>3,245 (31.6)</b>	<b>1,951 (19.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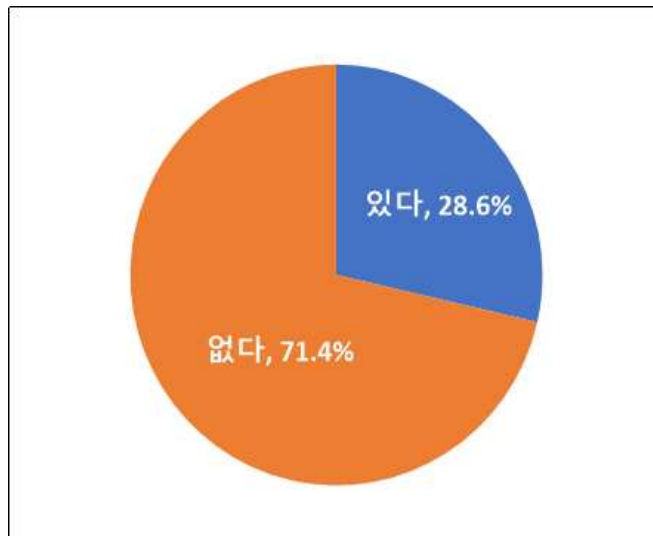
## 10) 편입 고려 여부

편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문항에서는 <표 11>과 같이 ‘없다’가 7,333명(71.4%)으로 ‘있다’의 응답 2,938명(28.6%)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 10명 중 7명은 편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편입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의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74.3%로 여학생의 68.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편입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편입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의 응답에서 인문대학 37.8%, 자연과학대학 35.3%로 타 단과대학보다 편입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6.6%로 가장 낮았다.



<그림 13> 편입 고려 여부

<표 11> 편입 고려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	1,364 (25.7)	3,940 (74.3)	5,304 (100)
	여	1,574 (31.7)	3,393 (68.3)	4,967 (100)
학년	1학년	784 (34.0)	1,522 (66.0)	2,306 (100)
	2학년	807 (32.2)	1,697 (67.8)	2,504 (100)
	3학년	663 (25.2)	1,972 (74.8)	2,635 (100)
	4학년	674 (24.2)	2,106 (75.8)	2,780 (100)
	5학년	10 (21.7)	36 (78.3)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346 (29.1)	843 (70.9)	1,189 (100)
	공과대학	922 (26.4)	2,572 (73.6)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231 (30.0)	539 (70.0)	770 (100)
	사회과학대학	289 (26.6)	798 (73.4)	1,087 (100)
	생활과학대학	223 (29.9)	523 (70.1)	746 (100)
	예술대학	117 (30.9)	262 (69.1)	379 (100)
	의과대학	32 (6.6)	455 (93.4)	487 (100)
	인문대학	446 (37.8)	733 (62.2)	1,179 (100)
	자연과학대학	332 (35.3)	608 (64.7)	940 (100)
<b>전체</b>		<b>2,938 (28.6)</b>	<b>7,333 (71.4)</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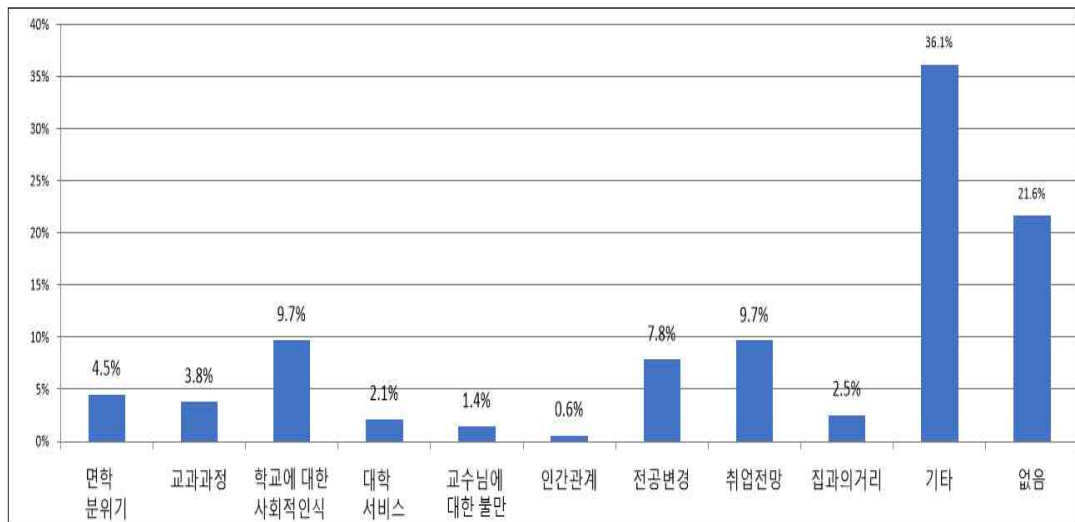
## 11) 편입 고려 이유

재학생들이 편입을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기타’ 항목이 3,712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없음’ 2,220명(21.6%),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998명(9.7%), ‘취업 전망’ 992명(9.7%), ‘전공변경’ 805명(7.8%), ‘면학 분위기’ 464명(4.5%), ‘교과과정’ 390명(3.8%), ‘집과의 거리’ 261명(2.5%), ‘대학 서비스’ 220명(2.1%), ‘교수님에 대한 불만’ 148명(1.4%), ‘인간관계’ 6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기타’, ‘없음’의 응답 다음으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취업 전망’ ‘전공변경’이 편입의 이유로 많이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기타’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학년에서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2학년은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공변경’, 3학년은 ‘취업 전망’과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4학년에서는 ‘취업 전망’이 편입 고려의 이유로 많이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많은 단과대학에서 편입의 고려 이유로 ‘기타’, ‘없음’ 항목을 제외했을 때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데, 사회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취업 전망’을 편입 고려의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림 14> 편입 고려 이유

<표 12> 편입 고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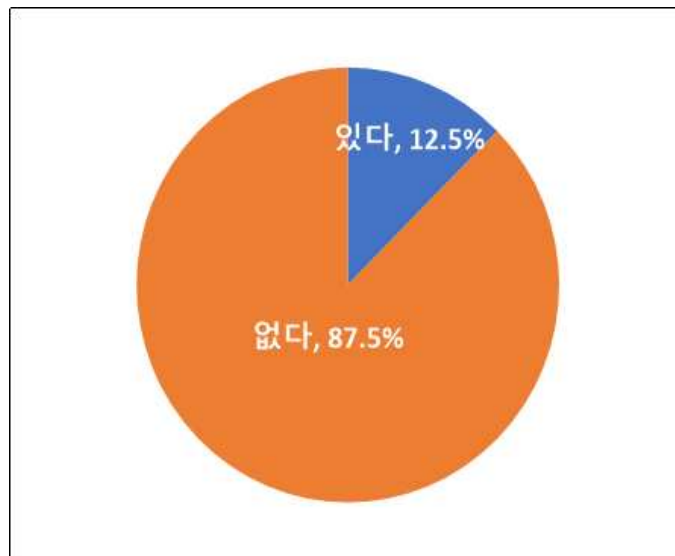
구분		면학 분위기	교과 과정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학 서비스	교수 님에 대한 불만	인간 관계	전공 변경	취업 전망	집과의 거리	기타	없음	전체
성별	남	247 (4.7)	214 (4.0)	468 (8.8)	125 (2.4)	92 (1.7)	32 (0.6)	337 (6.4)	468 (8.8)	143 (2.7)	1,974 (37.2)	1,204 (22.7)	5,304 (100)
	여	217 (4.4)	176 (3.5)	530 (10.7)	95 (1.9)	56 (1.1)	29 (0.6)	468 (9.4)	524 (10.5)	118 (2.4)	1,738 (35.0)	1,016 (20.5)	4,967 (100)
학년	1학년	88 (3.8)	83 (3.6)	229 (9.9)	36 (1.6)	30 (1.3)	11 (0.5)	222 (9.6)	207 (9.0)	71 (3.1)	802 (34.8)	527 (22.9)	2,306 (100)
	2학년	125 (5.0)	111 (4.4)	249 (9.9)	58 (2.3)	21 (0.8)	14 (0.6)	248 (9.9)	242 (9.7)	84 (3.4)	915 (36.5)	437 (17.5)	2,504 (100)
	3학년	117 (4.4)	95 (3.6)	265 (10.1)	60 (2.3)	30 (1.1)	18 (0.7)	169 (6.4)	266 (10.1)	55 (2.1)	1,043 (39.6)	517 (19.6)	2,635 (100)
	4학년	131 (4.7)	98 (3.5)	255 (9.2)	63 (2.3)	67 (2.4)	17 (0.6)	165 (5.9)	272 (9.8)	50 (1.8)	940 (33.8)	722 (26.0)	2,780 (100)
	5학년	3 (6.5)	3 (6.5)	0 (0.0)	3 (6.5)	0 (0.0)	1 (2.2)	1 (2.2)	5 (10.9)	1 (2.2)	12 (26.1)	17 (37.0)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63 (5.3)	50 (4.2)	148 (12.4)	28 (2.4)	20 (1.7)	7 (0.6)	54 (4.5)	113 (9.5)	28 (2.4)	415 (34.9)	263 (22.1)	1,189 (100)
	공과대학	173 (5.0)	127 (3.6)	332 (9.5)	78 (2.2)	52 (1.5)	18 (0.5)	264 (7.6)	303 (8.7)	93 (2.7)	1,367 (39.1)	687 (19.7)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36 (4.7)	41 (5.3)	72 (9.4)	20 (2.6)	19 (2.5)	7 (0.9)	57 (7.4)	64 (8.3)	17 (2.2)	246 (31.9)	191 (24.8)	770 (100)
	사회과학 대학	44 (4.0)	25 (2.3)	111 (10.2)	17 (1.6)	3 (0.3)	4 (0.4)	88 (8.1)	117 (10.8)	16 (1.5)	408 (37.5)	254 (23.4)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33 (4.4)	40 (5.4)	68 (9.1)	16 (2.1)	11 (1.5)	5 (0.7)	69 (9.2)	72 (9.7)	20 (2.7)	256 (34.3)	156 (20.9)	746 (100)
	예술대학	17 (4.5)	9 (2.4)	31 (8.2)	4 (1.1)	6 (1.6)	2 (0.5)	26 (6.9)	38 (10.0)	18 (4.7)	123 (32.5)	105 (27.7)	379 (100)
	의과대학	13 (2.7)	20 (4.1)	32 (6.6)	14 (2.9)	8 (1.6)	4 (0.8)	26 (5.3)	11 (2.3)	8 (1.6)	224 (46.0)	127 (26.1)	487 (100)
	인문대학	52 (4.4)	52 (4.4)	120 (10.2)	26 (2.2)	16 (1.4)	8 (0.7)	122 (10.3)	158 (13.4)	26 (2.2)	353 (29.9)	246 (20.9)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33 (3.5)	26 (2.8)	84 (8.9)	17 (1.8)	13 (1.4)	6 (0.6)	99 (10.5)	116 (12.3)	35 (3.7)	320 (34.0)	191 (20.3)	940 (100)
전체		<b>464</b> <b>(4.5)</b>	<b>390</b> <b>(3.8)</b>	<b>998</b> <b>(9.7)</b>	<b>220</b> <b>(2.1)</b>	<b>148</b> <b>(1.4)</b>	<b>61</b> <b>(0.6)</b>	<b>805</b> <b>(7.8)</b>	<b>992</b> <b>(9.7)</b>	<b>261</b> <b>(2.5)</b>	<b>3,712</b> <b>(36.1)</b>	<b>2,220</b> <b>(21.6)</b>	<b>10,271</b> <b>(100)</b>

## 12) 자퇴 고려 여부

재학생 중 자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자퇴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의 응답이 8,986명(87.5%)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 '있다'의 응답은 1,285명(12.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 10명 중 2명은 자퇴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과 학년 모두 자퇴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가 현저히 높았으며, 1학년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학년은 85.8%로 가장 낮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재학생들의 자퇴 고려 경험이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 또한 자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 항목의 평균치인 12.5%보다 높았다. 의과대학은 7.8%로 자퇴를 고려해 본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림 15> 자퇴 고려 여부

<표 13> 자퇴 고려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	717 (13.5)	4,587 (86.5)	5,304 (100)
	여	568 (11.4)	4,399 (88.6)	4,967 (100)
학년	1학년	267 (11.6)	2,039 (88.4)	2,306 (100)
	2학년	294 (11.7)	2,210 (88.3)	2,504 (100)
	3학년	321 (12.2)	2,314 (87.8)	2,635 (100)
	4학년	396 (14.2)	2,384 (85.8)	2,780 (100)
	5학년	7 (15.2)	39 (84.8)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68 (14.1)	1,021 (85.9)	1,189 (100)
	공과대학	424 (12.1)	3,070 (87.9)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90 (11.7)	680 (88.3)	770 (100)
	사회과학대학	133 (12.2)	954 (87.8)	1,087 (100)
	생활과학대학	78 (10.5)	668 (89.5)	746 (100)
	예술대학	44 (11.6)	335 (88.4)	379 (100)
	의과대학	38 (7.8)	449 (92.2)	487 (100)
	인문대학	176 (14.9)	1,003 (85.1)	1,179 (100)
	자연과학대학	134 (14.3)	806 (85.7)	940 (100)
<b>전체</b>		<b>1,285 (12.5)</b>	<b>8,986 (87.5)</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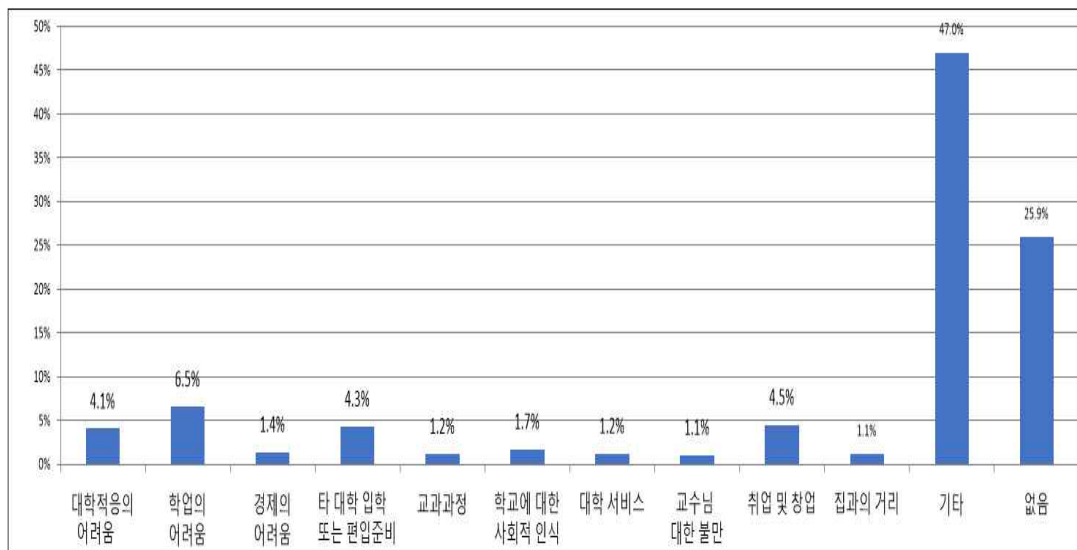
### 13) 자퇴 고려 이유

자퇴를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재학생들이 자퇴를 고려한 이유로는 ‘기타’가 4,826명(47.0%)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없음’ 2,660명(25.9%), ‘학업의 어려움’ 672명(6.5%), ‘취업 및 창업’ 464명(4.5%),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 준비’ 444명(4.3%), ‘대학적응의 어려움’ 416명(4.1%),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75명(1.7%), ‘경제의 어려움’ 143명(1.4%), ‘대학 서비스’ 126명(1.2%), ‘교과과정’ 120명(1.2%), ‘집과의 거리’ 116명(1.1%), ‘교수님에 대한 불만’ 109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퇴를 고려한 이유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기타’, ‘없음’, ‘학업의 어려움’, ‘취업 및 창업’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학년별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기타’, ‘없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 2, 3학년에서는 ‘학업의 어려움’, 4학년은 ‘취업 및 창업’이 편입 고려의 이유로 많이 응답하였다.

단과대학에서는, 자퇴의 고려 이유로 ‘기타’, ‘없음’ 항목을 제외했을 때,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은 ‘학업의 어려움’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경영대학은 ‘대학적응의 어려움’, 생활과학대학은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 준비’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대학과 인문대학은 ‘취업 및 창업’을 자퇴 고려의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림 16> 자퇴 고려 이유



<표 14> 자퇴 고려 이유

구분		대학 적응 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타대학 입학 준비 관련 문제 어려움	교과 과정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학 서비스	교수님 에 대한 불만	취업 및 창업	집과의 거리	기타	없음	전체
성별	남	217 (4.1)	360 (6.8)	81 (1.5)	241 (4.5)	59 (1.1)	97 (1.8)	83 (1.6)	62 (1.2)	250 (4.7)	65 (1.2)	2,429 (45.8)	1,360 (25.6)	5,304 (100)
	여	199 (4.0)	312 (6.3)	62 (1.2)	203 (4.1)	61 (1.2)	78 (1.6)	43 (0.9)	47 (0.9)	214 (4.3)	51 (1.0)	2,397 (48.3)	1,300 (26.2)	4,967 (100)
학년	1학년	82 (3.6)	139 (6.0)	37 (1.6)	104 (4.5)	17 (0.7)	31 (1.3)	17 (0.7)	17 (0.7)	67 (2.9)	36 (1.6)	1,090 (47.3)	669 (29.0)	2,306 (100)
	2학년	108 (4.3)	191 (7.6)	30 (1.2)	102 (4.1)	36 (1.4)	39 (1.6)	25 (1.0)	15 (0.6)	114 (4.6)	19 (0.8)	1,262 (50.4)	563 (22.5)	2,504 (100)
	3학년	103 (3.9)	191 (7.2)	38 (1.4)	110 (4.2)	25 (0.9)	46 (1.7)	32 (1.2)	24 (0.9)	122 (4.6)	31 (1.2)	1,326 (50.3)	587 (22.3)	2,635 (100)
	4학년	121 (4.4)	141 (5.1)	38 (1.4)	127 (4.6)	42 (1.5)	59 (2.1)	52 (1.9)	53 (1.9)	160 (5.8)	30 (1.1)	1,136 (40.9)	821 (29.5)	2,780 (100)
	5학년	2 (4.3)	10 (21.7)	0 (0.0)	1 (2.2)	0 (0.0)	0 (0.0)	0 (0.0)	0 (0.0)	1 (2.2)	0 (0.0)	12 (26.1)	20 (43.5)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63 (5.3)	60 (5.0)	25 (2.1)	54 (4.5)	13 (1.1)	22 (1.9)	16 (1.3)	15 (1.3)	60 (5.0)	12 (1.0)	545 (45.8)	304 (25.6)	1,189 (100)
	공과대학	142 (4.1)	307 (8.8)	44 (1.3)	163 (4.7)	34 (1.0)	59 (1.7)	57 (1.6)	36 (1.0)	133 (3.8)	33 (0.9)	1,702 (48.7)	784 (22.4)	3,494 (100)
	디자인· 건축대학	34 (4.4)	59 (7.7)	8 (1.0)	23 (3.0)	13 (1.7)	6 (0.8)	10 (1.3)	11 (1.4)	20 (2.6)	5 (0.6)	342 (44.4)	239 (31.0)	770 (100)
	사회과학대학	43 (4.0)	35 (3.2)	18 (1.7)	32 (2.9)	10 (0.9)	23 (2.1)	9 (0.8)	5 (0.5)	74 (6.8)	11 (1.0)	537 (49.4)	290 (26.7)	1,087 (100)
	생활과학대학	31 (4.2)	36 (4.8)	8 (1.1)	47 (6.3)	10 (1.3)	16 (2.1)	7 (0.9)	7 (0.9)	34 (4.6)	12 (1.6)	334 (44.8)	204 (27.3)	746 (100)
	예술대학	10 (2.6)	17 (4.5)	12 (3.2)	10 (2.6)	6 (1.6)	5 (1.3)	3 (0.8)	7 (1.8)	12 (3.2)	6 (1.6)	164 (43.3)	127 (33.5)	379 (100)
	의과대학	17 (3.5)	55 (11.3)	4 (0.8)	23 (4.7)	5 (1.0)	9 (1.8)	2 (0.4)	2 (0.4)	5 (1.0)	7 (1.4)	235 (48.3)	123 (25.3)	487 (100)
	인문대학	46 (3.9)	54 (4.6)	13 (1.1)	52 (4.4)	15 (1.3)	21 (1.8)	14 (1.2)	11 (0.9)	80 (6.8)	13 (1.1)	521 (44.2)	339 (28.8)	1,179 (100)
	자연과학대학	30 (3.2)	49 (5.2)	11 (1.2)	40 (4.3)	14 (1.5)	14 (1.5)	8 (0.9)	15 (1.6)	46 (4.9)	17 (1.8)	446 (47.4)	250 (26.6)	940 (100)
전체		<b>416</b> <b>(4.1)</b>	<b>672</b> <b>(6.5)</b>	<b>143</b> <b>(1.4)</b>	<b>444</b> <b>(4.3)</b>	<b>120</b> <b>(1.2)</b>	<b>175</b> <b>(1.7)</b>	<b>126</b> <b>(1.2)</b>	<b>109</b> <b>(1.1)</b>	<b>464</b> <b>(4.5)</b>	<b>116</b> <b>(1.1)</b>	<b>4,826</b> <b>(47.0)</b>	<b>2,660</b> <b>(25.9)</b>	<b>10,271</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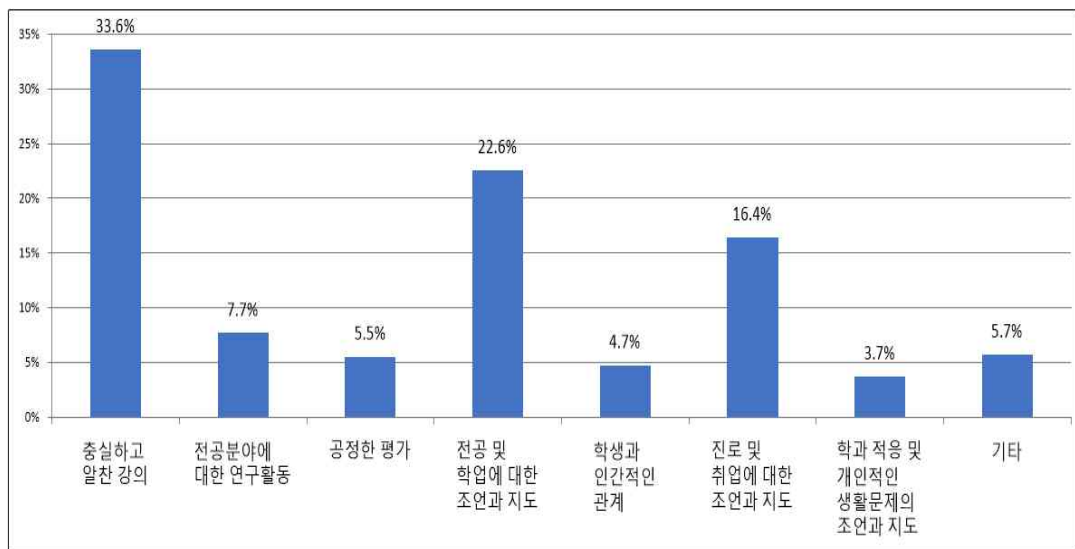
#### 14)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재학생들이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재학생 중 3,453명(33.6%)은 교수님께 ‘충실하고 알찬 강의’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2,319명(22.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1,688명(16.4%),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787명(7.7%), ‘기타’ 588명(5.7%), ‘공정한 평가’ 568명(5.5%), ‘학생과 인간적인 관계’ 487명(4.7%) ‘학과 적응 및 개인적인 생활문제의 조언과 지도’ 381명(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충실하고 알찬 강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34.9%로 남학생 32.4%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25.2%,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18.4% 항목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충실하고 알찬 강의’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에서는 2학년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에는 3학년이 타 학년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충실하고 알찬 강의’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는 예술대학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는 생활과학대학 학생들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교수님께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표 15>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구분		총실하고 알찬강의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공정한 평가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학생과 인간적인 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학과 적응 및 개인적인 생활의 문제 조언과 지도	기타	전체
성별	남	1,721 (32.4)	494 (9.3)	293 (5.5)	1,068 (20.1)	313 (5.9)	775 (14.6)	229 (4.3)	411 (7.7)	5,304 (100)
	여	1,732 (34.9)	293 (5.9)	275 (5.5)	1,251 (25.2)	174 (3.5)	913 (18.4)	152 (3.1)	177 (3.6)	4,967 (100)
학년	1학년	827 (35.9)	190 (8.2)	154 (6.7)	521 (22.6)	137 (5.9)	261 (11.3)	95 (4.1)	121 (5.2)	2,306 (100)
	2학년	873 (34.9)	202 (8.1)	137 (5.5)	592 (23.6)	104 (4.2)	399 (15.9)	91 (3.6)	106 (4.2)	2,504 (100)
	3학년	831 (31.5)	170 (6.5)	139 (5.3)	583 (22.1)	112 (4.3)	564 (21.4)	89 (3.4)	147 (5.6)	2,635 (100)
	4학년	912 (32.8)	218 (7.8)	136 (4.9)	612 (22.0)	132 (4.7)	457 (16.4)	104 (3.7)	209 (7.5)	2,780 (100)
	5학년	10 (21.7)	7 (15.2)	2 (4.3)	11 (23.9)	2 (4.3)	7 (15.2)	2 (4.3)	5 (10.9)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429 (36.1)	72 (6.1)	51 (4.3)	250 (21.0)	65 (5.5)	207 (17.4)	38 (3.2)	77 (6.5)	1,189 (100)
	공과대학	1,284 (36.7)	304 (8.7)	170 (4.9)	740 (21.2)	136 (3.9)	500 (14.3)	145 (4.1)	215 (6.2)	3,49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221 (28.7)	70 (9.1)	54 (7.0)	204 (26.5)	48 (6.2)	116 (15.1)	21 (2.7)	36 (4.7)	770 (100)
	사회과학 대학	400 (36.8)	50 (4.6)	60 (5.5)	238 (21.9)	60 (5.5)	206 (19.0)	35 (3.2)	38 (3.5)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193 (25.9)	53 (7.1)	43 (5.8)	196 (26.3)	28 (3.8)	176 (23.6)	26 (3.5)	31 (4.2)	746 (100)
	예술대학	68 (17.9)	30 (7.9)	47 (12.4)	112 (29.6)	27 (7.1)	64 (16.9)	15 (4.0)	16 (4.2)	379 (100)
	의과대학	239 (49.1)	25 (5.1)	20 (4.1)	107 (22.0)	19 (3.9)	38 (7.8)	26 (5.3)	13 (2.7)	487 (100)
	인문대학	384 (32.6)	68 (5.8)	72 (6.1)	259 (22.0)	57 (4.8)	202 (17.1)	45 (3.8)	92 (7.8)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235 (25.0)	115 (12.2)	51 (5.4)	213 (22.7)	47 (5.0)	179 (19.0)	30 (3.2)	70 (7.4)	940 (100)
<b>전체</b>	<b>3,453 (33.6)</b>	<b>787 (7.7)</b>	<b>568 (5.5)</b>	<b>2,319 (22.6)</b>	<b>487 (4.7)</b>	<b>1,688 (16.4)</b>	<b>381 (3.7)</b>	<b>588 (5.7)</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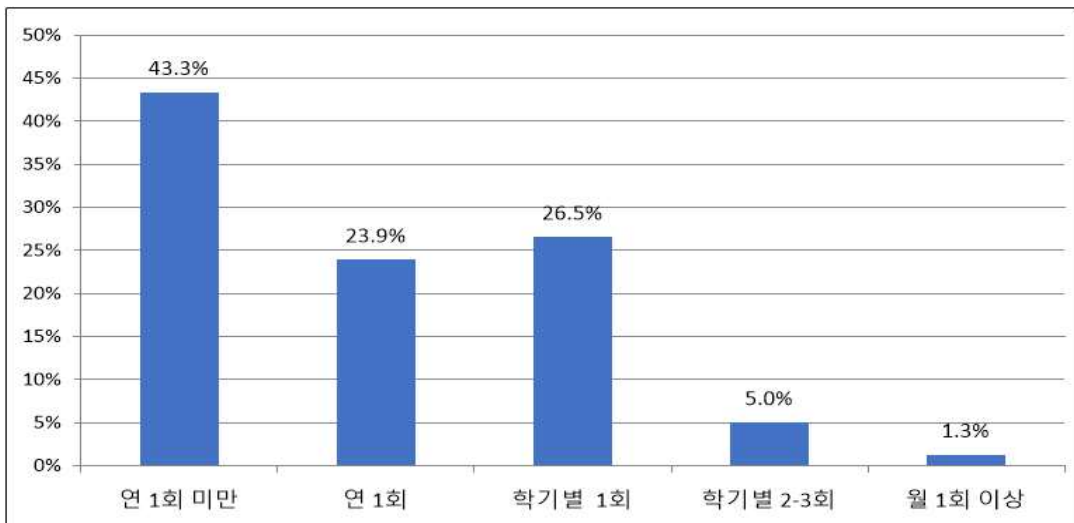
### 15)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재학생의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지도교수와 상담을 ‘연 1회 미만’으로 한다는 응답이 4,450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학기별 1회’ 2,723명(26.5%), ‘연 1회’ 2,454명(23.9%), ‘학기별 2-3회’ 514명(5.0%), ‘월 1회 이상’ 130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 1회 미만’의 응답에서 남학생이 44.6%로 여학생 42.0%보다 높은 비율을, ‘학기별 1회’의 응답에서는 여학생이 28.6%로 남학생의 24.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연 1회 미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기별 1회’에서는 2학년의 비율이 타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예술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지도교수와의 상담횟수로 ‘학기별 1회’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과대학이 가장 높았다. 경영대학과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인문대학은 ‘연 1회 미만’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대학 73.3%, 사회과학대학 60.7%로 타 단과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들 단과대학의 상담 횟수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적은 경향임을 보여 준다. ‘학기별 2-3회’에서는 예술대학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었고,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8>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표 16>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구분		연 1회 미만	연 1회	학기별 1회	학기별 2-3회	월 1회 이상	전체
성별	남	2,363 (44.6)	1,236 (23.3)	1,304 (24.6)	310 (5.8)	91 (1.7)	5,304 (100)
	여	2,087 (42.0)	1,218 (24.5)	1,419 (28.6)	204 (4.1)	39 (0.8)	4,967 (100)
학년	1학년	1,011 (43.8)	572 (24.8)	609 (26.4)	93 (4.0)	21 (0.9)	2,306 (100)
	2학년	1,011 (40.4)	584 (23.3)	769 (30.7)	123 (4.9)	17 (0.7)	2,504 (100)
	3학년	1,138 (43.2)	657 (24.9)	667 (25.3)	134 (5.1)	39 (1.5)	2,635 (100)
	4학년	1,284 (46.2)	633 (22.8)	655 (23.6)	157 (5.6)	51 (1.8)	2,780 (100)
	5학년	6 (13.0)	8 (17.4)	23 (50.0)	7 (15.2)	2 (4.3)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872 (73.3)	155 (13.0)	132 (11.1)	20 (1.7)	10 (0.8)	1,189 (100)
	공과대학	1,625 (46.5)	852 (24.4)	811 (23.2)	173 (5.0)	33 (0.9)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68 (21.8)	222 (28.8)	298 (38.7)	59 (7.7)	23 (3.0)	770 (100)
	사회과학대학	660 (60.7)	250 (23.0)	154 (14.2)	20 (1.8)	3 (0.3)	1,087 (100)
	생활과학대학	350 (46.9)	218 (29.2)	151 (20.2)	25 (3.4)	2 (0.3)	746 (100)
	예술대학	78 (20.6)	53 (14.0)	168 (44.3)	59 (15.6)	21 (5.5)	379 (100)
	의과대학	21 (4.3)	101 (20.7)	326 (66.9)	35 (7.2)	4 (0.8)	487 (100)
	인문대학	489 (41.5)	316 (26.8)	309 (26.2)	47 (4.0)	18 (1.5)	1,179 (100)
	자연과학대학	187 (19.9)	287 (30.5)	374 (39.8)	76 (8.1)	16 (1.7)	940 (100)
<b>전체</b>		<b>4,450 (43.3)</b>	<b>2,454 (23.9)</b>	<b>2,723 (26.5)</b>	<b>514 (5.0)</b>	<b>130 (1.3)</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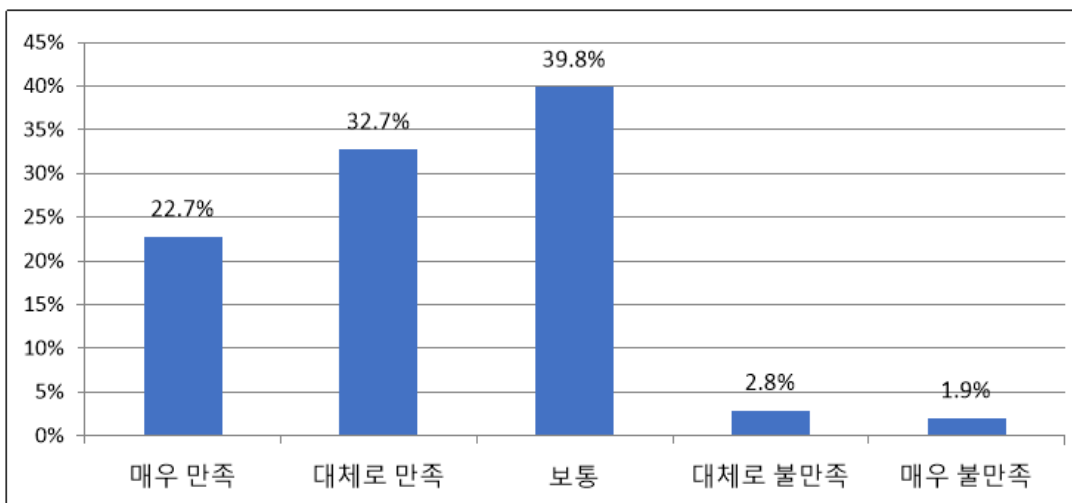
## 16)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재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상담했을 때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4,09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체로 만족’이 3,358명(32.7%), ‘매우 만족’ 2,334명(22.7%), ‘대체로 불만족’ 290명(2.8%), ‘매우 불만족’ 198명(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학생들의 55.4%가 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54.8%, 여학생은 56.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매우 만족’은 남학생이 24.1%로 여학생의 2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만족’은 여학생이 34.8%로 남학생의 30.7%보다 높았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58.9%로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은 49.8%로 가장 낮았다. ‘매우 만족’에서는 2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지도교수와의 상담 불만족은 2학년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가 의과대학에서 78.9%로 가장 높았으며, 예술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도 각각 69.9%, 62.4%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각각 40.8%, 48.7%로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 단과대학에서 교수님과의 상담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표 17>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성별	남	1,276 (24.1)	1,629 (30.7)	2,115 (39.9)	156 (2.9)	128 (2.4)	5,304 (100)
	여	1,058 (21.3)	1,729 (34.8)	1,976 (39.8)	134 (2.7)	70 (1.4)	4,967 (100)
학년	1학년	593 (25.7)	756 (32.8)	896 (38.9)	32 (1.4)	29 (1.3)	2,306 (100)
	2학년	655 (26.2)	818 (32.7)	949 (37.9)	59 (2.4)	23 (0.9)	2,504 (100)
	3학년	571 (21.7)	888 (33.7)	1,048 (39.8)	71 (2.7)	57 (2.2)	2,635 (100)
	4학년	504 (18.1)	881 (31.7)	1,180 (42.4)	126 (4.5)	89 (3.2)	2,780 (100)
	5학년	11 (23.9)	15 (32.6)	18 (39.1)	2 (4.3)	0 (0.0)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06 (17.3)	279 (23.5)	630 (53.0)	29 (2.4)	45 (3.8)	1,189 (100)
	공과대학	792 (22.7)	1,113 (31.9)	1,412 (40.4)	104 (3.0)	73 (2.1)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85 (24.0)	296 (38.4)	265 (34.4)	16 (2.1)	8 (1.0)	770 (100)
	사회과학대학	211 (19.4)	319 (29.3)	498 (45.8)	31 (2.9)	28 (2.6)	1,087 (100)
	생활과학대학	145 (19.4)	238 (31.9)	326 (43.7)	27 (3.6)	10 (1.3)	746 (100)
	예술대학	127 (33.5)	138 (36.4)	108 (28.5)	6 (1.6)	0 (0.0)	379 (100)
	의과대학	161 (33.1)	223 (45.8)	80 (16.4)	20 (4.1)	3 (0.6)	487 (100)
	인문대학	284 (24.1)	384 (32.6)	461 (39.1)	29 (2.5)	21 (1.8)	1,179 (100)
	자연과학대학	223 (23.7)	368 (39.1)	311 (33.1)	28 (3.0)	10 (1.1)	940 (100)
<b>전체</b>		<b>2,334 (22.7)</b>	<b>3,358 (32.7)</b>	<b>4,091 (39.8)</b>	<b>290 (2.8)</b>	<b>198 (1.9)</b>	<b>10,271 (100)</b>

### 3. 진로 및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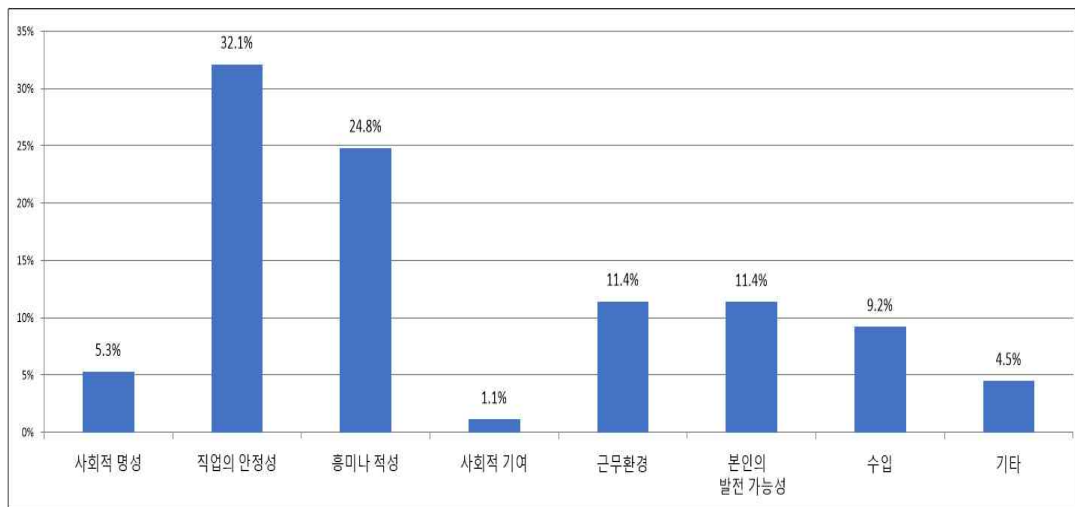
#### 1)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18>과 같다. ‘직업의 안정성’이 3,301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흥미나 적성’ 2,552명(24.8%), ‘근무환경’ 1,175명(11.4%), ‘본인의 발전 가능성’ 1,171명(11.4%), ‘수입’ 948명(9.2%), ‘사회적 명성’ 545명(5.3%), ‘기타’ 462명(4.5%), ‘사회적 기여’ 117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흥미나 적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의 안정성’은 여학생이 34.9%로 남학생 29.5%보다 높았으며, ‘흥미와 적성’ 또한 여학생이 27.0%로 남학생 2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이 직업에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와 적성과 흥미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흥미나 적성’에서는 1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학년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예술대학과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은 ‘흥미나 적성’이 각각 33.2%, 32.6%,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근무환경’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 20>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표 18>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구분		사회적 명성	직업의 안정성	흥미나 적성	사회적 기여	근무환경	본인의 발전 가능성	수입	기타	전체
성별	남	342 (6.4)	1,567 (29.5)	1,208 (22.8)	71 (1.3)	595 (11.2)	616 (11.6)	559 (10.5)	346 (6.5)	5,304 (100)
	여	203 (4.1)	1,734 (34.9)	1,344 (27.1)	46 (0.9)	580 (11.7)	555 (11.2)	389 (7.8)	116 (2.3)	4,967 (100)
학년	1학년	113 (4.9)	774 (33.6)	638 (27.7)	38 (1.6)	206 (8.9)	232 (10.1)	214 (9.3)	91 (3.9)	2,306 (100)
	2학년	135 (5.4)	825 (32.9)	666 (26.6)	31 (1.2)	289 (11.5)	246 (9.8)	239 (9.5)	73 (2.9)	2,504 (100)
	3학년	136 (5.2)	880 (33.4)	602 (22.8)	23 (0.9)	324 (12.3)	308 (11.7)	241 (9.1)	121 (4.6)	2,635 (100)
	4학년	157 (6.0)	818 (31.4)	632 (24.3)	25 (1.0)	350 (13.4)	370 (14.2)	254 (9.7)	174 (6.7)	2,606 (100)
	5학년	4 (8.7)	4 (8.7)	14 (30.4)	0 (0.0)	6 (13.0)	15 (32.6)	0 (0.0)	3 (6.5)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84 (7.1)	399 (33.6)	229 (19.3)	15 (1.3)	140 (11.8)	139 (11.7)	111 (9.3)	72 (6.1)	1,189 (100)
	공과대학	208 (6.0)	1,136 (32.5)	703 (20.1)	33 (0.9)	468 (13.4)	374 (10.7)	401 (11.5)	171 (4.9)	3,49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39 (5.1)	161 (20.9)	251 (32.6)	4 (0.5)	82 (10.6)	142 (18.4)	67 (8.7)	24 (3.1)	770 (100)
	사회과학 대학	53 (4.9)	418 (38.5)	281 (25.9)	24 (2.2)	106 (9.8)	82 (7.5)	91 (8.4)	32 (2.9)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24 (3.2)	260 (34.9)	212 (28.4)	3 (0.4)	81 (10.9)	84 (11.3)	60 (8.0)	22 (2.9)	746 (100)
	예술대학	12 (3.2)	107 (28.2)	126 (33.2)	4 (1.1)	20 (5.3)	71 (18.7)	26 (6.9)	13 (3.4)	379 (100)
	의과대학	22 (4.5)	160 (32.9)	88 (18.1)	17 (3.5)	89 (18.3)	46 (9.4)	48 (9.9)	17 (3.5)	487 (100)
	인문대학	52 (4.4)	375 (31.8)	373 (31.6)	10 (0.8)	110 (9.3)	125 (10.6)	76 (6.4)	58 (4.9)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51 (5.4)	285 (30.3)	289 (30.7)	7 (0.7)	79 (8.4)	108 (11.5)	68 (7.2)	53 (5.6)	940 (100)
<b>전체</b>	<b>545 (5.3)</b>	<b>3,301 (32.1)</b>	<b>2,552 (24.8)</b>	<b>117 (1.1)</b>	<b>1,175 (11.4)</b>	<b>1,171 (11.4)</b>	<b>948 (9.2)</b>	<b>462 (4.5)</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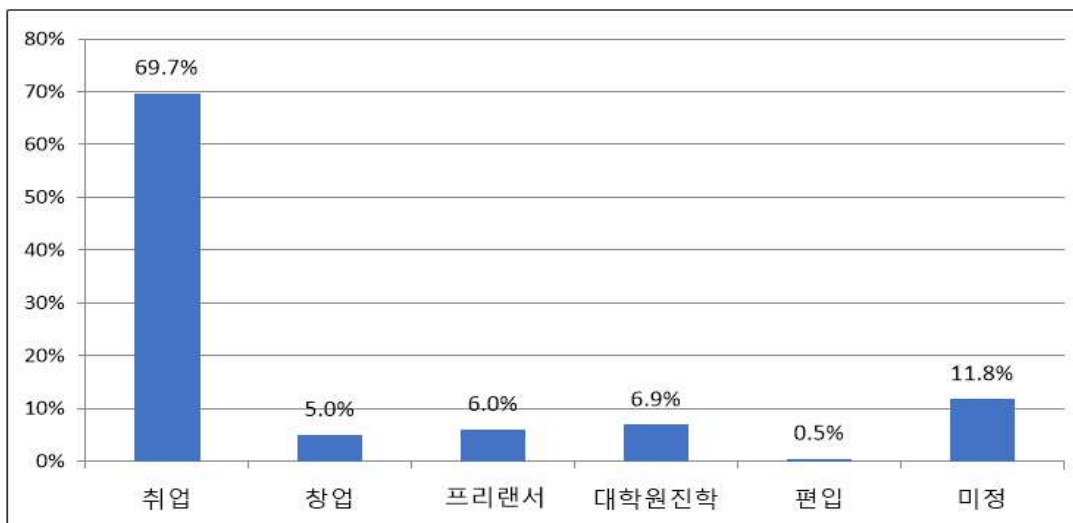
## 2)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재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재학생들의 7,163명(69.7%)이 졸업 후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미정’이 1,213명(11.8%)으로 그다음을 기록했다. ‘대학원 진학’ 708명(6.9%), ‘프리랜서’ 619명(6.0%), ‘창업’ 514명(5.0%), ‘편입’ 54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각각 68.5%, 71.0%로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은 남학생 6.3%, 여학생 3.6%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 모두 ‘취업’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 4학년에서의 ‘취업’이 타 학년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창업’은 1, 2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학원 진학’은 4학년의 비율이 타 학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에서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의과대학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를 정하지 못한 ‘미정’의 응답에서는 예술대학이 18.7%로 가장 높았다. 예술대학은 희망하는 진로로 ‘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 타 단과대학보다 월등히 낮았지만 ‘대학원 진학’과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진로에서는 예술대학이 각각 24.3% 18.7%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았다.



<그림 21>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표 19>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구분		취업	창업	프리랜서	대학원 진학	편입	미정	전체
성별	남	3,635 (68.5)	333 (6.3)	320 (6.0)	360 (6.8)	35 (0.7)	621 (11.7)	5,304 (100)
	여	3,528 (71.0)	181 (3.6)	299 (6.0)	348 (7.0)	19 (0.4)	592 (11.9)	4,967 (100)
학년	1학년	1,516 (65.7)	136 (5.9)	130 (5.6)	135 (5.9)	16 (0.7)	373 (16.2)	2,306 (100)
	2학년	1,746 (69.7)	142 (5.7)	149 (6.0)	167 (6.7)	14 (0.6)	286 (11.4)	2,504 (100)
	3학년	1,898 (72.0)	117 (4.4)	146 (5.5)	169 (6.4)	13 (0.5)	292 (11.1)	2,635 (100)
	4학년	1,966 (70.7)	118 (4.2)	190 (6.8)	236 (8.5)	10 (0.4)	260 (9.4)	2,780 (100)
	5학년	37 (80.4)	1 (2.2)	4 (8.7)	1 (2.2)	1 (2.2)	2 (4.3)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798 (67.1)	103 (8.7)	73 (6.1)	52 (4.4)	9 (0.8)	154 (13.0)	1,189 (100)
	공과대학	2,676 (76.6)	146 (4.2)	125 (3.6)	221 (6.3)	17 (0.5)	309 (8.8)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26 (68.3)	48 (6.2)	86 (11.2)	27 (3.5)	3 (0.4)	80 (10.4)	770 (100)
	사회과학대학	874 (80.4)	39 (3.6)	46 (4.2)	18 (1.7)	4 (0.4)	106 (9.8)	1,087 (100)
	생활과학대학	508 (68.1)	42 (5.6)	43 (5.8)	35 (4.7)	4 (0.5)	114 (15.3)	746 (100)
	예술대학	120 (31.7)	24 (6.3)	71 (18.7)	92 (24.3)	1 (0.3)	71 (18.7)	379 (100)
	의과대학	422 (86.7)	4 (0.8)	10 (2.1)	17 (3.5)	1 (0.2)	33 (6.8)	487 (100)
	인문대학	732 (62.1)	70 (5.9)	121 (10.3)	60 (5.1)	6 (0.5)	190 (16.1)	1,179 (100)
	자연과학대학	507 (53.9)	38 (4.0)	44 (4.7)	186 (19.8)	9 (1.0)	156 (16.6)	940 (100)
<b>전체</b>	<b>7,163 (69.7)</b>	<b>514 (5.0)</b>	<b>619 (6.0)</b>	<b>708 (6.9)</b>	<b>54 (0.5)</b>	<b>1,213 (11.8)</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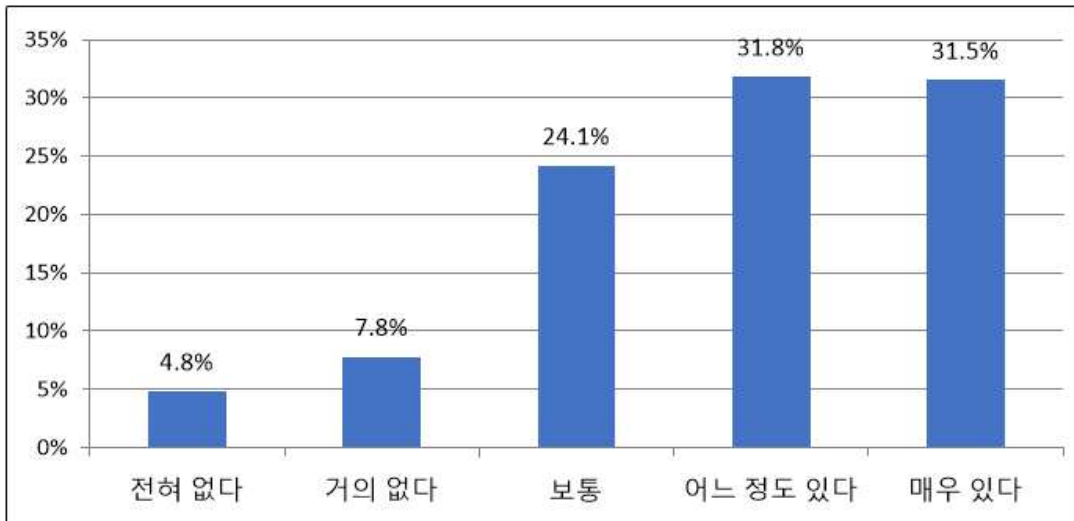
### 3)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희망하는 진로 분야와 전공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진로 분야와 전공의 관련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의 응답이 3,265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있다’의 응답도 3,236명(31.5%)이었다. ‘보통’은 2,480명(24.1%), ‘거의 없다’ 798명(7.8%), ‘전혀 없다’ 492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3.3%로 과반수가 희망 진로와 전공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60.7%, 여학생은 66.1%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4학년에서는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이 ‘매우 있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2, 3학년은 ‘어느 정도 있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희망하는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도가 ‘매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81.7%로 나타났으며, 디자인·건축융합대학 45.8%, 예술대학 3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대학의 경우 ‘전혀 없다’ 또는 ‘거의 없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림 22>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표 20>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어느 정도 있다	매우 있다	전체
성별	남	294 (5.5)	408 (7.7)	1,383 (26.1)	1,663 (31.4)	1,556 (29.3)	5,304 (100)
	여	198 (4.0)	390 (7.9)	1,097 (22.1)	1,602 (32.3)	1,680 (33.8)	4,967 (100)
학년	1학년	80 (3.5)	131 (5.7)	582 (25.2)	747 (32.4)	766 (33.2)	2,306 (100)
	2학년	111 (4.4)	181 (7.2)	563 (22.5)	840 (33.5)	809 (32.3)	2,504 (100)
	3학년	131 (5.0)	188 (7.1)	644 (24.4)	863 (32.8)	809 (30.7)	2,635 (100)
	4학년	168 (6.0)	298 (10.7)	683 (24.6)	806 (29.0)	825 (29.7)	2,780 (100)
	5학년	2 (4.3)	0 (0.0)	8 (17.4)	9 (19.6)	27 (58.7)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61 (5.1)	97 (8.2)	353 (29.7)	435 (36.6)	243 (20.4)	1,189 (100)
	공과대학	154 (4.4)	198 (5.7)	846 (24.2)	1,211 (34.7)	1,085 (31.1)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3 (1.7)	31 (4.0)	133 (17.3)	240 (31.2)	353 (45.8)	770 (100)
	사회과학대학	71 (6.5)	101 (9.3)	262 (24.1)	334 (30.7)	319 (29.3)	1,087 (100)
	생활과학대학	29 (3.9)	57 (7.6)	154 (20.6)	253 (33.9)	253 (33.9)	746 (100)
	예술대학	9 (2.4)	18 (4.7)	89 (23.5)	114 (30.1)	149 (39.3)	379 (100)
	의과대학	9 (1.8)	18 (3.7)	24 (4.9)	38 (7.8)	398 (81.7)	487 (100)
	인문대학	100 (8.5)	202 (17.1)	382 (32.4)	334 (28.3)	161 (13.7)	1,179 (100)
	자연과학대학	46 (4.9)	76 (8.1)	237 (25.2)	306 (32.6)	275 (29.3)	940 (100)
<b>전체</b>		<b>492 (4.8)</b>	<b>798 (7.8)</b>	<b>2,480 (24.1)</b>	<b>3,265 (31.8)</b>	<b>3,236 (31.5)</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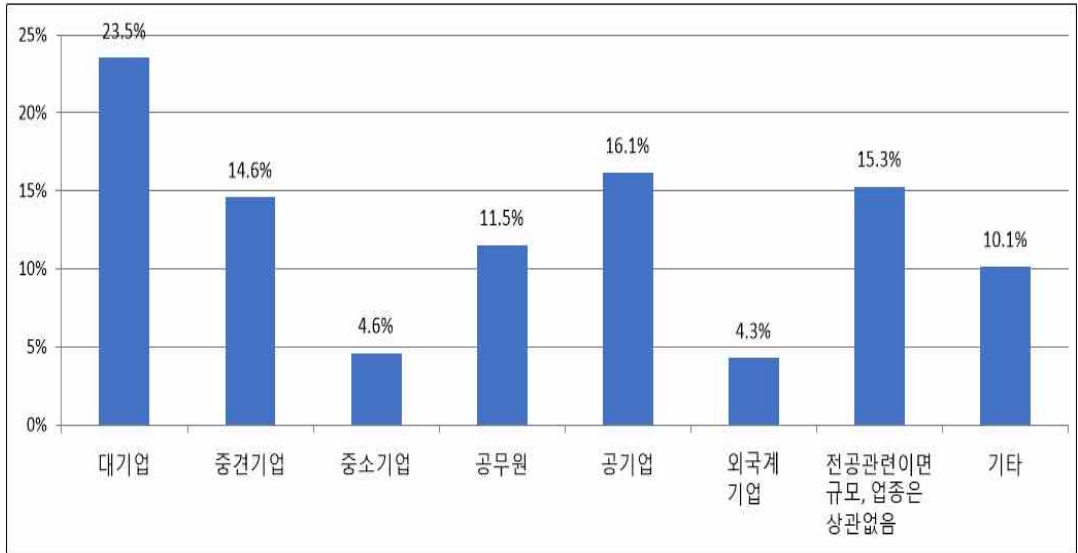
#### 4)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재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재학생들의 2,414명(23.5%)은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기업’ 1,658명(16.1%),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570명(15.3%), ‘중견기업’ 1,496명(14.6%), ‘공무원’ 1,182명(11.5%), ‘기타’ 1,041명(10.1%), ‘중소기업’ 472명(4.6%), ‘외국계 기업’ 438명(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대기업’ 희망이 27.0%, ‘공기업’ 17.1%, ‘중견기업’ 16.3%,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2.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대기업’ 19.8%,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8.1%, ‘공기업’ 15.1%, ‘공무원’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대기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외국계 기업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 취업 희망 기업 형태를 비교해보면 경영대학은 ‘중견기업’ 선호가 20.5%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대학은 ‘공무원’을 35.8%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인문대학 역시 ‘공무원’을 18.1%로 가장 많이 선호 하였지만 그 외 다른 항목의 기업 형태에서도 비교적 골고루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예술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이 각각 49.9%, 25.2%,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의과대학은 모두 ‘대기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의과대학은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23>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표 21>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공기업	외국계 기업	전공 관련이면 규모는 업종은 상관없음	기타	전체
성별	남	1,432 (27.0)	865 (16.3)	246 (4.6)	457 (8.6)	906 (17.1)	171 (3.2)	673 (12.7)	554 (10.4)	5,304 (100)
	여	982 (19.8)	631 (12.7)	226 (4.6)	725 (14.6)	752 (15.1)	267 (5.4)	897 (18.1)	487 (9.8)	4,967 (100)
학년	1학년	607 (26.3)	263 (11.4)	86 (3.7)	285 (12.4)	304 (13.2)	133 (5.8)	385 (16.7)	243 (10.5)	2,306 (100)
	2학년	632 (25.2)	338 (13.5)	87 (3.5)	304 (12.1)	402 (16.1)	113 (4.5)	398 (15.9)	230 (9.2)	2,504 (100)
	3학년	564 (21.4)	409 (15.5)	126 (4.8)	273 (10.4)	487 (18.5)	115 (4.4)	402 (15.3)	259 (9.8)	2,635 (100)
	4학년	603 (21.7)	481 (17.3)	161 (5.8)	316 (11.4)	463 (16.7)	76 (2.7)	374 (13.5)	306 (11.0)	2,780 (100)
	5학년	8 (17.4)	5 (10.9)	12 (26.1)	4 (8.7)	2 (4.3)	1 (2.2)	11 (23.9)	3 (6.5)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11 (17.7)	244 (20.5)	61 (5.1)	115 (9.7)	234 (19.7)	48 (4.0)	134 (11.3)	142 (11.9)	1,189 (100)
	공과대학	1,149 (32.9)	625 (17.9)	120 (3.4)	151 (4.3)	826 (23.6)	96 (2.7)	322 (9.2)	205 (5.9)	3,494 (100)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182 (23.6)	129 (16.8)	73 (9.5)	29 (3.8)	62 (8.1)	47 (6.1)	180 (23.4)	68 (8.8)	770 (100)
	사회과학 대학	97 (8.9)	89 (8.2)	38 (3.5)	456 (42.0)	169 (15.5)	32 (2.9)	113 (10.4)	93 (8.6)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150 (20.1)	100 (13.4)	52 (7.0)	77 (10.3)	80 (10.7)	22 (2.9)	188 (25.2)	77 (10.3)	746 (100)
	예술대학	31 (8.2)	25 (6.6)	21 (5.5)	16 (4.2)	6 (1.6)	13 (3.4)	189 (49.9)	78 (20.6)	379 (100)
	의과대학	272 (55.9)	23 (4.7)	9 (1.8)	18 (3.7)	19 (3.9)	6 (1.2)	62 (12.7)	78 (16.0)	487 (100)
	인문대학	151 (12.8)	133 (11.3)	59 (5.0)	213 (18.1)	131 (11.1)	137 (11.6)	191 (16.2)	164 (13.9)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171 (18.2)	128 (13.6)	39 (4.1)	107 (11.4)	131 (13.9)	37 (3.9)	191 (20.3)	136 (14.5)	940 (100)
전체		<b>2,414</b> <b>(23.5)</b>	<b>1,496</b> <b>(14.6)</b>	<b>472</b> <b>(4.6)</b>	<b>1,182</b> <b>(11.5)</b>	<b>1,658</b> <b>(16.1)</b>	<b>438</b> <b>(4.3)</b>	<b>1,570</b> <b>(15.3)</b>	<b>1,041</b> <b>(10.1)</b>	<b>10,271</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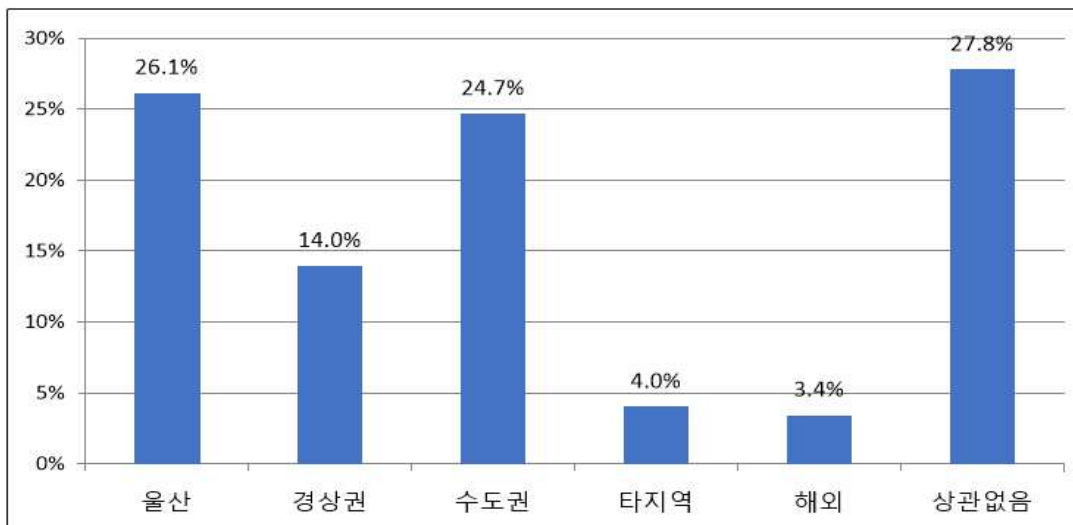
## 5)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재학생들이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재학생들의 2,855명(27.8%)은 취업 희망 지역으로 어디든 ‘상관없음’ 이라고 응답하였고, ‘울산’ 2,685명(26.1%), ‘수도권’ 2,535명(24.7%), ‘경상권’ 1,433명(14.0%), ‘타지역’ 412명(4.0%), ‘해외’ 351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상관없음’ 29.6%, ‘울산’ 29.1%, ‘수도권’ 19.5%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수도권’ 30.2%, ‘상관없음’ 25.9%, ‘울산’ 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수도권 취업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 2학년은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으로 ‘상관없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 4학년은 ‘울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도권에서의 취업 희망은 줄어들고 있고, 경상권의 취업 희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을 비교해보면 의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생활과학은 ‘수도권’ 지역 희망이 가장 높았고, 의과대학은 7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은 ‘울산’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예술대학, 인문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상관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표 22> 취업 시 희망하는 지역

구분		울산	경상권	수도권	타지역	해외	상관없음	전체
성별	남	1,546 (29.1)	800 (15.1)	1,036 (19.5)	175 (3.3)	177 (3.3)	1,570 (29.6)	5,304 (100)
	여	1,139 (22.9)	633 (12.7)	1,499 (30.2)	237 (4.8)	174 (3.5)	1,285 (25.9)	4,967 (100)
학년	1학년	450 (19.5)	242 (10.5)	667 (28.9)	89 (3.9)	102 (4.4)	756 (32.8)	2,306 (100)
	2학년	624 (24.9)	359 (14.3)	611 (24.4)	98 (3.9)	104 (4.2)	708 (28.3)	2,504 (100)
	3학년	775 (29.4)	376 (14.3)	614 (23.3)	99 (3.8)	73 (2.8)	698 (26.5)	2,635 (100)
	4학년	829 (29.8)	455 (16.4)	615 (22.1)	126 (4.5)	66 (2.4)	689 (24.8)	2,780 (100)
	5학년	7 (15.2)	1 (2.2)	28 (60.9)	0 (0.0)	6 (13.0)	4 (8.7)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395 (33.2)	164 (13.8)	205 (17.2)	53 (4.5)	33 (2.8)	339 (28.5)	1,189 (100)
	공과대학	1,058 (30.3)	557 (15.9)	662 (18.9)	116 (3.3)	85 (2.4)	1,016 (29.1)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81 (10.5)	75 (9.7)	349 (45.3)	21 (2.7)	46 (6.0)	198 (25.7)	770 (100)
	사회과학대학	391 (36.0)	182 (16.7)	168 (15.5)	48 (4.4)	21 (1.9)	277 (25.5)	1,087 (100)
	생활과학대학	188 (25.2)	115 (15.4)	209 (28.0)	38 (5.1)	16 (2.1)	180 (24.1)	746 (100)
	예술대학	66 (17.4)	51 (13.5)	96 (25.3)	25 (6.6)	16 (4.2)	125 (33.0)	379 (100)
	의과대학	35 (7.2)	23 (4.7)	373 (76.6)	9 (1.8)	5 (1.0)	42 (8.6)	487 (100)
	인문대학	258 (21.9)	133 (11.3)	278 (23.6)	51 (4.3)	103 (8.7)	356 (30.2)	1,179 (100)
	자연과학대학	213 (22.7)	133 (14.1)	195 (20.7)	51 (5.4)	26 (2.8)	322 (34.3)	940 (100)
전체		<b>2,685</b> <b>(26.1)</b>	<b>1,433</b> <b>(14.0)</b>	<b>2,535</b> <b>(24.7)</b>	<b>412</b> <b>(4.0)</b>	<b>351</b> <b>(3.4)</b>	<b>2,855</b> <b>(27.8)</b>	<b>10,271</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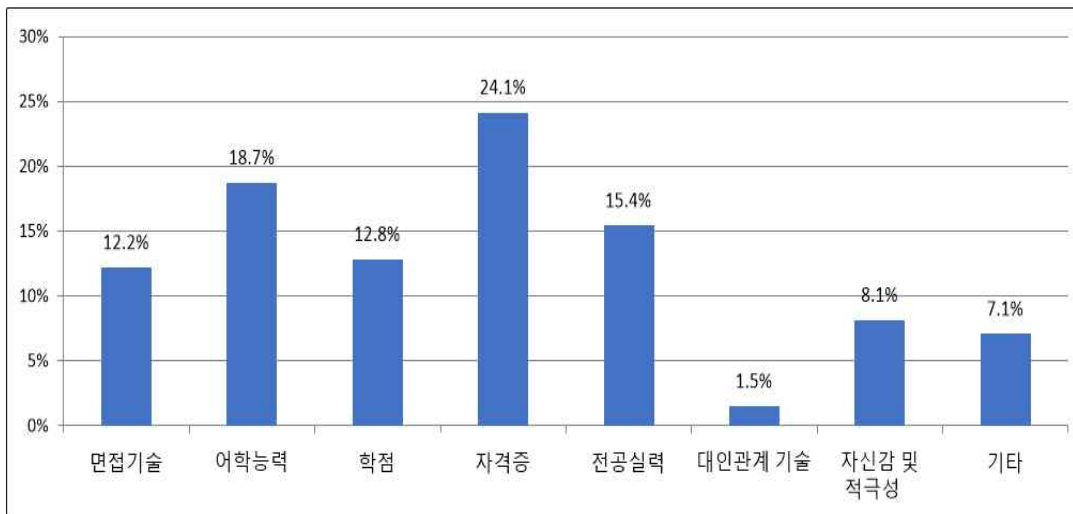
## 6) 취업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재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더 노력하고 보완할 분야를 살펴보면, ‘자격증’이 2,480명(24.1%)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어학 능력’ 1,923명(18.7%), ‘전공 실력’ 1,585명(15.4%), ‘학점’ 1,316명(12.8%), ‘면접기술’ 1,251명(12.2%), ‘자신감 및 적극성’ 836명(8.1%) ‘기타’ 727명(7.1%), ‘대인관계 기술’ 153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격증’, ‘어학 능력’, ‘학점’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자격증’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 능력’에서는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으로 ‘자격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4학년이 6.0%로 가장 낮은 반면, ‘면접기술’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늘어나면서 4학년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어학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디자인·건축융합대학과 예술대학은 ‘전공 실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경영대학과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자격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표 23>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구분		면접기술	어휘능력	학점	자격증	전공실력	대인관계 기술	자신감 및 적극성	기타	전체
성별	남	612 (11.5)	933 (17.6)	735 (13.9)	1,308 (24.7)	754 (14.2)	90 (1.7)	399 (7.5)	473 (8.9)	5,304 (100)
	여	639 (12.9)	990 (19.9)	581 (11.7)	1,172 (23.6)	831 (16.7)	63 (1.3)	437 (8.8)	254 (5.1)	4,967 (100)
학년	1학년	214 (9.3)	405 (17.6)	451 (19.6)	506 (21.9)	374 (16.2)	42 (1.8)	181 (7.8)	133 (5.8)	2,306 (100)
	2학년	288 (11.5)	465 (18.6)	402 (16.1)	547 (21.8)	450 (18.0)	35 (1.4)	194 (7.7)	123 (4.9)	2,504 (100)
	3학년	306 (11.6)	485 (18.4)	293 (11.1)	750 (28.5)	378 (14.3)	32 (1.2)	210 (8.0)	181 (6.9)	2,635 (100)
	4학년	438 (15.8)	559 (20.1)	167 (6.0)	671 (24.1)	374 (13.5)	43 (1.5)	243 (8.7)	285 (10.3)	2,780 (100)
	5학년	5 (10.9)	9 (19.6)	3 (6.5)	6 (13.0)	9 (19.6)	1 (2.2)	8 (17.4)	5 (10.9)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38 (11.6)	267 (22.5)	141 (11.9)	340 (28.6)	106 (8.9)	21 (1.8)	88 (7.4)	88 (7.4)	1,189 (100)
	공과대학	466 (13.3)	584 (16.7)	573 (16.4)	819 (23.4)	563 (16.1)	36 (1.0)	226 (6.5)	227 (6.5)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56 (7.3)	128 (16.6)	79 (10.3)	111 (14.4)	283 (36.8)	9 (1.2)	58 (7.5)	46 (6.0)	770 (100)
	사회과학 대학	155 (14.3)	186 (17.1)	72 (6.6)	338 (31.1)	129 (11.9)	18 (1.7)	117 (10.8)	72 (6.6)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110 (14.7)	95 (12.7)	89 (11.9)	209 (28.0)	94 (12.6)	10 (1.3)	100 (13.4)	39 (5.2)	746 (100)
	예술대학	16 (4.2)	56 (14.8)	20 (5.3)	67 (17.7)	126 (33.2)	14 (3.7)	46 (12.1)	34 (9.0)	379 (100)
	의과대학	91 (18.7)	120 (24.6)	114 (23.4)	13 (2.7)	76 (15.6)	9 (1.8)	32 (6.6)	32 (6.6)	487 (100)
	인문대학	129 (10.9)	284 (24.1)	108 (9.2)	343 (29.1)	90 (7.6)	24 (2.0)	101 (8.6)	100 (8.5)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90 (9.6)	203 (21.6)	120 (12.8)	240 (25.5)	118 (12.6)	12 (1.3)	68 (7.2)	89 (9.5)	940 (100)	
전체		<b>1,251</b> <b>(12.2)</b>	<b>1,923</b> <b>(18.7)</b>	<b>1,316</b> <b>(12.8)</b>	<b>2,480</b> <b>(24.1)</b>	<b>1,585</b> <b>(15.4)</b>	<b>153</b> <b>(1.5)</b>	<b>836</b> <b>(8.1)</b>	<b>727</b> <b>(7.1)</b>	<b>10,271</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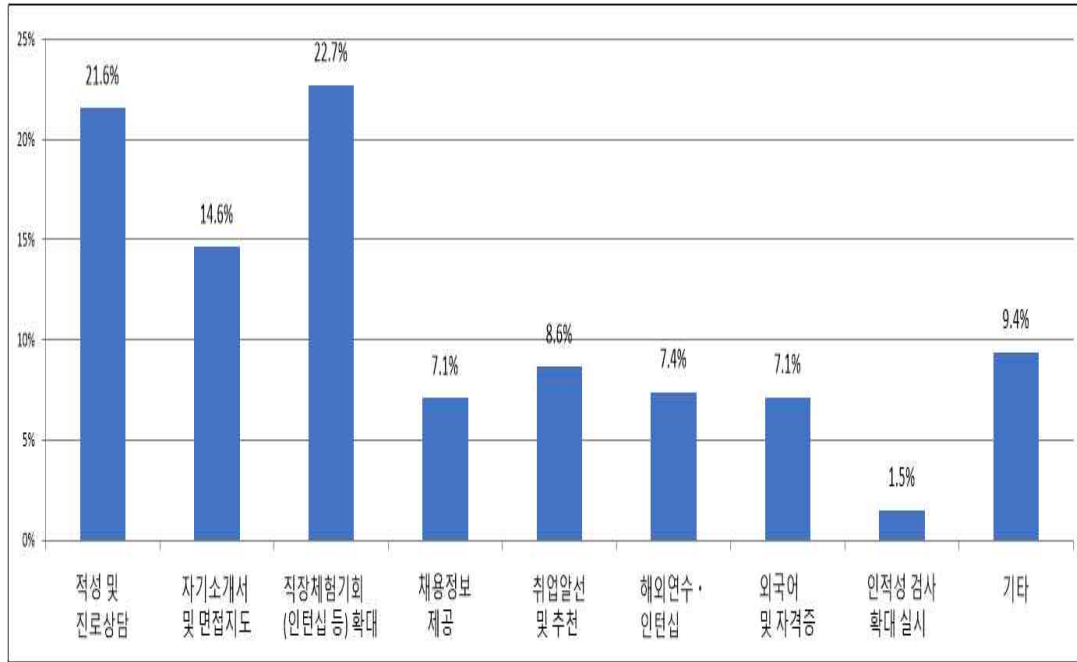
## 7)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진로·취업을 위해 대학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 2,332명(22.7%), ‘적성 및 진로상담’이 2,214명(21.6%)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1,502명(14.6%), ‘기타’ 963명(9.4%), ‘취업알선 및 추천’ 888명(8.6%), ‘해외연수·인턴십’ 760명(7.4%), ‘외국어 및 자격증’ 733명(7.1%), ‘채용정보 제공’ 726명(7.1%), ‘인적성 검사 확대 실시’ 153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적성 및 진로상담’이 24.4%로 진로·취업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를 25.8%로 가장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에서는 여학생이 16.6%로 남학생의 12.8%보다 조금 더 높아 여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학년별 역시, 모든 학년에서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와 ‘적성 및 진로상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직무 관련 경험을 중시하는 등 능력 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재학 중 직무 경험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재학생들의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였고, 생활과학대학이 26.9%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6.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를 40.5%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예술대학은 ‘적성과 진로상담’을 가장 많이 원하였다.



<그림 26>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표 24>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구분		적성 및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직장체험 기회 (인턴십 등) 확대	채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및 추천	해외연수 ·인턴십	외국어 및 자격증	인정성 검사 확대실시	기타	전체
성별	남	1,295 (24.4)	679 (12.8)	1,051 (19.8)	380 (7.2)	451 (8.5)	329 (6.2)	376 (7.1)	74 (1.4)	669 (12.6)	5,304 (100)
	여	919 (18.5)	823 (16.6)	1,281 (25.8)	346 (7.0)	437 (8.8)	431 (8.7)	357 (7.2)	79 (1.6)	294 (5.9)	4,967 (100)
학년	1학년	526 (22.8)	288 (12.5)	528 (22.9)	168 (7.3)	141 (6.1)	235 (10.2)	203 (8.8)	24 (1.0)	193 (8.4)	2,306 (100)
	2학년	619 (24.7)	325 (13.0)	627 (25.0)	149 (6.0)	177 (7.1)	208 (8.3)	159 (6.3)	33 (1.3)	207 (8.3)	2,504 (100)
	3학년	565 (21.4)	381 (14.5)	603 (22.9)	205 (7.8)	253 (9.6)	161 (6.1)	191 (7.2)	39 (1.5)	237 (9.0)	2,635 (100)
	4학년	495 (17.8)	503 (18.1)	565 (20.3)	200 (7.2)	314 (11.3)	149 (5.4)	177 (6.4)	56 (2.0)	321 (11.5)	2,780 (100)
	5학년	9 (19.6)	5 (10.9)	9 (19.6)	4 (8.7)	3 (6.5)	7 (15.2)	3 (6.5)	1 (2.2)	5 (10.9)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247 (20.8)	130 (10.9)	278 (23.4)	87 (7.3)	134 (11.3)	86 (7.2)	93 (7.8)	22 (1.9)	112 (9.4)	1,189 (100)
	공과대학	841 (24.1)	512 (14.7)	849 (24.3)	239 (6.8)	266 (7.6)	198 (5.7)	221 (6.3)	44 (1.3)	324 (9.3)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157 (20.4)	73 (9.5)	202 (26.2)	58 (7.5)	75 (9.7)	88 (11.4)	41 (5.3)	11 (1.4)	65 (8.4)	770 (100)
	사회과학대학	216 (19.9)	179 (16.5)	247 (22.7)	79 (7.3)	119 (10.9)	61 (5.6)	92 (8.5)	19 (1.7)	75 (6.9)	1,087 (100)
	생활과학대학	150 (20.1)	113 (15.1)	201 (26.9)	60 (8.0)	65 (8.7)	49 (6.6)	56 (7.5)	8 (1.1)	44 (5.9)	746 (100)
	예술대학	83 (21.9)	20 (5.3)	74 (19.5)	40 (10.6)	46 (12.1)	28 (7.4)	28 (7.4)	5 (1.3)	55 (14.5)	379 (100)
	의과대학	96 (19.7)	197 (40.5)	29 (6.0)	9 (1.8)	12 (2.5)	48 (9.9)	40 (8.2)	10 (2.1)	46 (9.4)	487 (100)
	인문대학	229 (19.4)	161 (13.7)	241 (20.4)	74 (6.3)	103 (8.7)	130 (11.0)	102 (8.7)	20 (1.7)	119 (10.1)	1,179 (100)
	자연과학대학	195 (20.7)	117 (12.4)	211 (22.4)	80 (8.5)	68 (7.2)	72 (7.7)	60 (6.4)	14 (1.5)	123 (13.1)	940 (100)
<b>전체</b>		<b>2,214</b> <b>(21.6)</b>	<b>1,502</b> <b>(14.6)</b>	<b>2,332</b> <b>(22.7)</b>	<b>726</b> <b>(7.1)</b>	<b>888</b> <b>(8.6)</b>	<b>760</b> <b>(7.4)</b>	<b>733</b> <b>(7.1)</b>	<b>153</b> <b>(1.5)</b>	<b>963</b> <b>(9.4)</b>	<b>10,271</b> <b>(100)</b>

## 4.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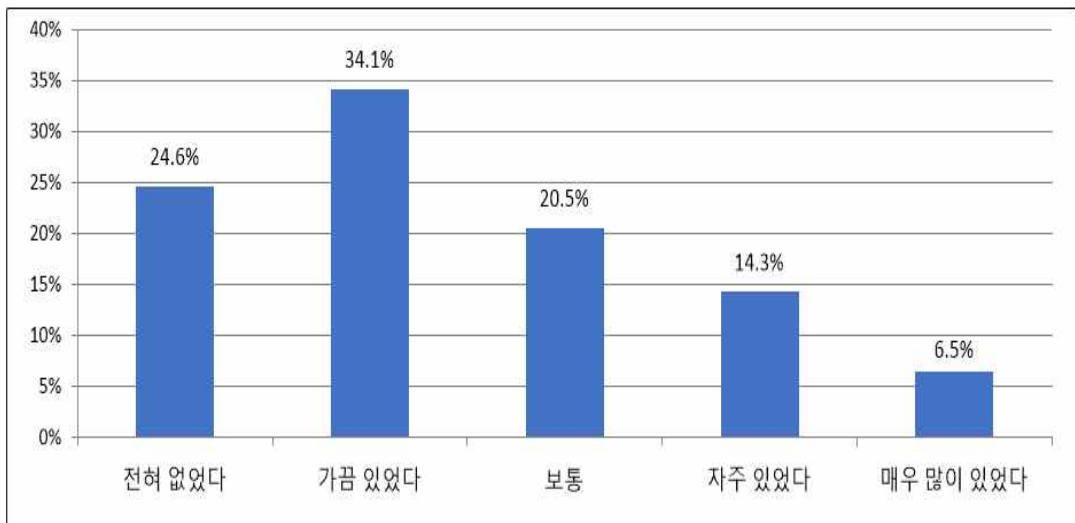
### 1)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재학생들의 최근 3개월간 불안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5>와 같다. 재학생들의 3,506명(34.1%)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있었다’고 하였으며, 2,529명(24.6%)은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하였다. ‘보통’과 ‘자주 있었다’는 응답도 각각 20.5%, 14.3%로 나타났으며, ‘매우 많이 있었다’는 663명(6.5%)이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불안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으로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고,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4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 비교에서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26.9%, 자연과학대학 26.1%이었으며, ‘가끔 있었다’의 응답은 의과대학 41.7%, 자연과학대학이 35.2%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주 있었다’의 응답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융합대학 8.8%, 생활과학대학 15.7%, ‘매우 많이 있었다’는 디자인·건축융합대학 82.8%, 인문대학 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표 25>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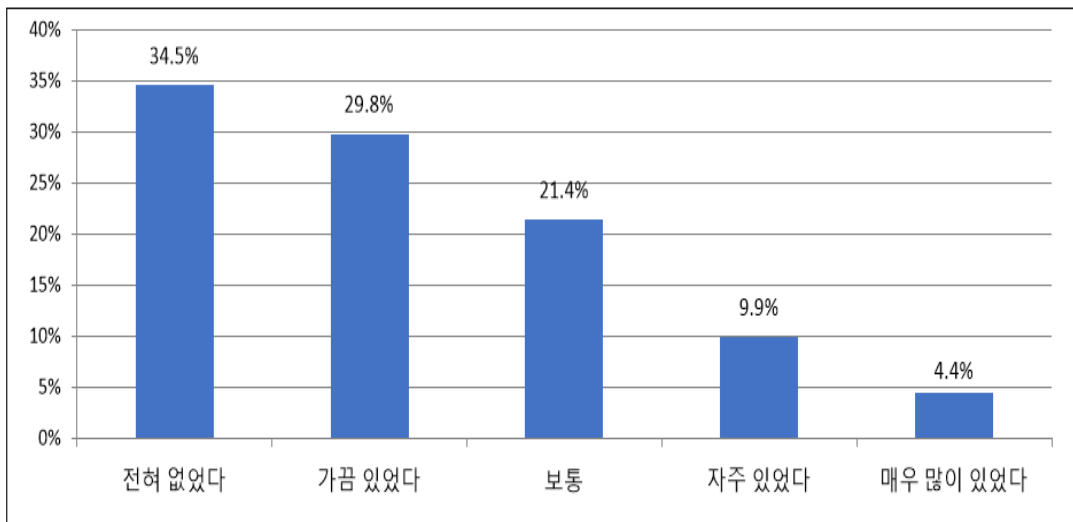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보통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	전체
성별	남	1,511 (28.5)	1,686 (31.8)	1,125 (21.2)	650 (12.3)	332 (6.3)	5,304 (100)
	여	1,018 (20.5)	1,820 (36.6)	983 (19.8)	815 (16.4)	331 (6.7)	4,967 (100)
학년	1학년	657 (28.5)	832 (36.1)	441 (19.1)	264 (11.4)	112 (4.9)	2,306 (100)
	2학년	624 (24.9)	881 (35.2)	486 (19.4)	368 (14.7)	145 (5.8)	2,504 (100)
	3학년	610 (23.1)	909 (34.5)	558 (21.2)	388 (14.7)	170 (6.5)	2,635 (100)
	4학년	628 (22.6)	871 (31.3)	612 (22.0)	440 (15.8)	229 (8.2)	2,780 (100)
	5학년	10 (21.7)	13 (28.3)	11 (23.9)	5 (10.9)	7 (15.2)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280 (23.5)	389 (32.7)	266 (22.4)	184 (15.5)	70 (5.9)	1,189 (100)
	공과대학	940 (26.9)	1,184 (33.9)	713 (20.4)	455 (13.0)	202 (5.8)	3,494 (1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72 (22.3)	240 (31.2)	159 (20.6)	131 (17.0)	68 (8.8)	770 (100)
	사회과학대학	269 (24.7)	372 (34.2)	205 (18.9)	168 (15.5)	73 (6.7)	1,087 (100)
	생활과학대학	158 (21.2)	251 (33.6)	170 (22.8)	117 (15.7)	50 (6.7)	746 (100)
	예술대학	83 (21.9)	130 (34.3)	83 (21.9)	59 (15.6)	24 (6.3)	379 (100)
	의과대학	119 (24.4)	203 (41.7)	75 (15.4)	64 (13.1)	26 (5.3)	487 (100)
	인문대학	263 (22.3)	406 (34.4)	237 (20.1)	176 (14.9)	97 (8.2)	1,179 (100)
	자연과학대학	245 (26.1)	331 (35.2)	200 (21.3)	111 (11.8)	53 (5.6)	940 (100)
전체		<b>2,529</b> <b>(24.6)</b>	<b>3,506</b> <b>(34.1)</b>	<b>2,108</b> <b>(20.5)</b>	<b>1,465</b> <b>(14.3)</b>	<b>663</b> <b>(6.5)</b>	<b>10,271</b> <b>(100)</b>

## 2)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재학생들의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6>과 같다.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다'의 응답이 3,544명(34.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끔 있었다'는 3,058명(29.8%), '보통' 2,196명(21.4%), '자주 있었다' 1,017명(9.9%), '매우 많이 있었다' 456명(4.4%)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 재학생 중 65.5%는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우울 및 무기력에 대한 경험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다'의 응답이 27.9%로 남학생의 4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무기력 경험의 빈도에 대한 '가끔 있었다', '보통',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 응답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우울/무기력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의 응답 비율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예술대학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가끔 있었다'의 응답 비율은 의과대학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은 예술대학이 24.3%, '자주 있었다'는 생활과학대학 1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매우 많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디자인·건축융합대학 5.8%, 인문대학과 예술대학 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표 26>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구분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보통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	전체
성별	남	2,159 (40.7)	1,423 (26.8)	1,119 (21.1)	394 (7.4)	209 (3.9)	5,304 (100)
	여	1,385 (27.9)	1,635 (32.9)	1,077 (21.7)	623 (12.5)	247 (5.0)	4,967 (100)
학년	1학년	872 (37.8)	718 (31.1)	421 (18.3)	213 (9.2)	82 (3.6)	2,306 (100)
	2학년	890 (35.5)	759 (30.3)	520 (20.8)	234 (9.3)	101 (4.0)	2,504 (100)
	3학년	893 (33.9)	804 (30.5)	562 (21.3)	255 (9.7)	121 (4.6)	2,635 (100)
	4학년	877 (31.5)	763 (27.4)	683 (24.6)	310 (11.2)	147 (5.3)	2,780 (100)
	5학년	12 (26.1)	14 (30.4)	10 (21.7)	5 (10.9)	5 (10.9)	46 (100)
단과대학	경영대학	386 (32.5)	336 (28.3)	285 (24.0)	136 (11.4)	46 (3.9)	1,189 (100)
	공과대학	1,396 (40.0)	1,006 (28.8)	694 (19.9)	265 (7.6)	133 (3.8)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30 (29.9)	233 (30.3)	165 (21.4)	97 (12.6)	45 (5.8)	770 (100)
	사회과학대학	368 (33.9)	332 (30.5)	230 (21.2)	113 (10.4)	44 (4.0)	1,087 (100)
	생활과학대학	215 (28.8)	221 (29.6)	179 (24.0)	96 (12.9)	35 (4.7)	746 (100)
	예술대학	110 (29.0)	108 (28.5)	92 (24.3)	48 (12.7)	21 (5.5)	379 (100)
	의과대학	163 (33.5)	172 (35.3)	76 (15.6)	54 (11.1)	22 (4.5)	487 (100)
	인문대학	348 (29.5)	360 (30.5)	275 (23.3)	131 (11.1)	65 (5.5)	1,179 (100)
	자연과학대학	328 (34.9)	290 (30.9)	200 (21.3)	77 (8.2)	45 (4.8)	940 (100)
<b>전체</b>		<b>3,544 (34.5)</b>	<b>3,058 (29.8)</b>	<b>2,196 (21.4)</b>	<b>1,017 (9.9)</b>	<b>456 (4.4)</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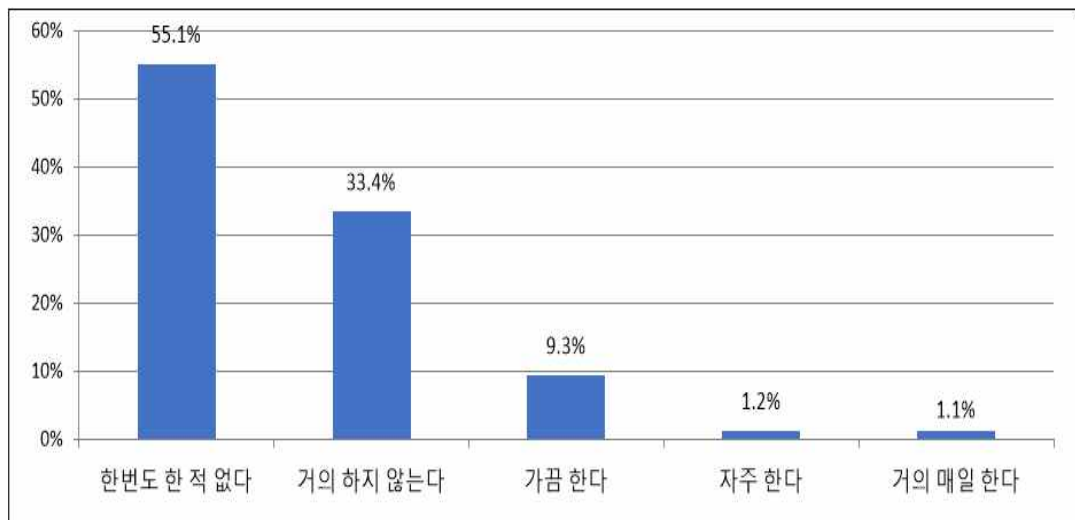
### 3)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재학생들이 현재까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7>에 나타나 있다.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5,657명(55.1%)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3,428명(33.4%), ‘가끔 한다’ 956명(9.3%) ‘자주 한다’ 120명(1.2%), ‘거의 매일 한다’ 110명(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의 대부분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전혀 없지만, 현재까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재학생은 11.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은 남학생이 62.8%로 여학생의 46.8%보다 높게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다. 또한 현재까지 자살 충동을 경험한 남학생은 8.0%, 여학생은 15.4%로 나타나 이 또한 성별 간 차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 충동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학년이 57.7%로 가장 높았다. 현재까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학년 10.9%, 2학년 9.4%, 3학년 11.5%, 4학년 14.0%로 4학년이 가장 높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은 남학생의 비중이 더 높은 공과대학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비중이 다소 높은 예술대학 40.4%, 생활과학대학은 49.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29>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표 27>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구분		한번도 한 적 없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전체
성별	남	3,332 (62.8)	1,547 (29.2)	320 (6.0)	43 (0.8)	62 (1.2)	5,304 (100)
	여	2,325 (46.8)	1,881 (37.9)	636 (12.8)	77 (1.6)	48 (1.0)	4,967 (100)
학년	1학년	1,300 (56.4)	757 (32.8)	200 (8.7)	27 (1.2)	22 (1.0)	2,306 (100)
	2학년	1,446 (57.7)	825 (32.9)	190 (7.6)	24 (1.0)	19 (0.8)	2,504 (100)
	3학년	1,442 (54.7)	889 (33.7)	245 (9.3)	34 (1.3)	25 (0.9)	2,635 (100)
	4학년	1,447 (52.1)	941 (33.8)	315 (11.3)	34 (1.2)	43 (1.5)	2,780 (100)
	5학년	22 (47.8)	16 (34.8)	6 (13.0)	1 (2.2)	1 (2.2)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643 (54.1)	405 (34.1)	110 (9.3)	17 (1.4)	14 (1.2)	1,189 (100)
	공과대학	2,132 (61.0)	1,067 (30.5)	237 (6.8)	30 (0.9)	28 (0.8)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401 (52.1)	245 (31.8)	102 (13.2)	9 (1.2)	13 (1.7)	770 (100)
	사회과학대학	610 (56.1)	358 (32.9)	102 (9.4)	11 (1.0)	6 (0.6)	1,087 (100)
	생활과학대학	367 (49.2)	277 (37.1)	81 (10.9)	9 (1.2)	12 (1.6)	746 (100)
	예술대학	153 (40.4)	158 (41.7)	62 (16.4)	4 (1.1)	2 (0.5)	379 (100)
	의과대학	254 (52.2)	176 (36.1)	43 (8.8)	8 (1.6)	6 (1.2)	487 (100)
	인문대학	576 (48.9)	423 (35.9)	142 (12.0)	21 (1.8)	17 (1.4)	1,179 (100)
	자연과학대학	521 (55.4)	319 (33.9)	77 (8.2)	11 (1.2)	12 (1.3)	940 (100)
<b>전체</b>		<b>5,657 (55.1)</b>	<b>3,428 (33.4)</b>	<b>956 (9.3)</b>	<b>120 (1.2)</b>	<b>110 (1.1)</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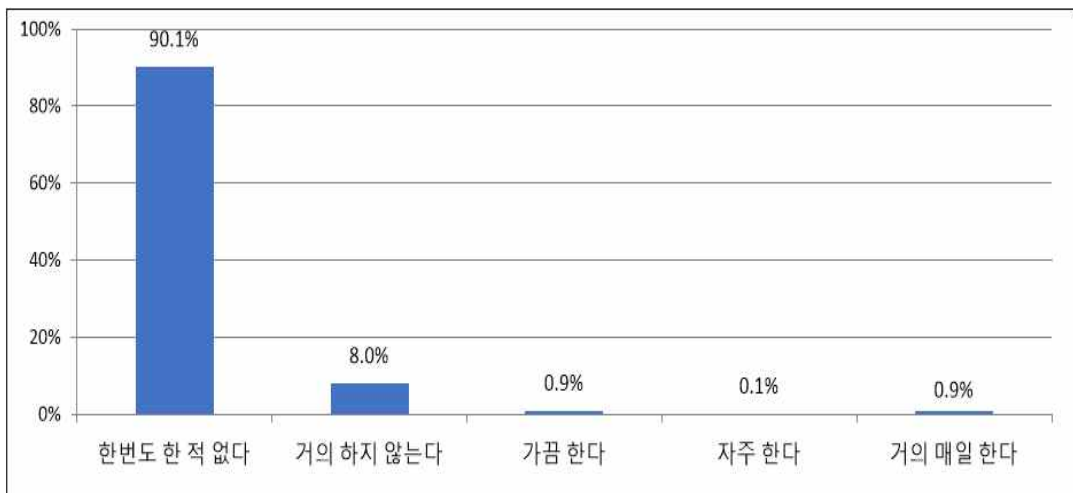
#### 4) 자살 시도 경험

재학생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8>에 나타나 있다.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9,255명(90.1%)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819명(8.0%), ‘거의 매일 한다’ 95명(0.9%), ‘가끔 한다’ 88명(0.9%) ‘자주 한다’ 14명(0.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의 대부분은 자살 시도를 하지 않지만, 재학생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살 시도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은 남학생이 90.4%, 여학생이 89.8%로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2.4%, 여학생이 1.5%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높았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한 번도 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92.1%로 가장 높았고, 3학년은 89.8%, 4학년은 87.8%로 고학년이 될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 시도에 대해서는 1학년 1.6%, 2학년 1.4%, 3학년 2.2%, 4학년 2.3%로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은 자연과학대학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대학이 82.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는 경영대학이 3.2%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 1.0%, 생활과학대학 1.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0> 자살 시도 경험

<표 28> 자살 시도 경험

구분		한번도 한 적 없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매일 한다	전체
성별	남	4,795 (90.4)	388 (7.3)	51 (1.0)	9 (0.2)	61 (1.2)	5,304 (100)
	여	4,460 (89.8)	431 (8.7)	37 (0.7)	5 (0.1)	34 (0.7)	4,967 (100)
학년	1학년	2,102 (91.2)	167 (7.2)	18 (0.8)	3 (0.1)	16 (0.7)	2,306 (100)
	2학년	2,307 (92.1)	163 (6.5)	15 (0.6)	0 (0.0)	19 (0.8)	2,504 (100)
	3학년	2,367 (89.8)	211 (8.0)	18 (0.7)	7 (0.3)	32 (1.2)	2,635 (100)
	4학년	2,441 (87.8)	274 (9.9)	35 (1.3)	4 (0.1)	26 (0.9)	2,780 (100)
	5학년	38 (82.6)	4 (8.7)	2 (4.3)	0 (0.0)	2 (4.3)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1,050 (88.3)	102 (8.6)	20 (1.7)	3 (0.3)	14 (1.2)	1,189 (100)
	공과대학	3,180 (91.0)	249 (7.1)	27 (0.8)	4 (0.1)	34 (1.0)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694 (90.1)	60 (7.8)	7 (0.9)	0 (0.0)	9 (1.2)	770 (100)
	사회과학대학	997 (91.7)	79 (7.3)	7 (0.6)	1 (0.1)	3 (0.3)	1,087 (100)
	생활과학대학	679 (91.0)	56 (7.5)	5 (0.7)	3 (0.4)	3 (0.4)	746 (100)
	예술대학	314 (82.8)	57 (15.0)	7 (1.8)	0 (0.0)	1 (0.3)	379 (100)
	의과대학	442 (90.8)	34 (7.0)	2 (0.4)	0 (0.0)	9 (1.8)	487 (100)
	인문대학	1,040 (88.2)	116 (9.8)	8 (0.7)	2 (0.2)	13 (1.1)	1,179 (100)
	자연과학대학	859 (91.4)	66 (7.0)	5 (0.5)	1 (0.1)	9 (1.0)	940 (100)
<b>전체</b>		<b>9,255 (90.1)</b>	<b>819 (8.0)</b>	<b>88 (0.9)</b>	<b>14 (0.1)</b>	<b>95 (0.9)</b>	<b>10,271 (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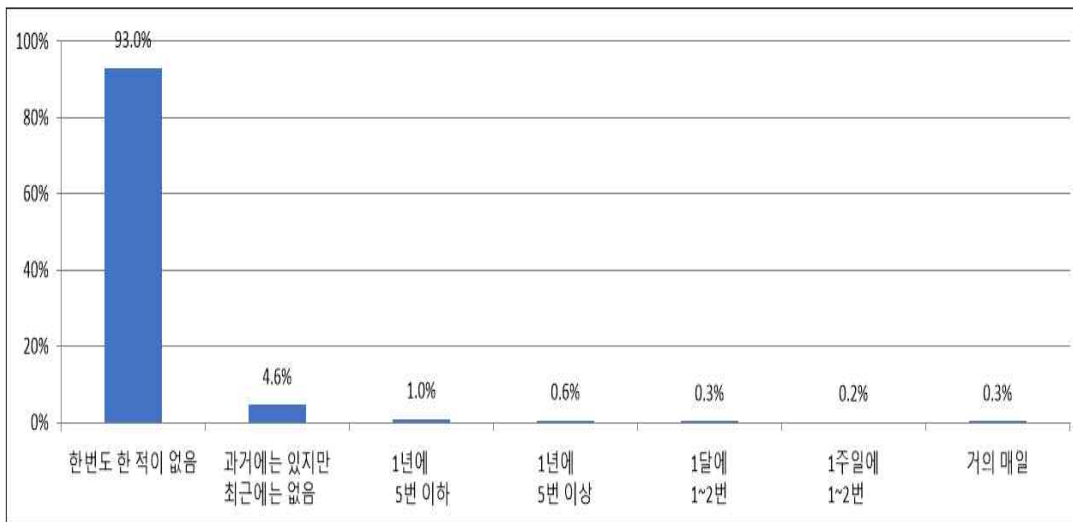
## 5) 자해 경험

재학생들의 자해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9>에 나타나 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은 9,553명(93.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과거에는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이 471명(4.6%), ‘1년에 5번 이하’ 102명(1.0%), ‘1년에 5번 이상’ 58명(0.6%), ‘거의 매일’ 34명(0.3%), ‘1달에 1~2번’ 31명(0.3%) ‘1주일에 1~2번’ 22명(0.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 중 2.4%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해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의 응답은 남학생이 93.3%, 여학생이 92.9%로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3.3%는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했으며, 여학생은 1.5%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년 사이 자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95.0%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은 90.8%로 가장 낮았다.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한 비율은 1학년 1.6%, 2학년 1.3%, 3학년 2.5%, 4학년 3.7%로, 4학년이 가장 높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의 응답은 의과대학이 9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대학이 8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한 비율은 경영대학이 4.3%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 1.4%, 예술대학 1.6%, 자연과학대학 1.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31> 자해 경험



<표 29> 자해 경험

구분		한번도 한 적 없음	과거에는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	1년에 5번 이하	1년에 5번 이상	1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거의매일	전체
성별	남	4,951 (93.3)	182 (3.4)	67 (1.3)	41 (0.8)	21 (0.4)	14 (0.3)	28 (0.5)	5,304 (100)
	여	4,602 (92.9)	289 (5.8)	35 (0.7)	17 (0.3)	10 (0.2)	8 (0.2)	6 (0.1)	4,953 (100)
학년	1학년	2,165 (93.9)	103 (4.5)	16 (0.7)	10 (0.4)	3 (0.1)	2 (0.1)	7 (0.3)	2,306 (100)
	2학년	2,378 (95.0)	92 (3.7)	16 (0.6)	7 (0.3)	5 (0.2)	2 (0.1)	4 (0.2)	2,504 (100)
	3학년	2,447 (92.9)	120 (4.6)	30 (1.1)	14 (0.5)	11 (0.4)	5 (0.2)	8 (0.3)	2,635 (100)
	4학년	2,524 (90.8)	154 (5.5)	38 (1.4)	26 (0.9)	11 (0.4)	13 (0.5)	14 (0.5)	2,780 (100)
	5학년	39 (84.8)	2 (4.3)	2 (4.3)	1 (2.2)	1 (2.2)	0 (0.0)	1 (2.2)	46 (100.0 )
단과 대학	경영대학	1,088 (91.5)	50 (4.2)	19 (1.6)	12 (1.0)	8 (0.7)	5 (0.4)	7 (0.6)	1,189 (100)
	공과대학	3,287 (94.1)	117 (3.3)	36 (1.0)	25 (0.7)	11 (0.3)	9 (0.3)	9 (0.3)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709 (92.1)	45 (5.8)	7 (0.9)	3 (0.4)	2 (0.3)	1 (0.1)	3 (0.4)	770 (100)
	사회과학 대학	1,021 (93.9)	51 (4.7)	7 (0.6)	1 (0.1)	1 (0.1)	2 (0.2)	4 (0.4)	1,087 (100)
	생활과학 대학	700 (93.8)	35 (4.7)	7 (0.9)	1 (0.1)	1 (0.1)	0 (0.0)	2 (0.3)	746 (100)
	예술대학	331 (87.3)	42 (11.1)	1 (0.3)	3 (0.8)	2 (0.5)	0 (0.0)	0 (0.0)	379 (100)
	의과대학	462 (94.9)	13 (2.7)	3 (0.6)	5 (1.0)	1 (0.2)	2 (0.4)	1 (0.2)	487 (100)
	인문대학	1,075 (91.2)	75 (6.4)	15 (1.3)	6 (0.5)	1 (0.1)	3 (0.3)	4 (0.3)	1,179 (100)
	자연과학 대학	880 (93.6)	43 (4.6)	7 (0.7)	2 (0.2)	4 (0.4)	0 (0.0)	4 (0.4)	940 (100)
<b>전체</b>	<b>9,553 (93.0)</b>	<b>471 (4.6)</b>	<b>102 (1.0)</b>	<b>58 (0.6)</b>	<b>31 (0.3)</b>	<b>22 (0.2)</b>	<b>34 (0.3)</b>	<b>10,271 (100)</b>	

## 5. 진로심리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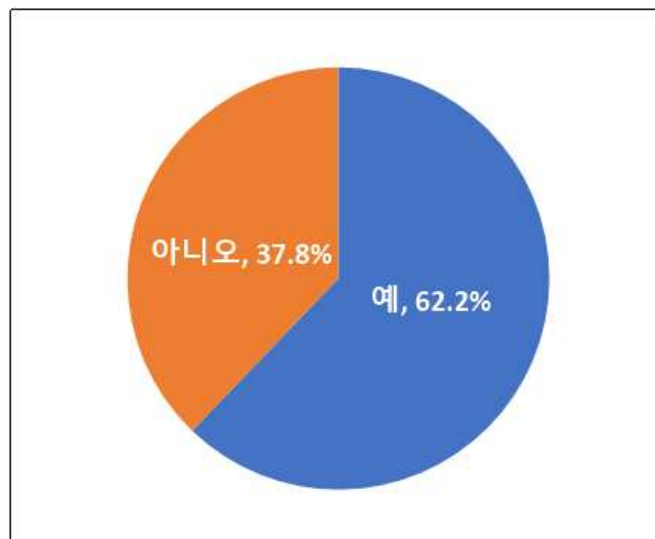
### 1)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재학생들이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예’에 대한 답변으로 6,388명(62.2%), 모르고 있다는 ‘아니오’가 3,883명(37.8%)으로, 재학생들의 과반수가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67.6%, 남학생은 57.1%가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51.4%가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르는 학생들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1학년들 대상으로 한 센터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사회과학대학 69.1%, 생활과학대학 68.1%, 인문대학 67.8%, 의과대학 65.5%, 자연과학대학 60.2%, 공과대학 60.1%로 나타난 반면, 경영대학 58.2%, 디자인·건축융합대학 57.1%, 예술대학 56.5%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로 응답하여 해당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림 32>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표 30>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구분		예(알고 있다)	아니오(모른다)	전체
성별	남	3,030 (57.1)	2,274 (42.9)	5,304 (100.0)
	여	3,358 (67.6)	1,609 (32.4)	4,967 (100.0)
학년	1학년	1,185 (51.4)	1,121 (48.6)	2,306 (100.0)
	2학년	1,631 (65.1)	873 (34.9)	2,504 (100.0)
	3학년	1,769 (67.1)	866 (32.9)	2,635 (100.0)
	4학년	1,776 (63.9)	1,004 (36.1)	2,780 (100.0)
	5학년	27 (58.7)	19 (41.3)	46 (100.0)
단과대학	경영대학	692 (58.2)	497 (41.8)	1,189 (100.0)
	공과대학	2,099 (60.1)	1,395 (39.9)	3,494 (100.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440 (57.1)	330 (42.9)	770 (100.0)
	사회과학대학	751 (69.1)	336 (30.9)	1,087 (100.0)
	생활과학대학	508 (68.1)	238 (31.9)	746 (100.0)
	예술대학	214 (56.5)	165 (43.5)	379 (100.0)
	의과대학	319 (65.5)	168 (34.5)	487 (100.0)
	인문대학	799 (67.8)	380 (32.2)	1,179 (100.0)
	자연과학대학	566 (60.2)	374 (39.8)	940 (100.0)
<b>전체</b>		<b>6,388 (62.2)</b>	<b>3,883 (37.8)</b>	<b>10,271 (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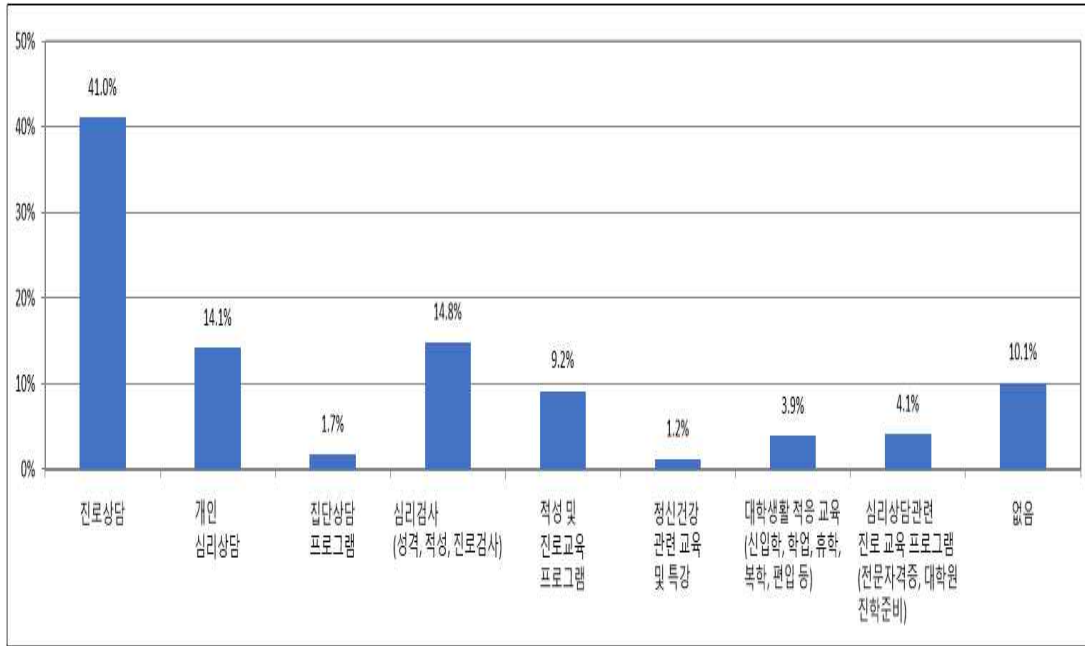
## 2)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진로상담’이 4,213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1,520명(14.8%), ‘개인 심리상담’ 1,450명(14.1%), ‘없음’ 1,039명(10.1%), ‘적성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 941명(9.2%), ‘심리상담 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전문 자격증, 대학원 진학 준비)’ 418명(4.1%), ‘대학 생활 적응 교육(신입학, 학업, 휴학, 복학, 편입 등)’ 396명(3.9%), ‘집단상담 프로그램’ 175명(1.7%),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특강’ 119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진로상담’, 45.7%, ‘없음’ 13.4%, ‘개인 심리상담’ 12.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진로상담’ 36.0%,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20.0%, ‘개인 심리상담’ 15.5%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모든 학년의 경우 ‘진로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재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과대학에서 ‘진로상담’을 가장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공과대학이 47.8%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은 2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개인 심리상담’에서는 26.7%로 타 단과대학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없음’에는 ‘예술대학’이 13.2%, 디자인·건축융합대학 12.2%로 타 단과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표 31>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구분		진로 상담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검사 (성격적성 진로검사)	적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 관련교육 및 특강	대학생활 적응교육	심리상담 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	없음	전체
성별	남	2,424 (45.7)	680 (12.8)	111 (2.1)	529 (10.0)	409 (7.7)	55 (1.0)	232 (4.4)	154 (2.9)	710 (13.4)	5,304 (100)
	여	1,789 (36.0)	770 (15.5)	64 (1.3)	991 (20.0)	532 (10.7)	64 (1.3)	164 (3.3)	264 (5.3)	329 (6.6)	4,967 (100)
학년	1학년	926 (40.2)	325 (14.1)	36 (1.6)	350 (15.2)	166 (7.2)	23 (1.0)	134 (5.8)	77 (3.3)	269 (11.7)	2,306 (100)
	2학년	1,109 (44.3)	333 (13.3)	32 (1.3)	358 (14.3)	242 (9.7)	22 (0.9)	91 (3.6)	94 (3.8)	223 (8.9)	2,504 (100)
	3학년	1,099 (41.7)	351 (13.3)	50 (1.9)	379 (14.4)	264 (10.0)	32 (1.2)	71 (2.7)	124 (4.7)	265 (10.1)	2,635 (100)
	4학년	1,067 (38.4)	432 (15.5)	55 (2.0)	426 (15.3)	267 (9.6)	40 (1.4)	100 (3.6)	123 (4.4)	270 (9.7)	2,780 (100)
	5학년	12 (26.1)	9 (19.6)	2 (4.3)	7 (15.2)	2 (4.3)	2 (4.3)	0 (0.0)	0 (0.0)	12 (26.1)	46 (100)
단과 대학	경영대학	466 (39.2)	165 (13.9)	31 (2.6)	169 (14.2)	117 (9.8)	25 (2.1)	53 (4.5)	43 (3.6)	120 (10.1)	1,189 (100)
	공과대학	1,670 (47.8)	404 (11.6)	64 (1.8)	387 (11.1)	314 (9.0)	26 (0.7)	148 (4.2)	99 (2.8)	382 (10.9)	3,494 (100)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284 (36.9)	130 (16.9)	12 (1.6)	137 (17.8)	53 (6.9)	12 (1.6)	19 (2.5)	29 (3.8)	94 (12.2)	770 (100)
	사회과학대학	430 (39.6)	155 (14.3)	13 (1.2)	191 (17.6)	109 (10.0)	14 (1.3)	36 (3.3)	52 (4.8)	87 (8.0)	1,087 (100)
	생활과학대학	302 (40.5)	108 (14.5)	14 (1.9)	133 (17.8)	68 (9.1)	3 (0.4)	23 (3.1)	47 (6.3)	48 (6.4)	746 (100)
	예술대학	114 (30.1)	62 (16.4)	4 (1.1)	80 (21.1)	26 (6.9)	5 (1.3)	16 (4.2)	22 (5.8)	50 (13.2)	379 (100)
	의과대학	141 (29.0)	130 (26.7)	9 (1.8)	90 (18.5)	33 (6.8)	13 (2.7)	21 (4.3)	13 (2.7)	37 (7.6)	487 (100)
	인문대학	438 (37.2)	184 (15.6)	18 (1.5)	190 (16.1)	120 (10.2)	9 (0.8)	50 (4.2)	49 (4.2)	121 (10.3)	1,179 (100)
	자연과학대학	368 (39.1)	112 (11.9)	10 (1.1)	143 (15.2)	101 (10.7)	12 (1.3)	30 (3.2)	64 (6.8)	100 (10.6)	940 (100)
전체		<b>4,213</b> <b>(41.0)</b>	<b>1,450</b> <b>(14.1)</b>	<b>175</b> <b>(1.7)</b>	<b>1,520</b> <b>(14.8)</b>	<b>941</b> <b>(9.2)</b>	<b>119</b> <b>(1.2)</b>	<b>396</b> <b>(3.9)</b>	<b>418</b> <b>(4.1)</b>	<b>1,039</b> <b>(10.1)</b>	<b>10,271</b> <b>(100)</b>

## IV. 종합

본 조사는 2021학년도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센터에서 작성하여 매년 사용해 온 설문지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학생들을 위해 수정·보완된 실태조사 설문지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2월 30일~ 2022년 1월 3일 4일간 재학생 UWINS 로그인 시 팝업창 안내를 통해 실시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1,185명으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사항

#### ■ 소속 단과대학, 성별, 학년

‘공과대학’이 3,494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영대학’ 1,189명(11.6%), ‘인문대학’ 1,179명(11.5%), ‘사회과학대학’ 1,087명(10.6%), ‘자연과학대학’ 94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은 770명(7.5%), ‘생활과학대학’은 746명(7.3%), ‘의과대학’은 487명(4.7%)이었으며, ‘예술대학’은 379명(3.7%)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5,304명(51.6%), 여학생이 4,967명(48.4%)으로, 남학생이 3.2%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52.0%인 2,757명이 ‘공과대학’ 소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대학’ 10.7%, ‘자연과학대학’ 9.4%, ‘사회과학대학’ 8.3%, ‘인문대학’ 7.1%, ‘디자인·건축융합대학’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인문대학’이 803명 16.2%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학’ 14.8%, ‘사회과학대학’, 13.1%, ‘경영대학’ 12.5%, ‘생활과학대학’ 12.3%, ‘디자인·건축융합대학’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5학년은 모두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소속으로 소수의 인원이 분포하고 있다. ‘4학년’ 2,780명(27.1%), ‘3학년’ 2,635명(25.7%), ‘2학년’ 2,504명(24.4%), ‘1학년’ 2,306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디자인·건축융합대학의 46명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2. 대학 생활 및 학업

### ■ 울산대학교 재학 만족도

울산대학교 재학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만족' 4,265명(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3,039명(29.6%), '매우 만족' 2,660명(25.9%), '대체로 불만족' 250명(2.4%), '매우 불만족' 57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은 본교 재학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67.6%, 여학생의 67.2%가 울산대학교 재학에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매우 만족'이 29.6%로 여학생의 21.9%에 비해 7.7%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만족'이 45.3%로 남학생의 38.0%보다 7.3% 높았다.

### ■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전체 10,271명 중 3,123명(30.4%)이 '취업'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적성 및 진로' 2,635명(25.7%), '학업 문제' 2,313명(22.5%), '학교적응문제' 557명(5.4%), '기타' 504명(4.9%), '경제 문제' 483명(4.7%), '대인관계' 278명(2.7%), '성적 문제' 198명(1.9%), '가치관 문제' 81명(0.8%), '이성관계' 76명(0.7%), '가족 문제' 2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취업', '적성 및 진로', '학업 문제'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 남학생,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대학 생활 어려움 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전체 10,271명 중 3,027명(29.5%)이 '친구'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지도교수' 2,368명(23.1%), '부모님' 1,902명(18.5%), '전문상담사(진로심리상담센터)' 1,143명(11.1%), '선배' 681명(6.6%), '기타' 581명(5.7%), '형제/자매' 323명(3.1%), '이성친구(애인)' 246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 '지도교수'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에서는 남학생이 30.5%로 여학생의 28.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지도교수’에서는 여학생이 23.3%로 남학생의 22.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 ■ 전공 만족

‘대체로 만족’이 4,434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3,080명(30.0%), ‘매우 만족’ 2,226명(21.7%), ‘대체로 불만족’ 443명(4.3%), ‘매우 불만족’ 88명(0.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의 64.9%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매우 만족’이 25.1%로 여학생 18.0%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여학생은 ‘대체로 만족’이 46.5%로 남학생의 40.0%에 비해 약간 높았다.

## ■ 전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전공이 불만족한 이유로는 ‘기타’ 3,502명(34.1%)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 전망이 불투명함’ 1,920명(18.7%), ‘학업 능력의 부족’ 1,877명(18.3%), ‘적성에 맞지 않음’ 1,494명(14.5%), ‘교과 내용이 기대와 다름’ 1,029명(10.0%), ‘교수진에 대한 불만’ 449명(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기타’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의 높은 응답으로는 남학생은 ‘학업 능력의 부족’ 17.6%, 여학생은 ‘취업 전망이 불투명함’ 21.4%를 전공이 불만족한 이유로 응답하였다.

## ■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가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942명(28.6%)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 2,658명(25.9%),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 2,288명(22.3%), ‘지도교수의 친절한 지도’ 713명(6.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연결’ 622명(6.1%), ‘부족한 기초 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 554명(5.4%), ‘기타’ 494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8%, 26.4%로 두 항목 간 뚜

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지도’, ‘학과 친구 및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6%, 25.4%로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 여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취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친구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의 응답이 5,632명(54.8%)으로 과반수가 넘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가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의 응답은 2,982명(29.0%),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 692명(6.7%), ‘친구가 전혀 없다’ 547명(5.3%), ‘기타’ 418명(4.1%)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친구 관계는 대인관계 접점이 넓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은 대학 친구들과 원활한 교류와 소통으로 관계 형성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현재의 친구 관계에 만족한다’ 56.7%, ‘친구가 있지만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 30.0%의 응답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과 욕구가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 휴학 의사

휴학할 의사가 ‘없다’ 7,362명(71.7%)으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휴학할 의사가 ‘있다’가 2,909명(28.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 10명 중 7명은 휴학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는, 휴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34.2%로 남학생의 22.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학에 대한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 휴학하고 싶은 이유

‘기타’라고 응답한 인원이 3,245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 2,855명(27.8%), ‘없음’ 1,951명(19.0%), ‘학업의 어려움’ 657명(6.4%), ‘대학적응의 어려움’ 525명(5.1%), ‘해외 어학연수’ 460명

(4.5%), ‘경제적 이유’ 255명(2.5%),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준비’ 249명(2.4%), ‘창업’ 74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기타’, 여학생은 ‘취업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에서 가장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자격증, 토익, 인턴십 등)’는 여학생이 31.5%로 남학생의 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 ■ 편입 고려 여부

‘없다’가 7,333명(71.4%)으로 ‘있다’의 응답 2,938명(28.6%)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 10명 중 7명은 편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편입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의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74.3%로 여학생의 68.3%보다 높게 나타났다.

## ■ 편입 고려 이유

‘기타’ 항목이 3,712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없음’ 2,220명(21.6%),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998명(9.7%), ‘취업 전망’ 992명(9.7%), ‘전공변경’ 805명(7.8%), ‘면학 분위기’ 464명(4.5%), ‘교과과정’ 390명(3.8%), ‘집과의 거리’ 261명(2.5%), ‘대학 서비스’ 220명(2.1%), ‘교수님에 대한 불만’ 148명(1.4%), ‘인간관계’ 6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기타’, ‘없음’의 응답 다음으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취업 전망’ ‘전공변경’이 편입의 이유로 많이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 ■ 자퇴 고려 여부

자퇴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의 응답이 8,986명(87.5%)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 ‘있다’의 응답은 1,285명(12.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재학생 10명 중 2명은 자퇴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과 학년 모두 자퇴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가 현저히 높았으며, 1학년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학년은 85.8%로 가장 낮았다.

## ■ 자퇴 고려 이유

‘기타’가 4,826명(47.0%)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없음’ 2,660명(25.9%), ‘학업의 어려움’ 672명(6.5%), ‘취업 및 창업’ 464명(4.5%), ‘타 대학 입학 또는 편입준비’ 444명(4.3%), ‘대학적응의 어려움’ 416명(4.1%),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75명(1.7%), ‘경제의 어려움’ 143명(1.4%), ‘대학 서비스’ 126명(1.2%), ‘교과과정’ 120명(1.2%), ‘집과의 거리’ 116명(1.1%), ‘교수님에 대한 불만’ 109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퇴를 고려한 이유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기타’, ‘없음’, ‘학업의 어려움’, ‘취업 및 창업’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 ■ 교수님께 가장 기대하는 것

재학생 중 3,453명(33.6%)은 교수님께 ‘충실하고 알찬 강의’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2,319명(22.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1,688명(16.4%),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 787명(7.7%), ‘기타’ 588명(5.7%), ‘공정한 평가’ 568명(5.5%), ‘학생과 인간적인 관계’ 487명(4.7%) ‘학과적응 및 개인적인 생활문제의 조언과 지도’ 381명(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충실하고 알찬 강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34.9%로 남학생 32.4%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공 및 학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25.2%,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도’ 18.4% 항목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도교수와의 상담 횟수

지도교수와 상담을 ‘연 1회 미만’으로 한다는 응답이 4,450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학기별 1회’ 2,723명(26.5%), ‘연 1회’ 2,454명(23.9%), ‘학기별 2-3회’ 514명(5.0%), ‘월 1회 이상’ 130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 1회 미만’의 응답에서 남학생이 44.6%로 여학생 42.0%보다 높은 비율을, ‘학기 별 1회’의 응답에서는 여학생이 28.6%로 남학생의 24.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4,09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체로 만족’이 3,358명(32.7%), ‘매우 만족’ 2,334명(22.7%), ‘대체로 불만족’ 290명(2.8%), ‘매우 불만족’ 198명(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학생들의 55.4%가 지도교수와의 상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은 54.8%, 여학생은 56.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지도교수와의 상담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매우 만족’은 남학생이 24.1%로 여학생의 2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만족’은 여학생이 34.8%로 남학생의 30.7%보다 높았다.

## 3. 진로와 취업

### ■ 졸업 후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직업의 안정성’이 3,301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흥미나 적성’ 2,552명(24.8%), ‘근무환경’ 1,175명(11.4%), ‘본인의 발전 가능성’ 1,171명(11.4%), ‘수입’ 948명(9.2%), ‘사회적 명성’ 545명(5.3%), ‘기타’ 462명(4.5%), ‘사회적 기여’ 117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흥미나 적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의 안정성’은 여학생이 34.9%로 남학생 29.5%보다 높았으며, ‘흥미와 적성’ 또한 여학생이 27.0%로 남학생 2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이 직업에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와 적성과 흥미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

졸업 후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미정’이 1,213명(11.8%)으로 그다음  
을 기록했다. ‘대학원 진학’ 708명(6.9%), ‘프리랜서’ 619명(6.0%), ‘창업’ 514명  
(5.0%), ‘편입’ 54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각각 68.5%, 71.0%로 ‘취업’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은 남학생 6.3%, 여학생 3.6%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

진로 분야와 전공의 관련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의 응답이 3,265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있다’의 응답도 3,236명(31.5%)이었다. ‘보통’은 2,480명  
(24.1%), ‘거의 없다’ 798명(7.8%), ‘전혀 없다’ 492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3.3%로 과반수가 희망 진로와 전공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  
율이 남학생은 60.7%, 여학생은 66.1%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보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희망 진로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

재학생들의 2,414명(23.5%)은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기  
업’ 1,658명(16.1%),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570명(15.3%), ‘중견기  
업’ 1,496명(14.6%), ‘공무원’ 1,182명(11.5%), ‘기타’ 1,041명(10.1%), ‘중소기업’  
472명(4.6%), ‘외국계 기업’ 438명(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대기업’ 희망이 27.0%, ‘공기업’ 17.1%, ‘중견기업’  
16.3%,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2.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  
은 ‘대기업’ 19.8%, ‘전공 관련이면 규모·업종 상관없음’ 18.1%, ‘공기업’ 15.1%,  
공무원’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재학생들의 2,855명(27.8%)은 취업 희망 지역으로 어디든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울산’ 2,685명(26.1%), ‘수도권’ 2,535명(24.7%), ‘경상권’ 1,433명(14.0%), ‘타지역’ 412명(4.0%), ‘해외’ 351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상관없음’ 29.6%, ‘울산’ 29.1%, ‘수도권’ 19.5%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수도권’ 30.2%, ‘상관없음’ 25.9%, ‘울산’ 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수도권 취업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 취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

‘자격증’이 2,480명(24.1%)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어학 능력’ 1,923명(18.7%), ‘전공 실력’ 1,585명(15.4%), ‘학점’ 1,316명(12.8%), ‘면접기술’ 1,251명(12.2%), ‘자신감 및 적극성’ 836명(8.1%) ‘기타’ 727명(7.1%), ‘대인관계 기술’ 153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격증’, ‘어학 능력’, ‘학점’이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자격증’의 응답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 능력’에서는 여학생의 응답 비율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 ■ 진로·취업 준비를 위해 본교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 2,332명(22.7%), ‘적성 및 진로상담’이 2,214명(21.6%)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 1,502명(14.6%), ‘기타’ 963명(9.4%), ‘취업알선 및 추천’ 888명(8.6%), ‘해외연수·인턴십’ 760명(7.4%), ‘외국어 및 자격증’ 733명(7.1%), ‘채용정보 제공’ 726명(7.1%), ‘인적성 검사 확대 실시’ 153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적성 및 진로상담’이 24.4%로 진로·취업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직장체험기회(인턴십 등)확대’를 25.8%로 가장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기소개서 및 면접지도’에서는 여학생이 16.6%로 남학생의 12.8%보다 조금 더 높아 여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 4. 정신건강

### ■ 최근 3개월간 불안에 대한 경험

재학생들의 3,506명(34.1%)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있었다’고 하였으며, 2,529명(24.6%)은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하였다. ‘보통’과 ‘자주 있었다’는 응답도 각각 20.5%, 14.3%로 나타났으며, ‘매우 많이 있었다’는 663명(6.5%)이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불안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불안 경험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고,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 ■ 최근 3개월간 우울/무기력에 대한 경험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다’의 응답이 3,544명(34.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끔 있었다’는 3,058명(29.8%), ‘보통’ 2,196명(21.4%), ‘자주 있었다’ 1,017명(9.9%), ‘매우 많이 있었다’ 456명(4.4%)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 재학생 중 65.5%는 최근 3개월간 우울 및 무기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우울 및 무기력에 대한 경험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최근 3개월 동안 우울 및 무기력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다’의 응답이 27.9%로 남학생의 4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무기력 경험의 빈도에 대한 ‘가끔 있었다’, ‘보통’,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 응답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5,657명(55.1%)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3,428명(33.4%), ‘가끔 한다’ 956명(9.3%) ‘자주 한다’



120명(1.2%), ‘거의 매일 한다’ 110명(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의 대부분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전혀 없지만, 현재까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재학생은 11.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서는, 현재까지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은 남학생이 62.8%로 여학생의 46.8%보다 높게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줬다. 또한 현재까지 자살 충동을 경험한 남학생은 8.0%, 여학생은 15.4%로 나타나 이 또한 성별 간 차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 충동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 자살 시도 경험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9,255명(90.1%)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819명(8.0%), ‘거의 매일 한다’ 95명(0.9%), ‘가끔 한다’ 88명(0.9%) ‘자주 한다’ 14명(0.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의 대부분은 자살 시도를 하지 않지만, 재학생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살 시도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한 적 없다’의 응답은 남학생이 90.4%, 여학생이 89.8%로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2.4%, 여학생이 1.5%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남학생이 조금 높았다.

## ■ 자해 경험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의 응답이 가장 많은 9,553명(93.0%)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과거에는 있지만 최근에는 없음’이 471명(4.6%), ‘1년에 5번 이하’ 102명(1.0%), ‘1년에 5번 이상’ 58명(0.6%), ‘거의 매일’ 34명(0.3%), ‘1달에 1~2번’ 31명(0.3%) ‘1주일에 1~2번’ 22명(0.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재학생 중 2.4%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자해 경험 여부에 대해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의 응답은 남학생이 93.3%, 여학생이 92.9%로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3.3%는 1년 사이에 자해를 한 번 이상은 경험했으며, 여학생은 1.5%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년 사이 자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진로심리상담센터

### ■ 진로심리상담센터 인지 여부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예’에 대한 답변으로 6,388명(62.2%), 모르고 있다는 ‘아니오’가 3,883명(37.8%)으로, 재학생들의 과반수가 진로심리상담센터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67.6%, 남학생은 57.1%가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진로상담’이 4,213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1,520명(14.8%), ‘개인 심리상담’ 1,450명(14.1%), ‘없음’ 1,039명(10.1%), ‘적성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941명(9.2%), ‘심리상담 관련 진로교육 프로그램(전문 자격증, 대학원 진학 준비)’ 418명(4.1%), ‘대학 생활 적응 교육(신입학, 학업, 휴학, 복학, 편입 등)’ 396명(3.9%), ‘집단상담 프로그램’ 175명(1.7%),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특강’ 119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진로상담’, 45.7%, ‘없음’ 13.4%, ‘개인 심리상담’ 12.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진로상담’ 36.0%, ‘심리검사(성격, 적성, 진로검사)’ 20.0%, ‘개인 심리상담’ 15.5% 순으로 나타났다.

##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울산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학업, 대인관계, 진로탐색과 잠재력 개발 등을 통해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한 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개인심리 및 진로상담

1. 개인상담 상시 신청가능
2. 학교 홈페이지 UWINS 시스템을 통해 신청
3. 신청서 접수→접수상담 일시 예약→접수상담→개인상담자 연결→상담 진행
4. 접수상담 후 상담센터에서 직접 연락

#### 집단상담

1. 집단상담 모집 공고 : 비교과 홈페이지 USTAR에 공지
2. USTAR 모집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 진로탐색 집단, 자기이해 집단, 의사소통 집단, 스트레스 관리 집단

#### 개인심리검사

1. 개인심리검사 상시 신청가능
2. 학교 홈페이지 UWINS 시스템을 통해 신청
3. 개인 또는 단체에 따라 전문 상담자가 적절하게 실시 안내한 후 해석 일정 조정

4.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석상담 진행

\*심리검사 종류: 심리(MMPI, PAI, TCI, SCT, HTP), 진로(Holland, Strong), 성격(MBTI, CST), 학습(MLST, U&I)

• **진로심리상담센터 기타 프로그램**

1. 위기상담
2. 성평등 상담
3. 또래상담 온마인드 프로그램
4. 교육배려자 상담
5. 정신건강, 심리지원 교육 특강
6. 찾아가는 심리검사 프로그램
7. 자살위기 예방교육